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

저 자

조미라, 최효미, 김동훈, 김혜진, 강민권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강 민 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04-3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은 2008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해 2027년 20차 조사까지 계획되어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 제공하는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은 태아기부터 표집하여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초기까지 추적하는 국내 최초의 조사로서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 부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제17차의 본조사와 제5차 심층조사가 수행되는 해입니다. 2008년생 패널아동들은 초등기와 중등기를 거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패널아동, 가구에 적합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본조사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제5차 심층조사는 시의성을 고려해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중학교 2학년 까지의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청소년기에 주목하는 학회들과 협업하였으며, 학술대회에 앞서서는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해 아동패널을 알리고 유저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오랜 기간 아동패널의 주인공으로서 성실히 조사해 참여해 주시는 패널아동과 가구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로 의미 있는 연구를 일구어주시는 사용자분들에게도 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조사환경에서도 한국아동패널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국의 조사원들과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1
I. 사업 및 연구개요	17
1. 사업 및 연구목적	19
2.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20
3. 주요 방법	22
II. 17차년도(2024년) 사업보고	29
1. 17차년도 조사과정	31
2. 17차년도 조사내용	41
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57
III. 16차년도(2023년) 데이터 기초분석	63
1. 16차년도 조사개요	65
2. 아동 특성	68
3. 부모 및 가구 특성	159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93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22
IV.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35
1. 자료 활용 현황	237
2.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241
3. 가중치 산출 및 적용	247

V.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253
1. 분석 개요	255
2. 분석 내용	256
3. 소결	286
참고문헌	289
Abstract	291
부록	293
부록 1. 17차년도(2024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293
부록 2.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동 질문지	294
부록 3. 16차년도(2023년 조사) 보호자 질문지	326
부록 4. 16차년도(2023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351
부록 5.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362
부록 6. 16차년도(2023년 조사) 기관 질문지	373
부록 7. 16차년도(2023년 조사) 유예조사/회고조사 질문지	381



표 목차

〈표 Ⅰ-2- 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21
〈표 Ⅰ-3- 1〉 2024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23
〈표 Ⅰ-3-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26
〈표 Ⅰ-3- 3〉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27
〈표 Ⅱ-1- 1〉 2024년 17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33
〈표 Ⅱ-1- 2〉 2024년 17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내용	33
〈표 Ⅱ-1- 3〉 2024년 17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34
〈표 Ⅱ-1- 4〉 참여정도에 따른 패널가구 구분 및 대응	35
〈표 Ⅱ-1- 5〉 2024년 17차년도 조사진행 과정: 월별 패널가구 접속 등 주요 일정	35
〈표 Ⅱ-1- 6〉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36
〈표 Ⅱ-1- 7〉 2024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38
〈표 Ⅱ-1- 8〉 2024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38
〈표 Ⅱ-1- 9〉 2008~2024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39
〈표 Ⅱ-1-10〉 17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40
〈표 Ⅱ-1-11〉 17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40
〈표 Ⅱ-2- 1〉 17차년도 설문지별 조사의 구성	41
〈표 Ⅱ-2- 2〉 5차 심층조사의 구성	42
〈표 Ⅱ-2- 3〉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44
〈표 Ⅱ-2- 4〉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45
〈표 Ⅱ-2- 5〉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영역	46
〈표 Ⅱ-2- 6〉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49
〈표 Ⅱ-2- 7〉 15~17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51
〈표 Ⅱ-2- 8〉 15~17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53
〈표 Ⅱ-2- 9〉 15~17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54
〈표 Ⅱ-2-10〉 15~17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56
〈표 Ⅱ-3- 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개요 및 추진일정	57
〈표 Ⅱ-3- 2〉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개요 및 추진일정	59
〈표 Ⅱ-3- 3〉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60
〈표 Ⅱ-3- 4〉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61
〈표 Ⅲ-1- 1〉 16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자수 및 비율	66

〈표 III-1- 2〉 16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표 III-2- 1〉 16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68
〈표 III-2- 2〉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식품	70
〈표 III-2- 3〉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음료	72
〈표 III-2- 4〉 아동의 식생활 진단_기타	73
〈표 III-2- 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74
〈표 III-2- 6〉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75
〈표 III-2- 7〉 아동의 수면시간	76
〈표 III-2- 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77
〈표 III-2- 9〉 아동의 책 읽기 시간	79
〈표 III-2-10〉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79
〈표 III-2-11〉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80
〈표 III-2-12〉 아동의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81
〈표 III-2-13〉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시간 ..	82
〈표 III-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여부 및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시간	83
〈표 III-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85
〈표 III-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부모응답	86
〈표 III-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응답	87
〈표 III-2-1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	88
〈표 III-2-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체	90
〈표 III-2-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종교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91
〈표 III-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92
〈표 III-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93
〈표 III-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93
〈표 III-2-24〉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94
〈표 III-2-25〉 아동의 가사 참여 정도	95
〈표 III-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96
〈표 III-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97
〈표 III-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	98
〈표 III-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99

〈표 III-2-30〉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100
〈표 III-2-31〉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101
〈표 III-2-32〉 신체적 자아상	102
〈표 III-2-3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103
〈표 III-2-34〉 체중조절 경험	103
〈표 III-2-35〉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104
〈표 III-2-36〉 아동의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	105
〈표 III-2-37〉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06
〈표 III-2-38〉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06
〈표 III-2-39〉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107
〈표 III-2-40〉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107
〈표 III-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108
〈표 III-2-42〉 아동의 장애 여부	109
〈표 III-2-43〉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110
〈표 III-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110
〈표 III-2-45〉 아동의 학업성취도_1_아동응답	111
〈표 III-2-46〉 아동의 학업성취도_2_아동응답	111
〈표 III-2-47〉 아동의 학업성취도_1_부모응답	112
〈표 III-2-48〉 아동의 학업성취도_2_부모응답	112
〈표 III-2-49〉 학업 스트레스	113
〈표 III-2-50〉 아동의 과목 선호도: 1순위	113
〈표 III-2-51〉 아동의 과목 선호도: 1+2순위	114
〈표 III-2-52〉 자기조절학습	115
〈표 III-2-53〉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116
〈표 III-2-54〉 아동의 자율성	116
〈표 III-2-55〉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117
〈표 III-2-56〉 아동의 우울	118
〈표 III-2-57〉 아동의 공감	119
〈표 III-2-58〉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120
〈표 III-2-59〉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121
〈표 III-2-60〉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122
〈표 III-2-61〉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122
〈표 III-2-62〉 아동의 또래애착	123

〈표 Ⅲ-2-63〉 폭력 피해 경험: 전체	124
〈표 Ⅲ-2-64〉 폭력 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125
〈표 Ⅲ-2-65〉 폭력 가해 경험: 전체	126
〈표 Ⅲ-2-66〉 폭력 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127
〈표 Ⅲ-2-67〉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127
〈표 Ⅲ-2-68〉 아동의 음주 빈도	128
〈표 Ⅲ-2-69〉 아동의 음주 장소(중복응답)	129
〈표 Ⅲ-2-70〉 아동의 주류 구입 경험	130
〈표 Ⅲ-2-71〉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130
〈표 Ⅲ-2-72〉 아동의 흡연일수	131
〈표 Ⅲ-2-73〉 아동의 담배 입수 경로	132
〈표 Ⅲ-2-74〉 아동의 담배 구입 경험	133
〈표 Ⅲ-2-75〉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134
〈표 Ⅲ-2-76〉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135
〈표 Ⅲ-2-77〉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136
〈표 Ⅲ-2-78〉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137
〈표 Ⅲ-2-79〉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138
〈표 Ⅲ-2-80〉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138
〈표 Ⅲ-2-81〉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139
〈표 Ⅲ-2-82〉 기타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140
〈표 Ⅲ-2-83〉 기타 문제행동: 교사 응답	141
〈표 Ⅲ-2-84〉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142
〈표 Ⅲ-2-85〉 DSM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142
〈표 Ⅲ-2-86〉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143
〈표 Ⅲ-2-87〉 DSM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144
〈표 Ⅲ-2-88〉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145
〈표 Ⅲ-2-89〉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145
〈표 Ⅲ-2-90〉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146
〈표 Ⅲ-2-91〉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147
〈표 Ⅲ-2-92〉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148
〈표 Ⅲ-2-93〉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149
〈표 Ⅲ-2-94〉 비속어 사용	150
〈표 Ⅲ-2-95〉 아동의 직업선택조건: 1순위	151

〈표 Ⅲ-2- 96〉 아동의 직업선택조건: 1+2순위	152
〈표 Ⅲ-2- 97〉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152
〈표 Ⅲ-2- 98〉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문항별	154
〈표 Ⅲ-2- 99〉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155
〈표 Ⅲ-2-100〉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155
〈표 Ⅲ-2-101〉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56
〈표 Ⅲ-2-102〉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157
〈표 Ⅲ-2-103〉 아동의 용돈 사용처	158
〈표 Ⅲ-3- 1〉 16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159
〈표 Ⅲ-3- 2〉 부모 연령	160
〈표 Ⅲ-3- 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160
〈표 Ⅲ-3- 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161
〈표 Ⅳ-3- 5〉 부모의 결혼만족도	161
〈표 Ⅲ-3- 6〉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162
〈표 Ⅳ-3- 7〉 부모의 우울	163
〈표 Ⅲ-3- 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64
〈표 Ⅲ-3- 9〉 부모의 삶의 만족도	165
〈표 Ⅲ-3- 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66
〈표 Ⅲ-3- 11〉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67
〈표 Ⅲ-3- 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67
〈표 Ⅲ-3- 13〉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68
〈표 Ⅲ-3- 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169
〈표 Ⅲ-3- 15〉 부모의 장애 유무	170
〈표 Ⅲ-3- 16〉 부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170
〈표 Ⅲ-3- 17〉 모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171
〈표 Ⅲ-3- 18〉 부모의 음주 실태	173
〈표 Ⅲ-3- 19〉 부모의 흡연 실태	173
〈표 Ⅲ-3- 20〉 부의 스마트폰 중독: 아버지 응답	174
〈표 Ⅲ-3- 21〉 모의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 응답	175
〈표 Ⅲ-3- 22〉 부모 취·학업 상태	175
〈표 Ⅲ-3- 23〉 모의 취·학업 상태	176
〈표 Ⅲ-3- 24〉 부의 취·학업 상태	177
〈표 Ⅲ-3- 25〉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종사상 지위	178

〈표 Ⅲ-3-26〉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178
〈표 Ⅲ-3-27〉 취업부모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179
〈표 Ⅲ-3-28〉 부모의 성취압력	180
〈표 Ⅲ-3-29〉 부모애착: 어머니	181
〈표 Ⅲ-3-30〉 부모애착: 아버지	181
〈표 Ⅲ-3-31〉 합리적 설명	182
〈표 Ⅲ-3-3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183
〈표 Ⅲ-3-33〉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184
〈표 Ⅲ-3-34〉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184
〈표 Ⅲ-3-35〉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185
〈표 Ⅲ-3-36〉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186
〈표 Ⅲ-3-37〉 부모 감독: 아동 응답	187
〈표 Ⅲ-3-38〉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188
〈표 Ⅲ-3-39〉 부모-자녀 의사소통	189
〈표 Ⅲ-3-40〉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190
〈표 Ⅲ-3-41〉 아동의 단독 방 여부	191
〈표 Ⅲ-3-42〉 반려동물 여부(중복응답)	191
〈표 Ⅲ-3-43〉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191
〈표 Ⅲ-3-44〉 월평균 지출	192
〈표 Ⅲ-3-4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92
〈표 Ⅲ-4- 1〉 16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193
〈표 Ⅲ-4- 2〉 학교 재학 여부	194
〈표 Ⅲ-4- 3〉 전학 여부	195
〈표 Ⅲ-4- 4〉 학교 유형	195
〈표 Ⅲ-4- 5〉 남녀공학 여부	196
〈표 Ⅲ-4- 6〉 시범학교 유형	196
〈표 Ⅲ-4- 7〉 학교 풍토: 교사 풍토	197
〈표 Ⅲ-4- 8〉 학교 풍토: 학생 풍토	198
〈표 Ⅲ-4- 9〉 학교 풍토: 학부모 풍토	198
〈표 Ⅲ-4-10〉 학생비행	199
〈표 Ⅲ-4-11〉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200
〈표 Ⅲ-4-12〉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200
〈표 Ⅲ-4-13〉 교사 담당과목	201

〈표 III-4-14〉 교사 성별 및 연령	201
〈표 III-4-15〉 교사 경력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201
〈표 III-4-16〉 교사 최종학력	202
〈표 III-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203
〈표 III-4-18〉 교사효능감	203
〈표 III-4-19〉 아동과 교사관계	204
〈표 III-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205
〈표 III-4-21〉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206
〈표 III-4-22〉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교사 응답	207
〈표 III-4-23〉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교사 응답	207
〈표 III-4-24〉 고등학교 진학 유형: 아동 응답	208
〈표 III-4-25〉 고등학교 진학 유형: 보호자 응답	210
〈표 III-4-26〉 학교 서비스 만족도	211
〈표 III-4-27〉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212
〈표 III-4-28〉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214
〈표 III-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214
〈표 III-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215
〈표 III-4-31〉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	215
〈표 III-4-32〉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216
〈표 III-4-3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216
〈표 III-4-3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217
〈표 III-4-35〉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순위)	218
〈표 III-4-36〉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219
〈표 III-4-37〉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220
〈표 III-4-38〉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220
〈표 III-4-39〉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221
〈표 III-5- 1〉 16차년도 지역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222
〈표 III-5- 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222
〈표 III-5- 3〉 최근 이사 사유	223
〈표 III-5- 4〉 지역규모	223
〈표 III-5- 5〉 6개 권역 구분	224
〈표 III-5- 6〉 교육·의료·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225
〈표 III-5- 7〉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226

〈표 Ⅲ-5- 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227
〈표 Ⅲ-5- 9〉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27
〈표 Ⅲ-5-10〉 양육환경 안전성	228
〈표 Ⅲ-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230
〈표 Ⅲ-5-12〉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231
〈표 Ⅲ-5-1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31
〈표 Ⅲ-5-14〉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짐	232
〈표 Ⅲ-5-15〉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5년 후에는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임	233
〈표 Ⅳ-1-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238
〈표 Ⅳ-1- 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3년	238
〈표 Ⅳ-1- 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3년	239
〈표 Ⅳ-1-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2, 2023년 발간 논문 기준	240
〈표 Ⅳ-2- 1〉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241
〈표 Ⅳ-2- 2〉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242
〈표 Ⅳ-2- 3〉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244
〈표 Ⅳ-2- 4〉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246
〈표 Ⅳ-3- 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 분포	249
〈표 Ⅳ-3- 2〉 16차년도 황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250
〈표 Ⅳ-3- 3〉 16차년도 최종 황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251
〈표 Ⅴ-1- 1〉 추이분석에 활용된 영역별 변인	255
〈표 Ⅴ-2- 1〉 일일 생활시간- 평일(8차~16차)	256
〈표 Ⅴ-2- 2〉 일일 생활시간- 주말(8차~16차)	257
〈표 Ⅴ-2- 3〉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9차~16차)	259
〈표 Ⅴ-2- 4〉 아동의 인터넷 중독(10차~16차)	260
〈표 Ⅴ-2- 5〉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9차~16차)	262
〈표 Ⅴ-2- 6〉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263
〈표 Ⅴ-2- 7〉 성별,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264
〈표 Ⅴ-2- 8〉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8차~16차)	265
〈표 Ⅴ-2- 9〉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이용아동(8차~16차)	268
〈표 Ⅴ-2-10〉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 이용아동(8차~16차) ..	269
〈표 Ⅴ-2-11〉 진로성숙도(13차~16차)	271

〈표 V-2-12〉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8차~16차) ·	273
〈표 V-2-13〉 학교적응-중등(14차~16차)	274
〈표 V-2-14〉 아동의 공감(14차~16차)	275
〈표 V-2-15〉 부모의 취/학업 상태(1차~16차)	276
〈표 V-2-1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278
〈표 V-2-17〉 부모 감독 및 성취압력(8차~16차)	280
〈표 V-2-18〉 아동의 체중·신장(1차~16차)	281
〈표 V-2-19〉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6차)	283
〈표 V-2-20〉 아동의 체형에 대한 인식(13차~16차)	284
〈표 V-2-21〉 아동의 체중조절 경험(13차~16차)	284



그림 목차

[그림 Ⅰ-2- 1] 2024년도 한국아동패널 주요 사업	21
[그림 Ⅱ-1- 1] 17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31
[그림 Ⅱ-1- 2] 2008~2024년 조사참여율	37
[그림 Ⅱ-3- 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행사 포스터 등	58
[그림 Ⅱ-3- 2]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행사 포스터, 제안내용 예시	60
[그림 Ⅱ-3- 3] 문자 발송 링크 퀴즈 이미지 예시	61
[그림 Ⅲ-1- 1] 2008~2023년 조사참여율	65
[그림 Ⅲ-2- 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88
[그림 Ⅲ-2- 2]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보호자 응답	134
[그림 Ⅲ-2- 3]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135
[그림 Ⅳ-2- 1]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설명회 포스터 및 영상 자료	242
[그림 Ⅳ-2- 2] 제1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245
[그림 Ⅳ-2- 3]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245
[그림 Ⅴ-2- 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	258
[그림 Ⅴ-2- 2] 미디어 이용시간	260
[그림 Ⅴ-2- 3] 인터넷 중독 분류(10차~16차)	261
[그림 Ⅴ-2- 4]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9차~16차)	262
[그림 Ⅴ-2- 5]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264
[그림 Ⅴ-2- 6]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265
[그림 Ⅴ-2- 7]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이용아동 (8차~16차)	270
[그림 Ⅴ-2- 8] 진로성숙도	272
[그림 Ⅴ-2- 9]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8차~16차)	273
[그림 Ⅴ-2-10] 아동의 학교적응-중등(14차~16차)	275
[그림 Ⅴ-2-11] 아동의 공감(14차~16차)	276
[그림 Ⅴ-2-12] 부모의 취업상태(1차~16차)	277
[그림 Ⅴ-2-13] 부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279
[그림 Ⅴ-2-14] 부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279
[그림 Ⅴ-2-15] 부모 감독 및 부모 성취압력(8차~16차)	280

[그림 V-2-16] 아동의 체중(1차~16차)	282
[그림 V-2-17] 아동의 신장(1차~16차)	282
[그림 V-2-18]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및 체형에 대한 인식(12차~16차)	284
[그림 V-2-19] 아동의 체중조절 경험(13차~16차)	285

1. 사업 및 연구개요

가. 사업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는 한국 최초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된 장기 중단연구임.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아동이 성인기에 진입한 2027년까지 조사가 계획되어 있음.
 - 아동뿐 아니라 아동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 부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아동,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조사함.
- 2024년 패널아동은 16세가 되어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은 17차년도 조사와 5차 심층조사가 수행되는 해임.
- 2023년에 시행된 16차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료가 누적되어 영유아기, 초등기에 이어 중등기 자료에 대한 연구진의 활용이 가능하며, 15차 학술대회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청소년기의 자료가 공개되는 해이기도 함.
 - 즉, 청소년기 자료의 활용과 연계 지원이 요구되는 때로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학술대회 개최 등에 있어 교육학, 청소년 관련 학회와의 협업을 시도하였음.

나. 사업 내용

- 첫째, 한국아동패널 17차년도 본조사 및 5차년도 심층조사를 수행함.
 - 2024년 고등 1학년 과정에 진입한 패널아동과 가구(주양육자, 부모), 학교(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7차년도 조사를 실시함.
 -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와 시의성을 고려해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아동 대상으로 제5차 심층조사를 실시함.
- 둘째, 한국아동패널 16차 조사 데이터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이분석을 실시함.

- 16차년도 조사자료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별 주요 변인에 대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함.
- 초등기와 중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함.

□ 셋째,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5차 조사자료를 공개함.

- 2024년 제15회 학술대회의 논문공모에 신청한 자에게 15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였으며 이후 검증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함.

□ 넷째, 1~15차의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을 수행함.

- 1~15차까지의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함.

다. 주요 방법

□ 문헌연구, 조사 실시, 자문회의 등 개최, 기초 및 추이분석, 자료 관리 및 데이터 설명회, 학술대회 개최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함.

- 문헌연구: 심층조사 주제를 선정하고 및 문항을 구성하며, 본조사의 설문 및 도구를 최신화 함.
- 17차 본조사, 5차 심층조사: 유효표본으로 1,471가구를 설정하여 패널아동 및 아동의 주양육자, 부모 각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4년 17차 조사를 수행함. 아동을 대상으로 5차 심층조사로서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를 주제로 한 조사를 수행함.
-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5차 심층조사의 대상 및 내용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조사업체 관리자와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함.
- 기초분석 및 추이분석 실시: 16차 자료의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기초분석을 실시하며, 종단자료를 활용해 추이분석을 수행함.
- 자료 관리: 축적된 자료의 데이터, 질문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을 업데이트 및 관리함.
- 데이터설명회/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홍보와 활용 제고를 위해 데이터설명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및 학술대회(2024년 제15회 학술대회)를 개최함.

2. 17차년도(2024년) 조사 사업보고

가. 17차년도 조사과정

□ 17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전체표본 2,150가구 중 1,471가구로 설정함. 또한 정규패널 외 유예패널과 복원패널을 두어 접촉지속을 꾀하고 조사참여율을 높이고자 시도함.

- 17차년도의 유효패널은 2,150가구 중 최근 5년간 연속 미참여한 660가구와 강력 거절 16가구, 아동사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3개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구성함.
- 유예패널은 유효표본 중 유예조사에 응한 가구(일반조사 거절 가구)로서 패널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유예조사) 실시하고 일반조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함.
- 복원패널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참여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 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4년 조사참여 가구로 일반조사 외 필수 과거 정보 등 추가조사(복원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재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

□ 17차 조사의 시기별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기	조사 수행 내용
4~5월	○ 사전 정보 확인 조사
6월	○ 조사참여 동의 및 조사 안내 ○ 조사 위한 접속 (담당 조사원 전화 연락)
7월	○ 조사참여 안내문 및 부모 대상 종이질문지 우편발송
7~11월	○ 방문 면접조사 실시(주양육자, 아동), 교사 온라인 조사 실시

□ 17차 조사에 참여완료한 가구는 총 1,287가구(아동 1,277명)이며 이는 유효 표본 1,471가구의 87.5%임.

- 이는 2023년 조사완료한 1,288가구 대비 99.9%이며 전체표본 2,150가구의 59.9%, 1차년도 조사참여 2,078가구의 61.9%에 해당함.
- 조사대상별로는 주양육자 조사에 1,287명이 참여하였고, 아동 조사는 1,277명(주양육자 조사의 99.2%), 어머니 조사는 1,229명(주양육자 조사의

95.5%), 아버지 조사는 1,133명(주양육자 조사의 88.0%), 교사 조사는 279명(주양육자 조사의 21.7%)이 참여함.

- 일반적인 정규조사로 1,268가구가 참여했으며 복원패널로서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19가구임. 유예패널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없었음.

나. 17차년도 조사내용

□ 17차 본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조사대상에 따른 설문지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아동용 설문지 (아동 대상)	1) 일상생활과 경험	-식생활 및 가족과의 식사 횟수 -스마트폰 소유 여부, 미디어,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시간, 생활시간, 학교 재학 여부 -취미/신체활동, 가사 참여, 용돈	TAPI (대면 면접) 대면 어려울 시 CAWI (Web 조사)
	2) 인지 발달 및 학습	-학업성취도(주관적 인식)/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사교육 경험 및 인식, EBS 이용	
	3)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우울, GRIT(끈기) -이성관계, 또래애착, 학교적응, 문제행동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 피해/가해	
	4) 진로진학 및 가치관	-진학계획,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희망직업 -경제적 인식 및 용돈 사용 -결혼 및 자녀관, 공동체 의식	
	5) 부모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동학대	
	6) 신체 및 건강 특성	-체중/키/허리둘레, 신체계측방법, 2차 성징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음주, 흡연 -장애 판정 및 정도, 만성질환, 입원 치료 여부 등	
보호자용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1) 가구 및 가구원	-가구 구성원,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이사,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부모의 결혼상태, 최종학력, 장애 유무 및 정도 -가구소득, 지출, 사회경제적 지위	TAPI (대면 면접)
	2) 아동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치료, 장애, 질환 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식사 및 참여활동, 미디어 중독 -부모 감독, 부모 지원	
	3) 아동의 학교	-학교 재학 및 대체이용기관, 학교 유형, 전학 여부, 학교 참여 및 만족도 -아동의 학업성취도(보호자/주관적 인식)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보호자용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4) 아동의 사교육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유, 부담 정도, 만족도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안전, 편의성, 만족도 -국민기초생활 및 지원사업 수급 경험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부모 설문지 (아동의 부모 대상)	1) 평소 느낌과 생각	-행복감, 만족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2) 일상생활과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흡연, 신체활동 -스마트폰 과의존	
	3) 취업 및 직업	-취업 상태 및 특성, 일자리 만족도 -근무일수/시간/출퇴근/근로(사업) 소득	방문 수거)
교사용 설문지 (아동 담임교사 대상)	1) 학교	-학교 특성 및 학교 풍토, 학생비행, 학교 환경	CAWI (Web 조사)
	2) 교사	-교사 특성, 업무스트레스/교사효능감	
	3) 아동	-교사-아동 인식 -아동 체력평가 결과(PAPS)	

□ 17차년도에 수행된 5차 심층조사의 주제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대상 및 조사방법	아동 대상 TAPI(대면 면접), 대면 어려울 시 CAWI (Web조사)
주제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
영역 및 조사내용	1) 가족 인식
	2) 다문화 인식
	-가족의 범위 -결혼관/자녀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 -가족 내 성역할 인식
	-국민정체성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행동 의지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다.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 2023년도에 이어 아동 성장과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 패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패널유지를 꾀하고자 제2회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함.

- ‘고1의 대입 준비, 핵심만 가져가자!’를 주제로 현직 고교 입시 전담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으로 실시함(2024. 4. 7.).

□ 패널아동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와 한국아동패널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을 실시함.

- 패널아동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토로 하여 공모를 실시함. 패널아동들이 주제별 관련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여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정해 수상함.
- 문자, SNS를 통해 조사에 대해 공지하고 퀴즈를 통한 상품권 지급(연 10회 퀴즈 출제), 레터링 서비스(새학기, 명절, 연말 아동생일) 등의 서비스를 진행함.

3. 16차년도(2023년) 데이터 기초분석

가. 16차년도 조사참여율

- 16차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288가구이며, 참여 아동은 1,258명임. 어머니 조사에는 1,198명(주양육자의 93.01%), 아버지 조사에는 1,106명(주양육자의 85.9%), 교사 조사에는 526명(주양육자의 40.84%)이 최종 참여함.

나. 아동 특성

□ 일상생활 특성

- 식생활 중 식품섭취에 대해서는 단백질, 채소, 튀김/볶음요리, 지방이 많은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식사 횟수의 경우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 주 8회 이상 응답비중이 대도시가 가장 적고 읍면지역이 높게 분석됨.
- 수면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여학생의 취침시간이 남학생보다 늦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주중 취침시간이 늦는 것으로 분석됨.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학원, 과외 등)은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는 5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보다 적게 나타남.
- 주당 독서량을 분석한 결과,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55.33%로 가장 높으며 1~2권이 40.54%로 나타남.
- 아동의 영상시청 시간은 주중 평균 1.50시간, 주말 평균 2.68시간, 게임시간은 주중 평균 1.36시간, 주말 평균 2.41시간으로 나타남. 영상시청 시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길고, 게임시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긴 경향을 보임.

-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68%가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1일 이용시간은 평균 6.28시간으로 분석됨. 남학생의 이용시간이 여학생보다 길고 저소득가구의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남.
- 부모 대상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 41.85%,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8.46%로 나타남. 이는 아동 대상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검사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 1.05%,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15.47%로 나타난 것과 대비됨.
- 실내외 신체활동 조사 결과, 남학생은 5일 이상 중증도의 신체활동을 한다는 경우가 26.99%로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7%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1박 이상의 국내 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의 참여율 및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남.

□ 신체 및 건강 특성

- 키의 경우 남녀 각각 172.55cm, 162.15cm로 나타났으며 체중은 65.39kg, 54.12kg로 조사됨.
- 본인의 신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 즉, 신장 만족을 제외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 만족도가 크게 나타남.
- 체형 인식의 성별 차이도 커서 남학생은 본인 스스로 약간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은 약간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음.
- 남학생의 2차 성장(몽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율이 29.64%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초경)는 0.40%로 나타남.

□ 학습 관련 특성

-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공부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대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남.
- 아동이 선호하는 과목(1순위)은 체육이 37.99%로 가장 높고, 수학 13.89%, 사회 8.22% 순으로 나타남.

- 자기조절학습 정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고소득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분석결과,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분석됨.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차이는 없었음.
-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2.82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보다 그렇지 않은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이 높음.
- 우울의 경우 평균 1.52점(4점 척도)이며 여학생의 우울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공감의 경우 평균 4.06점(6점 척도)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임. 하위영역 중 인지적 공감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음.
- 학교적응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학교공부와 학교친구에 대한 학교적응 점수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은 10.02%임.
-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폭력 피해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0%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력 피해 경험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는 없음. 폭력 가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2%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정도 폭력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17%이며 첫 음주 시기는 평균 13.8세임.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3%로 첫 흡연 시기는 평균 14.04세임.

□ 미래 의식

- 직업선택조건(1순위)은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27.58%로 가장 높고 이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25.68%로 나타남.
-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경험의 경우 ‘부모님과 대화’가 89.83%로 가장 높고 ‘학교 담임교사와의 상담’ 70.67%,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67.49%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의향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25%, 없다 10.10%, 모르겠다 34.66%로 나타남. 자녀 양육 의사의 경우, 성별 차이가 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녀 양육 의사가 현저히 낮게 나타남.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가구 특성

-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은 부모+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2.28%로 가장 많고, 총 자녀수는 2.23명, 총 가구원수는 4.29명임. 평균 가구소득은 642.43만원으로 분석됨.

□ 부모 특성

- 부모의 결혼만족도(5점 척도)는 어머니 평균 3.83점, 아버지 4.19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음.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주관적 행복감도 결혼만족도와 유사하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음.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우울의 경우 20% 내외가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가벼운 우울증이나 중간 정도 우울인 경우의 비중이 높음.
- 부모의 삶의 만족도(5점 척도)는 어머니 평균 3.67점, 아버지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취업 비중은 아버지는 94.76%, 어머니는 66.78%로 나타남.
- 부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은 부모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일-가정 갈등은 어머니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 때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아버지의 경우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없음.

□ 부모의 양육 특성

- 아동이 응답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성취압력은 평균 2.40점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아동이 응답한 부모애착 조사 결과, 어머니의 경우 의사소통 평균 3.84점, 소외감 3.28점, 신뢰감 3.96점으로 나타났음. 아버지의 경우 의사소통 3.47점, 소외감 3.16점, 신뢰감 3.7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 점수가 다소 낮음.

-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아동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99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어머니가 2.29점, 아버지가 2.21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높음.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아버지는 아동이 남학생인 경우가 여학생인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의 경우, 가구소득별 차이가 커서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지원 정도가 낮게 나타남.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월소득 750만원 이상인 경우 35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학교 및 교사 특성

-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는 일반중학교 98.28%, 대안학교 0.62%, 국제중학교 0.47%, 체육중학교 0.16% 순으로 조사됨.
-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중 남녀공학은 82.89%임.
- 교사 대상으로 교사 풍토, 학생 풍토, 학부모 풍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풍토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열심히 하려는 의지'이고, '학교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생 풍토의 경우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이 가장 낮음.
- 학부모 풍토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항목이 높고,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참여 및 지원'이 가장 낮음.
- 담임교사의 성별은 여성인 경우가 72.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39.17세임. 평균 교육경력은 12.19년임.
- 교사 업무 스트레스의 경우, 수업지도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고 행정업무와 생활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학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여 도시의 교사가 읍면동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음.

- 교사효능감은 평균 4.11점(5점 척도)으로 교사효능감이 있는 편으로 나타남.

□ 사교육 특성

- 조사대상 가구 중 87.81%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교내 방과후학교나 EBS 교육방송 이외 사교육 이용비율은 86.41%임. 가구소득이 5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이용비율이 약 91%, 350만원 초과 550만원 85.96%, 350만원 이하 75.57%로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임. 또한 읍면지역 이용비율도 낮음.
- 과목별로는 수학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매체별로는 학원이용 비중이 높음.
-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학원이 11.51시간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방문교사) 11.44시간, 인터넷/화상 강의 6.56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5.32시간,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공공기관 이용 5.03시간으로 분석됨.
- 아동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개수가 적당한지를 조사한 결과, 78.48%가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함.
- 아동 대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2.26점(5점 척도)으로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교육 효과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2점으로 패닐아동 스스로는 사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호자 대상 사교육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진학준비 31.61%로 가장 높고, 학교 수업 보충 28.75%, 선행학습 26.43%, 불안심리 때문에 7.23%, 취미·교양·재능개발 4.46%의 순으로 나타남.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지역사회 특성

- 아동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규모는 대도시 68.66%, 중소도시 18.90%, 읍면 12.44%임.
-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뿐 아니라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경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인 경우에 접근 편리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시설의 만족도의 경우, 의료시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대도시가 읍면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여가 공간시설과 문화시설도 대도시의 만족도가 읍면보다 높았음.

□ 정책 특성

- 한국사회 교육의 질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3.06점(5점 척도)으로 나타남. 월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또한 도시지역에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읍면보다 낮았음.
-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18점(5점 척도)으로 나타남. 이는 과거 5년 대비 현재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인식한 정도의 점수 평균 3.06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가. 자료 활용 현황

- 2024년 4월 기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연구보고서, 세미나, 논문 등은 총 1,418편이며, 그 중 학술논문이 1,018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음. 학술논문의 활용방법을 보면 횡단연구는 633편, 종단연구는 385편임.
- 자료의 활용 추세를 보면 2020년 이후 데이터 활용이 급증한 것이 확인되며 2023년에만 190편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에서 활용되었음.

나.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아동패널사업 이후 처음으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5회 학술대회를 개최함.

구분	내용
데이터설명회	○ 일시: 2024. 4. 12.(금) 14:00~16:30
	○ 내용: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소개 2.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소개 3. 특별강연: 패널 데이터 활용의 실제
	○ 장소 및 진행방식: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구분	내용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 9. 6.(금)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소재) ○ 내용: 1. 아동패널 활용 연구논문 발표 2.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 및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결과보고 3. 통계위크숍(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진행 ○ 총 11개 세션에서 27개의 논문 발표 ○ 5개 학회(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사)한국보육교직원협회) 공동주최 및 9개 학회가 협력학회로 참여 	
주요 일정	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	2024. 3. 15.(금)
	데이터설명회 개최	2024. 4. 12.(금)
	연구계획서 마감	2024. 4. 29.(월)
	원고 마감	2024. 7. 22.(월)
	학술대회 개최	2024. 9. 6.(금)

5.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가. 분석 개요

- 중등기 전 시기의 자료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등기 자료까지 결합하여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함.
- 연도별 응답빈도를 분석하여 결합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변수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평일, 주말) - 미디어이용 시간, 미디어기기 중독 - 독서량, 운동량
학업 및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스트레스 -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이용 여부, 시간, 비용) - 진로성숙도
정서,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학교적응, 공감

구분	변수
부모	- 부모의 취·학업상태, 일-가정 양립/일-양육 양립의 이점과 갈등 - 부모 감독,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신체발달	- 체중, 신장 -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경험

나. 분석 내용

□ 아동의 일상생활

- 생활시간 분석결과 수면시간은 줄고 학습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책 읽는 시간과 놀이, 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TV시청 시간은 증가함.
- 초등시기 아동의 미디어 시간은 1~3시간 정도인데 비해 중등시기에는 6시간 가량으로 크게 증가함.
- 부모가 진단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초등 3학년부터 중등시기까지 분석한 결과, 초등시기까지는 일반 사용자군이 감소하고 고위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중등시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감소하고 일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주평균 독서량은 초등시기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며 중등시기에는 줄어든 독서량이 지속됨.
- 운동량은 초등 중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내 증가 경향을 보이거나 변화는 미미함. 팬데믹이던 2020년 초6시기에는 운동량 점수가 확연히 낮음.

□ 아동의 학업 및 진로

- 초등 4학년부터 중등시기의 학업 스트레스 분석결과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중등 이후부터 집단별 차이가 나타남.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도시의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
-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초등 1학년 주당 8.98시간에서 초등 4, 5학년에는 약 11시간, 중등 2학년 이후에는 12시간 이상으로 분석됨.
- 매체별 분석결과, 학원의 경우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학원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지도와 인터넷 화상강의의 이용시

간이 높음. 중등 이후에는 인터넷 화상강의가 주 6시간 이상, EBS 교육방송도 주 5시간 내외로 높게 확인됨.

- 이용비용은 초등 1학년 월평균 28.41만원, 초등 4학년 시기 이후 40만원 이상, 중등시기부터는 50만원을 상회함. 중등 3학년 때에는 64.87만원임.
- 초등 6학년 때부터 아동이 응답한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남. 이는 사춘기라는 시기적 특성의 영향, 진로탐색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답변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됨.

□ 아동의 학업 및 진로

-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4학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4학년 이후와 중등시기 동안 낮아짐. 초등 5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조사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중등시기 학교적응과 관련해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학교공부 적응도는 낮아지는데 비해 학교교사 적응도는 증가함. 학교친구와 학교생활의 점수는 큰 변화 없음.
- 공감 점수는 중등시기 동안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영역별로는 인지적 공감 점수에 비해 표현적, 정서적 공감의 점수가 낮음.

□ 부모님

- 부모님의 취/학업 상태를 신생아시기부터 중3 시기까지 분석한 결과, 부는 지속적으로 95% 이상 취/학업 상태의 비중을 보이거나 모는 아동연령에 따라 변화가 큼. 아동연령 0세 때 모의 취/학업 상태는 30.1%이나 15세 때에는 71.2%로 2배 가량 증가함. 또한 모의 취/학업상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나 아동의 초1 입학시기에는 전해에 비해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 패널아동 부모 각각의 일-가정 및 일-육아 양립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점은 증가하고 갈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일-양육 양립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점수와 달리 부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즉, 일-양육 양립의 이점은 부가 모에 비해 높고 갈등은 부가 모에 비해 낮아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양립에 있어 모가 부에 비해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남.
- 부모 감독의 점수는 초·중등시기 전반에 걸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특히 초등중학년 시기 이후는 그 전 시기에 비해 낮아짐.

-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은 초등 4학년 시기에 비해 초등 5, 6학년 때에는 낮아지다가 중등시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신체발달

- 아동의 0세 때의 몸무게는 남녀 각각 3.31kg, 3.20kg이었으나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에는 남학생은 65.39kg, 여학생은 54.12kg으로 측정됨.
- 아동의 신장은 0세 때 남녀 각각 50.59cm, 49.59cm에서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 때에는 남녀 각각 172.55cm, 162.15cm로 측정됨.
-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분석결과 초등 5학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체형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1.매우 마른편~5.매우 비만), 여학생의 점수는 높아지고 남학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체중조절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여학생의 체중감량 경험 비중은 초등 6학년부터 중등시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체중증량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남.

I

사업 및 연구개요

- 01 사업 및 연구목적
- 02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 03 주요 방법

I. 사업 및 연구개요

1. 사업 및 연구목적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상의 특성과 양육 특성 및 요구 그리고 보육교육기관의 기능과 효과,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의 영향에 관한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영역에 있어서는 U.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 및 G. Elder(1998a, 1998b)의 생애이론에 기초하여 아동뿐 아니라 아동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 부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은 조사대상으로 아동과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각각 그리고 아동의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설정해 조사해 오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2006년 패널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준비, 개발하였고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 제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애초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20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신생아부터 아동에 대한 성장·발달을 매년 측정하는 패널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패널아동이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24년은 제17차 조사와 제5차 심층조사가 수행되는 해이다. 2008년생 패널 아동들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섰다. 청소년기가 된 패널아동과 가구에 적합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조사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시의성을 고려해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한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3년 조사된 16차 자료로 연구진이 먼저 조사영역별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추이분석은 올해 중등기 모든 시기의 자료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등기 자료까지 묶어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

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자료는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자료를 공개해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왔으며, 2010년부터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정책수립자들이 아동패널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제15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한국아동패널 사업에서 최근 조사하고 공개한 자료가 청소년기의 자료이므로 청소년, 청소년기에 주목하는 학회들과 공동주최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해 협업하였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 앞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유저들이 더 편한 방식으로 아동패널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및 사업 내용에 대해 본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방법에 대해 개괄하고 2장에서는 2024년 17차년도 조사과정과 내용,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2023년 16차년도 자료로 아동, 부모·가구, 학교·지역사회·정책 영역별로 기초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4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현황을 보고하고 유저들을 위한 자료 활용과 공유의 장(場)으로 개최되었던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의 진행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축적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해석하였다.

2.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2024년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주된 4개의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17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2024년 올해 고교 1학년 과정에 진입하는 패널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및 주양육자 조사, 부모 각각에 대한 조사,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4년은 5차 심층조사가 계획된 해로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와 시의성을 고려해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선정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한국아동패널 16차 조사 데이터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1~16차 자료를

이용한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6차 자료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1~16차 자료를 이용해 기초변인 및 관심변인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1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5차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2022년에 수행된 15차 조사 데이터는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우선 제공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후 검증작업을 거쳐 연내에 일반에 공개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학술대회에 앞서 자료 활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넷째, 1~15차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1~15차의 자료,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변인지도, 사용자 지침서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였다.

[그림 I-2-1] 2024년도 한국아동패널 주요 사업

17차 조사진행	16차 자료 기초 및 심층분석	데이터설명회 및 15차 학술대회 개최	1~15차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
▶ 2024년 17차 조사 실시 • 아동, 보호자, 부모, 교사 조사 • 심층조사 실시 ▶ 패널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	▶ 2023년 16차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수행 • 아동, 부모, 가구,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별 분석 ▶ 기본 및 관심변인 추이분석	▶ 데이터설명회 개최 ▶ 15차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논문공모 및 발표 • 2022년 15차 조사 데이터 제공	▶ 조사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 점검 관리 ▶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실행

<표 I-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구분	일반조사							심층조사	학술대회
	0~2세	3~6세	7~9세 (초등 1~3)	11~12세 (초등 4~6)	13~15세 (중등 1~3)	16~18세 (고등 1~3)	19세 (대학교 1)		
시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후기	청소년초기	청소년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부가조사*	1회
2011년		4차							2회
2012년		5차							3회
2013년		6차						2차	4회
2014년		7차							5회

구분 시기	일반조사							심층 조사	학술 대회
	0~2세 영아기	3~6세 유아기	7~9세 (초등 1~3) 아동초기	11~12세 (초등 4~6) 아동후기	13~15세 (중등 1~3) 청소년초기	16~18세 (고등 1~3) 청소년후기	19세 (대학교 1) 성년기		
2015년			8차						6회
2016년			9차					3차	7회
2017년			10차						8회
2018년				11차					9회
2019년				12차					10회
2020년				13차				4차	11회
2021년					14차				12회
2022년					15차				13회
2023년					16차				14회
2024년						17차		5차	15회
2025년						18차			-
2026년						19차			-
2027년							20차	6차	-

주: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서 매년 실시함. '심층조사'는 2~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조사내용 및 검사방법 등에서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시함.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과 별도로 2010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추출하여 부가조사를 진행함.

3. 주요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일반조사 및 심층조사의 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즉, 유관 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의 일반조사의 내용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진입한 패널아동에게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을 다룬 유관 조사 및 문헌, 최근 제기되는 이슈를 다룬 기사 등을 검토하여 5차 심층조사의 주제선정 및 구성에 참고하였다.

나. 17차 패널조사 수행

1) 조사대상 및 규모

2024년 17차 조사는 전체표본 2,150가구 중 1,471가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

하고 우선 접촉하여 조사하였다. 이때의 유효표본은 2019~2023년 5년 연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아동사망이나 강력거절 등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79가구를 전체표본에서 제외한 표본이다.

또한, 2023년 16차 조사 시 시도했던 '유예조사'와 '복원패널' 조사를 17차년도 조사에서도 유지하였다. 즉, 강력거절가구 대상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유예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5년간 미참여하거나 강력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가 17차년도 조사에 참여 시 '복원패널'로 지칭하여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에 더해 2023년 유효표본에 속하였으나 2024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6년 연속 미참여 가구)를 '우선 복원패널 시도 가구'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조사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한국아동패널의 2024년 17차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패널가구의 아동, 아동의 주 양육자, 아동의 부모 각각, 아동이 소속된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3-1>와 같다. 이때 조사내용은 변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부모', '가구', '교육 및 돌봄(영유아기)', '학교 및 사교육(아동기)', '지역사회', '정책'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교육 및 돌봄' 영역은 영유아 대상 조사로 제외되고 6개 영역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본조사 외 심층조사 방식으로 아동이 수행하는 '아동' 특성의 하나로 가족과 다문화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I-3-1> 2024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도구)	주요 조사내용	비고 (설문지)
아동	측정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아동용 설문지 (심층조사 포함)
	대면 면접조사 (TAPI) (대면 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 아동 특성: 식생활,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가사 참여, 저축, 용돈사용, 2차 성징, 음주흡연,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학업성취도, 자기조절학습, 자아 및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가족 및 다문화 인식 - 부모 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 학교·사교육 특성: 사교육 부담 정도, 사교육 효과 인식, EBS 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도구)	주요 조사내용	비고 (설문지)
주양육자	대면 면접조사 (TA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미디어 사용, 학업성취도 - 부모 특성: 부부 특성, 질환 및 장애, 부모 감독, 지원 정도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학교 참여 및 만족도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보호자용 설문지
어머니	지필식 조사 (우편발송)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어머니 설문지
아버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아버지 설문지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 (CA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특성: 학업 수행 능력, 교사의 아동 인식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교사용 설문지

자료: 조미라 외(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 <표 1-3-1> 재구성

3) 조사절차

한국아동패널의 2024년 17차 조사는 먼저 조사준비 단계로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한 조사업체 선정부터 시작된다. 조사업체 선정 후에는 기존의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부모, 교사 대상 설문지의 내용과 심층조사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사내용 확정 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 TAPI 조사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진행의 단계에서는 패널 참여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과 주양육자(보호자) 조사를 실시하고 부, 모 각각에 대한 조사지를 수령(가구 방문 전 우편발송을 통해 미리 작성 요청)하며, 부모와 아동의 동의와 지원 하에 접촉된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종료 후에는 조사자료를 취합해 자료클리닝의 단계를 거쳐 종단 및 횡단 가중치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조사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조사의 특이사항과 애로점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패널유지 방안

패널유지를 위해 그간 실시해 왔던 것들 중 패널가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기여하고 만족도가 높은 방식들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발달단계상 진로진학에 관심이 많은 패널아동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경험 축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패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시하였다. 주요하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패널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설명회(한국갤럽 공동주최, 2024.4.7. 온라인 실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여름방학 기간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로로 문자서비스, SNS를 통한 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조사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아동생일, 명절 등에 기념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동 대상 수시로 모바일 퀴즈이벤트를 열어 사례쿠폰을 지급하는 등 패널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외 기존부터 시행해 왔던 조사완료 가구에 대한 사례 상품권 지급(현금지급 선택 가능), 생일 및 명절선물(아동생일, 설날), 거주지 변경고지에 대한 감사 물품 제공(이사선물), 연말 경품행사(전자기기, 상품권 등 증정)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2023년에 시도했던 가구조사-주양육자, 부, 모, 교사 모두 완료 시 추가 사례도 제공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2024년 사업을 진행하며 주요 사안별로 전문가 및 관련자들과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24년은 5차 심층조사가 예정된 해로 심층조사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원내의 패널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과 학계 및 청소년 대상 패널연구자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 심층조사 외에도 17차 일반조사의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학계와 청소년 대상 패널연구자들의 의견을 서면 또는 대면 자문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조사완료 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해 조사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안건	개최일 및 방법	자문자/참여자
심층조사 대상 및 주제선정	1차 대면회의: 4.15. 2차 대면회의: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패널 연구 경험자 1인 • 원내 패널 연구 경험자 2인
심층조사 주제별 세부내용 구성	1차 대면회의: 4.23. 2차 서면자문: 4월 3주 3차 온라인회의: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아동 전공자 1인 • 가족 및 아동 전공자 1인 • 다문화 전공자 1인
본조사 학업성취도 등 세부문항 구성	서면자문: 5월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교사 1인
조사 개선방안 논의- 조사원 간담회	17차 조사 후(11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라. 16차 자료 기초분석 및 중단자료 추이분석

2023년도에 실시한 16차 조사자료는 클리닝 및 에디팅 작업을 거쳐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아동’, ‘부모 및 가구’, ‘학교 및 사교육’, ‘지역사회 및 정책’으로 구분하고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간 축적된 중단자료를 이용해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간 추이분석은 일부 기본적인 변인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올해에는 연구대상이 청소년기가 된 패널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변인들을 새로이 선정해 대폭 확대된 틀로 분석하였다.

마. 자료 제공/관리 및 사용자 편의 작업

2022년에 이루어진 15차 조사의 자료는 올해 15차 학술대회에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연구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었다. 15차 자료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된 설문지, 변인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도 함께 제공하였으며, 이후 15차 자료는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연내에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이외 각 차수별 조사 데이터, 설문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변인지도 및 도구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수정해 업로드하였다.

바.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24년에는 15차 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전에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 아동패널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꾀하였다. 데이터설명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하였다(2024. 4. 7. 온라인 실시). 주요내용으로서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를 소개하고 ‘패널데이터 활용의 실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고자 했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패널자료의 활용을 높이고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한다. 2024년도는 15차 학술대회로서 아동패널 활용 연구논문을 공모, 발표하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외에도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공모전 결과보고를 비롯하여 아동패널 유저들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5차 학술대회에는 5개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9개 학회가 협력학회로 참여하였으며, 8개 주제별 세션과 공동주최 학회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11개 세션에서 27개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와 관련된 주요한 일정은 아래의 <표 I-3-3>과 같다.

<표 I-3-3>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데이터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 4. 12.(금) 14:00~16:30 ○ 내용: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소개 2.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소개 3. 특별강연: 패널 데이터 활용의 실제 ○ 장소 및 진행방식: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 9. 6.(금)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소재) ○ 내용: 1. 아동패널 활용 연구논문 발표 2.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 및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결과보고 3. 통계워크숍(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진행 ○ 총 11개 세션에서 27개의 논문 발표 ○ 5개 학회(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사)한국보육코칭협회) 공동주최 및 9개 학회가 협력학회로 참여

구분	내용	
주요 일정	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	2024. 3. 15.(금)
	데이터설명회 개최	2024. 4. 12.(금)
	연구계획서 마감	2024. 4. 29.(월)
	원고 마감	2024. 7. 22.(월)
	학술대회 개최	2024. 9. 6.(금)

II

17차년도(2024년) 사업보고

- 01 17차년도 조사과정
- 02 17차년도 조사내용
- 0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II. 17차년도(2024년) 사업보고

1. 17차년도 조사과정

2024년 17차년도의 조사사업은 1~6월의 조사 준비과정과 7월부터~12월까지의 조사진행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후의 과정으로 나뉜다. 위의 과정을 개괄하면 [그림 II-1-1]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각 과정별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림 II-1-1] 17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조사준비 (1~6월)	조사진행 (7~12월)	조사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작성 ▶ IRB 심의 ▶ 조사프로그램 구축 ▶ 조사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 조사공지 ▶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안내문, 우편질문지 발송 - 가구 방문조사 - 담임교사 접촉 및 온라인조사 ▶ 조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간담회 ▶ 조사자료 수합 ▶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클리닝 - 가중치 개발

가. 조사준비

1) 설문지 작성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조사대상은 아동과 보호자(주양육자), 부모 각각과 교사이므로 조사 설문지는 패널아동용 설문지, 보호자(주양육자)용 설문지, 부모용 설문지(어머니/아버지), 교사용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는 본조사 외에 심층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심층조사 설문지도 추가되었다.

2024년도 17차년도 설문지는 패널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므로 시기상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후기 청소년기 연구에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고 중요도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들을 추가, 보완하는 한편, 설문 분량의 증가로 조사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학업 등으로 바빠진 패널아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문항은 격년 조사 등으로 조사 횟수를 조정하였다. 2024년도에 수행되는 5차 심층 조사의 주제와 내용, 조사방법과 대상을 정하기 위해 그간 수행된 심층조사의 방식을 검토한 후 아동패널사업 연구경험자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제 및 조사대상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결정된 설문지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조사대상인 패널아동들은 미성년자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와 대책으로서 대상자의 자발성 확보방안,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 2024년 6월 24일 심의 결과 ‘수정 후 승인’ 판정을 받고 이후 지적받은 내용을 수정해 최종 승인을 득하였다.

3) 조사원 관리 및 교육

아동패널사업의 조사원은 조사뿐 아니라 패널가구에 대한 컨택, 변동현황 추적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패널가구와 조사원 간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구별 담당조사원을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하반기 적정기간까지 조사진행이 더딘 경우 조사실적이 높은 우수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원 관리는 2023년 수집한 조사컨택 횟수, 조사완료 시기, 조사원 만족도 등의 조사과정자료(paradata)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2024년 17차 조사에 투입될 조사원은 총 55명이고 실사 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집체교육은 2024년 7월 1일부터 3일간 서울과 각 지역의 거점을 순회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진행 절차, 조사 시 유의사항과 패널관리, 아동, 보호자(주양육자), 부모, 교사 설문에 대한 에디팅교육, TAPI 조사시연 및 실습 등을 교육하였다.

〈표 II-1-1〉 2024년 17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교육일시	교육장소	담당지역	참여예정 조사원 수
7.1.(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
7.3.(수)	대구	대구, 경북	10
	부산	부산, 울산, 경남	9
7.4.(목)	대전	대전, 충남, 충북	9
	광주	광주, 전남, 전북	7
계			55

〈표 II-1-2〉 2024년 17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내용

시간	일정	세부내용
10:00~10:20	조사개요	- 연구진 소개 및 인사말 - 17차년도(2024년) 조사개요 - 설문지 종류 설명
10:20~11:00	조사진행	- 조사 준비물 설명 - IRB 관련 동의서 설명 - 조사진행 절차
11:00~11:30	조사 시 유의사항 및 패널관리	- 조사원 기본소양 교육 - 조사 시 유의사항 - 과거 사례 및 관리방안 공유
11:30~12:00	PAPI(부/모) 에디팅교육 및 담임교사 조사 안내	- 종이질문지 에디팅 - 담임교사 조사 안내
12:00~13:00	식사 및 휴식	
13:00~14:00	TAPI(보호자) 에디팅교육	- 보호자 조사현장 에디팅 - 문항별 주의사항
14:00~15:00	TAPI(아동용) 에디팅교육	- 아동 조사현장 에디팅 - 문항별 주의사항 - 신체계측 요령 등
15:00~16:00	TAPI 조사 시연 및 실습	- TAPI 진행 절차 및 활용법 - 질의응답 및 마무리

나. 조사진행

1)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한국아동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로, 2006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2008년 4~7월 동안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562가구의 예비표본을 구축해 조사대상을 표집하였다. 표집결과, 2008년 1차년도 본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보고, 이후

예비표본에서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 52가구, 20가구를 추가 표집해 2,150가구를 전체표본으로 구축하였다.

2024년 17차 조사에서는 전체표본 2,150가구 중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60가구와 강력 거절 16가구, 아동사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3개 가구를 제외한 1,471가구를 유효패널로 설정하고 우선 접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표 II-1-3〉 2024년 17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단위: 가구

전체표본 (a)	제외 가구			17차년도 유효표본 a-(b+c+d)
	5년 연속(19~23년) 미참여 (b)	강력거절 등 (c)	아동사망으로 조사불가 ¹⁾ (d)	
2,150	660	16	3	1,471

주: 아동사망 등의 조사불가 사유는 2021~2023년 확인된 수치로, 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례는 '연속 미참여자수'에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2023년 16차 조사에서 시도했던 유예조사¹⁾와 복원패널 조사²⁾ 방식을 유지하였다. 즉, 패널가구의 참여와 접속 정도에 따라 기본적인 '정규패널' 외에 '유예패널'과 '복원패널'을 두어 특별 관리하여 참여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거절하는 가구에게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예조사를 실시하고 유예패널로 관리하는 한편,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가 2024년 조사에 참여한 경우 복원패널로 지칭하고 이들에게는 패널아동의 재학 상황 등의 회고조사와 미참여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때 작년 2023년도에 복원패널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의 유효패널에서 제외된 23가구를 '우선 복원패널 시도 가구'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조사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조사참여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1) 유예패널 유예조사 설문은 가구원 변동, 이사계획,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할 수 있다. 유예조사 결과는 연구진 참고용으로 비공개 예정이다.
 2) 복원패널 회고조사 설문은 조사참여 중단 이유, 패널아동의 재학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할 수 있다. 복원패널 회고조사 결과는 연구진 참고용으로 비공개 예정이다.

〈표 II-1-4〉 참여정도에 따른 패널가구 구분 및 대응

구분	대상 및 조사내용
정규패널	○ 대상: 유효표본 중 일반조사에 응한 패널가구 → 과정에 따른 일반조사 실시
유예패널	○ 대상: 유효표본 중 유예조사에 응한 가구(일반조사 거절 가구) →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유예조사) 실시하고 일반조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유예조사: 가구원 변동, 이사계획,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으로 구성
복원패널	○ 대상: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참여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4년 조사참여 가구 → 일반조사 외 필수 과거 정보 등 추가조사(복원패널 조사) 실시 및 사례 지급 ※ 2023년도 유효패널이었으나 2024년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23가구를 '우선 복원 패널'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 및 접촉하여 조사 독려 ○ 복원패널 조사: 조사참여 중단 이유, 패널아동의 학교 재학 정보 등 회고조사로 구성

2) 조사진행

2024년 17차년도 조사는 4~5월 패널가구의 전화번호, 주소 등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확인 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6월에는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가 실시됨을 공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패널가구의 담당 조사원이 가구별로 문자 및 전화로 조사 일정을 재차 안내하며 조사 전 컨택을 시도하였다. 이후 7월에는 부모 대상의 인쇄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5〉 2024년 17차년도 조사진행 과정: 월별 패널가구 접촉 등 주요 일정

일정	연락 내용	세부 내용
4~5월	사전 정보 확인 조사	- 전화번호, 주소 등 기초정보 확인 조사진행
6월	조사참여 동의 및 조사 안내	- 조사 안내문 발송 및 참여 독려
	사전 컨택 전화	- 담당 조사원 전화 연락 및 조사 일정 안내
7월	조사 안내문 및 종이질문지 발송	- 조사참여 안내문 및 부모 대상 종이질문지 우편발송
7~11월	방문 면접조사 실시	- 조사원과 보호자의 시간 약속 후 기간 안에 조사완료 - 교사 온라인 조사 실시

대상별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설문문항이 많은 아동과 주양육자에 대한 조사는 가구 방문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을 이용한 면접조사(TAPI, 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하였다. 즉, 담당조사원은 패널가구를 방문해 아동과 주 양육자를 대면하여 각각에 대해 따로 조사하게 되며

면접원은 태블릿의 조사문항을 보며 질문하여 조사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일부 개인 인식 등을 묻는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태블릿에 응답할 수 있다. 아동과 주양육자의 응답 순서는 패널가구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랐다. 또한 2023년부터 아동 조사의 경우 대면조사를 꺼리거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조사는 가구 방문에 앞서 인쇄된 조사지를 우편 발송하여 진행하였다. 즉,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는 가구 방문조사 이전에 각 가구로 우편 송부하여 미리 응답토록 한 뒤, 조사원이 아동과 주양육자 면접조사를 위해 가구 방문 시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담임교사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주양육자와 아동 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했을 때 교사 조사에 대한 주양육자와 아동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한 경우 교사참여를 위한 정보(학교명과 담임교사명)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아동에게 교사를 위한 조사협조 공문, 한국아동패널사업 소개, 교사 조사참여 안내문이 동봉된 봉투를 주어 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이 봉투를 전달받은 아동의 담임교사가 안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사 조사는 웹으로 접속하여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이때 가구 면접조사 1개월 후에도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패널가구로부터 받은 교사 정보를 통해 학교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표 II-1-6〉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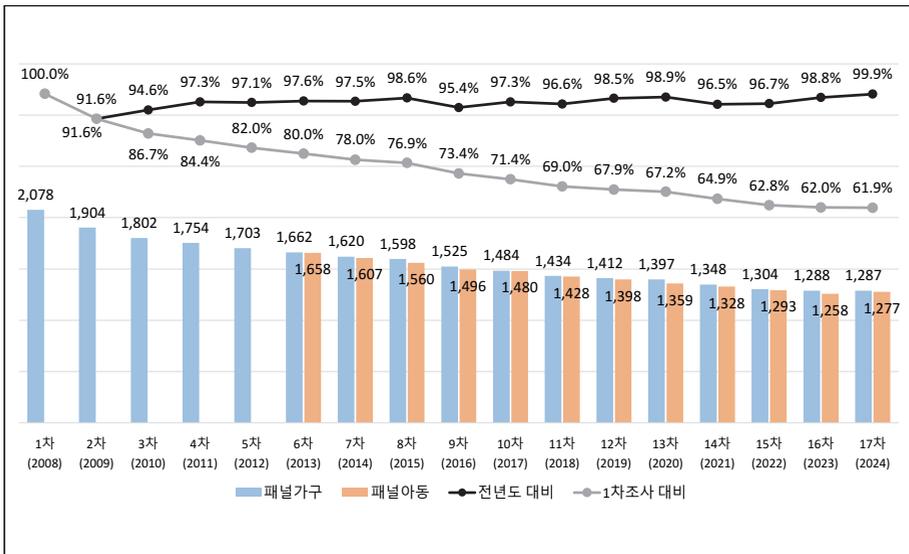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진행 시간
아동 조사	패널아동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대인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약 40분
주양육자 조사	패널아동의 주양육자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약 30분
어머니/아버지 조사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필식 조사(우편 발송)	어머니 15분 아버지 15분
담임교사 조사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CAWI)	약 10분

다. 조사종료

1) 조사참여율 및 표본유지율

조사 첫 해인 2008년부터 2024년 17차년도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참여율과 표본유지율은 다음과 같다(그림 II-1-2 참조). 이번 1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가구는 최종적으로 총 1,287가구(아동 1,277명)이다. 본 수치는 전체표본 2,150가구의 59.9%, 1차년도 조사참여 2,078가구의 61.9%에 해당하며, 2024년 17차년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설정한 유효표본 1,471가구의 87.5%, 2023년 조사완료한 1,288가구 대비 99.9%에 해당한다.

[그림 II-1-2] 2008~2024년 조사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 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 참여율 수치는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조미라 외(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8. 그림에서 17차년도 수치를 추가한 자료임.

2024년 17차년도 조사대상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주양육자 조사는 1,287명이 참여하였고, 아동은 1,277명으로 주양육자 참여 수치 대비 99.2%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동 대상 조사는 주양육자 조사와 동일하게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방식을 고수하였고,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2021년 12월부터는(14차년도 조사~) 일부 아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메일 발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 바 있다. 2024년 조사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시기 동안 패널아동의 조사참여율 유지를 위해 온라인 조사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7차년도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51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덧붙여 어머니 조사는 1,229명(주양육자 조사의 95.5%), 아버지 조사 1,133명(주양육자 조사의 88.0%), 교사 조사 279명(주양육자 조사의 21.7%)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II-1-7〉 2024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조사방법	대인면접 (TAPI)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지필식 기입 (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
조사참여자수	1,287	1,277	1,226	51	1,229	1,133	279
조사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9.2)	(95.3)	(4.0)	(95.5)	(88.0)	(21.7)

일반적인 정규조사 외에 2023년 16차년도 조사부터 시도하기 시작한 유예조사 및 복원패널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 거절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예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총 0가구였고, 복원패널(2021~2023년 지난 5년간 미응답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4년 조사에 참여한 가구)로서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총 19가구로 집계되었다.

〈표 II-1-8〉 2024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정규조사	유예조사	복원패널	전체
1,268	0	19	1,287

주: 정규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행된 조사를 의미하며 주양육자(가구) 응답 기준으로 산출함.

17차년도 지역별 조사참여율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최종적으로 159가구(아동 15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인천과 경기지역 413가구(아동 407명), 대전, 충청과 강원지역은 합쳐 184가구(아동 185명), 대구 및 경북지역 134가구(아동 137명), 부

산·울산·경남지역 227가구(아동 224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광주, 전라도와 제주 지역은 170가구(아동 171명)가 참여하였다.

〈표 II-1-9〉 2008~2024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단위: 가구수, (아동수)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224)	532(531)	223(222)	196(196)	287(287)	198(198)	1,662(1,658)
7차(2014년)	223(221)	508(502)	227(224)	188(188)	281(279)	193(193)	1,620(1,607)
8차(2015년)	209(192)	512(492)	226(226)	179(178)	283(283)	189(189)	1,598(1,560)
9차(2016년)	182(177)	481(265)	222(220)	178(176)	277(274)	185(184)	1,525(1,496)
10차(2017년)	175(174)	480(475)	212(212)	170(172)	261(262)	186(185)	1,484(1,480)
11차(2018년)	166(164)	454(450)	211(211)	163(163)	253(253)	187(187)	1,434(1,428)
12차(2019년)	169(163)	438(431)	208(207)	159(158)	251(251)	187(188)	1,412(1,398)
13차(2020년)	172(158)	443(418)	197(199)	157(157)	247(246)	181(181)	1,397(1,359)
14차(2021년)	166(158)	434(425)	184(183)	147(147)	236(234)	181(181)	1,348(1,328)
15차(2022년)	167(162)	403(399)	184(183)	140(140)	231(229)	179(180)	1,304(1,293)
16차(2023년)	166(157)	404(383)	178(179)	137(137)	229(227)	174(175)	1,288(1,258)
17차(2024년)	159(153)	413(407)	184(185)	134(137)	227(224)	170(171)	1,287(1,277)

주: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괄호 안은 아동 응답수임.
 자료: 조미라 외(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39~40. 표에서 17차년도 수치를 추가한 자료임.

2) 조사원 간담회 개최

2024년 1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연말에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조사업체 본사 연구진, 그리고 각 지역별 실사 관리담당자와 조사원이 참여하여 당해연도 조사 관련 경험을 나누고, 차년도 조사에 반영해야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올해도 이전과 동일하

계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 주제는 다음 <표 II-1-10>, <II-1-11>과 같다.

<표 II-1-10> 17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슈퍼바이저 포함)
2024. 11. 18.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2
2023. 11. 19.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2
2023. 11. 20.	대구	대구, 경북	11
2023. 11. 21.	대전	대전, 충남, 충북	12
2023. 11. 22.	광주	광주, 전남, 전북	9

<표 II-1-11> 17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구분	내용
2024년 진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률 공유 - 올해 특이사항 - 잔여 할당 확인 및 진행 독려
패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진학 후 환경 - 담임교사 조사에 대한 반응 변화 등
패널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택 관련 애로사항 - 거절 의사를 표하는 아동의 증가, 관련 응대방식 - 거절, 일정 조율 문제 등 - 아동과 직접 컨택하는 비중
패널 유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일선물 관련(문자 확인 못 하는 문제) - 문자 퀴즈/열공간식 참여도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조사 온라인 도입 반응 및 활용 정도 - 이혼, 성적 등 예민할 수 있는 문항들 - 담임교사 조사 협조도(인센티브) - 유예조사/회고조사 - 고등학교 진학 후 분위기 - TAPI 사용 불편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 경험 -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건의사항

2. 17차년도 조사내용

가. 조사내용 개괄

2024년은 17차년도 조사와 5차 심층조사가 수행되는 해이다. 17차년도 조사는 패널리동이 고교생이 된 해로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므로 이 시기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된 문항들을 삭제하고(컴퓨터 사용 능력, 독서량, 부모의 합리적 설명 등) 학교등급의 변화와 중요성 및 관심도가 높아진 진로진학, 학교 생활에 대한 문항들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고등 졸업 후 진학계획, 교사의 아동 인식 등).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등 사회적 관심과 유저들의 활용도가 높은 변인들을 검토하여 최신화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17차년도 조사를 조사대상에 따른 설문지별로 구성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2-1〉 17차년도 설문지별 조사의 구성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아동용 설문지	1) 일상생활과 경험	-식생활 및 가족과의 식사 횟수 -스마트폰 소유 여부, 미디어,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시간, 생활시간, 학교 재학 여부 -취미/신체활동, 가사 참여, 용돈	TAPI (대면 면접) (대면 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2) 인지 발달 및 학습	-학업성취도(주관적 인식)/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사교육 경험 및 인식, EBS 이용	
	3)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우울, GRIT(끈기) -이성관계, 또래애착, 학교적응, 문제행동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 피해/가해	
	4) 진로진학 및 가치관	-진학계획,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희망직업 -경제적 인식 및 용돈 사용 -결혼 및 자녀관, 공동체 의식	
	5) 부모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동학대	
	6) 신체 및 건강 특성	-체중/키/허리둘레, 신체계측방법, 2차 성징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음주, 흡연 -장애 판정 및 정도, 안정질환, 입원 치료 여부 등	
보호자용 설문지	1) 가구 및 가구원	-가구 구성원,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이사,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부모의 결혼상태, 최종학력, 장애 유무 및 정도 -가구소득, 지출, 사회경제적 지위	TAPI (대면 면접)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보호자용 설문지	2) 아동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치료, 장애, 질환 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식사 및 참여활동, 미디어 중독 -부모 감독, 부모 지원	
	3) 아동의 학교	-학교 재학 및 대체이용기관, 학교 유형, 전학 여부, 학교 참여 및 만족도 -아동의 학업성취도(보호자/주관적 인식)	
	4) 아동의 사교육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유, 부담 정도, 만족도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안전, 편의성, 만족도 -국민기초생활 및 지원사업 수급 경험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부모 설문지	1) 평소 느낌과 생각	-행복감, 만족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부 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2) 일상생활과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흡연, 신체활동 -스마트폰 과의존	
	3) 취업 및 직업	-취업상태 및 특성, 일자리 만족도 -근무일수/시간/출퇴근/근로(사업) 소득	
교사용 설문지	1) 학교	-학교 특성 및 학교 풍토, 학생비행, 학교 환경	CAWI (Web 조사)
	2) 교사	-교사 특성, 업무 스트레스/교사효능감	
	3) 아동	-교사-아동 인식, -아동 체력평가 결과(PAPS)	

5차 심층조사의 경우 시의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즉, 최근 저출생이 지속·심화되면서 청년층의 가족관 및 이민, 다문화 정책 등의 대응에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심층조사의 주제를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으로 정하고 청년기 진입을 앞둔 아동들의 가족의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II-2-2〉 5차 심층조사의 구성

구분	주제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아동용 설문지 (심층)	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다문화 인식	1) 가족 인식	-가족의 범위 -결혼관/자녀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 -가족 내 성역할 인식	TAPI (대면 면접) (대면 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2) 다문화 인식	-국민정체성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행동 의지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나. 주제별 조사내용

여기서는 17차 조사와 5차 심층조사의 조사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때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³⁾ 구체적으로는 영역별로 2022년 15차, 2023년 16차, 2024년 17차 조사에서의 세부변인들의 포함 여부를 표로 제시하고 올해 조사내용과 기존과 비교했을 때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아동 특성

가) 일상생활 영역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패널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포괄하며 일상생활은 식생활,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경제적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 영역은 새로 추가된 문항 없이 대부분의 문항이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다. 이중 컴퓨터 사용 능력, 독서량에 대한 문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삭제하였다.⁴⁾ 특히 독서량의 경우 주중과 주말 일과활동 시간 문항의 세부분항으로 '책 읽는 시간'을 포함하기에, 삭제 후에도 아동의 독서 활동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경우, 척도 활용의 시의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국아동패널에서 활용하였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스마트폰(S-척도) 및 인터넷(K-척도) 중독 척도의 통합 버전인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변경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정보문화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터넷 사용을 스마트폰 사용과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통합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발된 척도로, '중독'에서 '과의존'으로 명칭 변경 및 구성개념, 하위요인, 문항이 개선되었을 뿐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연속성상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척도 개발 연구진의 의견에 따

3)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라 장기추적하는 조사로서 동일한 변인이라도 조사대상의 변화가 빈번하다(초기에는 아동 대상 설문지가 없었으며 아동 특성의 설문문항은 모두 보호자(주양육자)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별로 구분된 설문지의 구성대로 설명하는 방식보다 조사의 영역별로 설명하는 것이 전체 조사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다.

4) 2023년 아동패널자료 활용 논문 분석결과 컴퓨터 활용 능력과 독서량 문항은 각각 1건씩 활용되었다.

라 기존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권선중·엄나래, 2016).

〈표 II-2-3〉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	○
일상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	●	-	-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	-	-
		식생활 진단_식품	-	●(신규)	●
		식생활 진단_음료	-	●(신규)	●
		식생활 진단_기타	-	●(신규)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총합	●	●	●
		미디어 이용시간 항목별 세부시간(시간으로 응답)	●	●	●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진단)	○	○	○
		스마트폰 중독(자가진단)	●	●	-
		스마트폰 과의존(자가진단)	-	-	●(신규)
		컴퓨터 사용 능력(격년)	●	-	삭제
	생활 시간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	●
		(주중, 주말) 일과활동 시간	●	●	●
		활동별 참여 빈도	○	○	○
		시간사용 만족도	●	삭제	삭제
	실내/외 활동	독서량	●	●	삭제
		실내외 신체 활동	●	●	●
		비대면/대면등교 여부	●	삭제	삭제
		취미(악기연주, 스포츠경험) 여부	●	삭제	삭제
		취미 여부 및 종류	●	●	●
	참여	가사 참여 여부	●	●	●
	경제 활동	저축 여부	●	삭제	삭제
		저축금 출처	삭제	삭제	삭제
		저축금 방법	●	삭제	삭제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	●
		용돈 사용처	●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나)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조사는 16차년도와 17차년도 내용에 변화 없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 특성으로는 체중/신장/허리둘레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외에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및 시기,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사(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 결과, 2차 성징 관련 문항, 신체적 자아상, 체형 및 체중조절 관련 문항 등은 아동, 보호자 혹은 교사가 직접 응답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속문항으로 조사되어 온 장애 및 만성질환 유형별 진단 여부와 치료 등 질환 및 치료 영역에 대한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호자가 응답하게 하였다. 중등시기에 들어서면서 문항을 지속적으로 늘려 온 음주·흡연 영역 역시 전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표 II-2-4〉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체중/신장/허리둘레*	●	●	●
		신체계측방법	●	●	●
		주관적 건강상태_보호자 인식	○	○	○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
		체력검사 결과(PAPS)	■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	●
		신체적 자아상	●	●	●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
		체중조절 방법	●	●	●
	질환 및 치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	○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응급실/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	○	○
	음주 흡연	음주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	●
		음주장소	-	●(신규)	●
		주류 구입 경험	-	●(신규)	●
		흡연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	●
		담배 입수경로	-	●(신규)	●
		담배 구입 경험	-	●(신규)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다)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에서는 집행기능 등 인지 발달영역의 척도 문항과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학업성취도 조사는 16차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준 아동의 과목별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아동설문에서 조사하였으나, 17차년도에는 아동용 설문지의 응답 부담 경감 및 패널유지 확률 제고⁵⁾를 위하여, 보호자용 설문에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보호자용 설문으로 이동하게 된 아동의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기초로 한 학업성취도 문항은 고등학교 성적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학과학 등은 9등급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A, B, C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전반적인 성적이 반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주관적 인식 문항만을 남겨두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조절학습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16차년도에 이어 17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집행기능은 격년 조사문항으로 15차년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17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항이다. 그러나, 집행기능의 경우 문항의 수가 너무 많고, 학교적응, 학업 스트레스 등과 중복 문항이 많아 17차년도에 조사하지 않고, 18차년도 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에는 집행기능보다는 학교적응 문항을 우선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8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조사에서는 학교적응 문항을 삭제하고 집행기능을 조사할 예정이다.

〈표 II-2-5〉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집행기능(격년)(*18차 수행예정)	●	-	-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중등)	■	삭제	삭제
		학업 스트레스	●	●	●
		학업 이해도	●	삭제	삭제

5) 고등학생기 아동에게 성적표의 결과에 대한 질문은 매우 민감하여 응답을 꺼려하는 설문이라 판단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인지 발달 및 학습	학습 관련	학업성취도	-	●○(신규)	○
		학업성취도 주관적인식	-	-	●○(신규)
		자기조절학습	●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라)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에서는 자아 발달과 관련해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자율성의 문항이 포함되며, 정서와 관련해서는 행복감, 우울 관련 조사가 다루어진다.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선 학교적응, 또래애착 등의 척도문항들과 집단괴롭힘과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등이 포함되고, 미래/진로와 관련해선 미래/진로 관련 문항들 및 결혼 및 자녀관, 공동체 의식 등의 사회인식 문항들을 다룬다. 특히, 올해에는 5차 심층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가족 및 다문화 인식 문항들이 경제사회 관련 영역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우선 자아 및 정서 발달, 사회성 영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행복감과 우울, 사회성 발달 부분의 학교적응, 또래애착 등은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16차년도에 이어 17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다. GRIT(끈기)는 자아 발달영역에서 조사되는 격년 조사문항으로 15차년도에 조사되었기에 17차년도에 조사문항에 포함하는 반면, 격년 조사문항으로 16차년도에 조사가 이뤄진 문항들인 자아탄력성, 자율성 문항은 17차년도에는 제외된다. 또한 자아 발달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 비행 인식 문항의 경우 인식과 경험의 측면이 다르긴 하나, 사회성 발달 내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사이버'에서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포함하므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일정정도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학생 때(16차년도)까지 질문하던 과목선호도 문항은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 선택 문항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⁶⁾ 이후 조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학교적응 문항의 경우 인지 발달에 포함된

6) 2023년 아동패널자료 활용 논문 분석결과 과목선호도 문항을 활용한 논문은 없었다.

격년 조사문항인 집행기능과의 내용상 중복성 등으로 격년 조사문항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하였으나, 17차년도는 고등학교 진학(1학년) 시기라는 점에서 학교적응을 질문하고,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에 포함된 집행기능은 차년도에 조사하기로 조정하였다.

공감은 현재의 조사에서 또래애착, 학교적응 문항과 격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하는 문제행동 문항 등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긴 문항에 대한 아동 응답의 부담을 덜고자 17차년도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회성 영역에 포함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성관계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폭력 피해 및 가해 문항도 그대로 유지하되, 비속어 문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삭제하였다⁷⁾.

미래/진로와 관련하여서는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기준을 묻는 직업선택조건 문항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등 진로계획 문항으로 대체하며 삭제하였다. 즉, 패널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17차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획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 계획에 따른 선택이유를 조사하며 대학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계열 등을 조사하였다. 이외 미래희망직업,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제·사회 관련 영역에서는 2024년 ‘후기 청소년의 가족과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한 심층조사 문항으로 가족 관련 인식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선 가족의 범위(법적혼인 및 혈연, 동거, 친밀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기존 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물어왔던 결혼을 할 생각인지, 자녀를 가질 생각인지 묻는 결혼관/자녀관 문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남녀 간의 동거, 비혼, 혼외출산, 무자녀부부, 이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결혼관/자녀관의 심층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때 가족의 범위 문항은 여성가족부(2021)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번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해 구성하였으며, 결혼관/자녀관의 심층문항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20년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14번 문항의 일부를 선정해 수정하여 구성하였다(양정선·장미, 2020: 105). 또한, 부모님이 언제까지

7) 2023년 아동패널자료 활용 논문 분석결과 비속어 문항을 활용한 논문은 없었다.

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정책 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Sn=704893 (인출일: 2024.6.11)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부양, 가족의 의사 결정, 집안일 등 가사,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가족 내 성역할 인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 문항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문항의 선택지를 일부 수정해 구성하였으며(최효미 외, 2023), 가족내 성역할 인식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 9번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하였다(김영란 외, 2023: 544).

5차 심층조사 주제로 가족인식 외에도 다문화 인식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기본문항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요하게 어디에 두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민정체성’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갈등이 큰 국제 정세 속 청소년들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문항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문항을 포함하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의 긍정성 확인을 위해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청소년용 조사에서 발췌하였으며⁹⁾, 특히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와 일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국제지표로서 비교가능하도록 하였다(김이선 외, 2022: 191).

〈표 II-2-6〉 15~17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	●	●	●
		자아탄력성(격년)	-	●	-
		자아정체감(격년)	-	삭제	삭제
		GRIT(끈기)(격년)	●	-	●
		자율성(격년)	-	●	-
		사이버 비행인식	●	●	삭제

9) 국민정체성,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행동 의지의 3개 문항은 청소년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s)의 일부이다. 청소년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는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문화개방성/국민정체성/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거부회피정서/상호교류행동 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세계시민행동 의지)의 하위영역을 포괄한다(김이선 외, 2022: 126). 척도 문항의 일부 사용에 대한 적절성, 문항내용의 상세계의미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사회 및 정서 발달	정서 발달	시간사용 만족도	●	삭제	삭제
		전반적 행복감	●	●	●
		삶의 만족도	●	삭제	삭제
		과목 선호도	●	●	삭제
		우울	●	●	●
	사회성 발달	문제행동(격년)	-	○■	-
		학교적응(중·고등학교)	●	●	●
		도래애착	●	●	●
		공감	●	●	삭제
		폭력 피해(온/오프)	●	●	●
		폭력 가해(온/오프)	●	●	●
		비속어 사용	●	●	삭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_아동	●	●	●
	미래/진로	이성관계	●	●	●
		미래희망모습	●	삭제	삭제
		직업선택조건	-	●(신규)	삭제
		진학계획_고등 졸업 후	-	-	●(신규)
		진학계획_대학교	-	-	●(신규)
		진학계획_고등학교	-	●○	삭제
		미래희망직업	●	●	●
		진로성숙도	●	●	●
		진로진학 활동	-	●(신규)	●
		미래에 대한 인식	●	삭제	삭제
	경제사회 관련	결혼관/자녀관	●	●	●
		결혼관/자녀관(심층)	-	-	●(심층)
		가족의 범위(심층)	-	-	●(심층)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심층)	-	-	●(심층)
		가족내 성역할 인식(심층)	-	-	●(심층)
		공동체 의식(격년)	●	-	●
		국민정체성(심층)	-	-	●(심층)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심층)		-	-	●(심층)	
세계시민행동 의지(심층)		-	-	●(심층)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심층)		-	-	●(심층)	
안전에 대한 인식		●	삭제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2) 부모 특성

부모 특성의 경우,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 결혼상

태, 결혼만족도나 부부 갈등 등의 부부 특성, 신체 특성, 음주와 흡연 등의 신체 및 건강 특성과 부모의 취업 특성이 포함된다. 또한, 양육 특성으로 아동이 응답하는 양육방식 및 부모애착 정도, 아동학대 문항과 부모 각각이 응답하는 양육 스트레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며, 보호자가 응답하는 부모 감독과 부모의 지원 정도 문항과 부모 각각 그리고 자녀에게 모두 질문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도 조사된다.

이 중 우울 척도의 경우, 한국아동패널 초기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산모의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출산 직후 산후우울 중심으로 이뤄진 우울 문항을 사용하여 왔지만, 척도의 최신화 필요성과 외부 연구자들의 변경 요구 등에 따라 심층적으로 널리 쓰이는 Kroenke 외(2001)의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로 대체한 바가 있다. 하지만, 우울 문항의 경우 패널의 설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격년 문항으로 설정하여 올해는 조사되지 않으며, 대신 자아존중감 척도가 조사된다.

부모에게 묻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척도는 아동이 완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동의 환경적 측면에서 측정의 타당성이 낮아져 올해부터 설문문항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육 특성 내 합리적 설명 문항의 경우 청소년기 연구에서의 문항의 활용도를 고려하여¹⁰⁾ 17차 조사부터 삭제하기로 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경우, 아동 특성 조사변인과 동일하게 척도 활용의 시의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국아동패널에서 활용하였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스마트폰(S-척도) 및 인터넷(K-척도) 중독 척도의 통합 버전인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변경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대한 설명은 앞서의 아동 특성 일상생활 영역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II-2-7〉 15~17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개인 및 부부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

10) 2023년 아동패널자료 활용 논문 분석결과 합리적 설명 문항을 활용한 논문은 없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특성	심리적 특성	우울(전기)	-	삭제	삭제
		우울(후기)	-	●	-
		자아존중감(격년)	●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	삭제
	일상생활 특성	부모 스마트폰 중독	●	●	-
		스마트폰 과의존(자가진단)	-	-	●(신규)
	부부 특성	결혼상태, 결혼상태 유지 기간*	○	○	○
		결혼만족도(격년)	-	●	-
부부 갈등(격년)		●	-	●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	●
	질환/장애	1·2급 장애 유무 및 정도	○	○	○
	운동	실내외 신체활동	-	●(신규)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	●
		종사상 지위	○○	●	●
		주당 근로시간	-	●(신규)	●
		근무일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	
양육 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
		부모애착척도(IPPA)	●	●	●
		아동학대	●	●	●삭제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	삭제	삭제
		부모 감독(전기)	○	삭제	삭제
		부모 감독(후기)	●	●○	○
		합리적 설명	●	●	삭제
		양육 스트레스	●	●	●
		부모-자녀 의사소통	●● (신규)	●●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	삭제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3) 가구 특성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생활환경 등 물리적 특

성, 가구소득, 근로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 경제적 특성을 조사한다. 가구 특성은 17차 조사에서도 기존의 조사문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표 II-2-8〉 15~17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인구 학적 특성	가구 구성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	○	○
	구성원 특성	성별, 생년월일*	○	○	○
		결혼 여부, 합가 사유*	○	삭제	삭제
		패널아동 다둥이 여부	-	○(신규)	○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
	생활환경	애완동물(반려동물) 여부	○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소득	○	○	○
		취업 모/부 근로소득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지출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자산 및 부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	삭제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에서는 아동의 고등학교 재학 여부, 대체이용기관, 미진학 시 사유 등 학교 재학 특성과 고등학교 유형이나 학교 풍토, 학생비행, 학교 환경 등 학교 특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또한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사항으로 경력, 담당과목, 스트레스, 교사효능감과 함께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인식 등도 조사하고,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교육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사교육 효과 등과 함께 EBS 관련 문항도 조사한다.

학교 및 사교육 특성에서는 17차년도부터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에 맞게 조사지를 수정하였다. 즉, 남녀공학 여부는 16차년도까지는 교사응답 문항이었으나 17차년도부터 보호자응답 문항으로 변경하면서 이때 남녀공학에서 남녀합반과 남녀분반을 추가하였다. 시범학교 유형은 학교급 변화에 따

라 17차년도부터 조사문항에서 제외하였다.

17차년도 조사부터 기존 교사 특성에서 조사하던 교사 연령, 교사 최종학력, 교사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기존의 교사-아동 관계 문항이 패널아동이 후기 청소년이 된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여 삭제하고,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학업열의, 교우관계, 규칙준수, 정서적 안정, 인성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는 수준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교사가 응답하던 부모의 학교 행사 및 상담 참여 등의 학교생활 관심도 문항은 현실적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7차년도부터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사교육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17차년도부터 기존의 사교육 이용 특성 이외에 사교육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EBS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즉, 아동에게 EBS 이용 여부, 이용 시간, 도움 정도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모 조사지에서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과목별로 조사하던 사교육비 부담 정도와 이용만족도는 사교육서비스 전체에 대한 부담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통합문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응답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

〈표 II-2-9〉 15~17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재학 여부	○	○	○	
		대체 이용기관	○	○	○	
		미진학 이유(미재학 이유)	○	○	○	
		전학 여부	○	○	○	
	학교 특성	학교 유형_중학교	○■	○■	삭제	
		학교 유형_고등학교	-	-	○(신규)	
		남녀공학 여부	■	■	○	
		시범학교 유형	■	■	삭제	
		학교 서비스 만족도	○	○	○	
		학교 풍토	■	■	■	
	물리적 특성	학생비행	■	■	■	
		학급수, 학급 학생수	■	■	■	
	교사 특성	학교 환경	■	■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시간	■	■	■(수정)	
		교사 담당과목	■	■	■	
		업무 스트레스	■	■	■	
			교사효능감_중고등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학교	학급 운영	교사-아동 관계	■	■	삭제
		교사-아동 인식	-	-	■(신규)
	가정 협력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부모)	○	○	○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	■	삭제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삭제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	■	삭제
		학교생활 연락 정도	삭제	삭제	
고교 진학유형	-	●○	●○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	○	○
		교육서비스 교재비	○	○	○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부담, 사교육 개수 적당, 부담 정도 및 부담이유)	●	●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효과 인식)	●	●	●
EBS	EBS 이용 여부, 시간, 도움 정도	-	-	●(신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5) 지역 및 정책 특성

지역 및 정책 특성 부문에서는 거주지역, 이사횟수 및 사유, 양육환경 등 지역 특성과 정책지원 수급 경험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 정책 특성을 조사한다. 지역 특성과 관련해서는 영유아기에 양육환경과 관련된 조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패널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여 간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조미라 외, 2023).

정책 특성 부문의 정책지원 수급 경험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여부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여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인식과 관련해서는 16차년도에 추가되었던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과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2개 문항은 공교육 전반과 보편적인 정책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 문항이었기에 17차년도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신 17차년도에는 지난 2023년 6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¹¹⁾에 기반하여 공정수능, 사교육카르텔 근절, 공정입시, 맞춤형 학습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유아 공교육 강

11)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 보도·설명·반박, 보도자료, 사교육 경감대책,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12.30)

화 효과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II-2-10〉 15~17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차 (중2)	16차 (중3)	17차 (고1)
지역 특성	가구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이사 사유	○	○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 료 문화·여가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에 포함)	삭제	삭제	삭제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	○	○
		사회 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	○	○
정책 특성	정책지원 수급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	○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삭제	삭제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	○(신규)	○
	정책인식 및 의견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삭제	삭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	-	○(신규)	삭제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	○(신규)	삭제
			코로나19 대응 정책만족도	삭제	삭제	삭제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삭제	삭제	삭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삭제	삭제	삭제
			사교육 경감대책	-	-	○(신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	-	○(신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가.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한국아동패널사업은 패널아동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2023년에 진로진학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개최 후 참석 가구 대상으로 만족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7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조미라 외, 2023: 57), 올해 2024년에도 이 사업을 유지하였다.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선 패널아동과 부모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및 대학입시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장과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 패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패널유지를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당일(2024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편집된 영상자료를 자료실에 업로드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설명회는 2023년 조사업체인 한국갤럽과 공동주최 기획하였으며, 1) 고등학교 학교생활의 이해(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평가 등)와 2) 대입전형의 이해(전형분류 및 전형별 개괄)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수요조사 시 314명이 신청하였고 당일 온라인 참석인원은 50여명 내외로 기록되었다. 설명회 영상편집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에 게재 및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으며, 전체 보호자 및 아동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SNS 채널로 홍보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요 추진일정 및 행사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개요 및 추진일정

구분	내용
행사명	- 한국아동패널 온라인 진학설명회 - 고1의 대입 준비, 핵심만 가져가자!
개최일	- 2024. 4. 7.(일) 14:00-15:30
방식	- 개최 당일 ZOOM 웨비나 링크를 통해 참여 -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및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업로드 자료로 시청
내용 및 진행	1) 고등학교 학교생활의 이해(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평가 등) 2) 대입전형의 이해(전형분류 및 전형별 개괄) ※ 강사: 현직 고교 입시 전담교사

구분	내용	
주요추진 일정	2023. 12. 12.(화)	패널가구 대상 설명회 등 입시지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024. 3. 7.(목)	설명회 관련 추가 협의
	2024. 3. 12.(화)	설명회 진행 선생님 섭외 완료
	2024. 3. 14.(목)	패널가구 대상 설명회 1차 공지
	2024. 3. 22.(금)	패널가구 대상 설명회 사전 수요조사(참여규모 및 관심내용)
	2024. 4. 1.(월), 2024. 4. 5.(금)	문자 및 SNS 채널 설명회 홍보
	2024. 4. 7.(일)	설명회 진행
	2024. 4. 11.(목)	유튜브 영상 게재 및 패널가구 대상 공지

[그림 II-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행사 포스터 등



나.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실시

패널유지 방안의 일환으로 패널아동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와 한국아동패널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정책공모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토로 하여 교육(평등, 공정, 기회 등), 인구(고령화, 저출생, 성, 지역 등), 국제(난민, 세계시민 등), 환경(식량, 에너지 등), 기술혁신(AI, 생명과학 등)의 5개 주제 중 선택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참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참여 아동을 포함한 개인 또는 그룹(패널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2~5명)이며,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정책을 서면, 포스터, 영상 등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2024년 4월에 개최되었던 패널가구 대상의 진로진학설명회 때 정책공모전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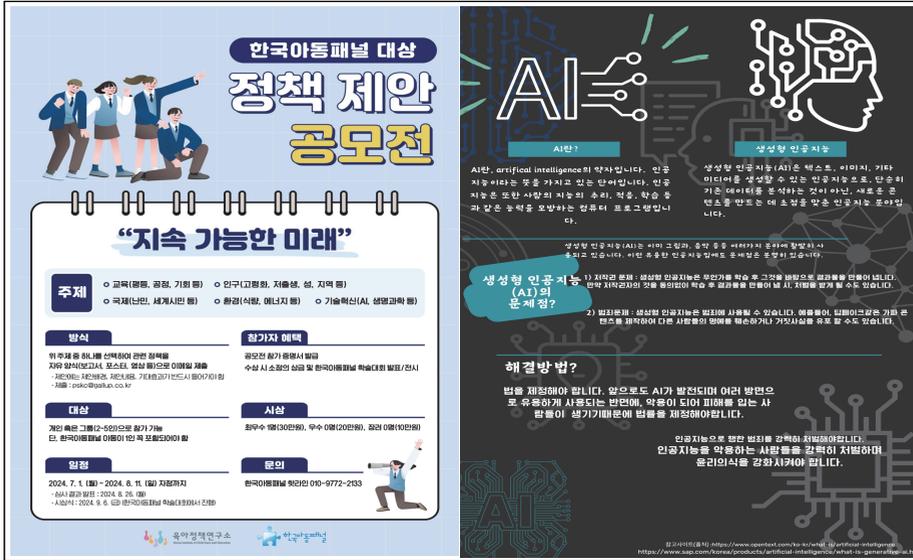
최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아동들이 여름방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이 포함된 7, 8월(7/1~8/11)에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5개팀의 총 10명이 접수하였으며, 이중 아동패널 연구진 5인의 심사로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상금을 전달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미수상작 2팀에게 참여상을 전달하였다. 제안된 정책내용과 수상소감은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시 보고하였다.

〈표 II-3-2〉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개요 및 추진일정

구분	내용	
행사명	한국아동패널 정책공모전 - 지속가능한 미래	
주제	교육(평등, 공정, 기회 등) / 인구(고령화, 저출생, 성, 지역 등) / 국제(난민, 세계시민 등) / 환경(식량, 에너지 등) / 기술혁신(AI, 생명과학 등)	
참여대상 및 방법	-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정책을 자유 양식(서면, 포스터, 영상 등)으로 제출 - 패널아동 개인 또는 패널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2~5명의 그룹으로 참가 가능	
결과	- 5개팀(총 10명) 참여 -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 선정 및 시상	
	구분	제안주제/ 제안명
	최우수	교과목별 전자교과서 허용
	우수	못난이 농산물을 이쁜이 농산물로
	장려	생성형 AI의 사용 제한
- 참여자 전원에게 참여확인증 발급, 미수상작 2팀에게 참여상(모바일상품권) 발송		
주요추진 일정	2024. 3~4월	정책공모전 주제 선정 및 준비 - 패널가구대상 진로진학설명회(4.11)에서 공모전 홍보
	2024. 7. 1~8.11	공모
	2024. 8.11~8.20	심사
	2024. 8.26.	심사결과 발표
	2024. 9. 6.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결과보고



[그림 II-3-2]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행사 포스터, 제안내용 예시



다. 패널가구 SNS 채널 관리

패널가구에게 조사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 문자와 SNS 채널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즉, 패널조사의 시작, 진행, 종료 등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새학기, 명절, 생일에 기념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일상적 연락망의 일환으로 아동 대상으로 시험시즌 등에 퀴즈이벤트 행사(연간 약 10회)를 열고 모바일상품권 증정 등으로 아동패널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이상의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문자, SNS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3-3>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구분	내용
조사 공지	- 17차년도 조사진행에 따른 내용 공지
퀴즈	- 아동패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아동패널 관련 퀴즈 또는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상식 문제 - 연 6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구분	내용
열공퀴즈	- 패널아동 학교 시험기간 내 관련 내용 문제 출제 - 연 4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레터링 /생일축하	- 새학기, 명절, 연말 등 기념메시지 전달 - 아동생일 당일 축하메시지 및 상품권 전달
카드뉴스	- 고1의 대입준비,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소감

〈표 II-3-4〉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연도	구분					
	조사 공지	퀴즈	열공퀴즈	레터링	생일축하	카드뉴스
1월						
2월				10일(설)		
3월						
4월			22일(1학기 중간)		아동생일 당일	
5월		13일				
6월	24일(조사예정)		10일(1학기 기말)			25일
7월		15일, 29일				
8월	16일(조사중)	12일				
9월			9일(2학기 중간)	17일(추석)		
10월	17일(조사중)	14일				
11월		11일				
12월	(조사종료)		16일(2학기 기말)	30일(연말)		27일

[그림 II-3-3] 문자 발송 링크 퀴즈 이미지 예시

III

16차년도(2023년) 데이터 기초분석

- 01 16차년도 조사개요
- 02 아동 특성
- 03 부모 및 가구 특성
- 0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0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Ⅲ. 16차년도(2023년) 데이터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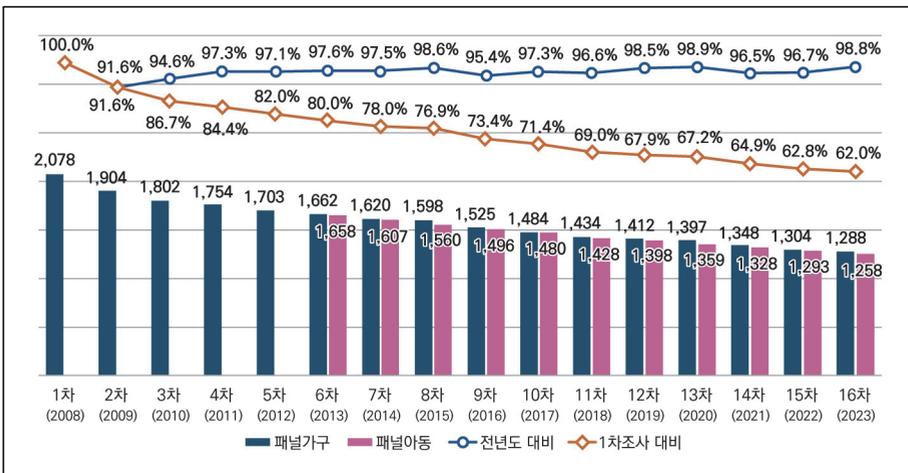
1. 16차년도 조사개요

가. 조사 특성

2023년에 수행된 16차년도 조사의 전체적인 조사참여율 및 표본유지율과 조사 대상, 지역에 따른 조사참여율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6차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288가구(아동 1,258명)로, 2023년 조사에 설정했던 유효표본 1,508가구 대비 85.4%이다. 이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의 62.0%, 15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1,304가구 대비 98.8%이다.

조사대상별로는 주양육자는 1,288명이 참여하였고 아동은 1,258명(주양육자의 97.67%)가 참여하였다. 어머니 조사에는 1,198명(주양육자의 93.01%), 아버지 조사에는 1,106명(주양육자의 85.9%), 교사 조사에는 526명(주양육자의 40.84%)이 최종 참여하였다.

[그림 Ⅲ-1-1] 2008~2023년 조사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참여율 수치는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조미라 외(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8

〈표 III-1-1〉 16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조사방법	대면 면접조사(TAPI)		지필식 조사(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CAWI)
조사 참여자수	1,288	1,258	1,198	1,106	526
조사참여율 ¹⁾	100.00	97.67	93.01	85.90	40.84

주: 조사참여율은 주양육자 대비 비율임.

나. 조사대상자 특성¹²⁾

2023년 16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51.24%, 여학생이 48.76%로 남학생이 다소 많으며, 출생 순위를 보면 둘째 이상이 52.72%로 가장 많고 첫째가 36.72%, 외동아는 10.56%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보면 모의 경우 취·학업 중이 71.20%이고 미취업·미학업 중이 28.80%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 취·학업 중이 98.55%, 미취업·미학업 중은 1.45%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모의 경우 대졸 이상이 45.38%, 전문대 졸 29.39%, 고졸 이하 25.24%로 나타났으며, 부의 경우는 대졸 이상이 53.88%로 모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 졸은 25.12%, 고졸 이하는 21.00%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모는 47.09세, 부는 49.58세였다.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2.2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부모+자녀 8.39%, 조부모+부모+자녀(+친인척+기타) 6.53%, 조부모+한부모+자녀(+친인척+기타) 1.17%로 조사되었다. 패널가구의 자녀수를 보면 2명 이상이 60.40%로 높게 나타났으며 1명은 10.56%, 3명 이상은 29.04%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는 2.23명, 총 가구원수는 4.29명으로 분석되었다. 월 가구소득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350만원 초과~550만원이 30.48%, 550만원 초과~750만원이 30.04%, 750만원 초과는 27.81%로 나타났다. 350만원 이하는 11.68%로 조사되었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642.43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68.56%로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18.94%, 읍면지역은 12.50%로 나타났다.

12) 2023년(16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III-1-2〉 16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	51.24(660)	취·학업 중	71.20(853)	98.55(1,090)
여	48.76(628)	미취업·미학업 중	28.80(345)	1.45(16)
출생순위		최종학력		
첫째	36.72(473)	대졸 이상	45.38(579)	53.88(667)
둘째 이상	52.72(679)	전문대 졸	29.39(375)	25.12(311)
외동아	10.56(136)	고졸 이하	25.24(322)	21.00(260)
계(수)	100.00(1,288)	계(수)	100.00(1,198)	100.00(1,106)
		연령 평균(표준편차)	47.09(3.60)	49.58(3.97)
구분	가구	구분	가구	
가구 구성 형태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82.28(1,059)	가구		
조부모+부모+자녀(+친인척+기타)	6.53(84)	총 가구원수(명)	4.29	0.93
한부모+자녀	8.39(108)	총 자녀수(명)	2.23	0.71
조부모+한부모+자녀(+친인척+기타)	1.17(15)	가구 소득(만원)	642.43	284.69
기타	1.63(21)			
자녀수				
1명	10.56(136)			
2명	60.40(778)			
3명 이상	29.04(37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1.68(131)			
350 초과~550만원	30.48(342)			
550 초과~750만원	30.04(337)			
750만원 초과	27.81(312)			
지역규모				
대도시	68.56(883)			
중소도시	18.94(244)			
읍면	12.50(161)			
계(수)	100.00(1,288)			

이상과 같이 조사된 2023년 16차 아동패널 자료로 아래에서는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아동연령 증가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세부적인 특성파악을 위해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의 하위집단 분석을 추가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의 저소득 구간 설정은 정부공시 중위소득 60%를 참고¹³⁾하여 설정하였다.

13) 가구소득 범주 구분시 350만원 이하를 저소득 구간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정부공시 기준중위소득 60%

2. 아동 특성

2023년 16차 아동 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언어 및 학습 특성, 사회 및 정서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따른 세부 분류는 다음 아래의 표와 같다. 아동의 인구학적 변인은 앞서의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언어 및 학습 특성, 사회 및 정서 특성에 포함되는 세부변인에 대해 기술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표 III-2-1〉 16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진단 식품 • 식생활 진단 음료 • 식생활 진단 기타
	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주중, 주말) 일과활동 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가사 참여 여부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량 • 실외 신체 활동, 실내 신체 활동 • 취미 여부 및 종류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 미디어 이용시간, 세부항목별 시간 • 스마트폰 중독(아동 진단), 미디어기기 중독(부모 진단)
	활동별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연수 빈도 • 문화체험, 예술감상, 종교활동 •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 장보기, 친척 방문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 2차 성징 • 신체적 자아상

값을 참고하였다. 2024년 정부공시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중위소득 60% 3,437,948원, 5인가구 중위소득 60% 4,017,441원이며, 16차년도 패널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4.29명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조절 방법,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체력검사 결과(PAPS)
	질환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만성질환(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만성질환별 병원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심리사회적 질환별 병원치료(또는 상담) 여부 • 응급실 치료 여부 및 이유, 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언어 및 학습 특성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스트레스 • <u>학업성취도</u> • 과목 선호도 • 자기조절학습
사회 및 정서 특성	자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 자아탄력성 • 자율성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행복감, 우울 • 공감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_중고등 • 또래애착 • 이성관계
	비행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행동(CBCL, TRF) • 폭력 피해(온/오프) • 폭력 가해(온/오프) • 음주경험 여부, 음주시작 시기, 음주 횟수 • <u>음주 장소, 주류 구입 경험</u> • 흡연경험 여부, 흡연시작 시기, 흡연 횟수 • <u>담배 입수 경로, 담배 구입 경험</u> • 비속어 사용 • 사이버 비행 인식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사용처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_아동
	미래/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희망직업 •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 <u>직업선택조건</u>
	사회 관련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자녀관

주: 16차 신규 및 변경문항 밑줄로 표시

가.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아동의 식생활 진단은 16차 조사부터 청소년 시기에 맞게 변경된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식품, 음료,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식품의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단백질)의 경우 주 3~4회의 응답비중이 27.74%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 1번 20.67%, 주 5~6회 18.44%, 매일 2번 14.23%, 주 1~2회 12.40%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경우 주 3~4회가 30.52%로 가장 높았으며 주 1~2회 21.46%, 주 5~6회 14.86%, 매일 1번 14.47%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의 경우도 주 3~4회가 29.81%로 가장 높고 이어 주 1~2회 26.55%, 주 5~6회 15.26%, 매일 1번 15.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의 경우 주 3~4회가 37.84%로 가장 높고 이어 주 1~2회 28.38%, 주 5~6회 16.7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의 분석결과는 주 1~2회가 36.88%로 가장 높고 이어 주 3~4회가 34.82%로 높게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과자류의 트랜스 지방의 분석결과 주 3~4회의 응답비중이 34.4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 1~2회가 30.37%로 조사되었다. 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인스턴트 식품(패스트푸드)의 경우 주 1~2회가 40.86%, 주 3~4회가 34.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 채소, 튀김/볶음요리, 지방이 많은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식품의 섭취 횟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식품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전체	100(1,258)	0.16	12.40	27.74	18.44	20.67	14.23	6.36
단백질	아동 성별								
	남	100(641)	0.16	9.83	24.34	18.10	23.40	16.07	8.11
	여	100(612)	0.16	14.54	31.54	18.95	17.81	12.42	4.58
	$\chi^2(df)$				25.48(6)***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채소	전체	100(1,258)	2.54	21.46	30.52	14.86	14.47	9.38	6.76
	아동 성별								
	남	100(641)	2.50	16.54	28.08	16.69	17.63	10.92	7.64
	여	100(612)	2.61	26.31	33.17	12.91	11.27	7.84	5.88
	$\chi^2(df)$		33.00(6)***						
과일	전체	100(1,258)	4.37	26.55	29.81	15.26	15.02	5.09	3.90
	아동 성별								
	남	100(641)	5.30	25.27	27.61	15.13	17.16	5.46	4.06
	여	100(612)	3.43	27.45	32.19	15.52	12.91	4.74	3.76
	$\chi^2(df)$		9.44(6)						
튀김/ 볶음요리	전체	100(1,258)	2.94	28.38	37.84	16.77	9.22	3.34	1.51
	아동 성별								
	남	100(641)	2.81	24.80	36.04	19.81	10.61	3.59	2.34
	여	100(612)	3.10	32.03	39.71	13.56	7.84	3.10	0.65
	$\chi^2(df)$		22.94(6)**						
지방이 많은 단백질	전체	100(1,258)	4.29	36.88	34.82	12.72	7.31	2.62	1.35
	아동 성별								
	남	100(641)	3.59	30.27	36.19	15.13	9.67	3.12	2.03
	여	100(612)	4.90	43.63	33.66	10.13	4.90	2.12	0.65
	$\chi^2(df)$		38.46(6)***						
트랜스 지방	전체	100(1,258)	4.93	30.37	34.42	15.58	10.57	3.02	1.11
	아동 성별								
	남	100(641)	5.46	28.39	33.85	17.00	10.45	3.43	1.40
	여	100(612)	4.25	32.35	35.29	13.89	10.78	2.61	0.82
	$\chi^2(df)$		6.40(6)						
인스턴트 식품_ 패스트 푸드	전체	100(1,258)	4.69	40.86	34.58	12.00	4.69	1.99	1.19
	아동 성별								
	남	100(641)	4.99	34.95	34.48	15.13	6.24	2.34	1.87
	여	100(612)	4.41	47.06	34.48	8.82	3.10	1.63	0.49
	$\chi^2(df)$		34.12(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이러 음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콜라, 사이다 등을 포함한 탄산음료의 경우 주 1~2회의 응답비중이 41.89%로 가장 높았으며 주 3~4회 24.96%이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의 비중이 19.48%로 조사되었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의 비중이 75.12%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주 1~2회는

16.14%, 주 3~4회는 5.17%로 조사되었다. 커피와 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의 경우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의 비중이 63.99%, 주 1~2회의 응답비중은 22.97%로 나타나 에너지음료보다는 섭취가 빈번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과일주스의 경우는 주 1~2회의 응답비중이 40.38%, 주 3~4회의 응답비중은 16.85%이며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의 응답비중은 34.26%였다.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 주 1~2회의 응답비중이 31.96%, 주 3~4회는 28.78%로 나타났으며 주 5~6회도 12.56%, 매일 1번도 11.53%로 나타났다. 물(탄산수 포함)은 매일 3번 이상이 63.51%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과일주스, 우유/유제품의 섭취 비중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 횟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3〉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음료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탄산음료	전체	100(1,258)	19.48	41.89	24.96	7.55	4.53	1.11	0.48
	아동 성별								
	남	100(641)	13.73	39.16	29.02	9.83	6.24	1.40	0.62
	여	100(612)	25.16	44.93	20.92	5.07	2.78	0.82	0.33
	$\chi^2(df)$				51.15(6)***				
에너지음료	전체	100(1,258)	75.12	16.14	5.17	2.07	1.19	0.24	0.08
	아동 성별								
	남	100(641)	70.98	18.25	5.62	2.96	1.72	0.31	0.16
	여	100(612)	79.41	14.05	4.74	0.98	0.65	0.16	-
	$\chi^2(df)$				17.21(6)**				
카페인 함유 음료	전체	100(1,258)	63.99	22.97	7.95	2.62	1.99	0.40	0.08
	아동 성별								
	남	100(641)	65.68	21.68	7.18	2.50	2.34	0.47	0.16
	여	100(612)	62.25	24.35	8.82	2.61	1.63	0.33	-
	$\chi^2(df)$				4.51(6)				
과일주스	전체	100(1,258)	34.26	40.38	16.85	3.82	3.58	0.64	0.48
	아동 성별								
	남	100(641)	30.89	39.78	18.56	4.37	4.99	0.94	0.47
	여	100(612)	37.91	40.85	15.03	3.27	2.12	0.33	0.49
	$\chi^2(df)$				16.89(6)*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우유/ 유제품	전체	100(1,258)	10.41	31.96	28.78	12.56	11.53	3.18	1.59
	아동 성별								
	남	100(641)	8.58	27.61	28.86	14.66	13.42	4.21	2.65
	여	100(612)	12.42	36.44	28.76	10.29	9.48	2.12	0.49
	$\chi^2(df)$		34.49(6)***						
물 (탄산수 포함)	전체	100(1,258)	0.79	2.15	4.21	5.09	8.27	15.98	63.51
	아동 성별								
	남	100(641)	0.78	2.50	3.90	4.84	7.80	14.82	65.37
	여	100(612)	0.82	1.63	4.41	5.39	8.82	17.16	61.76
	$\chi^2(df)$		3.62(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식생활과 관련된 기타사항으로는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식은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편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의 염분 추가 문항의 경우 평균 2.51점, 규칙적인 식사의 경우 평균 2.01점, 다양한 식품의 섭취의 경우는 평균 1.79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3개 문항 모두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4〉 아동의 식생활 진단_기타

단위: (명), 점

구분	(수)	염분 추가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2.51	0.65	2.01	0.81	1.79	0.72
아동 성별							
남	(641)	2.43	0.67	1.92	0.80	1.73	0.71
여	(612)	2.59	0.61	2.11	0.80	1.84	0.73
t		-4.40***		-4.27***		-2.5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53	0.62	2.06	0.80	1.78	0.67
350 초과-550만원	(329)	2.49	0.67	2.00	0.82	1.82	0.71
550 초과-750만원	(328)	2.55	0.62	2.06	0.81	1.76	0.74
750만원 초과	(300)	2.48	0.65	1.96	0.81	1.76	0.74
F		0.74		0.88		0.60	

구분	(수)	염분 추가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2.50	0.63	2.02	0.80	1.79	0.72
중소도시	(241)	2.55	0.67	1.96	0.83	1.80	0.72
읍면	(160)	2.51	0.66	2.06	0.81	1.74	0.71
<i>F</i>		0.54		0.86		0.3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1$, *** $p < .001$.

나) 가족식사

주양육자(보호자) 대상으로 아동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8회 이상이 36.65%로 가장 높았으며, 주 3~5회 29.27%, 주 6~7회 21.20%로 분석되었고 주 1~2회의 응답은 11.34%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과 지역규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나 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 주 8회 이상 응답비중이 대도시는 32.62%인데 비해 중소도시는 43.44%, 읍면지역은 48.45%로 분석되었다.

〈표 III-2-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단위: %, (명)

구분	계(수)	거의 안 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전체	100.00(1,288)	1.55	11.34	29.27	21.20	36.65
아동 성별						
남	100.00(660)	2.42	11.82	26.21	18.79	40.76
여	100.00(628)	0.64	10.83	32.48	23.73	32.32
<i>χ² (df)</i>				21.17(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3.82	9.92	25.95	22.90	37.40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0.88	11.70	28.65	19.59	39.18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0.59	9.79	29.97	21.07	38.58
750만원 초과	100.00(312)	1.60	13.46	30.77	20.83	33.33
<i>χ² (df)</i>				13.48(12)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1.25	11.44	31.60	23.10	32.62
중소도시	100.00(244)	2.05	12.30	21.72	20.49	43.44
읍면	100.00(161)	2.48	9.32	27.95	11.80	48.45
<i>χ² (df)</i>				30.47(8)***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2) 일과활동 시간

가) 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패널아동의 방학이 아닌 주중과 주말의 취침과 기상시각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중의 평균 취침시각은 24시 13분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11시 56분(조미라 외, 2023: 71)보다 20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의 평균 기상시각은 오전 7시 25분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7시 24분(조미라 외, 2023: 71)과 비슷하였다. 한편 주말의 평균 취침시각은 24시 58분으로 주중보다 45분 늦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말의 평균 기상시각은 9시 37분으로 주중보다 2시간 12분 가량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주중과 주말 모두 여학생의 취침시각이 남학생보다 늦는 반면, 기상시간은 주중에는 여학생이 빠르지만 주말에는 더 늦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주중과 주말 모두 가구 소득 350만원 이하 아동과 350만원 초과~550만원 이하 아동은 750만원 초과 아동보다 취침시간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읍면지역 아동보다 주중의 취침시간이 늦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6〉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각		기상시각		취침시각		기상시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24:13	1.16	7:25	0.90	24:58	1.36	9:37	1.45
아동 성별									
남	(641)	24:07	1.13	7:32	0.93	24:51	1.37	9:28	1.46
여	(612)	24:20	1.17	7:18	0.85	25:07	1.32	9:47	1.44
<i>t</i>		-3.42***		4.62***		-3.40***		-4.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4:01 ^a	1.36	7:28	1.20	24:51 ^a	1.60	9:37	1.68
350 초과~550만원	(329)	24:07 ^a	1.13	7:22	0.82	24:52 ^a	1.31	9:38	1.49
550 초과~750만원	(328)	24:18 ^{ab}	1.18	7:28	0.99	24:59 ^{ab}	1.38	9:29	1.49
750만원 초과	(300)	24:28 ^b	0.97	7:26	0.67	25:13 ^b	1.21	9:43	1.30
<i>F</i>		6.81***		0.86		4.28**		1.31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기상시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24:26 ^b	1.20	7:42	0.90	24:98	1.37	9:57	1.44
중소도시	(241)	24:26 ^b	1.02	7:48	0.97	25:06	1.27	9:72	1.50
읍면	(160)	23:93 ^a	1.11	7:29	0.77	24:84	1.41	9:71	1.45
<i>F</i>		5.68**		2.21		1.26		1.31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이러 아동의 수면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 분석하고 주중과 주말 수면시간의 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주중의 수면시간은 평균 7.20시간, 주말의 수면시간은 평균 8.66시간으로 주말시간이 1.46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주중의 수면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특히 주중의 수면시간의 경우 3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보다 75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의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7〉 아동의 수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7.20	1.26	8.66	1.43	1.46	1.46
아동 성별							
남	(641)	7.42	1.23	8.63	1.46	1.21	1.48
여	(612)	6.96	1.25	8.68	1.40	1.72	1.40
<i>t</i>		6.47***		-0.59		-6.18***	
가구 소득							
350만원 이하	(130)	7.45 ^b	1.61	8.76 ^a	1.79	1.31	1.52
350 초과~550만원	(329)	7.25 ^{ab}	1.21	8.82 ^a	1.53	1.57	1.70
550 초과~750만원	(328)	7.16 ^{ab}	1.27	8.50 ^a	1.37	1.34	1.37
750만원 초과	(300)	6.97 ^a	1.13	8.49 ^a	1.21	1.52	1.26
<i>F</i>		4.94**		4.04**		1.92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7.16	1.32	8.61	1.48	1.45	1.49
중소도시	(241)	7.22	1.12	8.66	1.25	1.44	1.45
읍면	(160)	7.35	1.11	8.87	1.38	1.52	1.30
<i>F</i>		1.61		2.24		0.1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다음은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학원, 과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9.68%, 주말 3.02%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평균 6.93시간, 주말에는 평균 4.49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주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학원, 과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중에는 2.46시간, 주말에는 2.75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지역규모별 차이는 없었으나 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은 550만원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에 비해 주중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명), 시간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4)	6.93	1.04	(38)	4.49	2.55	(1,003)	2.46	0.97	(488)	2.75	1.59
아동 성별												
남	(640)	6.84	1.07	(22)	4.77	2.47	(502)	2.44	0.96	(248)	2.71	1.59
여	(609)	7.02	1.00	(16)	4.09	2.69	(499)	2.48	0.99	(240)	2.80	1.58
<i>t</i>		-3.14**		0.81		-0.65		-0.60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50만원 이하	(130)	6.84	1.31	(6)	5.33	2.32	(80)	2.18 ^a	1.00	(30)	2.55	2.45
350 초과-550만원	(326)	7.01	0.99	(5)	5.80	2.86	(253)	2.39 ^{ab}	1.00	(104)	2.53	1.50
550 초과-750만원	(327)	6.92	1.05	(12)	4.17	2.28	(281)	2.54 ^b	1.00	(150)	2.76	1.61
750만원 초과	(300)	6.90	0.94	(10)	4.15	2.87	(262)	2.57 ^b	0.93	(149)	2.99	1.42
<i>F</i>		1.07			0.74			4.27**			1.92	
지역규모												
대도시	(849)	6.85 ^a	1.04	(24)	4.31	2.53	(693)	2.50	0.96	(355)	2.82	1.51
중소도시	(241)	6.95 ^a	0.98	(4)	3.00	2.16	(199)	2.44	1.04	(97)	2.54	1.57
읍면	(159)	7.30 ^b	1.04	(10)	5.50	2.58	(109)	2.28	0.94	(36)	2.74	2.25
<i>F</i>		12.58***			1.57			2.45			1.19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9.68%, 주말 3.02%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9.73%, 주말 38.79%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다음으로는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중 책 읽는 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4.32%, 주말 31.96%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중 책 읽기 시간은 평균 0.72시간, 주말은 평균 1.03시간으로 1시간 내외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가구소득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주중 시간의 경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책 읽기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주말 시간의 경우는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책 읽기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게 분석되었다.

〈표 III-2-9〉 아동의 책 읽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책 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6)	0.72	0.37	(402)	1.03	0.57
아동 성별						
남	(137)	0.74	0.34	(185)	1.03	0.56
여	(167)	0.71	0.39	(214)	1.03	0.58
<i>t</i>		0.58			0.0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	0.66	0.32	(45)	0.98	0.43
350 초과~550만원	(78)	0.80	0.49	(107)	1.14	0.69
550 초과~750만원	(74)	0.72	0.35	(98)	0.98	0.54
750만원 초과	(79)	0.65	0.23	(100)	0.96	0.49
<i>F</i>		2.48			2.11	
지역규모						
대도시	(267)	0.71 ^a	0.34	(267)	1.04 ^{ab}	0.57
중소도시	(78)	0.66 ^a	0.23	(78)	0.91 ^a	0.41
읍면	(54)	0.91 ^b	0.58	(54)	1.18 ^b	0.73
<i>F</i>		5.77 ^{**}			3.54 [*]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4.32%, 주말 31.96%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아동에게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읽는지 조사한 결과,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5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권이 40.54%로 나타났다. 이어 3~4권 2.38%, 5~6권 1.27%로 나타났다. 아동의 독서량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0〉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단위: %, (명), 권

구분	계(수)	읽지 않음	읽음					10권 초과	(수)	평균	표준 편차
			1~2권	3~4권	5~6권	7~10권					
전체	100.00(1,258)	55.33	40.54	2.38	1.27	0.32	0.16	(562)	1.33	1.85	
아동 성별											
남	100.00(641)	58.66	37.60	2.34	1.09	0.31	-	(265)	1.28	1.24	
여	100.00(612)	51.96	43.63	2.45	1.31	0.33	0.33	(294)	1.37	2.26	
$\chi^2(df)/t$				7.58(5)						-0.55	

구분	계(수)	읽지 않음	읽음					(수)	평균	표준 편차
			1~2권	3~4권	5~6권	7~10권	10권 초과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0)	56.92	40.00	0.77	2.31	-	-	(56)	1.28	1.09
350 초과~550만원	100.00(329)	58.36	38.30	2.13	0.91	0.30	-	(137)	1.23	1.18
550 초과~750만원	100.00(328)	57.32	39.02	2.13	0.61	0.30	0.61	(140)	1.53	3.06
750만원 초과	100.00(300)	51.67	44.67	1.67	1.67	0.33	-	(145)	1.14	1.08
$\chi^2(df)/F$					12.59(15)					1.07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52)	54.11	41.55	2.58	1.29	0.35	0.12	(391)	1.36	1.85
중소도시	100.00(241)	59.34	37.76	1.24	1.24	-	0.41	(98)	1.23	2.12
읍면	100.00(160)	56.25	39.38	3.13	0.63	0.63	-	(70)	1.30	1.41
$\chi^2(df)/F$					6.60(10) ^(a)					0.1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1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빈도를 계산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를 통해 숙제 등 혼자 공부하는 시간(자습)과 인터넷 강의 등 학교 수업 외 비대면교육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6.71%, 주말 72.5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시간은 주중 평균 1.31시간, 주말 평균 1.9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분석결과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별, 지역규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은 750만원 이하 가구보다 숙제 및 학습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아동이 대도시지역 아동보다 주중, 주말 모두 숙제 및 학습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시간 분석결과 주중 시간은 평균 1.01시간, 주말 시간은 평균 1.2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1〉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시간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965)	1.31	0.77	(912)	1.95	1.23	(285)	1.01	0.55	(281)	1.26	0.70
아동 성별												
남	(463)	1.25	0.74	(433)	1.89	1.20	(141)	0.97	0.47	(129)	1.26	0.70
여	(498)	1.37	0.78	(475)	2.00	1.25	(141)	1.06	0.62	(149)	1.27	0.70
<i>t</i>			-2.48*			-1.44			-1.30			-0.10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시간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3)	1.16 ^a	0.71	(79)	1.69 ^a	1.18	(30)	1.10	0.52	(27)	1.20	0.81
350 초과~550만원	(250)	1.22 ^{ab}	0.70	(238)	1.78 ^a	1.10	(81)	1.04	0.57	(76)	1.34	0.70
550 초과~750만원	(260)	1.31 ^{ab}	0.75	(247)	1.98 ^{ab}	1.24	(75)	1.01	0.64	(79)	1.31	0.78
750만원 초과	(243)	1.43 ^b	0.85	(225)	2.20 ^b	1.37	(67)	0.94	0.49	(61)	1.17	0.61
<i>F</i>		4.12 ^{**}			5.80 ^{***}			0.68			0.74	
지역규모												
대도시	(661)	1.36 ^b	0.80	(625)	2.02 ^b	1.25	(179)	0.99	0.49	(184)	1.20	0.66
중소도시	(190)	1.22 ^{ab}	0.69	(179)	1.89 ^{ab}	1.14	(63)	1.04	0.63	(62)	1.37	0.75
읍면	(110)	1.14 ^a	0.66	(104)	1.63 ^a	1.18	(40)	1.09	0.67	(32)	1.41	0.83
<i>F</i>		5.37 ^{**}			4.81 ^{**}			0.61			2.06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6.71%, 주말 72.5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2.66%, 주말 22.34%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어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를 통해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수행평가, 조별과제, 시험공부, 동아리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중 시간은 평균 0.18시간, 주말 시간은 평균 0.17시간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12〉 아동의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0.18	0.41	(1,258)	0.17	0.55
아동 성별						
남	(641)	0.14	0.37	(641)	0.14	0.51
여	(612)	0.21	0.46	(612)	0.21	0.58
<i>t</i>			-3.02 ^{**}			-1.97 [*]

구분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0.23	0.47	(130)	0.17	0.47
350 초과-550만원	(329)	0.17	0.43	(329)	0.21	0.67
550 초과-750만원	(328)	0.16	0.36	(328)	0.19	0.55
750만원 초과	(300)	0.18	0.44	(300)	0.14	0.45
<i>F</i>			0.97			0.93
지역규모						
대도시	(852)	0.17	0.40	(852)	0.16	0.52
중소도시	(241)	0.18	0.43	(241)	0.17	0.58
읍면	(160)	0.22	0.45	(160)	0.25	0.64
<i>F</i>			0.99			1.85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00.00%, 주말 100.0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라) 미디어 이용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를 통해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시간과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시간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9.11%, 주말 96.0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영상시청 시간은 주중 평균 1.50시간, 주말 평균 2.6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시간은 주중 평균 1.36시간, 주말은 평균 2.41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영상시청 시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길고, 게임시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길게 조사되었다.

〈표 III-2-13〉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영상시청 시간						게임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21)	1.50	0.93	(1,208)	2.68	1.44	(749)	1.36	0.90	(882)	2.41	1.58
아동 성별												
남	(572)	1.44	0.91	(618)	2.60	1.40	(504)	1.49	0.96	(564)	2.80	1.68
여	(545)	1.56	0.95	(585)	2.77	1.48	(241)	1.07	0.68	(313)	1.71	1.09
<i>t</i>			-2.10*			-2.13*			6.14***			10.33***

구분	영상 시청 시간						게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20)	1.53	1.16	(125)	2.68	1.57	(100)	1.55	1.04	(109)	2.56	1.58
350 초과-550만원	(293)	1.52	0.96	(313)	2.72	1.45	(211)	1.39	0.92	(254)	2.49	1.51
550 초과-750만원	(290)	1.48	0.82	(318)	2.65	1.47	(186)	1.32	0.88	(220)	2.52	1.87
750만원 초과	(265)	1.49	0.85	(288)	2.66	1.35	(155)	1.28	0.73	(181)	2.25	1.44
<i>F</i>		0.15			0.14			2.15			1.25	
지역규모												
대도시	(760)	1.51	0.97	(812)	2.69	1.44	(498)	1.36	0.91	(582)	2.39	1.60
중소도시	(212)	1.51	0.86	(234)	2.69	1.43	(142)	1.31	0.83	(171)	2.42	1.60
읍면	(145)	1.40	0.81	(157)	2.61	1.47	(105)	1.43	0.93	(124)	2.48	1.50
<i>F</i>		0.84			0.26			0.56			0.1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 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9.11%, 주말 96.0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59.54%, 주말 70.1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아동에게 휴대폰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13%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68%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PC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1일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은 일평균 6.2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PC 이용시간의 집단별 분석결과,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의 이용시간이 여학생보다 길고,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은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보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여부 및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58)	99.13	0.87	100.00(1,258)	0.32	99.68	(1,254)	6.28	3.41
아동 성별									
남	100.00(641)	99.06	0.94	100.00(641)	0.16	99.84	(640)	6.49	3.66
여	100.00(612)	99.18	0.82	100.00(612)	0.49	99.51	(609)	6.06	3.12
$\chi^2(df)/t$			0.63(2)			1.10(1)			2.26*

구분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0)	97.69	2.31	100.00(130)	0.77	99.23	(129)	7.48 ^b	4.55
350 초과~550만원	100.00(329)	99.09	0.91	100.00(329)	0.61	99.39	(327)	6.53 ^a	3.42
550 초과~750만원	100.00(328)	99.70	0.30	100.00(328)	-	100.00	(328)	5.90 ^a	3.21
750만원 초과	100.00(300)	99.00	1.00	100.00(300)	-	100.00	(300)	5.94 ^a	3.07
$\chi^2(df)/F$		4.85(6)			4.20(3)			8.26 ^{***}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52)	1.02	0.19	100.00(852)	0.23	99.77	(850)	6.24	3.38
중소도시	100.00(241)	1.01	0.14	100.00(241)	-	100.00	(241)	6.07	3.28
읍면	100.00(160)	1.04	0.28	100.00(160)	1.25	98.75	(158)	6.82	3.77
$\chi^2(df)/F$		2.55(4) ^(a)			5.32(2) ^(a)			2.47	

주: 1)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9.68%에 해당하는 수치임.
 2) 아동의 응답임.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01$.

스마트폰, PC 이용 시간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에 이용한 시간은 1.35시간이며, 정보 검색(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에는 0.51시간, 게임에는 1.33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터테인먼트(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에는 1.67시간을 사용하며 SNS에는 1.4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구분한 결과, 여학생은 정보 검색, SNS 이용시간이 길고 남학생은 게임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게임시간과 SNS 이용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시간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5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들이 550만원 초과 가구 아동들보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시간의 경우 3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들이 550만원 초과~750만원 가구의 아동들보다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표 III-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1.35	1.85	0.51	0.63	1.33	1.45	1.67	1.31	1.40	1.26
아동 성별											
남	(641)	1.35	1.90	0.46	0.64	1.96	1.53	1.63	1.38	1.08	1.07
여	(612)	1.35	1.80	0.56	0.61	0.66	0.96	1.71	1.24	1.74	1.36
<i>t</i>		-0.02		-2.96**		18.02***		-1.02		-9.5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1.57	2.33	0.49	0.63	1.83 ^b	1.61	1.87	1.59	1.66 ^b	1.55
350 초과~550만원	(329)	1.40	1.85	0.51	0.66	1.58 ^b	1.60	1.63	1.28	1.37 ^{ab}	1.25
550 초과~750만원	(328)	1.31	1.89	0.51	0.67	1.19 ^a	1.33	1.62	1.25	1.27 ^a	1.06
750만원 초과	(300)	1.25	1.64	0.51	0.58	1.04 ^a	1.25	1.70	1.28	1.42 ^{ab}	1.29
<i>F</i>		1.05		0.05		13.60***		1.36		3.20*	
지역규모											
대도시	(852)	1.29	1.71	0.50 ^{ab}	0.64	1.30	1.43	1.72	1.37	1.42	1.28
중소도시	(241)	1.44	2.02	0.46 ^a	0.49	1.27	1.38	1.58	1.24	1.31	1.17
읍면	(160)	1.52	2.23	0.63 ^b	0.77	1.56	1.56	1.55	1.12	1.45	1.33
<i>F</i>		1.46		3.95*		2.53		1.84		0.7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항목별 구체적인 의미
 - 학습: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 정보 검색: 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단, 게임과 SNS 제외)
 -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미디어기기,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아동패널 조사에는 보호자(주양육자)가 응답하는 조사와 아동이 응답하는 조사 두 가지로 수행된다. 이는 모두 15개 문항에 4점 척도로 응답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호자 응답 조사는 PC와 스마트폰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이고 아동 응답 조사는 스마트폰에 한정된 조사로 조사 범위와 문항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호자 응답 조사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보호자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점수를 통해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군이 4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 사용자군 41.85%,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8.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학생의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이 48.48%로 여학생의 34.87%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부모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88)	49.69	8.46	41.85	27.54	7.17
아동 성별						
남	100.00(660)	43.48	8.03	48.48	28.87	7.35
여	100.00(628)	56.21	8.92	34.87	26.15	6.70
	$\chi^2(df)/t$	25.035(2)***			6.94***	
가구 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49.62	9.16	41.22	27.96	8.02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49.71	7.02	43.27	27.78	7.07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47.48	9.20	43.32	27.66	7.41
750만원 초과	100.00(312)	53.53	7.69	38.78	26.90	6.81
	$\chi^2(df)/F$	3.51(6)			1.12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47.34	9.29	43.37	27.91 ^b	7.02
중소도시	100.00(244)	53.28	6.56	40.16	27.02 ^{ab}	7.46
읍면	100.00(161)	57.14	6.83	36.02	26.34 ^a	7.40
	$\chi^2(df)/F$	7.64(4)			4.07*	

주: 1)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잠재적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보호자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아동이 응답하는 자가진단 검사결과로 스마트폰 중독집단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아동의 응답결과는 앞서의 보호자 응답 결과와 매우 달리 나타나 일반 사용자군의 비중이 83.48%로 매우 높고 고위험 사용자군은 1.05%에 지나지 않는다. 잠재적위험 사용자군도 15.47%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가진단 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스마트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41)	83.48	15.47	1.05	30.49	6.33
아동 성별						
남	100.00(631)	83.04	15.21	1.74	30.38	6.57
여	100.00(605)	83.80	15.87	0.33	30.64	6.07
$\chi^2(df)/t$			5.97(2)		-0.7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26)	82.54	14.29	3.17	30.93	7.21
350 초과~550만원	100.00(325)	80.92	18.15	0.92	30.58	6.51
550 초과~750만원	100.00(325)	82.46	16.31	1.23	30.84	6.13
750만원 초과	100.00(296)	85.14	14.19	0.68	30.23	6.31
$\chi^2(df)/F$			7.06(6)		0.59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41)	83.59	15.10	1.31	30.56	6.33
중소도시	100.00(239)	82.43	16.74	0.84	30.34	6.53
읍면	100.00(156)	83.97	16.03	-	30.49	6.05
$\chi^2(df)/F$			2.66(4) ^(a)		0.11	

주: 1) 8번, 10번, 13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41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1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42~44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45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6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4점 이상)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스마트폰이 있는 아동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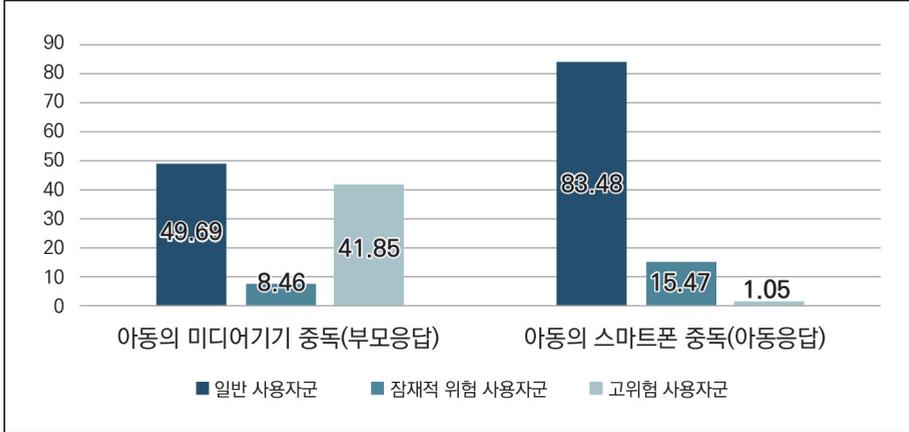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6)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정도와 아동이 자가응답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그림 III-2-1]으로 비교해보면 결과의 차이가 큰 것이 확인된다. 즉, 아동의 자가응답시 일반 사용자군이 80% 이상으로 분석된 것에 비해 부모가 응답한 결과로는 일반 사용자군이 50%가 채 되지 않으며, 아동의 자가응답시 고위험 사용자군이 1%대로 미미한데 비해 부모 응답 결과로는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중이 40%를 넘었다.

[그림 III-2-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단위: %



마) 여가 및 교제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로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악기연주, 그림, 동호회 등)에 할애한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0.84%, 주말 44.91%이며, 취미생활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5.52%, 주말 35.61%로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우선 레저활동의 경우 주중 1.04시간, 주말 1.5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시간의 경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의 시간이 여학생보다 길게 나타났다. 취미생활의 경우, 주중 시간은 0.83시간, 주말 시간은 1.3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1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단위: (명), 시간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88)	1.04	0.58	(565)	1.55	1.01	(321)	0.83	0.46	(448)	1.36	0.86
아동 성별												
남	(264)	1.06	0.57	(355)	1.67	1.02	(135)	0.84	0.42	(172)	1.36	0.96
여	(121)	1.01	0.63	(207)	1.36	0.97	(185)	0.83	0.49	(273)	1.36	0.81
<i>t</i>			0.81			3.60***			0.21			0.05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7)	1.11	0.67	(57)	1.61	1.13	(37)	0.84	0.43	(46)	1.36	0.96
350 초과~550만원	(94)	1.12	0.71	(143)	1.55	0.97	(79)	0.89	0.54	(119)	1.36	0.81
550 초과~750만원	(110)	0.99	0.51	(162)	1.56	0.96	(80)	0.80	0.45	(121)	1.24	0.69
750만원 초과	(82)	1.01	0.49	(129)	1.57	1.15	(77)	0.81	0.43	(99)	1.47	0.91
<i>F</i>		1.02			0.05			0.60			1.49	
지역규모												
대도시	(270)	1.03	0.57	(382)	1.49	0.94	(220)	0.83	0.48	(307)	1.37	0.90
중소도시	(64)	1.03	0.60	(101)	1.66	1.29	(58)	0.80	0.36	(84)	1.29	0.78
읍면	(51)	1.15	0.67	(79)	1.72	0.93	(42)	0.90	0.48	(54)	1.40	0.81
<i>F</i>		0.91			2.23			0.65			0.40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0.84%, 주말 44.9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5.52%, 주말 35.6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로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대면 사교활동과 SNS,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제를 구분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5.93%, 주말 62.96%이며, 비대면 교제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1.07%, 주말 78.93%로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면 사교활동 시간의 경우 주중 1.05시간, 주말 2.3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교제시간의 경우는 주중 0.93시간, 주말은 1.38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집단별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말의 대면 사교활동 시간과 주중, 주말의 비대면 교제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단위: (명), 시간

구분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대면)						SNS 등 이용한 교제(비대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2)	1.05	0.67	(792)	2.35	1.54	(894)	0.93	0.57	(993)	1.38	0.92
아동 성별												
남	(220)	1.01	0.62	(393)	2.17	1.46	(425)	0.83	0.50	(478)	1.22	0.80
여	(229)	1.09	0.72	(396)	2.54	1.61	(466)	1.02	0.62	(511)	1.54	1.00
<i>t</i>		-1.34			-3.30***			-5.00***			-5.6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9)	1.03	0.55	(89)	2.27	1.65	(98)	0.96	0.60	(102)	1.47	1.11
350 초과~550만원	(110)	1.16	0.81	(196)	2.31	1.43	(229)	0.90	0.51	(255)	1.40	0.95
550 초과~750만원	(113)	0.94	0.60	(205)	2.31	1.53	(225)	0.90	0.58	(262)	1.33	0.91
750만원 초과	(111)	1.08	0.72	(197)	2.40	1.64	(216)	1.00	0.57	(237)	1.40	0.82
<i>F</i>		1.88			0.20			1.89			0.59	
지역규모												
대도시	(310)	1.00 ^a	0.57	(536)	2.23 ^a	1.50	(612)	0.93	0.56	(664)	1.39	0.92
중소도시	(83)	1.18 ^a	0.86	(156)	2.78 ^b	1.69	(168)	0.94	0.54	(194)	1.40	0.84
읍면	(56)	1.15 ^a	0.84	(97)	2.35 ^a	1.43	(111)	0.89	0.66	(131)	1.32	1.03
<i>F</i>		3.21*			7.64***			0.35			0.42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5.93%, 주말 62.9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1.07%, 주말 78.9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음으로는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조사로 종교활동과 애완(반려)동물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5.01%, 주말 12.72%이며,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6.30%, 주말 19.16%로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활동에는 주중 1.17시간, 주말에는 2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시간에는 주중 0.70시간, 주말에는 0.95시간을 할애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말의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활동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종교활동, 애원(반려)동물 돌보기

단위: (명), 시간

구분	종교활동						애원(반려)동물 돌보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3)	1.17	1.04	(160)	2.00	1.51	(205)	0.70	0.34	(241)	0.95	0.61
아동 성별												
남	(33)	0.94	0.51	(92)	1.92	1.36	(83)	0.67	0.25	(98)	0.86	0.46
여	(30)	1.42	1.37	(68)	2.10	1.69	(121)	0.72	0.39	(142)	1.02	0.69
<i>t</i>		-1.86			-0.71			-0.91			-2.1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	1.05	0.69	(30)	1.97	1.87	(24)	0.73	0.33	(26)	1.21	0.70
350 초과-550만원	(21)	1.36	1.64	(45)	2.27	1.49	(47)	0.77	0.42	(62)	1.01	0.73
550 초과-750만원	(14)	1.04	0.37	(39)	1.99	1.43	(43)	0.64	0.23	(52)	0.86	0.49
750만원 초과	(9)	1.22	0.79	(27)	1.87	1.48	(56)	0.69	0.39	(63)	0.92	0.60
<i>F</i>		0.29			0.46			1.03			2.03	
지역규모												
대도시	(40)	1.29	1.26	(116)	1.97	1.39	(135)	0.72	0.38	(151)	0.97	0.64
중소도시	(12)	0.96	0.40	(22)	2.07	1.83	(41)	0.71	0.25	(52)	0.95	0.57
읍면	(11)	0.95	0.42	(22)	2.09	1.80	(28)	0.59	0.20	(37)	0.91	0.55
<i>F</i>		0.74			0.09			1.77			0.17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5.01%, 주말 12.72%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애원(반려)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6.30%, 주말 19.1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다음으로는 패널아동의 실내외 신체활동에 대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7일 동안 등·하교 시 걷는 것을 제외하고 한 번에 30분 이상 격렬히 운동했거나 또는 중증도 신체활동한 일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89%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19.40%로 나타났으며, 없음 19.16%, 2일 17.17%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성별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학생은 5일 이상 중증도의 신체활동을 한다는 경우가 26.99%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7%로 가장 많았다.

〈표 III-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계(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전체	100.00(1,258)	19.16	10.81	17.17	22.89	10.57	19.40
아동 성별							
남	100.00(641)	14.04	8.89	14.51	22.31	13.26	26.99
여	100.00(612)	24.67	12.91	19.77	23.37	7.84	11.44
$\chi^2(df)$				75.98(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0)	19.23	8.46	17.69	23.08	9.23	22.31
350 초과~550만원	100.00(329)	18.24	12.46	17.33	20.97	10.33	20.67
550 초과~750만원	100.00(328)	18.60	8.23	14.02	27.13	11.59	20.43
750만원 초과	100.00(300)	19.67	11.67	19.00	21.00	10.67	18.00
$\chi^2(df)$				11.51(15)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52)	18.43	10.45	17.25	23.00	11.62	19.25
중소도시	100.00(241)	21.58	14.11	14.94	24.90	7.88	16.60
읍면	100.00(160)	20.00	8.13	19.38	18.75	9.38	24.38
$\chi^2(df)$				13.15(10)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등·하교 시 걷는 것은 제외)

2)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악기, 운동을 포함한 취미 유무와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57%가 취미가 있다고 답했다. 취미의 종류는 1, 2순위로 조사하였는데, 1순위만 살펴보면 운동/스포츠/댄스가 40.16%로 가장 즐겨하는 취미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래/악기 연주는 21.00%, 음악, 영화 등 관람 및 감상 15.88%. 웹툰을 포함한 그림 그리기 11.15%, 독서 3.81%, 유튜브 등의 영상 제작 0.66% 순으로 나타났다. 취미 역시 실내외 신체활동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운동/스포츠/댄스 응답비율은 여학생의 응답비율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노래/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단위: %, (명)

구분	취미		종류							
	계(수)	있음	계(수)	노래/ 악기 연주	운동/ 스포츠/ 댄스	그림 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도서 (e-book 포함)	관람 및 감상 (음악, 영화 등)	기타
전체	100(1,258)	60.57	100(762)	21.00	40.16	11.15	0.66	3.81	15.88	7.35
아동 성별										
남	100(641)	60.53	100(388)	14.18	55.67	4.90	0.52	4.90	12.11	7.73
여	100(612)	60.95	100(373)	28.15	24.13	17.69	0.80	2.68	19.57	6.97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를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분석해보면, 1순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운동/스포츠/댄스가 5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관람 및 감상(음악, 영화 등)이 51.84%, 노래/악기 연주가 39.50%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패널아동의 주된 취미 활동으로는 운동, 음악, 영화 등의 감상, 노래/악기 연주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수)	노래/ 악기 연주	운동/ 스포츠/ 댄스	그림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도서 (e-book 포함)	관람 및 감상 (음악, 영화 등)	기타
전체	(762)	39.50	55.51	17.59	5.12	13.12	51.84	17.32
아동 성별								
남	(388)	32.73	72.94	8.76	5.67	11.34	50.77	17.78
여	(373)	46.38	37.53	26.81	4.56	15.01	52.82	16.89

주: 아동의 응답임.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패널아동들은 일과활동 시간 중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하여 주중은 1.24시간(약 1시간 14분), 주말에는 1.51시간(약 1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본생활 시간에서 남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주중과 주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본생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별히 주말 중 기본생활 시간은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

는 패널아동이 읍면지역 패널아동보다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이 더 길었다.

또한, 하루일과 중에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 돕기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주중은 전체 응답자의 40.94%, 주말 59.38%였고, 해당 사례의 사용시간을 분석하니, 주중에는 0.61시간(약 37분), 주말 0.82시간(약 49분)으로 나왔다. 가사 돕기 시간은 패널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가구의 패널아동이 750만원 초과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가사를 돕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4〉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 돕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1.24	0.62	(1,258)	1.51	0.72	(515)	0.61	0.24	(747)	0.82	0.45
아동 성별												
남	(641)	1.14	0.54	(641)	1.41	0.68	(233)	0.62	0.29	(345)	0.82	0.50
여	(612)	1.34	0.68	(612)	1.62	0.75	(277)	0.60	0.20	(397)	0.83	0.39
<i>t</i>		-5.61***			-5.10***			1.33			-0.4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1.19	0.62	(130)	1.44 ^a	0.84	(52)	0.64	0.23	(75)	0.86 ^{ab}	0.41
350 초과~550만원	(329)	1.17	0.55	(329)	1.43 ^a	0.66	(134)	0.62	0.29	(188)	0.91 ^b	0.61
550 초과~750만원	(328)	1.27	0.62	(328)	1.49 ^a	0.65	(134)	0.57	0.18	(198)	0.78 ^{ab}	0.34
750만원 초과	(300)	1.29	0.66	(300)	1.59 ^a	0.79	(115)	0.60	0.21	(164)	0.75 ^a	0.33
<i>F</i>		2.58			2.71*			1.60			4.65**	
지역규모												
대도시	(852)	1.26	0.64	(852)	1.55 ^b	0.75	(344)	0.61	0.26	(506)	0.81	0.44
중소도시	(241)	1.24	0.57	(241)	1.46 ^{ab}	0.65	(98)	0.62	0.21	(138)	0.84	0.44
읍면	(160)	1.14	0.58	(160)	1.36 ^a	0.67	(68)	0.59	0.19	(98)	0.88	0.48
<i>F</i>		2.57			5.32**			0.31			1.21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94%, 주말 59.38%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추가적으로 패널아동의 가사 참여 정도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활동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의생활 활동 2.35점, 식생활 2.63점, 주생활 2.27점, 돌봄 참여는 2.41점으로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가사 참여를 가끔 혹은 종종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의 가사 참여는 남녀 성별 차이가 존재했는데, 두 가지 영역 모두 여학생의 참여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 식생활 가사 참여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이 읍면지역 패널아동보다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식생활 가사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5〉 아동의 가사 참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2.35	0.79	2.63	0.82	2.27	0.76	2.41	0.80
아동 성별									
남	(641)	2.28	0.80	2.57	0.83	2.26	0.77	2.39	0.80
여	(612)	2.41	0.77	2.69	0.81	2.29	0.74	2.44	0.79
<i>t</i>		-2.85**		-2.60**		-0.78		-1.2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34	0.84	2.59	0.89	2.29	0.76	2.40	0.87
350 초과~550만원	(329)	2.35	0.80	2.60	0.86	2.26	0.79	2.47	0.81
550 초과~750만원	(328)	2.32	0.75	2.64	0.77	2.31	0.73	2.43	0.79
750만원 초과	(300)	2.28	0.76	2.60	0.78	2.21	0.76	2.37	0.77
<i>F</i>		0.40		0.17		1.00		0.83	
지역규모									
대도시	(852)	2.36	0.76	2.68 ^b	0.81	2.30	0.75	2.45	0.78
중소도시	(241)	2.31	0.84	2.54 ^{ab}	0.81	2.19	0.77	2.37	0.83
읍면	(160)	2.31	0.85	2.46 ^a	0.87	2.24	0.76	2.29	0.83
<i>F</i>		0.72		6.54**		2.40		3.0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하지 않는다~4.항상 한다).

3) 각 하위영역별 해당 가사일

-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 하기, 전구 갈기) 등

-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 $p < .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다음으로는 패널아동의 외출/활동 참여 빈도에 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외출/활동은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패널아동의 장보기 및 쇼핑 참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장을 보거나 쇼핑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3.29%였고,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연간 평균 26.04회 정도 활동한다고 보고하였다. 장보기 및 쇼핑 활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친인척 방문의 경우는 전체 패널아동의 94.72%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연간 11.92회 정도 이뤄지고 있었다. 패널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아동이 친인척 방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8)	73.29	26.71	26.04	31.95	94.72	5.28	11.92	18.82
아동 성별									
남	100.00(660)	64.85	35.15	23.24	31.34	94.55	5.45	12.06	17.78
여	100.00(628)	82.17	17.83	28.36	32.29	94.90	5.10	11.78	19.86
$\chi^2(df)/t$		49.30(1)***		-2.45*		0.08(1)		0.2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72.52	27.48	29.12	35.62	89.31	10.69	11.10	15.14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73.98	26.02	28.09	34.98	95.03	4.97	12.64	19.64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72.40	27.60	22.68	27.96	95.25	4.75	12.05	22.45
750만원 초과	100.00(312)	73.08	26.92	26.26	32.42	96.47	3.53	11.50	15.68
$\chi^2(df)/F$		0.24(3)		1.50		10.01(3)*		0.27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73.73	26.27	24.09 ^a	32.49	94.90	5.10	12.09	18.71
중소도시	100.00(244)	69.67	30.33	28.88 ^{ab}	27.53	93.85	6.15	11.35	18.56
읍면	100.00(161)	76.40	23.60	32.42 ^b	33.81	95.03	4.97	11.89	19.86
$\chi^2(df)/F$		2.51(2)		4.37*		0.46(2)		0.14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01$.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당일여행을 갔거나 나들이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90.14%였고, 연간 참여횟수는 평균 10.20회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당일여행 및 나들이 참여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의 경우는 패널아동의 81.37%가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연간 평균 2.91회 여행을 다녀왔다.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활동은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내여행 참여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국내여행 참여비율도 높아졌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진정국면을 맞이한 2023년 패널아동의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비율은 전년도(2022년) 3.37%(조미라 외, 2023: 93)에서 13.90%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평균 1.11회 정도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및 연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패널가구의 아동이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보다 해외여행 및 연수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8)	90.14	9.86	10.20	13.28	81.37	18.63	2.91	3.79	13.90	86.10	1.11	0.37
아동 성별													
남	100.00(660)	88.94	11.06	9.23	12.29	78.94	21.06	2.82	3.41	12.42	87.58	1.13	0.44
여	100.00(628)	91.40	8.60	11.20	14.17	83.92	16.08	3.01	4.14	15.45	84.55	1.09	0.29
$\chi^2(df)/t$		2.19(1)		-2.52*		5.26(1)*		-0.80		2.46(1)		0.7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82.44	17.56	8.80	15.86	64.89	35.11	3.09	3.58	3.82	96.18	1.00	-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90.64	9.36	9.41	11.99	82.46	17.54	2.84	5.18	8.48	91.52	1.14	0.35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91.10	8.90	9.98	14.72	83.38	16.62	2.69	2.52	11.57	88.43	1.03	0.16
750만원 초과	100.00(312)	91.67	8.33	10.78	12.45	87.82	12.18	3.21	3.33	26.92	73.08	1.11	0.31
$\chi^2(df)/F$		9.97(3)*		0.79		33.88(3)***		0.98		64.89(3)***		1.20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91.05	8.95	10.15	13.42	84.03	15.97	2.92	4.00	15.06	84.94	1.11	0.38
중소도시	100.00(244)	87.70	12.30	10.36	11.61	79.92	20.08	3.09	3.64	12.70	87.30	1.13	0.34
읍면	100.00(161)	88.82	11.18	10.29	14.83	68.94	31.06	2.52	2.39	9.32	90.68	1.07	0.26
$\chi^2(df)/F$		2.77(2)		0.03		20.86(2)***		0.81		4.11(2)		0.15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01$.

중학교 3학년이 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 1회 이상 참여한 비율은 58.39%였고, 연평균 5.58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여부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소득 가구의 패널아동이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널아동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이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활동 참여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활동의 경우, 패널아동의 20.57%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연간 참여횟수는 53.92회로 대략 1주일에 1회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종교활동 참여횟수는 1년 간 60.34회로 남학생의 48.93회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패널가구 아동이 다른 가구에 비해 종교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8)	58.39	41.61	5.58	9.45	20.57	79.43	53.92	46.72
아동 성별									
남	100.00(660)	56.82	43.18	5.09	8.53	22.58	77.42	48.93	39.33
여	100.00(628)	60.03	39.97	6.06	10.28	18.47	81.53	60.34	54.28
$\chi^2(df)/t$		1.37(1)		-1.40		3.32(1)		-1.98*	

구분	계(수)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57.25	42.75	5.87	8.11	32.82	67.18	69.47	68.75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52.05	47.95	4.48	11.57	21.05	78.95	54.22	43.90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59.05	40.95	4.79	5.90	15.73	84.27	48.68	34.85
750만원 초과	100.00(312)	66.03	33.97	6.88	10.41	21.47	78.53	48.96	40.29
$\chi^2(df)/F$		13.27(3)**		2.59		16.76(3)**		2.05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61.38	38.62	4.98 ^a	6.44	22.31	77.69	52.79	46.47
중소도시	100.00(244)	54.92	45.08	6.69 ^{ab}	11.41	16.80	83.20	55.12	38.72
읍면	100.00(161)	47.20	52.80	7.87 ^b	18.84	16.77	83.23	60.33	59.37
$\chi^2(df)/F$		12.75(2)**		4.27*		5.18(2)		0.32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패널아동의 지난 1년 간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조사해보니,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3.76%이고, 연평균 13.16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여학생 참여비율(26.43%)이 남학생(21.21%)보다 높았다.

동아리활동도 봉사활동과 비슷한 참여비율을 보였는데, 패널아동의 25.23%가 연 1회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였고, 연 51.34회로 약 1주일에 1회 정도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 역시 앞서 살펴본 다른 활동들과 유사하게 여학생(28.66%)이 남학생(21.97%)보다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8)	23.76	76.24	13.16	23.32	25.23	74.77	51.34	60.11
아동 성별									
남	100.00(660)	21.21	78.79	15.26	25.13	21.97	78.03	56.39	64.15
여	100.00(628)	26.43	73.57	11.39	21.59	28.66	71.34	47.28	56.50
$\chi^2(df)/t$		4.84(1)*		1.45		7.64(1)**		1.36	

구분	계(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1)	25.19	74.81	15.42	18.58	22.14	77.86	62.14	52.84
350 초과~550만원	100.00(342)	21.64	78.36	16.95	29.41	22.22	77.78	55.34	61.54
550 초과~750만원	100.00(337)	22.26	77.74	12.93	18.67	29.67	70.33	47.10	59.64
750만원 초과	100.00(312)	26.28	73.72	12.66	27.14	25.64	74.36	58.74	69.83
$\chi^2(df)/F$		2.50(3)		0.50		5.82(3)		0.73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83)	23.67	76.33	12.86	22.37	25.82	74.18	50.14	59.67
중소도시	100.00(244)	22.95	77.05	15.57	25.64	26.23	73.77	53.50	62.98
읍면	100.00(161)	25.47	74.53	11.39	25.07	20.50	79.50	55.45	58.98
$\chi^2(df)/F$		0.35(2)		0.43		2.20(2)		0.16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나.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상태

중학교 3학년 시기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신장, 허리둘레, 체중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체질량지수(BMI 지수)를 산출해보았다. 신장 평균 167.47cm, 허리둘레 평균 74.49cm, 체중 평균 59.89kg으로 BMI는 21.29kg/m²였다. 2022년 측정결과, 평균 신장 165.36cm, 체중 58.40kg였고(조미라 외, 2023: 100), 2021년 평균 신장 161.63cm, 체중 55.15kg(김지현 외 2022: 118) 자료와 비교 시, 지난 몇 해 동안 급격한 성장기를 보냈고 이제는 점차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30〉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²,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50.0	191.00	167.00	167.47	7.6	(1,162)
허리둘레	50.00	119.00	73.00	74.49	10.27	(812)
체중	38.00	125.00	57.00	59.89	12.52	(1,153)
BMI	14.50	38.75	20.68	21.29	3.60	(1,110)

중학교 3학년은 신장, 체중 등의 신체적 수치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해지는 시기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장, 허리둘레, 체중에서 모두 큰 격차를 보였다. 남학생의 신장 평균은 172.55cm인 반면, 여학생은 162.15cm였고, 체중의 경우 남학생은 평균 65.39kg, 여학생은 평균 54.12kg이었다. 덧붙여, BMI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 거주 패널아동이 대도시 거주 패널아동보다 BMI 수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III-2-31〉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단위: (명), cm, kg, kg/m²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67)	167.47	7.6	(816)	74.51	10.26	(1,158)	59.92	12.52	(1,115)	21.30	3.60
아동 성별												
남	(595)	172.55	6.0	(417)	78.00	10.90	(590)	65.39	12.96	(570)	21.93	3.92
여	(567)	162.15	5.1	(395)	70.78	8.06	(563)	54.12	8.96	(540)	20.63	3.08
<i>t</i>			31.90***			10.70***			17.09***			6.1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22)	167.20	7.7	(90)	73.58	9.62	(119)	58.86	12.15	(114)	21.07	3.47
350 초과-550만원	(304)	167.63	7.5	(216)	74.65	10.81	(308)	60.80	13.18	(295)	21.58	3.83
550 초과-750만원	(305)	167.61	7.6	(208)	75.10	10.57	(302)	60.19	12.56	(293)	21.29	3.55
750만원 초과	(278)	168.07	7.7	(198)	73.85	9.53	(279)	59.48	11.91	(267)	21.09	3.41
<i>F</i>			0.42			0.74			0.93			1.06
지역규모												
대도시	(787)	167.35	7.4	(567)	73.90 ^a	10.33	(777)	59.40	12.29	(751)	21.15 ^a	3.57
중소도시	(223)	167.85	7.9	(152)	76.02 ^a	10.24	(223)	60.09	13.15	(212)	21.33 ^{ab}	3.71
읍면	(152)	167.55	8.1	(93)	75.59 ^a	9.74	(153)	62.09	12.60	(147)	22.00 ^b	3.51
<i>F</i>			0.40			3.18*			3.00			3.47*

주: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음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총 5가지 문항에 대해 아동 스스로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패널아동의 전반적인 신체적 자아상 점수는 평균 2.64점으로 산출되었고, 이 중에서 외모 만족이 2.84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 외모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문항이 2.4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앞서 살펴본 실제 신체치수와 같이, 신체적 자아상 역시 남녀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

는데, 신장 만족을 제외한 4가지 문항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본인의 신체에 대해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2〉 신체적 자아상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2.64	0.54	2.84	0.70	2.55	0.90	2.81	0.72	2.46	0.87	2.56	0.89
아동 성별													
남	(641)	2.73	0.51	2.96	0.66	2.68	0.89	2.92	0.67	2.61	0.86	2.49	0.88
여	(612)	2.55	0.55	2.71	0.72	2.41	0.89	2.70	0.76	2.31	0.85	2.63	0.90
<i>t</i>		5.96***		6.41***		-5.33***		5.34***		-6.18***		-2.7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62	0.58	2.80	0.70	2.63	0.92	2.75	0.74	2.43	0.92	2.48 ^a	0.97
350 초과-550만원	(329)	2.60	0.54	2.77	0.68	2.49	0.93	2.78	0.71	2.46	0.89	2.48 ^a	0.93
550 초과-750만원	(328)	2.65	0.52	2.84	0.74	2.53	0.88	2.85	0.72	2.48	0.84	2.56 ^a	0.86
750만원 초과	(300)	2.69	0.55	2.91	0.68	2.55	0.90	2.85	0.69	2.48	0.87	2.67 ^a	0.87
<i>F</i>		1.75		2.22		0.83		1.11		0.14		2.69*	
지역규모													
대도시	(852)	2.63	0.54	2.84	0.70	2.50	0.90	2.81	0.72	2.42 ^a	0.85	2.55	0.89
중소도시	(241)	2.69	0.53	2.83	0.71	2.63	0.89	2.83	0.71	2.56 ^a	0.89	2.58	0.88
읍면	(160)	2.67	0.55	2.83	0.68	2.64	0.91	2.77	0.74	2.54 ^a	0.92	2.58	0.91
<i>F</i>		1.45		0.05		2.95		0.34		3.32*		0.15	

주: 1) 아동 응답임.

2)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3)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 스스로 인식한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11점으로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체형 인식에 대한 남녀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학생은 본인 스스로 약간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34%로 여학생 11.60%에 비해 높았고, 반대로 약간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2.46%)에 비해 여학생이(26.96%)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90	18.04	47.54	24.64	5.88	100.00(1,258)	3.11	0.90
아동 성별								
남	7.18	24.34	39.16	22.46	6.86	100.00(641)	2.98	1.02
여	0.49	11.60	56.05	26.96	4.90	100.00(612)	3.24	0.74
$\chi^2(df)/t$			87.26(4)***					-5.3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85	30.00	40.77	19.23	6.15	100.00(130)	2.94	0.95
350 초과~550만원	2.74	17.02	48.63	24.32	7.29	100.00(329)	3.16	0.89
550 초과~750만원	6.10	17.07	45.73	24.70	6.40	100.00(328)	3.08	0.96
750만원 초과	3.67	18.67	48.00	26.67	3.00	100.00(300)	3.07	0.85
$\chi^2(df)/F$			23.50(12)*					2.01
지역규모								
대도시	3.87	18.90	46.48	24.06	6.69	100.00(852)	3.11	0.92
중소도시	4.98	18.67	48.13	23.65	4.56	100.00(241)	3.04	0.90
읍면	2.50	13.13	51.25	29.38	3.75	100.00(160)	3.19	0.80
$\chi^2(df)/F$			9.28(8)					1.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마른 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 $p < .05$, *** $p < .001$.

이어서 지난 1년 동안의 체중조절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체 패널아동의 36.17%가 감량하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3.15%로 비슷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감량하려고 노력한 경우가 46.57%로 남학생의 비율(26.37%)보다 훨씬 높았고, 증량하려고 노력했다는 응답은 남학생은 19.97%인 반면, 여학생은 1.96%에 불과했다. 체중조절 경험에 있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34〉 체중조절 경험

단위: %, (명)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전체	36.17	19.55	11.13	33.15	100.00(1,258)
아동 성별					
남	26.37	17.63	19.97	36.04	100.00(641)
여	46.57	21.08	1.96	30.39	100.00(612)
$\chi^2(df)$			131.07(3)***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4.62	16.15	16.92	32.31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34.95	19.76	10.03	35.26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36.89	19.21	13.41	30.49	100.00(328)
750만원 초과	38.00	19.67	10.00	32.33	100.00(300)
$\chi^2(df)$		7.70(9)			
지역규모					
대도시	36.74	18.31	12.09	32.86	100.00(852)
중소도시	35.27	19.09	10.79	34.85	100.00(241)
읍면	35.00	25.00	6.88	33.13	100.00(160)
$\chi^2(df)$		6.86(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앞선 문항에서 체중감량 혹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체중조절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패널아동들은 체중조절을 위해 주로 운동(82.03%), 식사량 감량(69.19%)을 하고, 종종 결식하거나(21.11%), 건강기능식품(5.56%)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16차년도 조사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포함하여 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기 문항이 신규 추가되었는데, 체중조절을 위해 처방 약을 먹었다는 응답도 0.71%로 매우 소수이지만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III-2-35〉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처방 약	기타	(수)
전체	82.03	69.19	21.11	5.56	1.71	0.71	1.57	(701)
아동 성별								
남	89.01	60.99	12.77	4.61	2.48	0.35	1.42	(282)
여	77.29	75.12	26.81	6.28	1.21	0.97	1.69	(4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7.88	66.67	12.12	4.55	6.06	1.52	1.52	(66)
350 초과~550만원	80.00	70.56	22.78	5.56	2.22	-	-	(180)
550 초과~750만원	80.98	68.48	22.83	7.61	1.09	0.54	3.26	(184)
750만원 초과	82.66	74.57	23.12	3.47	1.16	0.58	1.16	(173)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처방 약	기타	(수)
지역규모								
대도시	82.30	70.15	24.09	5.54	2.13	0.64	2.13	(469)
중소도시	81.68	71.76	18.32	5.34	-	1.53	-	(131)
읍면	81.25	62.50	10.42	6.25	2.08	-	1.04	(96)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안경과 그 외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패널아동의 61.02%는 안경을 쓰고, 5.67%는 일반렌즈, 드림렌즈 등의 시력 교정도구를 착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안경을 처음 쓴 시기는 평균 만 10.20세고, 렌즈 등의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만 12.38세였다.

〈표 III-2-36〉 아동의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

단위: 세, (명)

구분	안경		(수)	시력 교정도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20	2.46	(786)	12.38	1.90	(73)
아동 성별						
남	10.17	2.46	(384)	11.68	2.36	(19)
여	10.22	2.46	(402)	12.63	1.66	(54)
<i>t</i>		-0.30			-1.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51	2.34	(78)	13.86	1.21	(7)
350 초과~550만원	10.37	2.46	(201)	12.41	1.89	(22)
550 초과~750만원	10.30	2.43	(223)	11.94	1.85	(17)
750만원 초과	9.98	2.48	(195)	12.16	2.01	(19)
<i>F</i>		1.29			1.87	
지역규모						
대도시	10.14	2.47	(543)	12.15	2.05	(53)
중소도시	10.25	2.36	(151)	13.12	1.22	(17)
읍면	10.41	2.59	(92)	12.33	1.53	(3)
<i>F</i>		0.52			1.70	

주: 1) 전체 참여 아동의 61.02%는 안경, 5.67%는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2) 보호자의 응답임.

그동안 패널아동의 2차 성징 발현 시기를 남녀로 나누어 조사해왔는데, 전년도 조사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차 성징(몽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43%에 달했는데(조미라 외, 2023: 106), 중학년 3학년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줄어 29.64%만이 2차 성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

다. 처음 발현된 시기를 살펴보면, 2021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처음 발현되었다는 응답은 24.96%,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19.19%, 2022년 중학교 2학년 시기 13.42% 순으로 대다수의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시기에 걸쳐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있었다.

〈표 III-2-37〉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몽정 발현 여부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641)	4.21	13.42	24.96	19.19	4.37	0.62	0.16	29.64

주: 아동의 응답임.

반면, 여학생의 2차 성징 발현은 남학생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에게는 초경 시작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과반에 가까운 42.16%가 초경을 시작하였고,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시기 24.35%, 2021년 중학교 1학년 때 19.93%로 남학생의 2차 성징 발현 시기보다 전반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남학생의 2차 성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율이 29.64%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0.49%에 불과하다.

〈표 III-2-38〉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초경 발현 여부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612)	0.49	4.74	19.93	42.16	24.35	5.88	0.82	0.49

주: 아동의 응답임.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매우 건강함 20.89%, 보통임 14.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패널아동은 건강한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하여 성별,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39〉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6	1.55	14.52	62.89	20.89	100.00(1,288)	4.03	0.66
아동 성별								
남	0.15	1.36	13.94	62.27	22.27	100.00(660)	4.05	0.65
여	0.16	1.75	15.13	63.54	19.43	100.00(628)	4.00	0.66
$\chi^2(df)/t$			1.96(4)					1.3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76	3.82	19.85	54.20	21.37	100.00(131)	3.92	0.79
350 초과~550만원	-	1.46	15.50	61.99	21.05	100.00(342)	4.03	0.65
550 초과~750만원	0.30	0.59	12.17	64.69	22.26	100.00(337)	4.08	0.62
750만원 초과	-	1.60	11.54	65.71	21.15	100.00(312)	4.06	0.62
$\chi^2(df)/F$			18.70(12)					2.18
지역규모								
대도시	0.23	1.70	14.38	61.95	21.74	100.00(883)	4.03	0.67
중소도시	-	0.41	15.98	66.80	16.80	100.00(244)	4.00	0.59
읍면	-	2.48	13.04	62.11	22.36	100.00(161)	4.04	0.67
$\chi^2(df)/F$			7.76(8) ^(a)					0.2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아동의 객관적인 건강체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를 조사하였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은 총 5개 등급으로 학생의 건강체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1등급은 80점~100점에 해당하며 건강체력 수준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패널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를 조사한 결과, 2등급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는데, 해당 비율은 40.05%였다. 그 뒤를 이어 3등급 32.08%, 1등급 1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보면 전체 평균이 2.58점으로 패널아동의 건강체력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2-40〉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단위: %, (명), 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94	40.05	32.08	9.60	6.32	100.00(427)	2.58	1.03
아동 성별								
남	13.15	32.86	36.15	11.74	6.10	100.00(213)	2.65	1.05
여	10.80	47.42	27.70	7.51	6.57	100.00(213)	2.52	1.01
$\chi^2(df)/t$			10.51(4)*					1.32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39	34.78	32.61	6.52	8.70	100.00(46)	2.54	1.13
350 초과-550만원	13.39	40.16	30.71	11.02	4.72	100.00(127)	2.54	1.01
550 초과-750만원	10.26	36.75	35.04	11.11	6.84	100.00(117)	2.68	1.03
750만원 초과	14.13	42.39	31.52	6.52	5.43	100.00(92)	2.47	1.00
$\chi^2(df)/F$			5.53(12)					0.76
지역규모								
대도시	11.81	40.96	29.52	9.23	8.49	100.00(271)	2.62	1.08
중소도시	14.13	41.30	30.43	13.04	1.09	100.00(92)	2.46	0.93
읍면	9.52	34.92	44.44	6.35	4.76	100.00(63)	2.62	0.92
$\chi^2(df)/F$			12.92(8)					0.88

주: 1) 답임교사의 응답임.

2) 0-19점: 5등급, 20-39점: 4등급, 40-59점: 3등급, 60-79점: 2등급, 80-100점: 1등급

* $p < .05$.

2) 질환 및 치료

패널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하여 응급실 치료와 입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호자 응답결과,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94.88%, 96.89%로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아동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2	94.88	3.11	96.89	100.00(1,288)
아동 성별					
남	5.00	95.00	2.88	97.12	100.00(660)
여	5.25	94.75	3.34	96.66	100.00(628)
$\chi^2(df)$		0.04(1)		0.23(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34	94.66	2.29	97.71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4.97	95.03	3.51	96.49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6.23	93.77	3.26	96.74	100.00(337)
750만원 초과	5.13	94.87	3.53	96.47	100.00(312)
$\chi^2(df)$		0.62(3)		0.52(3)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지역규모					
대도시	4.30	95.70	2.49	97.51	100.00(883)
중소도시	7.38	92.62	4.10	95.90	100.00(244)
읍면	6.21	93.79	4.97	95.03	100.00(161)
$\chi^2(df)$	4.16(2)		3.7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문항에 대하여 보호자 응답결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패널아동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타 장애 5명, 자폐성장애 4명, 지체장애, 심장장애 각 2명,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질장애를 가진 패널아동이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42〉 아동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100.00(2)	50.00	50.00
뇌병변장애	100.00(1)	100.00	-
시각장애	100.00(1)	-	100.00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100.00(1)	-	100.00
안면장애	-	-	-
신장장애	100.00(1)	-	100.00
심장장애	100.00(2)	-	100.00
간장애	-	-	-
호흡기장애	100.00(1)	-	100.00
장루, 요루장애	-	-	-
간질장애	100.00(1)	-	100.00
지적장애	100.00(11)	81.82	18.18
정신장애	-	-	-
자폐성장애	100.00(4)	50.00	50.00
기타 장애	100.00(5)	60.00	4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가 응답한 패널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대상 중 12.11%가 만성 비염으로 패널아동이 진단받은 만성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뇌전증(간질), 당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단 받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간헐적으로 받거나 받지 않음에 과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43〉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100.00(2)	0.16	100.00	-	-
뇌전증(간질)	100.00(3)	0.23	100.00	-	-
당뇨	100.00(3)	0.23	100.00	-	-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00.00(11)	0.85	9.09	81.82	9.09
만성 중이염	100.00(3)	0.23	-	100.00	-
만성 요로감염	-	-	-	-	-
천식	100.00(9)	0.70	11.11	66.67	22.22
만성 비염	100.00(156)	12.11	6.41	72.44	21.15
아토피 피부염	100.00(50)	3.88	12.00	60.00	28.00
식품 알레르기	100.00(31)	2.41	-	48.39	51.61
알레르기 결막염	100.00(21)	1.63	-	71.43	28.57
기타 질환	100.00(18)	1.40	27.78	44.44	27.78

주: 1) 진단받은 비율은 응답한 보호자를 전제로 산출됨.
 2)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보호자에게 응답한 결과,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대부분 1% 미만이었으며, 운동장애 0.5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47%,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 특정 학습장애가 각 0.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는 불안장애 66.6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이상이 간헐적 또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장애	100.00(4)	0.31	25.00	-	75.00
자폐 스펙트럼장애	100.00(4)	0.31	50.00	-	50.0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0.00(6)	0.47	33.33	33.33	33.33
특정 학습장애	100.00(4)	0.31	25.00	25.00	50.00
운동장애	100.00(7)	0.54	14.29	42.86	42.86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100.00(3)	0.23	33.33	33.33	33.33
배설장애	-	-	-	-	-
급식 및 섭식장애	-	-	-	-	-
불안장애	100.00(3)	0.23	66.67	33.33	-
기타장애	100.00(1)	0.08	-	100.00	-

주: 1)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다. 학습 관련 특성

패널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패널아동과 보호자에게 각각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우선, 패널아동이 직접 응답한 학업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A등급에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응답한 패널아동의 약 60% 이상이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5〉 아동의 학업성취도_1_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A	B	C	D	E	계(수)
국어	38.51	30.10	18.82	7.37	5.20	100.00(1,249)
영어	44.68	20.50	15.37	10.09	9.37	100.00(1,249)
수학	39.95	21.54	16.57	10.89	11.05	100.00(1,249)
사회	36.67	23.62	23.14	10.09	6.49	100.00(1,249)
과학	36.99	22.42	19.78	11.69	9.13	100.00(1,249)

주: 아동응답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기재하도록 함.

패널아동이 직접 응답한 학업성취도 결과 중 예체능 과목인 음악, 미술, 체육 과목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한 패널아동의 70% 이상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6〉 아동의 학업성취도_2_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A	B	C	계(수)
음악	72.74	22.74	4.52	100.00(1,240)
미술	73.55	22.26	4.19	100.00(1,249)
체육	75.66	20.26	4.08	100.00(1,249)

주: 아동 응답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기재하도록 함.

패널아동의 학업취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직접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패널아동이 직접 응답한 학업성취도 결과와 유사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전체 응답대상 중 30% 이상 패널아동 성적등급이 A등급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47〉 아동의 학업성취도_1_부모응답

단위: %, (명)

구분	A	B	C	D	E	계(수)
국어	38.30	30.11	19.50	7.96	4.13	100.00(1,282)
영어	41.50	23.40	15.83	11.31	7.96	100.00(1,282)
수학	38.77	23.87	17.00	11.47	8.89	100.00(1,282)
사회	32.14	26.83	25.27	10.61	5.15	100.00(1,282)
과학	34.87	24.57	22.23	11.54	6.79	100.00(1,282)

주: 아동 응답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기재하도록 함.

보호자가 직접 응답한 패널아동의 학업성취도 결과 중 예체능 과목인 음악, 미술, 체육 과목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패널아동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B등급 이상의 비율이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48〉 아동의 학업성취도_2_부모응답

단위: %, (명)

구분	A	B	C	계(수)
음악	66.85	28.47	4.68	100.00(1,282)
미술	64.43	30.97	4.60	100.00(1,282)
체육	72.70	23.24	4.06	100.00(1,282)

주: 아동 응답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기재하도록 함.

다음은 패널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런 적이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아동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6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제/시험 스트레스 평균 2.92점, 공부 스트레스 평균 2.80점,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2.65점, 학교성적 스트레스 평균 2.40점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트레스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는데 공부 스트레스의 성별 차이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 거주 패널아동이 읍면지역 패널아동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49〉 학업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2.69	0.91	2.40	1.07	2.92	1.12	2.80	1.12	2.65	1.18
아동 성별											
남	(641)	2.61	0.91	2.33	1.07	2.81	1.15	2.77	1.13	2.53	1.17
여	(612)	2.78	0.90	2.49	1.06	3.03	1.08	2.83	1.11	2.78	1.18
<i>t</i>		-3.43***		-2.78**		-3.55***		-0.97		-3.7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65	0.83	2.41	1.03	2.80	1.05	2.75	1.02	2.63	1.10
350 초과~550만원	(329)	2.73	0.93	2.48	1.07	2.94	1.17	2.90	1.18	2.62	1.16
550 초과~750만원	(328)	2.70	0.93	2.38	1.12	2.94	1.14	2.84	1.13	2.61	1.23
750만원 초과	(300)	2.72	0.88	2.39	1.06	2.99	1.08	2.74	1.08	2.77	1.19
<i>F</i>		0.34		0.51		0.90		1.30		1.16	
지역규모											
대도시	(852)	2.74 ^b	0.88	2.42	1.05	3.00 ^b	1.10	2.86 ^a	1.09	2.70 ^b	1.19
중소도시	(241)	2.64 ^{ab}	0.95	2.39	1.09	2.80 ^{ab}	1.15	2.71 ^a	1.17	2.65 ^b	1.16
읍면	(160)	2.52 ^a	0.95	2.39	1.11	2.69 ^a	1.14	2.64 ^a	1.16	2.38 ^a	1.15
<i>F</i>		4.55*		0.07		6.79**		3.72*		5.2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패널아동이 선호하는 과목을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순위 과목에서는 체육이 37.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학 13.89%, 사회 8.22%, 과학, 미술 각 8.06%, 영어 7.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체육 47.58%, 수학 16.22%, 과학 7.33%, 사회 7.02% 영어 5.30%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체육 27.94%, 미술 11.60%, 수학 11.44%, 영어와 사회 9.48%, 과학 8.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0〉 아동의 과목 선호도: 1순위

단위: %, (명)

구분	계(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전체	100(1,253)	5.75	7.34	13.89	8.22	8.06	0.24	1.52
아동 성별								
남	100(641)	2.96	5.30	16.22	7.02	7.33	0.00	1.40
여	100(612)	8.66	9.48	11.44	9.48	8.82	0.49	1.63

구분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한문	제2외국어	기타
전체	6.15	8.06	37.99	0.24	0.72	0.72	0.64	0.48
아동 성별								
남	4.21	4.68	47.58	0.31	0.78	0.78	0.62	0.78
여	8.17	11.60	27.94	0.16	0.65	0.65	0.65	0.16

주: 아동의 응답임.

선호하는 과목을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이 5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수학 25.70%, 과학 20.91%, 미술 18.99%, 사회 17.64%, 영어 16.36%, 음악 15.40%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체육 66.46%, 수학 30.27%, 과학 19.81%, 사회 15.91%, 영어 15.29%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체육 41.83%, 미술 23.04%, 과학 22.06%, 수학 20.92%, 국어 19.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1〉 아동의 과목 선호도: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전체	(1,253)	14.53	16.36	25.70	17.64	20.91	1.52	5.35
아동 성별								
남	(641)	9.67	15.29	30.27	15.91	19.81	0.47	5.62
여	(612)	19.61	17.48	20.92	19.44	22.06	2.61	5.07
구분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한문	제2외국어	기타
전체	15.40	18.99	54.43	1.52	2.00	1.52	2.39	1.76
아동 성별								
남	11.86	15.13	66.46	2.34	1.87	1.56	1.56	2.18
여	19.12	23.04	41.83	0.65	2.12	1.47	3.27	1.31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학업적 참여도 중 학습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5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응답결과 전체 평균 2.6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57점, 여학생은 2.79점으로 여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350만원 이하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가구 패널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높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52〉 자기조절학습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기조절학습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2.68	0.57
아동 성별			
남	(641)	2.57	0.58
여	(612)	2.79	0.53
<i>t</i>		-6.9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61 ^a	0.60
350 초과~550만원	(329)	2.67 ^{ab}	0.55
550 초과~750만원	(328)	2.67 ^{ab}	0.57
750만원 초과	(300)	2.78 ^b	0.57
<i>F</i>		3.70*	
지역규모			
대도시	(852)	2.70	0.57
중소도시	(241)	2.67	0.52
읍면	(160)	2.59	0.59
<i>F</i>		2.5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라. 사회 및 정서 특성

1) 자아 발달

아동에게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5개 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과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등 총 14개 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3.24점, 여학생 3.11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2.86점, 여학생 2.79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모두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3〉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3.17	0.56	2.82	0.44
아동 성별					
남	(641)	3.24	0.56	2.86	0.43
여	(612)	3.11	0.55	2.79	0.44
<i>t</i>		4.04***		3.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17	0.61	2.78	0.44
350 초과~550만원	(329)	3.15	0.56	2.80	0.44
550 초과~750만원	(328)	3.18	0.57	2.86	0.44
750만원 초과	(300)	3.20	0.52	2.84	0.44
<i>F</i>		0.49		1.38	
지역규모					
대도시	(852)	3.16	0.57	2.83	0.43
중소도시	(241)	3.20	0.54	2.83	0.44
읍면	(160)	3.18	0.53	2.81	0.46
<i>F</i>		0.47		0.1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자율성은 12차년도부터 조사된 격년 문항으로 15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16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나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등 총 5개 문항을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60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2-54〉 아동의 자율성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율성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2.60	0.39
아동 성별			
남	(641)	2.59	0.40
여	(612)	2.61	0.39
<i>t</i>		-0.7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57	0.40
350 초과~550만원	(329)	2.59	0.39
550 초과~750만원	(328)	2.59	0.41
750만원 초과	(300)	2.63	0.37
<i>F</i>		0.76	

구분	(수)	자율성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2.59	0.39
중소도시	(241)	2.63	0.37
읍면	(160)	2.58	0.45
<i>F</i>			1.1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렇지 않다~3.그렇다).
 3) 1번 문항(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압박감을 시달린다는 역코딩)

2) 정서 발달

패널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전반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평균 2.86점, 여학생 평균 2.78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서는 350만원 이하 가구 패널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패널아동이 전반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5〉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2.82	0.45
아동 성별			
남	(641)	2.86	0.44
여	(612)	2.78	0.46
<i>t</i>			3.0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72 ^a	0.52
350 초과~550만원	(329)	2.82 ^{ab}	0.44
550 초과~750만원	(328)	2.85 ^b	0.44
750만원 초과	(300)	2.87 ^b	0.43
<i>F</i>			3.74*
지역규모			
대도시	(852)	2.82	0.45
중소도시	(241)	2.85	0.45
읍면	(160)	2.83	0.45
<i>F</i>			0.4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 $p < .05$, ** $p < .01$.

우울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 패널아동이 느끼는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슬픈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등 총 11문항을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1점)’, ‘가끔 있었다(1~2일)(2점)’, ‘자주 있었다(3~4일)(3점)’, ‘거의 대부분(5~7일)(4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우울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1.52점으로 나타났으며, 패널아동의 성별에 있어 남학생 평균 1.49점, 여학생 평균 1.5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6〉 아동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울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1.52	0.43
아동 성별			
남	(641)	1.49	0.41
여	(612)	1.55	0.45
<i>t</i>		-2.7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1.56	0.45
350 초과~550만원	(329)	1.52	0.43
550 초과~750만원	(328)	1.53	0.44
750만원 초과	(300)	1.49	0.42
<i>F</i>		0.78	
지역규모			
대도시	(852)	1.54 ^a	0.44
중소도시	(241)	1.47 ^a	0.39
읍면	(160)	1.47 ^a	0.43
<i>F</i>		3.7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가끔 있었다(1~2일), 3.자주 있었다(3~4일), 4.거의 대부분(5~7일)).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패널아동의 공감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 15개 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적 공감은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 총 7개 문항, 인지적 공감은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등 총 4개 문항, 정서적 공감은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아동의 공감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4.06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 평균 3.96점, 인지적 공감 평균 4.29점, 정서적 공감 평균 4.00점으로 인지적 공감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감척도 총점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서는 표현적 공감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의 공감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7〉 아동의 공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3.96	0.88	4.29	0.92	4.00	1.00	4.06	0.78
아동 성별									
남	(641)	3.89	0.89	4.19	0.93	3.81	0.97	3.95	0.77
여	(612)	4.04	0.86	4.40	0.91	4.22	1.00	4.18	0.78
<i>t</i>		-2.96**		-4.16***		-7.36***		-5.3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86	0.95	4.18	1.01	3.84	1.10	3.94	0.86
350 초과-550만원	(329)	3.93	0.89	4.25	0.97	4.00	0.98	4.03	0.80
550 초과-750만원	(328)	4.04	0.84	4.38	0.89	4.09	1.05	4.15	0.76
750만원 초과	(300)	3.98	0.86	4.34	0.90	3.99	0.98	4.08	0.76
<i>F</i>		1.77		2.05		1.91		2.50	
지역규모									
대도시	(852)	4.01 ^b	0.85	4.33	0.89	4.02	0.99	61.44 ^a	11.39
중소도시	(241)	3.90 ^{ab}	0.86	4.26	0.92	4.00	1.00	60.34 ^a	11.62
읍면	(160)	3.81 ^a	0.99	4.17	1.07	3.94	1.08	59.11 ^a	13.55
<i>F</i>		4.35*		2.05		0.40		3.0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성 발달

가) 학교적응

14차년도 조사부터(패널아동 중1 시기) 학교적응 척도의 경우 청소년용으로 변경하여 측정하였으며, 학교공부 8개 문항,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각 10개 문항으로 4개 영역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은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 학교적응 점수를 살펴보면, 학교공부 평균 3.50점, 학교친구 평균 4.04점, 학교교사 평균 3.64점, 학교생활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에서는 학교공부와 학교친구 모두 350만원 이하 가구 패널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패널아동의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8〉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4)	3.50	0.67	4.04	0.64	3.64	0.72	3.95	0.62
아동 성별									
남	(640)	3.49	0.69	4.02	0.63	3.66	0.71	3.89	0.64
여	(609)	3.51	0.66	4.06	0.65	3.63	0.72	4.01	0.59
<i>t</i>		-0.66		-0.97		0.77		-3.4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34 ^a	0.74	3.87 ^a	0.78	3.59	0.67	3.89	0.71
350 초과~550만원	(326)	3.46 ^{ab}	0.65	4.00 ^{ab}	0.64	3.71	0.68	3.96	0.62
550 초과~750만원	(327)	3.54 ^b	0.66	4.12 ^b	0.58	3.62	0.77	3.96	0.64
750만원 초과	(300)	3.62 ^b	0.68	4.12 ^b	0.61	3.67	0.69	3.98	0.60
<i>F</i>		6.28***		6.63***		1.17		0.68	
지역규모									
대도시	(849)	3.49	0.67	4.03	0.67	3.64	0.74	3.93	0.63
중소도시	(241)	3.51	0.69	4.06	0.56	3.62	0.66	3.96	0.60
읍면	(159)	3.53	0.68	4.03	0.62	3.70	0.66	4.00	0.63
<i>F</i>		0.25		0.27		0.56		0.7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학교적응 4개 영역별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공부 하위요인인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는 각각 평균 3.57점, 3.39점이었고, 학교친구 하위요인인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성은 각각 평균 4.08점, 3.9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상호협조성에서 남학생 3.94점, 여학생 4.04점으로 여학생이 학교협조성 수준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 가구 패널아동보다 750만원 초과 가구 패널아동의 학업유능감 수준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 가구 패널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패널아동이 학교친구의 2개의 하위영역인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9〉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4)	3.57	0.71	3.39	0.88	4.08	0.70	3.99	0.66
아동 성별									
남	(640)	3.57	0.73	3.35	0.91	4.10	0.68	3.94	0.67
여	(609)	3.56	0.69	3.44	0.86	4.07	0.73	4.04	0.65
<i>t</i>		0.22		-1.64		0.59		-2.5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38 ^a	0.77	3.27	0.92	3.92 ^a	0.82	3.82 ^a	0.80
350 초과-550만원	(326)	3.51 ^{ab}	0.70	3.38	0.88	4.05 ^{ab}	0.71	3.95 ^{ab}	0.65
550 초과-750만원	(327)	3.62 ^{bc}	0.70	3.40	0.88	4.18 ^b	0.61	4.06 ^b	0.63
750만원 초과	(300)	3.72 ^c	0.70	3.47	0.92	4.15 ^b	0.69	4.08 ^b	0.62
<i>F</i>		8.63***		1.53		5.67***		6.18***	
지역규모									
대도시	(849)	3.57	0.70	3.37	0.88	4.08	0.73	3.98	0.68
중소도시	(241)	3.57	0.71	3.40	0.91	4.11	0.63	4.02	0.58
읍면	(159)	3.55	0.74	3.50	0.88	4.08	0.65	3.99	0.68
<i>F</i>		0.03		1.44		0.24		0.2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학교교사 영역의 하위요인인 교사호감 및 교사친밀감 평균 점수는 각각 평균 3.89점,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영역의 하위요인인 질서/규칙준수 및 학교생활만족 평균 점수는 각각 평균 3.94점, 3.9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학교생활 영역의 2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질서/규칙준수 및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0〉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4)	3.89	0.72	3.40	0.88	3.94	0.69	3.95	0.67
아동 성별									
남	(640)	3.89	0.72	3.42	0.87	3.87	0.71	3.91	0.69
여	(609)	3.89	0.71	3.37	0.89	4.02	0.66	3.99	0.65
<i>t</i>		0.10		1.17		-4.07***		-2.1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85	0.74	3.34	0.85	3.92	0.75	3.85	0.77
350 초과-550만원	(326)	3.95	0.67	3.46	0.86	3.96	0.69	3.95	0.65
550 초과-750만원	(327)	3.84	0.78	3.40	0.91	3.93	0.70	3.99	0.69
750만원 초과	(300)	3.94	0.66	3.40	0.87	3.97	0.68	4.00	0.64
<i>F</i>		1.74		0.73		0.30		1.62	
지역규모									
대도시	(849)	3.87	0.74	3.40	0.90	3.94	0.69	3.93	0.68
중소도시	(241)	3.89	0.68	3.36	0.83	3.93	0.70	3.98	0.62
읍면	(159)	3.97	0.62	3.42	0.85	3.99	0.68	4.01	0.66
<i>F</i>		1.17		0.28		0.40		1.1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나) 친구관계

패널아동에게 이성친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성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패널아동은 10.02%, 없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은 89.98%로 나타났다.

〈표 III-2-61〉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단위: %, (명)

구분	계(수)	이성친구(%)	
		있음	없음
전체	100.00(1,258)	10.02	89.98
아동 성별			
남	100.00(641)	9.98	90.02
여	100.00(612)	10.13	89.87
$\chi^2(df)$		0.01(1)	

구분	계(수)	이성친구(%)	
		있음	없음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0)	11.54	88.46
350 초과~550만원	100.00(329)	8.81	91.19
550 초과~750만원	100.00(328)	9.15	90.85
750만원 초과	100.00(300)	11.33	88.67
$\chi^2(df)$		1.72(3)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52)	10.45	89.55
중소도시	100.00(241)	10.37	89.63
읍면	100.00(160)	7.50	92.50
$\chi^2(df)$		1.33(2)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친구들과의 애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3개의 영역(의사소통, 신뢰, 소외), 총 9개로 구성된 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의사소통은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등 총 3개 문항, 신뢰는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한다’ 등 총 3개 문항, 소외는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평균 3.14점, 신뢰 평균 3.14점, 소외 1.9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만 남학생 3.08 점, 여학생 3.19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신뢰 및 소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2〉 아동의 또래애착

단위: (명), 점

구분	(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3.14	0.54	3.14	0.60	1.90	0.64
아동 성별							
남	(641)	3.08	0.53	3.12	0.60	1.91	0.65
여	(612)	3.19	0.55	3.17	0.61	1.89	0.62
<i>t</i>		-3.78***		-1.66		0.7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3.08	0.53	3.09	0.62	1.95	0.62
350 초과~550만원	(329)	3.10	0.55	3.13	0.60	1.90	0.62
550 초과~750만원	(328)	3.16	0.52	3.15	0.59	1.92	0.65
750만원 초과	(300)	3.18	0.55	3.21	0.57	1.86	0.63
<i>F</i>		1.59		1.56		0.87	

구분	(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3.13	0.54	3.13	0.61	1.90	0.63
중소도시	(241)	3.14	0.51	3.15	0.56	1.85	0.58
읍면	(160)	3.18	0.58	3.20	0.62	1.99	0.74
<i>F</i>		0.56		0.79		2.4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다) 비행행동

(1)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폭력 피해 경험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협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1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외에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4%,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이 3.02%, ‘왕따, 따돌림 경험’이 2.78%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보면 ‘협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연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고, 월 1회가 2.62%였다.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연 1~2회였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빈도는 낮지만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도 있었다.

〈표 III-2-63〉 폭력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없다	연 1~2회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일주일에 여러 번	계(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93.16	4.77	1.11	0.56	0.32	0.08	100(1,258)
왕따, 따돌림 경험	97.22	1.99	0.08	0.16	0.32	0.24	100(1,258)
협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85.85	8.11	2.62	1.99	0.95	0.48	100(1,258)
고의적으로 툭툭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98.65	0.95	0.16	0.16	0.08	-	100(1,25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99.05	0.72	0.16	0.08	-	-	100(1,258)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99.60	0.08	0.24	0.08	-	-	100(1,258)

구분	없다	연 월 주 일주일에					계(수)
		1~2회	1회	2~3회	1~2회	여러 번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경험	98.49	0.79	0.40	0.16	0.08	0.08	100(1,258)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으로 괴롭힘 당한 경험	97.85	1.51	0.08	0.24	0.24	0.08	100(1,258)
신원미상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8.73	1.03	0.16	0.08	-	-	100(1,258)
학교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21	0.56	-	0.08	0.16	-	100(1,258)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13	0.79	-	0.08	-	-	100(1,258)
촬영된 사진,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	99.36	0.56	-	-	-	0.08	100(1,258)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96.98	1.91	0.64	0.24	0.24	-	100(1,258)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 피해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0%, 폭력 피해를 1 개 항목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은 18.20%로, 15차년도 이전 조사 비율 (75.97%)에 비해(조미라 외, 2023: 125) 폭력 피해 경험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항목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1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20%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 아동이 여러 개의 폭력 유형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보다는 아동별로 폭력 피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력 피해 경험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4〉 폭력 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 피해 경험		계(수)
	모든 항목에서 없음	1개 항목 이상 있음	
전체	81.80	18.20	100.00(1,258)
아동 성별			
남	76.91	23.09	100.00(641)
여	86.93	13.07	100.00(612)
	$\chi^2(df)$ 21.1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7.69	22.31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80.55	19.45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82.32	17.68	100.00(328)
750만원 초과	83.67	16.33	100.00(300)
	$\chi^2(df)$ 2.53(3)		

구분	폭력 피해 경험		계(수)
	모든 항목에서 없음	1개 항목 이상 있음	
지역규모			
대도시	80.99	19.01	100.00(852)
중소도시	83.40	16.60	100.00(241)
읍면	83.75	16.25	100.00(160)
$\chi^2(df)$	1.20(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01$.

폭력 피해 경험에 더해 폭력 가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다고는 응답한 비율이 23.05%로 다소 높았고,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이 2.15%,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이 1.67%로 나타났다. 이외 폭력 가해 경험 응답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 경험 비율을 보면,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연 1~2회가 12.24%, 월 1회가 3.66%, 월 2~3회가 3.02%, 주 1~2회가 3.10%, 일주일에 여러 번은 1.03%로 나타났다.

〈표 III-2-65〉 폭력 가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빈도							계(수)
	없다	연 1~2회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일주일에 여러 번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	76.95	12.24	3.66	3.02	3.10	1.03	100(1,258)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98.33	1.11	0.16	0.24	0.16	-	100(1,258)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	97.85	1.27	0.40	0.24	0.16	0.08	100(1,258)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등을 돌린 경험	99.13	0.72	0.08	-	0.08	-	100(1,258)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99.28	0.48	0.16	0.08	-	-	100(1,258)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험	99.28	0.56	-	0.16	-	-	100(1,258)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경험	99.44	0.40	-	0.16	-	-	100(1,258)	
온라인상에서 친구에 대해 헛소문을 낸 경험	99.44	0.56	-	-	-	-	100(1,258)	
누군지 모르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28	0.56	0.08	0.08	-	-	100(1,258)	
학교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68	0.16	0.08	-	-	0.08	100(1,258)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52	0.32	0.16	-	-	-	100(1,258)	
사진, 영상 등을 촬영 후 상대를 위협하거나 괴롭힌 경험	99.60	0.32	-	0.08	-	-	100(1,258)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험	99.44	0.40	-	-	0.16	-	100(1,258)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 가해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2%,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폭력 가해 경험 응답비율은 32.61%, 여학생의 폭력 가해 경험 응답비율은 15.8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정도 폭력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6〉 폭력 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 가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없음	폭력 가해 경험 1개 항목 이상 있음	계(수)
전체	75.52	24.48	100.00(1,258)
아동 성별			
남	67.39	32.61	100.00(641)
여	84.15	15.85	100.00(612)
$\chi^2(df)$	47.62(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1.54	28.46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78.12	21.88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74.09	25.91	100.00(328)
750만원 초과	75.33	24.67	100.00(300)
$\chi^2(df)$	2.65(3)		
지역규모			
대도시	76.29	23.71	100.00(852)
중소도시	71.78	28.22	100.00(241)
읍면	77.50	22.50	100.00(160)
$\chi^2(df)$	2.43(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01$.

(2) 음주 및 흡연경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은 89.83%로 대다수였고, 술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처음 술을 마신 시기는 평균연령은 13.80세였고,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노출 빈도가 커져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67〉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전체	100.00(1,258)	89.83	0.08	-	0.48	0.08	0.32	0.48	1.43	2.70	4.61	(128)	13.80	1.65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아동 성별														
남	100.00(641)	87.99	0.16	-	0.62	0.16	0.47	0.78	1.56	3.28	4.99	(77)	13.64	1.79
여	100.00(612)	91.67	-	-	0.33	-	0.16	0.16	1.31	2.12	4.25	(51)	14.06	1.39
$\chi^2(df)/t$									8.40(8)					-1.4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30)	92.31	-	-	1.54	-	0.77	0.77	-	0.77	3.85	(10)	13.00	2.54
350 초과~550만원	100.00(329)	91.19	0.30	-	0.30	-	-	0.91	1.82	1.82	3.65	(29)	13.59	1.88
550 초과~750만원	100.00(328)	88.72	-	-	0.30	0.30	0.30	0.61	1.52	3.05	5.18	(37)	13.89	1.49
750만원 초과	100.00(300)	87.33	-	-	0.33	-	0.67	-	2.00	3.67	6.00	(38)	14.03	1.35
$\chi^2(df)/F$									22.60(24)					1.20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52)	90.14	-	0.47	-	0.35	0.35	1.53	2.58	4.58	4.58	(84)	13.89	1.51
중소도시	100.00(241)	90.04	-	0.83	0.41	0.41	0.41	1.24	2.90	3.73	3.75	(24)	13.46	1.91
읍면	100.00(160)	87.50	0.63	-	-	-	1.25	1.25	3.13	6.25	6.29	(20)	13.85	1.90
$\chi^2(df)/F$									17.09(16) ^(a)					0.6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10.18%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달에 1회 미만 마신다는 응답은 60.94%로 가장 많았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3%,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은 4.69%, 한 달에 2~4회 마신다는 응답은 1.56%, 주 2~3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은 0.78%였다.

〈표 III-2-68〉 아동의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4회 정도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전체	100.00(128)	32.03	60.94	4.69	1.56	0.78	-
아동 성별							
남	100.00(77)	36.36	55.84	5.19	1.30	1.30	-
여	100.00(51)	25.49	68.63	3.92	1.96	-	-
$\chi^2(df)$				2.8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0)	40.00	60.00	-	-	-	-
350 초과~550만원	100.00(29)	24.14	65.52	10.34	-	-	-
550 초과~750만원	100.00(37)	24.32	70.27	2.70	-	2.70	-
750만원 초과	100.00(38)	39.47	50.00	5.26	5.26	-	-
$\chi^2(df)$				11.98(12)			

구분	계(수)	최근 1년간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전혀 마시지 않음	1회 미만	1회 정도	2~4회 정도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4)	32.14	60.71	3.57	2.38	1.19	-
중소도시	100.00(24)	37.50	50.00	12.50	-	-	-
읍면	100.00(20)	25.00	75.00	-	-	-	-
$\chi^2(df)$				7.51(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장소는 질문한 결과, 집 또는 친구 집이 81.61%로 가장 많았고, 식당이 16.09%,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가 5.75%로 나타났다.

〈표 III-2-69〉 아동의 음주 장소(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수)	집, 친구 집	학교, 기숙사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식당	술집, 나이트, 포장마차
전체	(87)	81.61	1.15	5.75		-		16.09	1.15
아동 성별									
남	(49)	81.63	2.04	4.08		-		16.33	2.04
여	(38)	81.58	-	7.89		-		15.79	-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	83.33	16.67	-		-		16.67	-
350 초과~550만원	(22)	72.73	-	4.55		-		27.27	-
550 초과~750만원	(28)	89.29	-	7.14		-		7.14	-
750만원 초과	(23)	82.61	-	8.70		-		17.39	-
지역규모									
대도시	(57)	82.46	-	3.51		-		19.30	1.75
중소도시	(15)	73.33	-	13.33		-		13.33	-
읍면	(15)	86.67	6.67	6.67		-		6.67	-

주: 아동의 응답임.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경험을 질문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음'이 91.95%로 거의 대부분이 술을 사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사려고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05%로 이 중 '술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45%, 술 구입이 가능했다는 응답은 4.60%였다.

〈표 III-2-70〉 아동의 주류 구입 경험

단위: (명), %

구분	계(수)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사려고 한 적 없음	술 구입 불가능	많이 노력하면 구입 가능	조금만 노력하면 구입 가능	노력 없이 쉽게 구입
전체	(87)	91.95	3.45	1.15	1.15	2.30
아동 성별						
남	(49)	89.80	4.08	2.04	2.04	2.04
여	(38)	94.74	2.63	-	-	2.63
$\chi^2(df)$				1.77(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	100.00	-	-	-	-
350 초과~550만원	(22)	95.45	4.55	-	-	-
550 초과~750만원	(28)	89.29	3.57	-	3.57	3.57
750만원 초과	(23)	95.65	-	-	-	4.35
$\chi^2(df)$				4.26(9)		
지역규모						
대도시	(57)	91.23	1.75	1.75	1.75	3.51
중소도시	(15)	86.67	13.33	-	-	-
읍면	(15)	100.00	-	-	-	-
$\chi^2(df)$				7.50(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명으로, 전체 응답 아동의 2.23%였다. 담배를 처음 피운 시기는 평균연령은 14.04세였고, 중1이 0.79%, 중2가 0.56%, 중3이 0.87%였다. 흡연경험 비율은 음주경험 비율보다는 낮고, 처음 경험한 시기도 다소 늦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71〉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수)
전체	100(1,258)	97.77	-	-	-	-	-	-	0.79	0.56	0.87	(28)	14.04	0.88
아동 성별														
남	100(641)	96.88	-	-	-	-	-	-	1.09	0.94	1.09	(20)	14.00	0.86
여	100(612)	98.69	-	-	-	-	-	-	0.49	0.16	0.65	(8)	14.13	0.99
$\chi^2(df)/t$									5.56(3)					-0.3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130)	98.46	-	-	-	-	-	-	0.77	-	0.77	(2)	14.00	1.41
350 초과~550만원	100(329)	97.87	-	-	-	-	-	-	0.61	0.61	0.91	(7)	14.14	0.90
550 초과~750만원	100(328)	96.95	-	-	-	-	-	-	0.61	0.91	1.52	(10)	14.30	0.82
750만원 초과	100(300)	98.67	-	-	-	-	-	-	1.00	-	0.33	(4)	13.50	1.00
$\chi^2(df)/F$									6.55(9)					0.74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수)
지역규모														
대도시	100(852)	98.12	-	-	-	-	-	-	0.59	0.23	1.06	(16)	14.25	0.93
중소도시	100(241)	97.10	-	-	-	-	-	-	1.24	1.66	-	(7)	13.57	0.53
읍면	100(160)	96.88	-	-	-	-	-	-	1.25	0.63	1.25	(5)	14.00	1.00
$\chi^2(df)/F$									11.04(6) ^(a)				1.5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2.23%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월평균 흡연일수는 7.32일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월평균 흡연일수는 11.88일, 남학생은 절반인 5.50일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흡연을 경험한 아동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일단 흡연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흡연습관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조미라 외, 2023: 130).

〈표 III-2-72〉 아동의 흡연일수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	7.32	11.22
아동 성별			
남	(20)	5.50	9.68
여	(8)	11.88	14.07
t			-1.3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	0.00	0.00
350 초과~550만원	(7)	6.43	6.88
550 초과~750만원	(10)	10.30	13.48
750만원 초과	(4)	14.25	16.50
F			0.78
지역규모			
대도시	(16)	8.94	12.80
중소도시	(7)	5.29	11.21
읍면	(5)	5.00	4.69
F			0.3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에 대한 보고이며,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0,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30을 입력하도록 함.



최근 한 달 동안 담배 흡수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 피움’ 경우가 63.64%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이 18.18%, ‘집, 친구집에서 있는 담배를 피움’과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 피움’이 9.09%로 나타났다.

〈표 III-2-73〉 아동의 담배 흡수 경로

단위: %, (명)

구분	계(수)	집, 친구집에서 있는 담배 피움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 피움	성인으로부터 얻어 피움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 피움
전체	100.00(11)	9.09	18.18	63.64	-	9.09
아동 성별						
남	100.00(7)	14.29	14.29	57.14	-	14.29
여	100.00(4)	-	25.00	75.00	-	-
$\chi^2(df)$				1.43(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	-	-	-	-
350 초과~550만원	100.00(4)	-	-	100.00	-	-
550 초과~750만원	100.00(5)	20.00	40.00	20.00	-	20.00
750만원 초과	100.00(2)	-	-	100.00	-	-
$\chi^2(df)$				7.54(6)		
지역규모						
대도시	100.00(6)	-	16.67	83.33	-	-
중소도시	100.00(2)	50.00	50.00	-	-	-
읍면	100.00(3)	-	-	66.67	-	33.33
$\chi^2(df)$				10.48(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흡연경험이 있는 아동 중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최근 한 달 흡연일수 0일) 아동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경험을 질문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음’이 36.36%로 술 구매 경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고,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노력 없이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는 응답은 45.45%로 나타났다.

〈표 III-2-74〉 아동의 담배 구입 경험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한 달 동안 담배 사려고 한 적 없음	담배 구입 불가능	많이 노력하면 구입 가능	조금만 노력하면 구입 가능	노력 없이 쉽게 구입
전체	100.00(11)	36.36	9.09	-	9.09	45.45
아동 성별						
남	100.00(7)	42.86	14.29	-	-	42.86
여	100.00(4)	25.00	-	-	25.00	50.00
$\chi^2(df)$				2.57(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	-	-	-	-
350 초과~550만원	100.00(4)	50.00	25.00	-	-	25.00
550 초과~750만원	100.00(5)	40.00	-	-	-	60.00
750만원 초과	100.00(2)	-	-	-	50.00	50.00
$\chi^2(df)$				7.81(6)		
지역규모						
대도시	100.00(6)	16.67	-	-	16.67	66.67
중소도시	100.00(2)	50.00	-	-	-	50.00
읍면	100.00(3)	66.67	33.33	-	-	-
$\chi^2(df)$				6.97(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흡연경험이 있는 아동 중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최근 한 달 흡연일수 0일) 아동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증후군 척도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문제행동 조사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와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TRF(Teacher’s Report Form)’를 실시하였다(조미라 외, 2023: 48). 보호자와 교사 대상 조사 모두 총 120문항(3점 리커트 척도)으로 되어 있고,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총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 9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8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된다.

총 문제행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등의 기타 문제를 포함하며,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정상군은 각각 95.32%, 92.78%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정상군은 부모평가는 92.48%, 교사평가는 92.78%, 외현화 문제행동 정상군은 부모평가는 93.57%, 교사평가는 93.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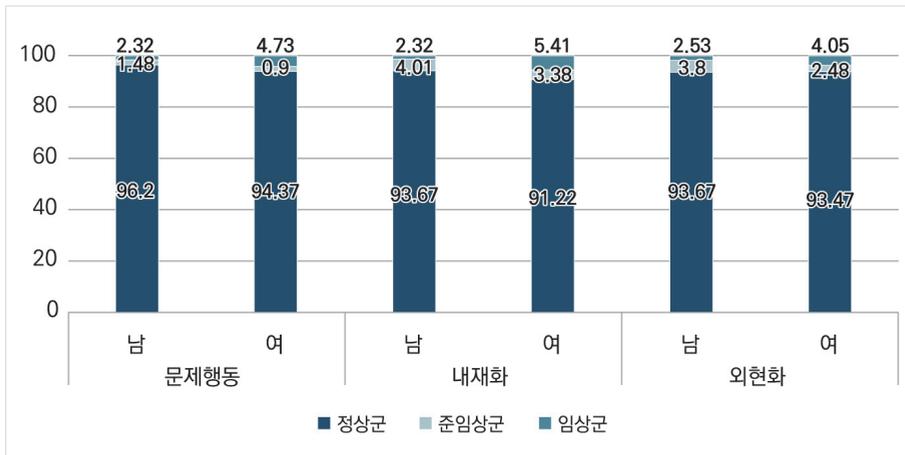
〈표 III-2-75〉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증후군 평가(CBCL)				교사의 증후군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총 문제행동	전체	95.32	1.20	3.49	100.00	92.78	3.04	4.18	100.00
	남	96.20	1.48	2.32	100.00	89.73	4.56	5.70	100.00
	여	94.37	0.90	4.73	100.00	96.17	1.53	2.30	100.00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92.48	3.70	3.81	100.00	92.78	2.85	4.37	100.00
	남	93.67	4.01	2.32	100.00	91.63	3.80	4.56	100.00
	여	91.22	3.38	5.41	100.00	93.87	1.92	4.21	100.0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93.57	3.16	3.27	100.00	93.54	3.61	2.85	100.00
	남	93.67	3.80	2.53	100.00	91.25	5.70	3.04	100.00
	여	93.47	2.48	4.05	100.00	96.17	1.53	2.30	100.00

보호자 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임상군 및 준임상군 비율을 비교해보면, 총 문제행동은 여학생(4.73%+0.90%)이 남학생(2.32%+1.48%)보다 더 높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여학생(5.41%+3.38%)이 남학생(2.32%+4.01%)보다 더 높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여학생(4.05%+2.48%)이 남학생(2.53%+3.8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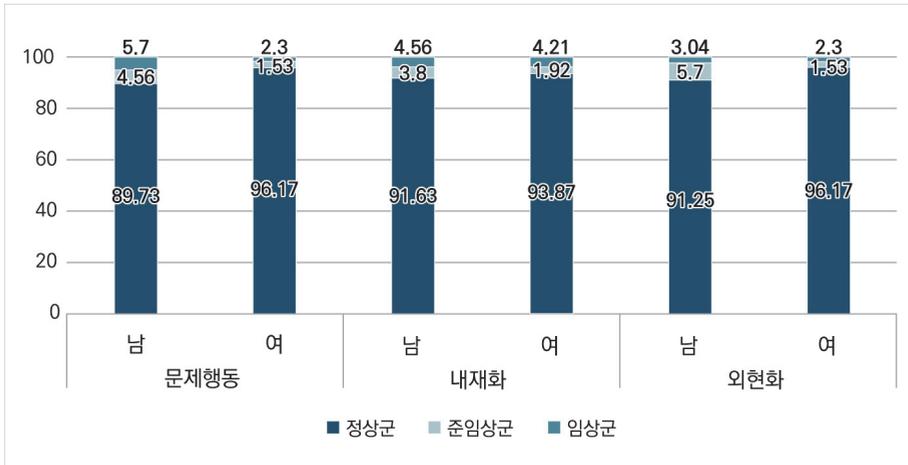
〔그림 III-2-2〕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보호자 응답



하지만 교사 평가에서는 그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임상군 및 준임상군 비율이 총 문제행동 점수(5.70%+4.56%)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

(4.56%+3.80%)과 외현화 문제행동(3.04%+5.70%)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보이는 행동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평소 보호자와 교사가 아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볼 수도 있다(김지현 외, 2022: 142).

[그림 III-2-3]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다음으로 문제행동의 T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보호자가 응답한 전체 문제행동의 평균 T점수는 44.28점, 내재화 문제행동은 45.80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46.31점으로 정상군의 범위에 속하였다. 아동 성별, 지역규모에 따른 문제행동 T점수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점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76>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44.28	9.91	45.80	9.11	46.31	8.69
아동 성별							
남	(474)	44.45	9.42	45.74	8.34	46.50	8.36
여	(444)	44.10	10.42	45.86	9.88	46.10	9.04
<i>t</i>		0.53		-0.19		0.69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46.22	10.77	47.80	10.30	47.75	8.73
350 초과~550만원	(256)	44.79	9.82	46.03	8.90	46.50	8.24
550 초과~750만원	(256)	43.60	9.57	45.18	9.03	45.84	8.67
750만원 초과	(206)	43.56	10.40	45.31	9.18	46.16	9.75
<i>F</i>		2.31		2.32		1.23	
지역규모							
대도시	(587)	44.69	10.12	46.14	9.46	46.60	9.01
중소도시	(184)	43.47	9.07	45.03	8.14	45.70	8.03
읍면	(147)	43.69	10.05	45.38	8.83	45.88	8.20
<i>F</i>		1.37		1.22		0.97	

주: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교사평가에 의한 문제행동 점수를 보면,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 T점수는 46.77 점, 내재화 문제행동은 48.35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47.54점으로 부모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부모평가와는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행동 총점과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표 III-2-77〉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46.77	8.83	48.35	8.72	47.54	7.26
아동 성별							
남	(263)	47.88	8.85	48.68	8.90	48.64	7.28
여	(261)	45.60	8.66	48.01	8.55	46.38	7.01
<i>t</i>		2.99**		0.87		3.6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48.00	10.47	49.14	10.67	48.58 ^a	6.55
350 초과~550만원	(148)	45.39	8.36	47.41	7.43	46.07 ^a	6.54
550 초과~750만원	(146)	47.11	8.17	47.68	7.46	48.14 ^a	7.12
750만원 초과	(114)	46.98	9.26	49.59	10.16	47.86 ^a	8.43
<i>F</i>		1.65		1.80		2.82*	
지역규모							
대도시	(336)	46.79	9.28	48.58	9.22	47.76	7.57
중소도시	(112)	46.82	7.72	47.93	7.07	47.36	6.75
읍면	(76)	46.45	8.34	47.93	8.74	46.62	6.33
<i>F</i>		0.05		0.33		0.81	

주: 1)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문제행동 T점수를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기타 문제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 응답의 경우 불안/우울은 평균 51.90점, 위축/우울 52.52점, 신체증상 평균 52.40점으로 모두 정상군 범위였다. 아동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III-2-78〉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51.90	4.55	52.52	5.18	52.40	4.90
아동 성별							
남	(474)	51.64	3.66	52.34	4.80	52.33	4.47
여	(444)	52.18	5.33	52.70	5.55	52.47	5.33
<i>t</i>		-1.80		-1.06		-0.4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2.76	4.82	53.50	5.90	53.70 ^b	5.83
350 초과-550만원	(256)	51.87	4.15	52.83	5.55	52.29 ^{ab}	4.59
550 초과-750만원	(256)	51.94	4.84	52.15	4.70	52.09 ^a	4.17
750만원 초과	(206)	51.70	5.12	52.09	5.20	52.28 ^{ab}	5.71
<i>F</i>		1.26		2.41		2.90*	
지역규모							
대도시	(587)	52.05	4.96	52.75	5.37	52.51	5.09
중소도시	(184)	51.59	3.74	51.71	4.10	52.19	4.43
읍면	(147)	51.67	3.65	52.61	5.53	52.18	4.71
<i>F</i>		0.93		2.83		0.47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가 응답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불안/우울은 평균 52.60점, 위축/우울은 평균 52.54점, 신체증상은 평균 51.89점으로 부모응답과 마찬가지로 정상군 범위였다. 아동 성별과 지역규모별로는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위축/우울 영역에서 문제행동 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인 아동의 위축/우울수준이 가구소득 55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의 아동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9〉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2.60	4.88	52.54	5.74	51.89	5.86
아동 성별							
남	(263)	52.79	4.78	52.55	5.93	51.84	5.52
여	(261)	52.41	4.99	52.53	5.57	51.96	6.21
<i>t</i>		0.89		0.04		-0.2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2.23	5.29	54.19 ^b	7.62	52.47	7.11
350 초과~550만원	(148)	52.21	4.16	52.14 ^{ab}	4.48	51.44	4.25
550 초과~750만원	(146)	52.53	4.10	51.67 ^a	3.39	51.44	4.77
750만원 초과	(114)	53.02	6.16	52.83 ^{ab}	7.11	53.23	8.48
<i>F</i>		0.67		3.31*		2.52	
지역규모							
대도시	(336)	52.91	5.45	52.64	5.94	51.99	6.17
중소도시	(112)	52.05	3.30	52.03	4.05	51.77	5.18
읍면	(76)	52.00	4.01	52.87	6.94	51.70	5.50
<i>F</i>		1.97		0.62		0.11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응답한 경우 규칙위반은 평균 52.36점, 공격행동은 평균 51.88점으로 모두 정상군 범위였다. 아동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80〉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52.36	4.99	51.88	4.59
아동 성별					
남	(474)	52.23	4.53	51.96	4.32
여	(444)	52.49	5.43	51.80	4.87
<i>t</i>		-0.79		0.5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2.79	4.63	52.76	4.29
350 초과~550만원	(256)	52.33	4.63	51.77	4.32
550 초과~750만원	(256)	52.22	4.91	51.72	4.19
750만원 초과	(206)	52.35	6.14	51.94	5.81
<i>F</i>		0.32		1.38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587)	52.58	5.42	51.99	4.96
중소도시	(184)	51.80	4.03	51.58	3.75
읍면	(147)	52.17	4.15	51.84	3.98
<i>F</i>		1.82		0.55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교사가 응답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규칙위반은 평균 52.42점, 공격행동은 평균 51.94점으로 부모 응답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상군 범위였다. 공격행동 수준은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평균 52.43점)이 여학생(평균 51.4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1〉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2.42	4.75	51.94	4.38
아동 성별					
남	(263)	52.71	4.43	52.43	4.47
여	(261)	52.08	4.95	51.43	4.23
<i>t</i>		1.53		2.6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2.70	4.45	52.04	3.68
350 초과~550만원	(148)	51.66	3.65	51.18	3.36
550 초과~750만원	(146)	52.62	4.43	52.28	4.38
750만원 초과	(114)	53.01	6.33	52.21	5.74
<i>F</i>		1.99		1.91	
지역규모					
대도시	(336)	52.56	4.99	52.04	4.60
중소도시	(112)	52.23	4.20	51.88	4.21
읍면	(76)	51.89	4.02	51.51	3.53
<i>F</i>		0.71		0.47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행동은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 문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 응답에서 사회적 미성숙은 평균 52.01점, 사고문제는 평균 52.43점, 주의집중문제는 평

균 51.68점, 기타 문제는 평균 52.28점으로 나타나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아동의 사회적 미성숙 점수(평균 53.24점)는 55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평균 51.5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아동 성별,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82〉 기타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 문제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918)	52.01	4.81	52.43	4.59	51.68	4.39	52.28	4.68
아동 성별									
남	(474)	52.18	4.54	52.39	4.24	51.61	4.24	52.38	4.51
여	(444)	51.82	5.09	52.48	4.93	51.75	4.56	52.17	4.85
<i>t</i>		1.14		-0.30		-0.50		0.6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3.24 ^b	5.64	52.53	4.59	52.54	5.06	53.08	5.20
350 초과-550만원	(256)	52.20 ^{ab}	4.96	52.54	4.50	51.90	4.79	52.70	4.98
550 초과-750만원	(256)	51.58 ^a	3.86	52.36	4.23	51.35	3.69	51.90	4.05
750만원 초과	(206)	51.94 ^{ab}	5.63	52.16	5.14	51.35	4.55	52.07	5.18
<i>F</i>		2.97*		0.30		2.38		2.28	
지역규모									
대도시	(587)	52.23	5.14	52.60	4.91	51.83	4.73	52.52	5.03
중소도시	(184)	51.60	4.00	52.17	3.77	51.36	3.28	51.70	3.55
읍면	(147)	51.64	4.34	52.10	4.16	51.48	4.21	52.07	4.42
<i>F</i>		1.70		1.05		0.98		2.33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가 응답한 기타 문제행동 하위영역의 평균 T점수는 사회적 미성숙은 52.48 점, 사고문제는 51.91점, 주의집중문제는 52.29점, 기타 문제는 52.71점으로 모두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주의집중문제에서 남학생은 52.87점으로 여학생 51.6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83〉 기타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2.48	5.28	51.91	5.12	52.29	4.79	52.71	4.73
아동 성별									
남	(263)	52.50	4.87	52.05	5.04	52.87	4.93	52.90	4.74
여	(261)	52.41	5.61	51.79	5.22	51.68	4.56	52.53	4.73
<i>t</i>		0.20		0.57		2.88**		0.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3.33	6.01	52.49	5.62	52.79	4.87	53.33	5.90
350 초과-550만원	(148)	52.05	4.49	51.65	4.47	51.80	3.98	52.38	3.97
550 초과-750만원	(146)	52.53	4.89	51.62	4.03	52.38	4.46	52.28	3.91
750만원 초과	(114)	52.54	6.39	52.23	6.54	52.16	5.96	53.37	6.14
<i>F</i>		0.81		0.69		0.70		1.64	
지역규모									
대도시	(336)	52.66	5.58	52.04	5.46	52.44	5.04	52.80	5.14
중소도시	(112)	52.12	4.28	51.39	3.84	51.98	4.27	52.63	3.56
읍면	(76)	52.04	5.02	52.13	5.28	52.00	4.31	52.49	4.41
<i>F</i>		0.72		0.75		0.53		0.1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4) DSM(정신병 진단)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DSM 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과잉행동/주의력 결핍(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문제는 보호자 평가에서 정상군 96.41%, 교사 평가에서 96.01%가 정상군에 속하였다. 불안문제는 보호자 평가와 교사 평가 각각 97.39%, 95.44%였으며, 신체화문제는 각각 93.03%와 96.01%였다. 과잉행동/주의력결핍은 보호자 평가 결과 97.93%, 교사 평가 결과 96.20%였다. 한편, 반항행동문제의 경우 보호자와 교사 평가 각각 95.97%, 97.72%였으며, 품행문제의 경우 각각 95.86%, 98.29%였다. DSM 기준에 따라 신체화문제,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결과는 보호자에 비해서 교사가 아동을 정상군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정서문제와 불안문제,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교사에 비해 아동을 좀 더 정상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DSM 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은 격년 조사로 이뤄지는데, 이전 조사였던 14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정상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중이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더 낮아지는 경향이 포착되었다(김지현 외, 2022: 150).

〈표 III-2-84〉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DSM 평가(CBCL 6-18)				교사의 DSM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서문제	전체	96.41	2.40	1.20	100.00	96.01	2.47	1.52	100.00
	남	97.05	2.53	0.42	100.00	95.82	1.90	2.28	100.00
	여	95.72	2.25	2.03	100.00	96.17	3.07	0.77	100.00
불안문제	전체	97.39	1.96	0.65	100.00	95.44	2.85	1.71	100.00
	남	98.52	1.27	0.21	100.00	95.82	3.04	1.14	100.00
	여	96.17	2.70	1.13	100.00	95.02	2.68	2.30	100.00
신체화 (somatic) 문제	전체	93.03	5.45	1.53	100.00	96.01	2.09	1.90	100.00
	남	95.57	3.16	1.27	100.00	96.20	1.90	1.90	100.00
	여	90.32	7.88	1.80	100.00	95.79	2.30	1.92	100.00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ADHD)	전체	97.93	1.20	0.87	100.00	96.20	3.61	0.19	100.00
	남	98.10	1.27	0.63	100.00	94.30	5.70	-	100.00
	여	97.75	1.13	1.13	100.00	98.08	1.53	0.38	100.00
반항행동 문제	전체	95.97	2.29	1.74	100.00	97.72	1.52	0.76	100.00
	남	96.62	2.95	0.42	100.00	97.34	1.90	0.76	100.00
	여	95.27	1.58	3.15	100.00	98.08	1.15	0.77	100.00
품행문제	전체	95.86	2.83	1.31	100.00	98.29	0.76	0.95	100.00
	남	96.41	2.74	0.84	100.00	98.48	0.38	1.14	100.00
	여	95.27	2.93	1.80	100.00	98.47	0.77	0.77	100.00

보호자가 응답한 DSM 기준에 따른 T점수는 정서문제 평균 52.03점, 불안문제 평균 51.89점, 신체화문제 평균 52.74점이었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불안문제와 신체화문제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85〉 DSM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52.03	4.60	51.89	4.35	52.74	5.41	
아동 성별	남	(474)	51.82	3.91	51.62	3.63	52.38	4.83
	여	(444)	52.25	5.23	52.18	4.98	53.11	5.95
	<i>t</i>		-1.44		-1.98*		-2.0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2.60	4.75	52.89	4.99	54.00	6.28
	350 초과~550만원	(256)	52.20	4.46	51.78	4.19	52.39	4.99
	550 초과~750만원	(256)	51.82	4.43	51.73	4.06	52.42	4.79
	750만원 초과	(206)	51.93	5.21	51.79	4.93	52.64	6.17
	<i>F</i>		0.83		1.98		2.55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587)	52.22	4.93	52.09	4.81	52.77	5.58
중소도시	(184)	51.65	3.84	51.55	3.31	52.72	5.11
읍면	(147)	51.72	4.06	51.53	3.39	52.63	5.12
<i>F</i>		1.48		1.67		0.04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한편, ADHD와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의 보호자가 응답한 DSM 기준에 따른 T점수는 각각 평균 51.65점, 52.38점, 51.96점이었다.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품행문제에서만 차이가 발견되긴 했으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II-2-86〉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51.65	4.28	52.38	5.26	51.96	4.78
아동 성별							
남	(474)	51.70	4.21	52.49	4.80	52.02	4.44
여	(444)	51.59	4.35	52.25	5.71	51.90	5.12
<i>t</i>		0.15		-0.82		-0.3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2.29	4.35	53.15	4.89	52.70 ^a	4.24
350 초과~550만원	(256)	51.80	4.85	52.24	4.55	51.75 ^a	4.28
550 초과~750만원	(256)	51.34	3.51	52.29	5.16	51.79 ^a	4.71
750만원 초과	(206)	51.47	4.66	52.44	6.63	52.12 ^a	6.03
<i>F</i>		1.73		0.35		3.63*	
지역규모							
대도시	(587)	51.76	4.66	52.54	5.75	52.09	5.13
중소도시	(184)	51.41	3.06	52.11	4.24	51.49	4.09
읍면	(147)	51.48	3.97	52.05	4.26	52.03	4.04
<i>F</i>		0.59		0.79		1.14	

주: 1)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교사가 응답한 DSM 기준에 따른 T점수는 정서문제 52.80점, 불안문제 52.60점, 신체화문제 51.41점으로, 보호자 응답과 비교할 때 정서문제와 불안문제는 약간 더 높고, 신체화문제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2-87〉 DSM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2.80	5.30	52.60	5.50	51.41	5.58
아동 성별							
남	(263)	52.83	5.18	52.40	5.15	51.33	5.26
여	(261)	52.75	5.41	52.79	5.84	51.51	5.91
<i>t</i>		0.42		0.69		0.3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3.88	7.04	52.77	6.37	52.23	7.09
350 초과-550만원	(148)	52.34	4.38	52.26	4.73	50.60	3.29
550 초과-750만원	(146)	52.26	3.98	52.53	5.16	51.08	4.43
750만원 초과	(114)	53.11	6.68	52.94	6.48	52.77	8.41
<i>F</i>		1.41		0.81		1.15	
지역규모							
대도시	(336)	53.04	5.76	52.88	5.96	51.44	5.84
중소도시	(112)	52.37	4.05	51.75	3.91	51.27	4.82
읍면	(76)	52.29	4.66	52.58	5.32	51.54	5.55
<i>F</i>		1.09		1.78		0.0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또한, ADHD와 반항행동문제,品行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답한 DSM 기준에 따른 T점수는 각각 평균 51.95점, 51.83점, 52.13점으로, 보호자 응답과 비교할 때 ADHD와品行문제 점수는 약간 높고, 반항행동문제 점수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등이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 반해, ADHD와 반항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ADHD T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52.52점, 여학생은 평균 51.35점이었으며, 반항행동문제는 남학생은 평균 52.29점, 여학생은 평균 51.34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약 1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8〉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品行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1.95	4.49	51.83	4.53	52.13	4.59
아동 성별							
남	(263)	52.52	4.55	52.29	4.55	52.46	4.33
여	(261)	51.35	4.34	51.34	4.43	51.75	4.75
<i>t</i>		3.01**		2.41*		1.7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1.89	4.15	51.47	3.80	52.46	4.18
350 초과~550만원	(148)	51.40	3.53	51.12	3.03	51.31	3.37
550 초과~750만원	(146)	52.24	4.33	52.16	4.50	52.42	4.36
750만원 초과	(114)	51.98	5.79	52.22	6.04	52.53	6.18
<i>F</i>		0.90		1.88		2.13	
지역규모							
대도시	(336)	52.05	4.72	51.80	4.59	52.25	4.88
중소도시	(112)	51.80	4.20	51.79	4.32	51.92	3.89
읍면	(76)	51.63	3.76	51.92	4.51	51.72	3.94
<i>F</i>		0.33		0.03		0.54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5) 특수척도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특수척도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인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 등을 측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의 특수척도 평가(CBCL 6-18) 조사 결과, 강박증상은 97.06%,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는 97.82%, 인지속도 부진은 98.80%가 정상군에 속하였다. 한편 교사의 특수척도 평가(TR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박증상은 95.63%,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96.01%, 인지속도 부진은 94.68%로, 보호자 조사에 비해 교사 조사에서 정상군에 속하는 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들은 보호자에 비해 준임상군뿐 아니라 임상군에 속하는 아동이 보호자에 비해 더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89〉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특수척도 평가(CBCL 6-18)				교사의 특수척도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강박증상	전체	97.06	2.07	0.87	100.00	95.63	1.90	2.47	100.00
	남	97.05	2.74	0.21	100.00	94.68	3.04	2.28	100.00
	여	97.07	1.35	1.58	100.00	96.55	0.77	2.68	100.00

영역	구분	보호자의 특수척도 평가(CBCL 6-18)				교사의 특수척도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전체	97.82	0.98	1.20	100.00	96.01	2.09	1.90	100.00
	남	98.10	0.84	1.05	100.00	95.06	2.66	2.28	100.00
	여	97.52	1.13	1.35	100.00	96.93	1.53	1.53	100.00
인지속도 부진	전체	98.80	0.76	0.44	100.00	94.68	3.23	2.09	100.00
	남	98.52	1.27	0.21	100.00	93.54	3.42	3.04	100.00
	여	99.10	0.23	0.68	100.00	96.17	2.68	1.15	100.00

보호자 응답 기준 문제행동 특수척도 T점수를 살펴보면, 강박증상 평균 52.33 점,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평균 51.94점, 인지속도 부진 평균 51.53점이었다.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350만원 이하)에서 점수가 750만원 초과 가구에 비해 1점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90〉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8)	52.33	4.88	51.94	4.47	51.53	4.12
아동 성별							
남	(474)	52.13	4.35	51.86	3.95	51.46	3.87
여	(444)	52.54	5.39	52.03	4.98	51.61	4.37
<i>t</i>		-1.26		-0.58		-0.5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7)	52.67	4.92	53.16 ^b	4.92	52.30	5.06
350 초과~550만원	(256)	52.15	4.48	51.82 ^{ab}	4.21	51.73	4.13
550 초과~750만원	(256)	52.47	5.15	51.85 ^{ab}	4.46	51.29	3.57
750만원 초과	(206)	52.09	5.17	51.70 ^c	4.94	51.21	4.48
<i>F</i>		0.51		2.79*		2.10	
지역규모							
대도시	(587)	52.48	5.24	52.07	4.89	51.64	4.46
중소도시	(184)	52.02	4.02	51.66	3.53	51.25	3.38
읍면	(147)	52.11	4.35	51.78	3.75	51.48	3.50
<i>F</i>		0.82		0.71		0.63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가 응답한 문제행동 특수척도 T점수는 강박증상 평균 53.84점,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 51.99점, 인지속도 부진 평균 53.10점으로, 보호자 조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강박증상과 인지속도 부진 점수가 교사 조사결과가 보호자 조사결과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교사 조사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인지속도 부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지속도 부진 점수가 1.1점 가량 높았다.

〈표 III-2-91〉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6)	53.84	5.87	51.99	5.04	53.10	6.20
아동 성별							
남	(263)	53.77	5.85	52.21	5.01	53.63	6.77
여	(261)	53.95	5.91	51.76	5.07	52.53	5.51
<i>t</i>		-0.35		1.01		2.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7)	53.19	5.80	52.49	5.73	54.11	9.14
350 초과~550만원	(148)	53.54	5.72	51.51	4.01	52.69	5.09
550 초과~750만원	(146)	53.55	4.83	51.88	4.52	52.75	4.76
750만원 초과	(114)	54.79	7.22	52.11	6.27	53.03	7.30
<i>F</i>		1.46		0.62		0.80	
지역규모							
대도시	(336)	54.05	6.32	52.11	5.32	53.24	6.38
중소도시	(112)	53.44	4.68	51.63	4.10	52.64	4.96
읍면	(76)	53.64	5.44	51.93	5.10	53.03	6.96
<i>F</i>		0.51		0.38		0.39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6) 기타

사이버 비행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항목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는 평균 4.57점,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평균 4.31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4.3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소득에 따라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350만원 이하)에 사이버 비행에 대해 좀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사이버 비행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92〉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단위: (명), 점

구분	(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4.57	0.90	4.31	0.95	4.38	0.96
아동 성별							
남	(641)	4.46	1.00	4.15	1.03	4.28	1.04
여	(612)	4.70	0.76	4.48	0.83	4.50	0.84
<i>t</i>		-4.70***		-6.12***		-4.0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4.36 ^a	1.11	4.08 ^a	1.11	4.25	1.10
350 초과~550만원	(329)	4.65 ^b	0.82	4.39 ^b	0.89	4.43	0.90
550 초과~750만원	(328)	4.56 ^{ab}	0.89	4.27 ^{ab}	0.95	4.40	0.96
750만원 초과	(300)	4.59 ^b	0.87	4.33 ^{ab}	0.93	4.38	0.91
<i>F</i>		3.25*		3.43*		1.26	
지역규모							
대도시	(852)	4.62 ^b	0.81	4.34 ^b	0.90	4.44 ^b	0.89
중소도시	(241)	4.60 ^b	0.88	4.36 ^b	0.92	4.36 ^b	0.92
읍면	(160)	4.33 ^a	1.26	4.10 ^a	1.20	4.14 ^a	1.26
<i>F</i>		7.01***		4.53*		6.4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점수는 평균 4.52점,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평균 4.54점,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4.64점으로, 앞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0.2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들 항목에 대한 문제 인식도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3〉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단위: (명), 점

구분	(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4.52	0.91	4.54	0.93	4.64	0.91
아동 성별							
남	(641)	4.41	1.00	4.42	1.03	4.54	1.02
여	(612)	4.64	0.79	4.66	0.78	4.75	0.75
<i>t</i>		-4.36***		-4.58***		-4.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4.35	1.07	4.37	1.12	4.43 ^a	1.16
350 초과~550만원	(329)	4.55	0.85	4.60	0.84	4.67 ^b	0.83
550 초과~750만원	(328)	4.50	0.91	4.52	0.94	4.63 ^{ab}	0.90
750만원 초과	(300)	4.56	0.88	4.54	0.90	4.69 ^b	0.85
<i>F</i>		1.94		2.06		2.72*	
지역규모							
대도시	(852)	4.58 ^b	0.83	4.57 ^b	0.86	4.67 ^b	0.83
중소도시	(241)	4.50 ^b	0.88	4.56 ^b	0.87	4.67 ^b	0.85
읍면	(160)	4.24 ^a	1.25	4.32 ^a	1.26	4.39 ^a	1.26
<i>F</i>		9.42***		5.25**		6.7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5$, ** $p < .01$, *** $p < .001$.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83%에 불과했으며, 가끔 사용함 52.86%, 자주 사용함 23.93%, 매일 사용함 9.38%로, 4점 만점에 평균 2.29점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속어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2-94〉 비속어 사용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83	52.86	23.93	9.38	100.00(1,258)	2.29	0.82
아동 성별							
남	9.83	51.33	27.15	11.70	100.00(641)	2.41	0.82
여	17.97	54.41	20.59	7.03	100.00(612)	2.17	0.80
$\chi^2(df)/t$		28.49(3)***					5.2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9.23	49.23	23.08	8.46	100.00(130)	2.21	0.85
350 초과~550만원	12.77	53.19	22.49	11.55	100.00(329)	2.33	0.84
550 초과~750만원	12.20	52.74	26.83	8.23	100.00(328)	2.31	0.79
750만원 초과	13.67	52.33	22.33	11.67	100.00(300)	2.32	0.85
$\chi^2(df)/F$		8.61(9)					0.72
지역규모							
대도시	13.73	52.46	24.88	8.92	100.00(852)	2.29	0.81
중소도시	14.94	52.28	21.58	11.20	100.00(241)	2.29	0.86
읍면	12.50	55.63	22.50	9.38	100.00(160)	2.29	0.80
$\chi^2(df)/F$		2.75(6)					0.0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매일 사용한다).

*** $p < .001$.

4) 미래 의식

가) 진로

아동의 1순위 응답 기준 직업선택조건은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27.58%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 25.68%로 다음을 이었다. 반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 2.38%,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2.62%,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은 1.75%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29.74%)’, ‘안정적인 직업(17.48%)’ 등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29.46%)’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데 반해, 대도시 지역의 아동은 ‘안정적인 직업’,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지역규모 아동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 읍면지역 아동은 ‘사회 및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가족과 충분히 시간 보낼 수 있는 직업’, ‘취미/여가 즐길 수 있는 직업’에 응답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표 III-2-95〉 아동의 직업선택조건: 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회 및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미래 유망하다고 알려진 직업	다른 사람의 간섭 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가족과 충분히 시간 보낼 수 있는 직업	높은 수입 보장 직업	사회적 지위 높은 직업	안정적인 직업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취미/여가 즐길 수 있는 직업	계(수)
전체	6.44	7.15	3.66	27.58	1.75	25.68	2.62	15.42	2.38	7.31	100(1,258)
아동 성별											
남	5.77	8.89	4.99	25.43	2.18	25.74	2.50	13.42	2.81	8.27	100(641)
여	7.19	5.39	2.29	29.74	1.14	25.82	2.61	17.48	1.96	6.37	100(612)
$\chi^2(df)$						22.54(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46	7.69	2.31	27.69	3.08	24.62	0.77	14.62	0.77	10.00	100(130)
350 초과~550만원	7.60	8.51	4.56	27.05	1.22	22.19	1.22	15.81	2.43	9.42	100(329)
550 초과~750만원	4.57	5.18	3.35	26.22	2.13	28.35	2.74	16.16	3.05	8.23	100(328)
750만원 초과	5.33	6.33	4.33	30.00	1.00	26.00	4.67	16.33	2.33	3.67	100(300)
$\chi^2(df)$						35.17(27)					
지역규모											
대도시	6.22	7.04	4.34	27.82	1.41	24.88	2.23	16.20	2.93	6.92	100(852)
중소도시	4.98	9.54	1.24	28.22	1.66	29.46	3.73	14.52	1.24	5.39	100(241)
읍면	10.00	4.38	3.75	25.00	3.13	25.00	2.50	12.50	1.25	12.50	100(160)
$\chi^2(df)$						30.44(18)*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아동의 직업선택조건은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 49.60%로 가장 높고,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39.27%, ‘안정적인 직업’ 35.45% 순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50.98%)’,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42.81%)’, ‘안정적인 직업(38.24%)’ 등에 더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으며, 반대로 남학생은 ‘미래가 유망하다고 알려진 직업(14.51%)’, ‘취미/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업(25.43%)’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III-2-96〉 아동의 직업선택조건: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사회 및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미래 유망하다 알려진 직업	다른 사람의 간섭 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	나의 능력 키우며 만족감 느낄 수 있는 직업	가족과 충분히 시간 보낼 수 있는 직업	높은 수입 보장 직업	사회적 지위 높은 직업	안정적인 직업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취미/여가 즐길 수 있는 직업	(수)
전체	10.73	12.08	8.11	39.27	6.04	49.60	7.79	35.45	8.90	22.02	(1,258)
아동 성별											
남	9.52	14.51	9.67	35.73	7.33	48.52	6.86	32.76	9.67	25.43	(641)
여	12.09	9.64	6.54	42.81	4.41	50.98	8.50	38.24	8.17	18.63	(61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	13.08	10.77	45.38	5.38	40.77	5.38	38.46	9.23	21.54	(130)
350 초과-550만원	13.37	14.59	7.60	37.99	4.86	48.33	4.56	34.04	9.73	24.92	(329)
550 초과-750만원	10.67	8.54	6.71	36.59	5.49	50.00	9.15	40.24	8.54	24.09	(328)
750만원 초과	9.00	11.67	9.33	41.00	6.33	54.00	10.67	31.67	7.33	19.00	(300)
지역규모											
대도시	10.56	11.74	8.69	39.08	5.40	49.30	7.28	36.74	9.51	21.71	(852)
중소도시	9.96	14.52	4.56	41.91	7.47	52.70	9.96	28.22	7.88	22.82	(241)
읍면	13.13	10.63	10.63	35.63	6.25	47.50	6.25	39.38	7.50	23.13	(160)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진로 성숙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8점으로,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2-97〉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8)	2.88	0.55
아동 성별			
남	(641)	2.85	0.55
여	(612)	2.90	0.54
<i>t</i>			-1.7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85	0.52
350 초과-550만원	(329)	2.88	0.55
550 초과-750만원	(328)	2.88	0.56
750만원 초과	(300)	2.91	0.55
<i>F</i>			0.47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852)	2.85	0.54
중소도시	(241)	2.90	0.53
읍면	(160)	2.95	0.59
<i>F</i>			2.3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세부항목별로는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평균 2.41점,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평균 2.59점,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평균 2.85점,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평균 2.79점,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평균 3.30점, ‘⑥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평균 3.03점, ‘⑦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평균 3.15점이었다. 즉,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3.35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3.24점으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의 응답도 여학생이 평균 3.22점, 남학생이 평균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아동이 대도시 거주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2-98〉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문항별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8)	2.41	0.89	2.59	0.84	2.85	0.84	2.79	0.85	3.30	0.76	3.03	0.81	3.15	0.76
아동 성별															
남	(641)	2.43	0.88	2.58	0.83	2.84	0.84	2.76	0.85	3.24	0.77	3.00	0.81	3.08	0.79
여	(612)	2.40	0.91	2.59	0.84	2.87	0.85	2.82	0.85	3.35	0.76	3.07	0.81	3.22	0.72
<i>t</i>		-0.57		0.27		0.70		1.16		2.36*		1.49		3.2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0)	2.43	0.86	2.55	0.83	2.92	0.79	2.85	0.83	3.20 ^b	0.76	2.95	0.87	3.04	0.81
350 초과~550만원	(329)	2.42	0.90	2.56	0.83	2.89	0.82	2.77	0.88	3.30 ^{ab}	0.74	3.09	0.78	3.15	0.75
550 초과~750만원	(328)	2.41	0.89	2.67	0.84	2.80	0.86	2.82	0.87	3.24 ^{ab}	0.81	2.99	0.82	3.18	0.77
750만원 초과	(300)	2.43	0.93	2.59	0.87	2.89	0.84	2.79	0.85	3.41 ^a	0.71	3.07	0.82	3.21	0.74
<i>F</i>		0.02		1.28		0.91		0.35		3.48*		1.43		1.59	
지역규모															
대도시	(852)	2.40	0.87	2.56	0.82	2.84	0.83	2.74 ^a	0.86	3.30	0.77	3.01	0.81	3.14	0.77
중소도시	(241)	2.40	0.93	2.63	0.88	2.88	0.84	2.85 ^{ab}	0.80	3.29	0.73	3.05	0.83	3.20	0.73
읍면	(160)	2.48	0.97	2.68	0.86	2.90	0.89	2.96 ^b	0.88	3.29	0.78	3.16	0.83	3.17	0.78
<i>F</i>		0.46		2.03		0.49		5.19**		0.00		2.36		0.6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⑤ 향후 진로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⑥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⑦ 나의 향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p < .05$, ** $p < .01$.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경험의 경우 ‘부모님과 대화’가 89.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교 담임교사와의 상담’ 70.67%,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67.49% 순이었다. 진로진학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부모님과 대화’ 평균 3.82점, ‘학교 담임교사와의 상담’ 평균 3.68점,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평균 3.41점이었다. 진로진학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상급학교 입시 설명회 참석’이 평균 4.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육종사자와의 상담’이 평균 4.01점으로 높았다. 즉, 실제 진로활동 경험 비중이 높은 항목의 실제 도움 정도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는데 반해, 진로활동 경험 비중은 높지 않으나, 맞춤형 혹은 전문적인 진로진학 지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I-2-99〉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단위: %, (명), 점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수)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는편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70.67	1.69	5.06	29.25	51.63	12.37	(889)	3.68	0.8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32.83	2.18	5.08	32.93	41.89	17.92	(413)	3.68	0.90
사교육종사자와 상담	29.89	1.60	1.06	19.68	49.73	27.93	(376)	4.01	0.81
부모님과 대화	89.83	0.97	4.16	25.13	51.86	17.88	(1,130)	3.82	0.81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 조언	36.49	1.09	5.88	36.17	46.19	10.68	(459)	3.59	0.80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67.49	4.00	12.25	32.98	40.75	10.01	(849)	3.41	0.96
상급학교 방문	14.55	0.55	6.56	22.40	38.80	31.69	(183)	3.95	0.92
상급학교 입시 설명회 참석	16.53	1.44	4.33	17.79	41.35	35.10	(208)	4.04	0.91
대중매체(TV, 신문 등)를 통한 정보 습득	49.92	0.32	3.50	27.39	53.98	14.81	(628)	3.79	0.74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	51.67	0.77	2.00	28.15	55.08	14.00	(650)	3.80	0.73
기타	4.05	5.88	3.92	19.61	37.25	33.33	(51)	3.88	1.1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임(1.전혀 도움되지 않는다~5.매우 도움 된다).

나) 결혼 및 양육 의향

아동의 결혼 의향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25%, 없다 10.10%, 모르겠다 34.66%였으며, 자녀 양육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있음 45.71%, 없음 16.06%, 모름 38.24%였다. 결혼 의향은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자녀 양육 의사는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자녀 양육 의사가 있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0〉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55.25	10.10	34.66	100.00(1,258)	45.71	16.06	38.24	100.00(1,258)
아동 성별								
남	56.32	8.89	34.79	100.00(641)	50.08	12.64	37.29	100.00(641)
여	53.92	11.27	34.80	100.00(612)	41.01	19.61	39.38	100.00(612)
$\chi^2(df)$	2.09(2)				15.48(2)***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8.46	15.38	36.15	100.00(130)	40.77	14.62	44.62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53.50	10.33	36.17	100.00(329)	45.59	13.68	40.73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57.32	10.06	32.62	100.00(328)	47.87	16.46	35.67	100.00(328)
750만원 초과	58.67	8.00	33.33	100.00(300)	46.00	18.33	35.67	100.00(300)
$\chi^2(df)$	7.81(6)				6.36(6)			
지역규모								
대도시	53.64	11.27	35.09	100.00(852)	43.54	17.37	39.08	100.00(852)
중소도시	58.51	6.64	34.85	100.00(241)	47.30	13.28	39.42	100.00(241)
읍면	58.13	8.75	33.13	100.00(160)	54.38	13.13	32.50	100.00(160)
$\chi^2(df)$	5.57(4)				8.19(4)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5) 경제활동

아동이 생각하는 현재 자기 가정의 가정 형편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6.08점으로, 6점이 28.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점 23.61%, 5점 23.13% 순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 가정의 가정 형편에 대해 좀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 6.16점으로, 읍면지역 5.81점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101〉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명), 점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2	0.32	2.15	8.27	23.13	28.14	23.61	10.57	2.07	1.43	100(1,258)	6.08	1.40
아동 성별													
남	0.31	0.16	2.03	8.11	20.75	28.08	24.02	12.79	2.03	1.72	100(641)	6.17	1.41
여	0.33	0.49	2.12	8.50	25.33	28.43	23.37	8.17	2.12	1.14	100(612)	5.98	1.37
$\chi^2(df)/t$	11.17(9)											2.4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1.54	6.92	27.69	35.38	12.31	10.00	4.62	-	1.54	100(130)	5.08 ^a	1.42
350 초과-550만원	0.61	0.30	1.52	8.51	28.88	30.09	18.84	8.21	1.82	1.22	100(329)	5.91 ^b	1.36
550 초과-750만원	-	-	1.52	7.01	22.56	32.93	23.48	9.76	1.52	1.22	100(328)	6.11 ^b	1.26
750만원 초과	0.33	-	0.67	2.00	10.00	29.33	34.33	17.67	3.33	2.33	100(300)	6.71 ^c	1.24
$\chi^2(df)/F$	209.76(27)***											51.01***	

구분	점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지역규모													
대도시	0.47	0.12	1.17	7.98	22.42	29.34	25.00	10.80	1.88	0.82	100(852)	6.11 ^{ab}	1.33
중소도시	-	-	3.73	7.05	21.16	28.63	23.65	11.20	1.66	2.90	100(241)	6.16 ^b	1.45
읍면	-	1.88	4.38	11.88	28.75	21.88	16.88	8.13	3.75	2.50	100(160)	5.81 ^a	1.63
$\chi^2(df)/F$	49.39(18) ^{***(a)}											3.54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매우 못 산다~10.매우 잘 산다).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8.51%였으며, 필요시 받음 33.78%, 받지 않음 7.71%였다. 일주일 동안의 용돈 액수는 평균 2만 3,150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필요 시 받는다는 응답이 36.66%로 여학생(30.23%)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이 63.40%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용돈 금액 또한 여학생의 경우 2만 4,640원으로 남학생 2만 1,760원에 비해 약 3천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용돈 지급액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용돈 지급 방식과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102〉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 (명), 천원

구분	용돈 지급 여부			계(수)	일주일 용돈 지급액		
	받지않음	필요시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71	33.78	58.51	100.00(1,258)	23.15	22.34	(1,161)
아동 성별							
남	9.05	36.66	54.29	100.00(641)	21.76	20.70	(583)
여	6.37	30.23	63.40	100.00(612)	24.64	23.88	(573)
$\chi^2(df)/t$	11.18(2) ^{**}				-2.19 [*]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4.62	36.92	48.46	100.00(130)	19.41 ^a	15.33	(111)
350 초과-550만원	8.21	34.95	56.84	100.00(329)	21.13 ^a	20.66	(302)
550 초과-750만원	5.18	33.54	61.28	100.00(328)	22.77 ^{ab}	21.54	(311)
750만원 초과	8.00	26.67	65.33	100.00(300)	27.55 ^b	26.42	(276)
$\chi^2(df)/F$	19.97(6) ^{***}				5.53 ^{***}		
지역규모							
대도시	8.92	32.86	58.22	100.00(852)	23.00	22.05	(776)
중소도시	4.98	32.78	62.24	100.00(241)	23.66	23.15	(229)
읍면	5.63	38.13	56.25	100.00(160)	23.40	22.94	(151)
$\chi^2(df)/F$	6.70(4)				0.0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용돈 사용처는 간식 및 군것질(식사 포함)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52.37%로 가장 많고, 저축 13.70%, 문화생활(음악, 게임) 12.83%, 의류, 화장품 구입 8.18%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간식 및 군것질(식사 포함)이 54.20%, 문화생활(음악, 게임) 14.75%로, 여학생 50.61%와 10.99%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의류, 화장품 구입이 14.31%로 남학생(2.23%)에 비해 현격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용돈 사용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저축 비중이 7.86%로 대도시(15.21%)나 읍면지역(14.57%)에 낮은 반면, 간식 및 군것질(식사 포함)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57.6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2-103〉 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 (명)

구분	학습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 (식사포함)	교통비	문화생활 (음악, 게임)	의류, 화장품	기타	계(수)
전체	2.15	13.70	52.37	7.15	12.83	8.18	3.62	100.00(1,161)
아동 성별								
남	1.89	15.09	54.20	8.06	14.75	2.23	3.77	100.00(583)
여	2.44	12.22	50.61	5.93	10.99	14.31	3.49	100.00(573)
$\chi^2(df)$			59.29(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0	18.02	46.85	3.60	10.81	11.71	5.41	100.00(111)
350 초과~550만원	2.65	15.23	50.99	6.95	12.25	7.62	4.30	100.00(302)
550 초과~750만원	1.93	9.97	53.05	6.75	14.47	10.29	3.54	100.00(311)
750만원 초과	1.81	15.22	52.54	8.70	13.77	5.80	2.17	100.00(276)
$\chi^2(df)$			20.00(18)					
지역규모								
대도시	1.80	15.21	50.64	6.57	14.95	7.86	2.96	100.00(776)
중소도시	2.62	7.86	57.64	9.17	9.61	7.86	5.24	100.00(229)
읍면	3.31	14.57	53.64	5.96	7.28	10.60	4.64	100.00(151)
$\chi^2(df)$			24.71(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16차년도에도 부모 특성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이 크게 개인 및 부부, 신체 및 건강, 직업, 양육 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가구 특성의 경우 인구학적, 물리적, 경제적 특성으로 나뉘어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부모 특성과 가구 특성을 구분해 세부변인별로 기술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III-3-1〉 16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우울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결혼상태 및 유지 기간 • 결혼만족도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일수		
		질환/장애	• 장애 유무 및 정도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및 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 취업모/부의 (주중, 주말) 근무 일/시간 • 취업모/부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성취압력 • 부모애착 • 합리적 설명 • 양육 스트레스 • 아동학대		
			부모 감독 및 참여	• 부모 감독 • 부모-자녀 의사소통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패널아동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여부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소득, 취업모/부의 근로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지출		•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가.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패널아동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가 평균 46.09세, 아버지가 48.58세였으며, 대부분의 경우가 40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3년에 패널아동은 15세이므로, 패널아동이 부모가 30대인 경우는 극히 적어서, 어머니가 30인 경우는 31명, 아버지가 30대인 경우는 9명에 불과하였다.

〈표 III-3-2〉 부모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6.09	3.60	(1,285)	48.58	3.97	(1,284)
30대 이하	37.19	1.99	(31)	36.11	4.81	(9)
40대	45.24	2.38	(1,048)	46.26	2.23	(772)
50대 이상	51.79	1.95	(206)	52.38	2.60	(503)

대부분의 경우 패널아동의 부모는 패널아동과 동거 중이었으며, 비동거하는 비중은 어머니가 1.26%, 아버지가 5.25%였다. 비동거하는 경우 비동거 사유로는 타지역 근무(학업)가 어머니 37.50%, 아버지 79.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아동의 국내외 유학중	장기 입원, 요양중	군 복무 중	기타	계(수)
어머니	98.74	1.26	100.00(1,270)	37.50	6.25	25.00	-	31.25	100.00(16)
아버지	94.75	5.25	100.00(1,180)	79.03	9.68	-	-	11.29	100.00(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부부 특성

패널아동 부모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초혼이 어머니 92.93%, 아버지 92.70%로 가장 높고, 이혼한 경우가 어머니 4.50%, 아버지 4.50%였다. 한편, 유배우 재혼인 경우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0.93%, 1.16%였으며, 사별인 경우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01%, 별거인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0.54%였다. 한편, 결혼 기간은 평균 18.9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어머니	-	92.93	0.93	0.08	1.01	4.50	0.54	100.00(1,288)	18.94	3.24	(1,255)
아버지	-	92.70	1.16	0.08	1.01	4.50	0.54	100.00(1,2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어머니는 3.83점, 아버지는 4.19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아버지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집단의 어머니 결혼만족도는 350만원 이하 집단의 어머니 결혼만족도보다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 졸업 이하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도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동일하게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집단의 아버지 결혼만족도는 350만원 이하인 집단의 아버지 결혼만족도보다 높았다.

〈표 IV-3-5〉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3	0.89	(1,145)	4.19	0.75	(1,091)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5 ^a	0.96	(272)	4.03 ^a	0.80	(275)
전문대졸	3.85 ^b	0.84	(340)	4.08 ^a	0.76	(235)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졸 이상 <i>F</i>	3.90 ^b	0.87	(530)	4.32 ^b	0.70	(580)
	7.25***			18.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1 ^a	0.90	(97)	3.97 ^a	0.88	(86)
350 초과-550만원	3.73 ^{ab}	0.92	(312)	4.10 ^{ab}	0.75	(305)
550 초과-750만원	3.85 ^b	0.87	(315)	4.26 ^b	0.71	(300)
750만원 초과	3.93 ^b	0.85	(419)	4.27 ^b	0.74	(399)
<i>F</i>	5.55***			6.20***		
지역규모						
대도시	3.85	0.91	(782)	4.20	0.75	(736)
중소도시	3.85	0.81	(227)	4.27	0.74	(220)
읍면	3.70	0.88	(145)	4.12	0.77	(139)
<i>F</i>	1.84			1.87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01$.

다) 심리적 특성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어머니 평균 5.24점, 아버지 5.36점으로, 결혼만족도와 유사하게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 또한 부의 학력수준의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포착되었다.

〈표 III-3-6〉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4	0.94	(1,198)	5.36	0.98	(1,10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4.99 ^a	0.99	(295)	5.20 ^a	0.95	(280)
전문대졸	5.26 ^b	0.88	(356)	5.24 ^a	1.02	(238)
대졸 이상	5.36 ^b	0.92	(544)	5.49 ^b	0.97	(587)
<i>F</i>	15.58***			10.7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98 ^a	0.95	(129)	5.13 ^a	0.96	(86)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350 초과~550만원	5.17 ^{ab}	0.94	(318)	5.25 ^{ab}	1.03	(306)
550 초과~750만원	5.21 ^{ab}	0.90	(321)	5.41 ^b	0.91	(301)
750만원 초과	5.40 ^b	0.95	(428)	5.46 ^b	1.00	(412)
<i>F</i>	8.26 ^{***}			4.74 ^{**}		
지역규모						
대도시	5.25	0.92	(807)	5.36	0.99	(742)
중소도시	5.28	1.00	(235)	5.40	0.97	(222)
읍면	5.13	0.91	(154)	5.32	0.97	(141)
<i>F</i>	1.39			0.27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7점 척도임(1.매우 행복하지 않다~7.매우 행복하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 $p < .01$, ^{***} $p < .001$.

부모의 우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하지 않은 경우가 78%대로 가장 높긴 했으나, 20% 내외는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척도로 조사된다.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0점~4점은 우울 아님, 5점~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점~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27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가벼운 우울증 상태가 16.61%, 중간 정도 우울증이 4.59%, 심한 우울증이 0.25%였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가벼운 우울증이 17.99%, 중간 정도 우울증이 3.62%, 심한 우울증이 0.09%였다.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우울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만, 모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벼운 우울증이나 중간 정도 우울증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부모의 우울

단위: %, (명)

구분	어머니				계(수)	아버지				계(수)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 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 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전체	78.55	16.61	4.59	0.25	100(1,198)	78.30	17.99	3.62	0.09	100(1,10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73.90	18.31	7.80	-	100(295)	76.07	18.93	5.00	-	100(280)
전문대졸	79.49	17.98	2.53	-	100(356)	75.63	21.01	2.94	0.42	100(238)
대졸 이상	80.51	14.89	4.04	0.55	100(544)	80.58	16.18	3.24	-	100(587)
$\chi^2(df)$	16.99(6) ^{**} (a)					8.85(6) ^(a)				

구분	어머니				계(수)	아버지				계(수)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 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 증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 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1.32	20.93	6.98	0.78	100(129)	73.26	20.93	5.81	-	100(86)
350 초과~550만원	76.10	18.24	5.66	-	100(318)	76.47	19.93	3.59	-	100(306)
550 초과~750만원	80.06	15.58	3.74	0.62	100(321)	80.73	16.28	2.66	0.33	100(301)
750만원 초과	81.54	14.95	3.50	-	100(428)	79.13	16.99	3.88	-	100(412)
$\chi^2(df)$	13.66(9) ^(a)					7.12(9) ^(a)				
지역규모										
대도시	78.56	16.36	4.71	0.37	100(807)	77.09	18.46	4.31	0.13	100(742)
중소도시	79.15	16.60	4.26	-	100(235)	83.33	15.77	0.90	-	100(222)
읍면	77.92	18.18	3.90	-	100(154)	77.30	18.44	4.26	-	100(141)
$\chi^2(df)$	1.96(6) ^(a)					7.76(6) ^(a)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4. 거의 매일).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4점 만점 기준 어머니가 2.93점, 아버지가 2.9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역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어머니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일상적 스트레스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3-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3	0.59	(1,198)	2.92	0.60	(1,10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97	0.58	(295)	2.92	0.61	(280)
전문대졸	2.90	0.56	(356)	2.88	0.61	(238)
대졸 이상	2.92	0.61	(544)	2.93	0.60	(587)
F	1.07			0.5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95	0.66	(129)	2.85	0.60	(86)
350 초과~550만원	2.94	0.57	(318)	2.93	0.61	(306)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550 초과-750만원	2.98	0.56	(321)	2.88	0.59	(301)
750만원 초과	2.87	0.59	(428)	2.93	0.61	(412)
<i>F</i>	2.04			0.87		
지역규모						
대도시	2.96 ^b	0.57	(807)	2.94	0.61	(742)
중소도시	2.82 ^a	0.65	(235)	2.86	0.61	(222)
읍면	2.94 ^{ab}	0.56	(154)	2.87	0.55	(141)
<i>F</i>	4.90 ^{**}			1.81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받지 않음~4.많이 받음).
^{**} $p < .01$.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어머니 3.67점, 아버지 3.72점이었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부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7	0.71	(1,198)	3.72	0.71	(1,10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53 ^a	0.72	(295)	3.60 ^a	0.63	(280)
전문대졸	3.65 ^{ab}	0.67	(356)	3.59 ^a	0.80	(238)
대졸 이상	3.77 ^b	0.71	(544)	3.83 ^b	0.68	(587)
<i>F</i>	12.00 ^{***}			15.20 ^{***}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37 ^a	0.75	(129)	3.47 ^a	0.68	(86)
350 초과-550만원	3.59 ^b	0.69	(318)	3.63 ^{ab}	0.72	(306)
550 초과-750만원	3.69 ^{bc}	0.67	(321)	3.79 ^b	0.66	(301)
750만원 초과	3.80 ^c	0.70	(428)	3.79 ^b	0.71	(412)
<i>F</i>	14.50 ^{***}			7.75 ^{***}		
지역규모						
대도시	3.69	0.71	(807)	3.71	0.73	(742)
중소도시	3.69	0.69	(235)	3.76	0.68	(222)
읍면	3.56	0.72	(154)	3.73	0.64	(141)
<i>F</i>	2.03			0.46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
^{***} $p < .001$.

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이었으며,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은 평균 2.15점이었다.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문항은 각각 7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시 이점은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반해, 일-가정 갈등은 모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일-가정 갈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5	0.68	(853)	2.15	0.70	(853)
모 학력						
고졸 이하	3.59 ^a	0.70	(204)	2.26 ^b	0.74	(204)
전문대졸	3.76 ^b	0.68	(254)	2.11 ^a	0.70	(254)
대졸 이상	3.83 ^b	0.66	(392)	2.13 ^{ab}	0.67	(392)
<i>F</i>	8.20***			3.0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8	0.75	(76)	2.35 ^b	0.79	(76)
350 초과-550만원	3.73	0.68	(208)	2.06 ^a	0.69	(208)
550 초과-750만원	3.76	0.68	(252)	2.16 ^{ab}	0.71	(252)
750만원 초과	3.80	0.66	(315)	2.16 ^{ab}	0.66	(315)
<i>F</i>	2.27			3.30*		
지역규모						
대도시	3.73	0.68	(567)	2.17	0.70	(567)
중소도시	3.79	0.71	(169)	2.10	0.70	(169)
읍면	3.77	0.65	(114)	2.15	0.65	(115)
<i>F</i>	0.48			0.61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한편, 모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각각 4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 만점 기준 이점은 3.64점, 갈등은 2.1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양육 이점과 갈등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11〉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4	0.73	(853)	2.15	0.75	(853)
모 학력						
고졸 이하	3.52 ^a	0.69	(204)	2.26	0.70	(204)
전문대졸	3.68 ^a	0.70	(254)	2.14	0.74	(254)
대졸 이상	3.68 ^a	0.75	(392)	2.10	0.77	(392)
F		3.41*			2.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0	0.74	(76)	2.31	0.82	(76)
350 초과-550만원	3.68	0.71	(208)	2.12	0.72	(208)
550 초과-750만원	3.60	0.70	(252)	2.10	0.74	(252)
750만원 초과	3.65	0.75	(315)	2.17	0.74	(315)
F		0.59			1.84	
지역규모						
대도시	3.61	0.74	(567)	2.17	0.74	(567)
중소도시	3.70	0.70	(169)	2.11	0.78	(169)
읍면	3.71	0.67	(114)	2.12	0.71	(115)
F		1.64			0.53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부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은 평균 3.90점, 일-가정 갈등은 2.13점으로 모에 비해 이점 점수는 높고, 갈등 점수는 미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은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다소 높은 경향성이 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점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의 경우에는 부 학력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3-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0	0.66	(1,090)	2.13	0.70	(1,090)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부 학력						
고졸 이하	3.83 ^a	0.64	(272)	2.13	0.73	(272)
전문대졸	3.77 ^a	0.69	(238)	2.19	0.69	(238)
대졸 이상	3.99 ^b	0.65	(579)	2.09	0.68	(579)
<i>F</i>	12.22***			1.7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79 ^a	0.70	(80)	2.07	0.73	(80)
350 초과-550만원	3.80 ^a	0.68	(302)	2.18	0.68	(302)
550 초과-750만원	3.89 ^{ab}	0.64	(300)	2.12	0.71	(300)
750만원 초과	4.02 ^b	0.64	(407)	2.10	0.70	(407)
<i>F</i>	7.35***			1.14		
지역규모						
대도시	3.89	0.66	(729)	2.16	0.68	(729)
중소도시	3.94	0.66	(219)	2.04	0.74	(219)
읍면	3.91	0.67	(141)	2.10	0.70	(141)
<i>F</i>	0.58			2.65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부의 일-양육 양립 이점은 평균 3.89점으로 모의 일-양육 이점에 비해 0.25점이 높고, 일-양육 갈등은 1.95점으로 모의 일-양육 갈등에 비해 0.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일-양육 이점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마찬가지로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일-양육 이점이 낮은 현상이 포착되었다. 부의 일-양육 갈등은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13〉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9	0.72	(1,090)	1.95	0.72	(1,090)
부 학력						
고졸 이하	3.81 ^a	0.73	(272)	2.03 ^b	0.74	(272)
전문대졸	3.77 ^a	0.69	(238)	2.05 ^b	0.73	(238)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출 이상 <i>F</i>	3.97 ^b	0.72	(579)	1.88 ^a	0.69	(579)
	8.72***			6.8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4 ^a	0.88	(80)	1.98	0.76	(80)
350 초과-550만원	3.82 ^{ab}	0.66	(302)	2.00	0.70	(302)
550 초과-750만원	3.92 ^b	0.66	(300)	1.93	0.68	(300)
750만원 초과	3.97 ^b	0.76	(407)	1.93	0.75	(407)
<i>F</i>	6.20***			0.65		
지역규모						
대도시	3.89 ^{ab}	0.71	(729)	1.98	0.70	(729)
중소도시	3.96 ^b	0.69	(219)	1.88	0.77	(219)
읍면	3.77 ^a	0.84	(141)	1.95	0.74	(141)
<i>F</i>	3.03*			1.51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2)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건강 및 장애

부모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점 만점 기준 어머니는 3.45점, 아버지는 3.50점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III-3-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5	0.75	(1,198)	3.50	0.71	(1,10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30 ^a	0.74	(295)	3.40 ^a	0.70	(280)
전문대졸	3.47 ^b	0.76	(356)	3.40 ^a	0.69	(238)
대출 이상	3.51 ^b	0.73	(544)	3.58 ^b	0.72	(587)
<i>F</i>	8.13***			8.5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15 ^a	0.84	(129)	3.29 ^a	0.76	(86)
350 초과-550만원	3.44 ^b	0.72	(318)	3.45 ^{ab}	0.71	(306)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550 초과-750만원	3.46 ^b	0.74	(321)	3.55 ^b	0.71	(301)
750만원 초과	3.54 ^b	0.72	(428)	3.54 ^b	0.71	(412)
<i>F</i>	9.37***			3.82**		
지역규모						
대도시	3.44	0.74	(807)	3.48	0.70	(742)
중소도시	3.54	0.74	(235)	3.57	0.74	(222)
읍면	3.37	0.78	(154)	3.49	0.74	(141)
<i>F</i>	2.53			1.5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1$, *** $p < .001$.

부모의 장애 유무와 관해서는 대체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99.29%, 아버지의 98.98%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머니는 0.39%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으며, 0.31%가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다고 응답되었으며, 아버지는 0.76%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0.25%가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다고 응답되었다.

〈표 III-3-15〉 부모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구분	정도가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없음	계(수)
어머니	0.31	0.39	99.29	100.00(1,270)
아버지	0.25	0.76	98.98	100.00(1,178)

주: 보호자의 응답임.

아버지가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한 일수는 지난 7일 기준 없다는 응답이 35.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일 15.64%, 1일 15.28%, 2일 13.56%, 5일 이상 11.66%, 4일 8.41%였다. 지난 7일간 아버지의 신체활동 일수는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 51.1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3-16〉 부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35.44	15.28	13.56	15.64	8.41	11.66	100.00(1,106)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아동 성별							
남	34.33	14.36	12.78	17.16	7.88	13.49	100.00(571)
여	36.52	16.29	14.42	14.04	8.99	9.74	100.00(534)
$\chi^2(df)$			7.03(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1.16	18.60	5.81	8.14	4.65	11.63	100.00(86)
350 초과-550만원	38.89	16.34	10.13	12.42	11.76	10.46	100.00(306)
550 초과-750만원	31.89	12.29	14.29	19.93	8.97	12.62	100.00(301)
750만원 초과	32.04	16.02	17.23	16.50	6.31	11.89	100.00(412)
$\chi^2(df)$			40.17(15)***				
지역규모							
대도시	34.23	15.50	13.75	15.90	8.49	12.13	100.00(742)
중소도시	32.43	15.77	13.96	18.02	9.01	10.81	100.00(222)
읍면	46.10	13.48	12.06	10.64	7.09	10.64	100.00(141)
$\chi^2(df)$			9.92(10)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출퇴근 시 걷는 것은 제외).

2) 아버지의 응답임.

*** $p < .001$.

어머니가 한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한 일수는 지난 7일 기준 없다는 응답이 39.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일 16.69%, 2일 13.19%, 5일 이상 12.27%, 1일 11.35%, 4일 6.76%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 일단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체활동 일수가 아버지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였다. 모의 지난 7일간 신체활동 일수는 아버지와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3-17〉 모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39.73	11.35	13.19	16.69	6.76	12.27	100.00(1,198)
아동 성별							
남	39.64	11.91	13.05	16.15	6.85	12.40	100.00(613)
여	39.79	10.63	13.38	17.32	6.69	12.18	100.00(583)
$\chi^2(df)$			0.73(5)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2.71	14.73	10.08	10.85	6.20	5.43	100.00(129)
350 초과~550만원	43.40	7.86	12.26	14.47	8.81	13.21	100.00(318)
550 초과~750만원	33.96	13.08	14.33	19.63	4.36	14.64	100.00(321)
750만원 초과	37.38	11.45	14.02	17.99	7.24	11.92	100.00(428)
$\chi^2(df)$			34.33(15)**				
지역규모							
대도시	38.04	9.91	14.87	17.10	6.57	13.51	100.00(807)
중소도시	39.57	17.45	9.79	16.60	7.23	9.36	100.00(235)
읍면	48.70	9.09	9.74	14.94	7.14	10.39	100.00(154)
$\chi^2(df)$			22.36(10)*				

주: 1)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출퇴근 시 걷는 것은 제외).

2) 어머니의 응답임.
* $p < .05$, ** $p < .01$.

나) 음주 및 흡연

부모의 음주 횟수는 어머니의 경우 최근 1년간 안 마셨다는 응답이 29.55%로 아버지 14.8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 월 2~4회 정도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31.74%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월 1회 이하 마신다는 응답이 29.97%로 가장 높았다.

음주량은 음주 횟수에서 최근 1년간 안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을 제외한 대상을 조사한 결과로, 어머니는 1잔 또는 2잔이 54.38%로 절반 이상인데 반해, 아버지의 경우에는 3잔 또는 4잔이 2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과음 횟수는 어머니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이 37.20%로 가장 높고, 한 달에 1번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9%로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라는 응답이 29.09%로 가장 높고, 한 달에 1번 미만이 25.69%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II-3-18〉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 (명)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9.55	14.83	1잔 또는 2잔	54.38	19.53	전혀 없음	37.20	18.90
월 1회 이하	29.97	18.63	3잔 또는 4잔	26.90	23.14	한 달에 1번 미만	33.89	25.69
월 2~4회	28.71	31.74	5잔 또는 6잔	11.14	21.02	한 달에 1번 정도	16.23	20.28
주 2~3회	10.02	25.05	7잔에서 9잔	4.62	21.02	일주일에 1번 정도	11.26	29.09
주 4회 이상	1.75	9.76	10잔 이상	2.96	15.29	거의 매일	1.42	6.05
계 (수)	100.00 (1,198)	100.00 (1,106)	계 (수)	100.00 (844)	100.00 (942)	계 (수)	100.00 (844)	100.00 (94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는 어머니 1.34%, 아버지 40.14%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9〉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34	98.66	100.00(1,198)
아버지	40.14	59.86	100.00(1,106)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다) 미디어 이용

스마트폰 중독 문항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문항은 역코딩한 문항이다. 문항당 4점 척도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 문항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39점 이하이고, 1요인이 13점 이하, 3요인이 12점 이하, 4요인이 12점 이하인 경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며, 총점 40~43점이거나, 1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인 경우는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으로, 총점이 44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해당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

우(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부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는 일반 사용자군이 96.4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2.71%, 고위험군이 0.81%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는 평균 27.22점이었다.

〈표 III-3-20〉 부의 스마트폰 중독: 아버지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스마트폰 중독 집단 구분			계(수)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96.47	2.71	0.81	100.00(1,106)	27.22	6.5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7.67	2.33	-	100.00(86)	26.86	6.70
350 초과~550만원	96.73	2.29	0.98	100.00(306)	27.63	6.46
550 초과~750만원	95.02	3.99	1.00	100.00(301)	27.28	6.68
750만원 초과	97.09	2.18	0.73	100.00(412)	26.95	6.36
$\chi^2(df)/F$		3.54(6) ^(a)			0.74	
지역규모						
대도시	96.50	2.83	0.67	100.00(742)	27.33	6.46
중소도시	96.85	2.25	0.90	100.00(222)	26.59	6.57
읍면	95.74	2.84	1.42	100.00(141)	27.64	6.61
$\chi^2(df)/F$		1.06(4) ^(a)			1.42	

주: 1) 4번, 10번, 15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39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2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40~43점이거나, 1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44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아버지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6)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모의 스마트폰 중독은 평균 26.82점으로 아버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일반 사용자군이 96.33%로 아버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했으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3.09%, 고위험 사용자군이 0.58%로, 고위험 사용자군이 아버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3-21〉 모의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스마트폰 중독 집단 구분			계(수)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96.33	3.09	0.58	100.00(1,198)	26.82	6.4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4.57	5.43	-	100.00(129)	27.72	6.69
350 초과~550만원	96.86	2.83	0.31	100.00(318)	26.74	6.31
550 초과~750만원	96.26	2.80	0.93	100.00(321)	26.32	6.76
750만원 초과	96.50	2.80	0.70	100.00(428)	26.98	6.31
$\chi^2(df)/F$		4.52(6) ^(a)				1.58
지역규모						
대도시	96.65	2.85	0.50	100.00(807)	26.96	6.35
중소도시	95.32	3.40	1.28	100.00(235)	26.51	6.90
읍면	96.10	3.90	-	100.00(154)	26.53	6.52
$\chi^2(df)/F$		3.51(4) ^(a)				0.62

주: 1) 4번, 10번, 15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39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2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40~43점이거나, 1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44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어머니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6)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직업 특성

가) 취업/학업 여부

부모의 취·학업 상태는 어머니는 취업자가 66.78%, 미취업·미학업이 28.80%, 취업·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3.51%, 학업 중인 경우 0.92%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94.76%로 대부분이었으며, 취업·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3.44%, 미취업·미학업인 경우가 1.45%, 학업 중인 경우가 0.36%였다.

〈표 III-3-22〉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 미학업	계(수)
어머니	66.78	0.92	3.51	28.80	100.00(1,198)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 미학업	계(수)
아버지	94.76	0.36	3.44	1.45	100.00(1,106)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모의 취·학업 상태의 모의 학력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미취업·미학업이 41.09%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550~750만원인 경우가 모가 취업자인 비중이 7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3〉 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미학업	계(수)
전체	66.78	0.92	3.51	28.80	100.00(1,198)
모 학력					
고졸 이하	64.75	1.36	3.05	30.85	100.00(295)
전문대졸	65.73	0.84	4.78	28.65	100.00(356)
대졸 이상	68.38	0.74	2.94	27.94	100.00(544)
$\chi^2(df)$		4.15(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2.71	2.33	3.88	41.09	100.00(129)
350 초과~550만원	61.95	0.63	2.83	34.59	100.00(318)
550 초과~750만원	74.14	0.62	3.74	21.50	100.00(321)
750만원 초과	68.93	0.93	3.74	26.40	100.00(428)
$\chi^2(df)$		29.03(9)*** ^(a)			
지역규모					
대도시	65.80	0.74	3.72	29.74	100.00(807)
중소도시	69.79	0.85	1.28	28.09	100.00(235)
읍면	66.88	1.95	5.84	25.32	100.00(154)
$\chi^2(df)$		9.25(6)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01$.

부의 취·학업 상태도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취업자 비중이 88.3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24〉 부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94.76	0.36	3.44	1.45	100.00(1,106)
부 학력					
고졸 이하	92.50	0.36	4.29	2.86	100.00(280)
전문대졸	95.80	0.84	3.36	-	100.00(238)
대졸 이상	95.40	0.17	3.07	1.36	100.00(587)
$\chi^2(df)$		10.44(6)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8.37	-	4.65	6.98	100.00(86)
350 초과~550만원	94.77	0.65	3.27	1.31	100.00(306)
550 초과~750만원	95.68	-	3.99	0.33	100.00(301)
750만원 초과	95.39	0.49	2.91	1.21	100.00(412)
$\chi^2(df)$		24.64(9)** ^(a)			
지역규모					
대도시	95.01	0.13	3.10	1.75	100.00(742)
중소도시	94.59	1.35	2.70	1.35	100.00(222)
읍면	93.62	-	6.38	-	100.00(141)
$\chi^2(df)$		14.28(6) ^{*(a)}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나) 취업 특성 및 직업 만족도

부모의 재직 상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재직 중인 비중이 96.79%, 아버지가 재직 중인 경우 97.79%였다.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는 상용직이 64.3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59%, 임시직 9.98%, 무급가족종사자 4.16%, 일용직이 2.02% 순이었다.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67.7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6.11%, 종업원을 둔 고용주 10.96%, 일용직 2.49%, 임시직 1.84%, 무급가족종사자 0.83%였다. 즉, 어머니의 경우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아버지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III-3-25〉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재직상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계(수)
	재직	휴직							
어머니	96.79	3.21	64.37	9.98	2.02	6.89	12.59	4.16	100.00(842)
아버지	97.79	2.21	67.77	1.84	2.49	10.96	16.11	0.83	100.00(1,086)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취업 중인 부모의 근무일수는 어머니의 경우 주중 4.86일, 주말 0.29일로, 1주일 기준 5.14일이며, 아버지의 경우 주중 4.90일, 주말 0.39일로 1주일 기준 5.29일이었다. 참고로 여기서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주된 일자리 기준이 아닌 전체 일자리 합산(직장이 두 군데인 경우 총 합산시간) 수치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주중 평균 35.93시간, 주말 평균 2.05시간으로 1주일 기준 37.98시간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주중 42.0시간, 주말 3.08시간으로 1주일 기준 45.08시간이었다. 취업모의 근로일과 근로시간, 취업부의 근로시간은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3-26〉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근무일		근로시간		(수)	근무일		근로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86	0.51	35.93	9.99	(842)	4.90	0.43	42.00	7.72	(1,086)
주말 평균	0.29	0.54	2.05	4.24	(842)	0.39	0.59	3.08	5.07	(1,086)
1주일 전체	5.14	0.71	37.98	11.50	(842)	5.29	0.67	45.08	10.16	(1,08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5.36 ^c	0.63	41.23 ^c	11.40	(200)	5.36	0.79	46.45 ^b	11.17	(271)
전문대졸	5.17 ^b	0.68	38.74 ^b	10.82	(251)	5.32	0.68	45.91 ^{ab}	10.45	(236)
대졸 이상	5.01 ^a	0.75	35.80 ^a	11.60	(388)	5.25	0.61	44.09 ^a	9.43	(578)
F	16.96***		15.99***			2.95		6.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25	0.65	39.93	12.02	(73)	5.20 ^a	1.08	43.54	12.49	(80)
350 초과-550만원	5.22	0.72	37.34	11.37	(206)	5.39 ^a	0.70	46.21	10.38	(300)
550 초과-750만원	5.06	0.78	37.36	11.46	(250)	5.27 ^a	0.60	44.83	10.60	(300)
750만원 초과	5.13	0.66	38.44	11.52	(311)	5.26 ^a	0.59	44.73	9.05	(405)
F	2.59		1.32			3.09*		2.06		

구분	어머니				(수)	아버지				(수)
	근무일		근로시간			근무일		근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5.10	0.71	37.52	11.32	(561)	5.27	0.67	44.66	9.79	(728)
중소도시	5.17	0.77	38.39	11.53	(167)	5.31	0.65	46.41	11.14	(216)
읍면	5.28	0.61	39.65	12.37	(112)	5.38	0.71	45.23	10.37	(141)
<i>F</i>	2.97		1.73			0.15		1.65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취업부모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머니 3.72점, 아버지가 3.69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일자리 만족도는 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III-3-27〉 취업부모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2	0.72	(842)	3.69	0.74	(1,086)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2	0.73	(200)	3.56 ^a	0.73	(271)
전문대졸	3.72	0.70	(251)	3.60 ^a	0.77	(236)
대졸 이상	3.77	0.73	(388)	3.80 ^b	0.71	(578)
<i>F</i>	2.97			12.7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2	0.79	(73)	3.45 ^a	0.79	(80)
350 초과-550만원	3.72	0.65	(206)	3.61 ^{ab}	0.74	(300)
550 초과-750만원	3.72	0.68	(250)	3.70 ^b	0.67	(300)
750만원 초과	3.74	0.78	(311)	3.80 ^b	0.75	(405)
<i>F</i>	0.60			7.42***		
지역규모						
대도시	3.70	0.72	(561)	3.68	0.75	(728)
중소도시	3.77	0.70	(167)	3.74	0.67	(216)
읍면	3.74	0.78	(112)	3.69	0.75	(141)
<i>F</i>	0.56			0.44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

*** $p < .001$.

4) 양육 특성

가) 양육 실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성취압력은 평균 2.40점으로, 남학생의 경우 2.52점으로 여학생 2.30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 성취압력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3-28〉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0	0.83	(1,258)
아동 성별			
남	2.52	0.83	(641)
여	2.30	0.82	(612)
<i>t</i>		4.7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26	0.80	(130)
350 초과~550만원	2.42	0.88	(329)
550 초과~750만원	2.44	0.80	(328)
750만원 초과	2.42	0.83	(466)
<i>F</i>		1.63	
지역규모			
대도시	2.43	0.83	(852)
중소도시	2.40	0.84	(241)
읍면	2.28	0.84	(160)
<i>F</i>		2.32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부모애착은 의사소통 영역 6문항, 소외감 영역 3문항, 신뢰감 3문항으로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부모애착 문항 중 소외감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경우 의사소통 평균 3.84점, 소외감 3.28점, 신뢰감 3.96점이었으며, 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표 III-3-29〉 부모애착: 어머니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4	0.73	3.28	0.74	3.96	0.75	(1,254)
아동 성별							
남	3.82	0.72	3.25	0.73	3.95	0.74	(639)
여	3.85	0.73	3.30	0.74	3.98	0.75	(611)
<i>t</i>	-0.68		-1.19		-0.57		
모 학력							
고졸 이하	3.76 ^a	0.79	3.25	0.68	3.93	0.76	(312)
전문대졸	3.76 ^a	0.66	3.30	0.70	3.96	0.73	(364)
대졸 이상	3.93 ^b	0.71	3.27	0.77	3.99	0.75	(565)
<i>F</i>	8.81***		0.40		0.6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77	0.84	3.16	0.76	3.85	0.81	(130)
350 초과~550만원	3.78	0.71	3.32	0.71	3.97	0.74	(329)
550 초과~750만원	3.85	0.70	3.25	0.76	3.96	0.74	(328)
750만원 초과	3.89	0.73	3.30	0.73	4.00	0.74	(463)
<i>F</i>	2.04		1.82		1.34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01$.

아버지의 부모애착은 의사소통 3.47점, 소외감 3.16점, 신뢰감 3.79점으로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0.37점이 낮았으며, 소외감은 0.12점, 신뢰감은 0.17점이 낮았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점수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부모애착 중 신뢰감 점수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3-30〉 부모애착: 아버지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7	0.84	3.16	0.72	3.79	0.79	(1,241)
아동 성별							
남	3.50	0.83	3.15	0.72	3.77	0.78	(634)
여	3.44	0.84	3.17	0.73	3.82	0.80	(602)
<i>t</i>	1.21		-0.53		-1.10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 학력							
고졸 이하	3.36 ^a	0.82	3.14	0.69	3.78	0.79	(304)
전문대졸	3.46 ^{ab}	0.82	3.13	0.67	3.81	0.77	(252)
대졸 이상	3.55 ^b	0.81	3.17	0.74	3.81	0.79	(645)
<i>F</i>	5.53**		0.38		0.1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2 ^a	0.98	3.08	0.84	3.56 ^a	0.87	(118)
350 초과~550만원	3.40 ^{ab}	0.79	3.17	0.66	3.75 ^{ab}	0.80	(329)
550 초과~750만원	3.51 ^b	0.83	3.09	0.76	3.80 ^b	0.77	(328)
750만원 초과	3.56 ^b	0.82	3.21	0.70	3.88 ^b	0.77	(461)
<i>F</i>	6.58***		2.38		5.73***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해 해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총 5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합리적 설명은 평균 2.99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 점수도 높았다.

〈표 III-3-31〉 합리적 설명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9	0.58	(1,258)
아동 성별			
남	2.97	0.58	(641)
여	3.01	0.59	(612)
<i>t</i>	-1.1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89 ^a	0.67	(130)
350 초과~550만원	2.96 ^{ab}	0.59	(329)
550 초과~750만원	2.99 ^{ab}	0.57	(328)
750만원 초과	3.04 ^b	0.56	(466)
<i>F</i>	2.91*		
지역규모			
대도시	2.99	0.59	(852)
중소도시	3.02	0.54	(241)
읍면	2.97	0.62	(160)
<i>F</i>	0.33		

주: 1) 아동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5$.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2.29점, 아버지가 2.21점으로 어머니가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이 남학생인 경우가 여학생인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I-3-3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29	0.74	(1,198)	2.21	0.77	(1,106)
아동 성별						
남	2.32	0.74	(613)	2.25	0.77	(571)
여	2.25	0.73	(583)	2.16	0.77	(534)
<i>t</i>	1.55			2.08*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32	0.76	(295)	2.24	0.79	(280)
전문대졸	2.30	0.73	(356)	2.27	0.78	(238)
대졸 이상	2.26	0.73	(544)	2.16	0.76	(587)
<i>F</i>	0.72			2.1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39	0.78	(129)	2.27	0.81	(86)
350 초과~550만원	2.29	0.76	(318)	2.26	0.75	(306)
550 초과~750만원	2.29	0.73	(321)	2.18	0.75	(301)
750만원 초과	2.25	0.71	(428)	2.17	0.80	(412)
<i>F</i>	1.18			1.13		
지역규모						
대도시	2.31	0.72	(807)	2.24 ^a	0.75	(742)
중소도시	2.21	0.77	(235)	2.09 ^a	0.81	(222)
읍면	2.27	0.79	(154)	2.19 ^a	0.81	(141)
<i>F</i>	1.89			3.6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95.87%로 대부분이었으나, 지난 6개월간 한두번 있었다는 응답이 3.02%, 한 달에 한두번 0.72%, 일주일에 한두번이 0.32%, 거의 매일 0.08%였다.

〈표 III-3-33〉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5.87	3.02	0.72	0.32	0.08	100.00(1,258)
아동 성별						
남	95.79	3.12	0.62	0.31	0.16	100.00(641)
여	95.92	2.94	0.82	0.33	-	100.00(612)
$\chi^2(df)$			1.15(4)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3.85	5.38	0.77	-	-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96.35	2.13	0.91	0.30	0.30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95.73	3.35	0.61	0.30	-	100.00(328)
750만원 초과	96.14	2.79	0.64	0.43	-	100.00(466)
$\chi^2(df)$			7.20(12) ^(a)			
지역규모						
대도시	95.54	3.05	0.82	0.47	0.12	100.00(852)
중소도시	95.85	4.15	-	-	-	100.00(241)
읍면	97.50	1.25	1.25	-	-	100.00(160)
$\chi^2(df)$			7.56(8) ^(a)			

주: 1) 아동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언어적 학대 경험은 전혀 없다는 응답이 81.40%로, 신체적 학대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지난 6개월간 한두번 언어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1.76%였으며, 한 달에 한두번 4.53%, 일주일에 한두번 2.07%, 거의 매일이 0.24%였다.

〈표 III-3-34〉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1.40	11.76	4.53	2.07	0.24	100.00(1,258)
아동 성별						
남	80.03	12.64	5.15	1.72	0.47	100.00(641)
여	82.84	10.78	3.92	2.45	-	100.00(612)
$\chi^2(df)$			5.93(4) ^(a)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0.77	10.77	4.62	3.08	0.77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82.07	10.94	4.26	2.43	0.30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81.10	12.20	5.18	1.52	-	100.00(328)
750만원 초과	81.33	12.23	4.29	1.93	0.21	100.00(466)
$\chi^2(df)$			4.62(12) ^(a)			
지역규모						
대도시	80.52	12.68	4.69	1.88	0.23	100.00(852)
중소도시	84.23	9.96	4.15	1.66	-	100.00(241)
읍면	81.88	9.38	4.38	3.75	0.63	100.00(160)
$\chi^2(df)$			6.60(8) ^(a)			

주: 1) 아동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90.14%로, 신체적 학대보다는 낮지만 언어적 학대 경험보다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한두번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96%, 한 달에 한두번 3.10%, 일주일에 한두번 0.64%, 거의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이 0.16%였다.

〈표 III-3-35〉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0.14	5.96	3.10	0.64	0.16	100.00(1,258)
아동 성별						
남	88.46	7.18	3.43	0.62	0.31	100.00(641)
여	91.83	4.74	2.78	0.65	-	100.00(612)
$\chi^2(df)$			5.85(4)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6.15	8.46	3.08	1.54	0.77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89.97	5.47	3.04	1.22	0.30	100.00(329)
550 초과-750만원	89.02	7.32	3.35	0.30	-	100.00(328)
750만원 초과	92.06	4.72	3.00	0.21	-	100.00(466)
$\chi^2(df)$			14.22(12) ^(a)			
지역규모						
대도시	89.67	6.57	2.93	0.70	0.12	100.00(852)
중소도시	91.29	4.98	3.73	-	-	100.00(241)
읍면	90.63	4.38	3.13	1.25	0.63	100.00(160)
$\chi^2(df)$			7.22(8) ^(a)			

주: 1) 아동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나) 부모 감독, 소통 및 지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이 밤 시간에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4점 척도에서 평균 3.61점으로 4개 문항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에 어디 가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57점,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평균 3.44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43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여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에 남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에 비해 패널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호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6〉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단위: 점, (명)

구분	방과후 어디 가는지 알고있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있음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있음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있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7	0.53	3.43	0.56	3.61	0.52	3.44	0.59	(1,288)
아동 성별									
남	3.56	0.55	3.43	0.56	3.61	0.53	3.40	0.62	(660)
여	3.59	0.51	3.43	0.55	3.62	0.52	3.48	0.56	(628)
<i>t</i>	-1.17		-0.09		-0.30		-2.4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0	0.57	3.40	0.58	3.63	0.54	3.50	0.59	(131)
350 초과-550만원	3.58	0.53	3.47	0.58	3.64	0.52	3.47	0.59	(342)
550 초과-750만원	3.60	0.52	3.43	0.53	3.62	0.51	3.42	0.62	(337)
750만원 초과	3.54	0.54	3.41	0.55	3.59	0.52	3.42	0.58	(478)
<i>F</i>	0.90		0.87		0.57		1.13		
지역규모									
대도시	3.57	0.53	3.43	0.56	3.63	0.51	3.45	0.58	(883)
중소도시	3.59	0.51	3.42	0.54	3.60	0.52	3.44	0.58	(244)
읍면	3.54	0.56	3.41	0.58	3.53	0.56	3.38	0.67	(161)
<i>F</i>	0.50		0.19		2.66		1.07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5$.

다음으로는 앞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 감독 문항을 아동 대상 질문으로 바꾸어 조사한 결과이다. 패널아동이 밤 시간에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4점 척도에서 평균 3.48점으로 4개 문항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에 어디 가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46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37점,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평균 3.23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 감독의 정도는 부모의 인식정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 응답 역시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네 개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37〉 부모 감독: 아동 응답

단위: 점, (명)

구분	방과후 어디 가는지 알고계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계심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계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6	0.62	3.37	0.64	3.48	0.62	3.23	0.70	(1,258)
아동 성별									
남	3.42	0.66	3.34	0.65	3.42	0.65	3.15	0.73	(641)
여	3.51	0.57	3.41	0.62	3.55	0.58	3.31	0.67	(612)
<i>t</i>	-2.49*		-2.04*		-3.68***		-3.9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39	0.70	3.28	0.73	3.43	0.71	3.25	0.76	(130)
350 초과-550만원	3.48	0.62	3.42	0.62	3.52	0.60	3.25	0.71	(329)
550 초과-750만원	3.48	0.61	3.38	0.63	3.48	0.62	3.19	0.70	(328)
750만원 초과	3.46	0.61	3.36	0.62	3.47	0.61	3.25	0.69	(466)
<i>F</i>	0.73		1.54		0.74		0.62		
지역규모									
대도시	3.46	0.62	3.37	0.64	3.50	0.61	3.24	0.70	(852)
중소도시	3.45	0.60	3.38	0.63	3.44	0.62	3.19	0.68	(241)
읍면	3.49	0.63	3.38	0.63	3.48	0.66	3.26	0.75	(160)
<i>F</i>	0.20		0.02		0.94		0.64		

주: 1) 아동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부모가 가정에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얼마큼의 학업적 그리고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지를 총 7개 문항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대체로 3.00점에서 3.52점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성적관리에 신경쓰는지에 대한 문항 3.52점, 평소 생활 및 일

정 관리 3.51점 등의 항목을 부모들이 가장 신경쓰고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 항목에서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에 비해 부모가 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모든 항목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가정의 부모는 다른 가정에 비해 자녀의 학업적/교육적 상황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8〉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단위: 점, (명)

구분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		공부방법 조언		성적관리에 신경 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2	0.85	3.00	0.99	3.40	0.89	3.52	0.84	(1,288)
아동 성별									
남	3.38	0.89	3.07	0.99	3.43	0.87	3.55	0.84	(660)
여	3.46	0.81	2.93	0.98	3.37	0.90	3.50	0.84	(628)
<i>t</i>	-1.71		2.43*		1.29		0.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17 ^a	0.91	2.82 ^a	1.05	3.08 ^a	0.96	3.26 ^a	0.94	(131)
350 초과-550만원	3.41 ^b	0.86	3.09 ^b	1.00	3.48 ^b	0.90	3.53 ^b	0.86	(342)
550 초과-750만원	3.48 ^b	0.85	3.04 ^{ab}	0.99	3.44 ^b	0.84	3.61 ^b	0.79	(337)
750만원 초과	3.44 ^b	0.82	2.96 ^{ab}	0.96	3.40 ^b	0.87	3.54 ^b	0.81	(478)
<i>F</i>	4.55**		2.84*		6.82***		5.57***		
지역규모									
대도시	3.37 ^a	0.83	2.98	0.96	3.38	0.85	3.52	0.82	(883)
중소도시	3.56 ^b	0.88	3.02	1.04	3.42	0.94	3.55	0.83	(244)
읍면	3.44 ^{ab}	0.93	3.09	1.07	3.47	0.98	3.50	0.94	(161)
<i>F</i>	4.54*		0.89		0.84		0.19		
구분	진로진학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 수집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5	0.87	3.51	0.86	3.06	0.99	(1,288)		
아동 성별									
남	3.46	0.88	3.54	0.87	3.08	1.00	(660)		
여	3.45	0.86	3.48	0.83	3.05	0.97	(628)		
<i>t</i>	0.21		1.32		0.6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0 ^a	0.96	3.24 ^a	0.94	2.67 ^a	0.96	(131)		
350 초과-550만원	3.49 ^b	0.82	3.59 ^b	0.85	3.13 ^b	0.92	(342)		
550 초과-750만원	3.45 ^b	0.90	3.55 ^b	0.83	3.09 ^b	0.98	(337)		
750만원 초과	3.51 ^b	0.85	3.51 ^b	0.84	3.10 ^b	1.02	(478)		
<i>F</i>	4.53**		5.73***		7.91***				

구분	진로진학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 수집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3.43	0.87	3.48	0.85	3.02 ^a	0.98	(883)
중소도시	3.50	0.84	3.58	0.84	3.14 ^a	0.99	(244)
읍면	3.52	0.92	3.61	0.92	3.21 ^a	1.00	(161)
<i>F</i>	1.19		2.56		3.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동, 부, 모 각각 동일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등 10개 문항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 평균은 아동이 3.8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3.77점, 아버지 3.76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3점 ‘잘 모르겠다’와 4점 ‘대체적으로 그렇다’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여기서 ‘잘 모르겠다’는 보통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아동, 부/모 모두의 결과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가구소득이 750만원 이상인 경우 35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모의 결과에서도 추가 사후분석 결과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39〉 부모-자녀 의사소통

단위: 점, (명)

구분	아동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7	0.68	(1,258)	3.76	0.60	(1106)	3.77	0.54	(1,198)
아동 성별									
남	3.87	0.66	(641)	3.77	0.60	(571)	3.76	0.56	(613)
여	3.87	0.70	(612)	3.75	0.60	(534)	3.78	0.53	(583)
<i>t</i>	-0.06			0.68			-0.77		

구분	아동			부			모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72 ^a	0.78	(130)	3.71 ^a	0.63	(86)	3.71 ^a	0.56	(129)
350 초과~550만원	3.82 ^{ab}	0.68	(329)	3.67 ^a	0.63	(306)	3.70 ^a	0.54	(318)
550 초과~750만원	3.89 ^{ab}	0.69	(328)	3.79 ^a	0.52	(301)	3.78 ^a	0.52	(321)
750만원 초과	3.94 ^b	0.64	(466)	3.82 ^a	0.62	(412)	3.83 ^a	0.55	(428)
<i>F</i>	4.25**			3.80**			4.15**		
지역규모									
대도시	3.87	0.68	(852)	3.75	0.60	(742)	3.77	0.54	(807)
중소도시	3.88	0.66	(241)	3.81	0.59	(222)	3.79	0.56	(235)
읍면	3.89	0.71	(160)	3.72	0.63	(141)	3.72	0.51	(154)
<i>F</i>	0.05			1.05			0.79		

주: 1) 아동/아버지/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나. 가구 특성

1) 가구 구성 및 방 여부

한국아동패널 가구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90.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5.75%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4.2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0〉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단위: %, (명)

가구 구성						가구원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 +자녀	부모+자녀 +친척	조부모+부모 +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90.61	5.75	1.63	1.94	0.08	100.00(1,288)	4.29	0.93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단독 방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87.50%였다.

〈표 III-3-41〉 아동의 단독 방 여부

단위: %, (명)

있음	없음	계(수)
87.50	12.50	100.00(1,2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음으로는 패널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키우지 않는 경우가 76.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에는 개 15.37%, 고양이 6.75% 등이 있었다.

〈표 III-3-42〉 반려동물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키우지 않음	개	고양이	기타	(수)
76.71	15.37	6.75	2.64	(1,2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 객관적 경제적 상황(소득, 지출, 부채)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근로소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42만원인데 중위값 600만원, 최솟값 100만원, 최댓값 3000만원으로 가구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78만원으로 아버지의 약 534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3-43〉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소득	642.43	284.69	600.00	100.00	3000.00	(1,122)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	278.48	202.55	242.50	10.00	3000.00	(840)
월평균 아버지 근로소득	533.60	473.63	500.00	10.00	9000.00	(1,081)

주: 보호자/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소득에 이어 패널가구 월평균 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여기서 소비성 지출은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비용, 가정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오락·문화, 외식·숙박, 이미용 비용 등을 의미하며, 비소비성 지출은 세금, 과태료, 연금, 적금, 보험료, 대출이자, 기부금,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 패널가구 소비성 지출의 평균은 307.41만원이고, 비소비성 지출은 224.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4〉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소비성 지출	307.41	146.42	300.00	20.00	1500.00	(1,247)
비소비성 지출	224.20	145.23	200.00	20.00	2200.00	(1,24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패널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응답하게 하였는데, 먼저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지위를 묻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 사회에서의 지위 인식 수준을 물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전체 10점 중 5.31점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는 그보다 다소 높은 5.46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역시나 가구소득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한민국 전체에서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지위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4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 (명)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31	1.39	(1,249)	5.46	1.39	(1,249)
아동 성별						
남	5.28	1.36	(640)	5.44	1.38	(640)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여	5.34	1.41	(609)	5.48	1.40	(609)
<i>t</i>	-0.89			-0.5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34 ^a	1.41	(131)	4.56 ^a	1.49	(131)
350 초과~550만원	5.07 ^b	1.25	(342)	5.21 ^b	1.19	(342)
550 초과~750만원	5.48 ^c	1.21	(337)	5.60 ^c	1.20	(337)
750만원 초과	5.65 ^c	1.44	(439)	5.80 ^c	1.48	(439)
<i>F</i>	38.68***			34.58***		
지역규모						
대도시	5.35	1.39	(855)	5.49	1.39	(855)
중소도시	5.26	1.26	(239)	5.46	1.28	(239)
읍면	5.16	1.54	(155)	5.25	1.51	(155)
<i>F</i>	1.36			2.0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가장 낮은 수준~10.매우 높은 수준).
 *** $p < .001$.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학교 특성으로는 패널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및 가정협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교육 특성으로는 패널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기술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III-4-1〉 16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재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기관
		• 전학 여부
	학교 특성	• 학교 유형, 남녀공학 여부
		• 시범학교 유형
		• 학교 풍토, 학생비행
	물리적 특성	• 학급수, 학급 학생수, 학교 환경
	교사 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담당과목
		• 업무 스트레스, 일평균 근무시간
		• 교사효능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학급운영	•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가정협력	•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및 횟수,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학교생활 관심 정도
		• 학교서비스 만족도
		• 고등학교 진학 유형
사교육	이용 특성	• 사교육 여부, 이용 유형,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이용 이유, 교재비
	사교육 인식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부담 정도 및 이유, 효과 인식

가.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패널아동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데,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9.46%였다. 중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0.54%였고, 이 경우 고등학교 조기 진학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표 III-4-2〉 학교 재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99.46	0.54	100.00(1,288)
아동 성별			
남	99.39	0.61	100.00(660)
여	99.52	0.48	100.00(628)
$\chi^2(df)$	0.10(1)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	-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98.83	1.17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99.41	0.59	100.00(337)
750만원 초과	99.79	0.21	100.00(478)
$\chi^2(df)$	4.20(3) ^(a)		
지역규모			
대도시	99.43	0.57	100.00(883)
중소도시	100.00	-	100.00(244)
읍면	98.76	1.24	100.00(161)
$\chi^2(df)$	2.80(2)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중학교 진학 이후 전학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학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24%로 대부분이었으나 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4.76%로 나타났다.

〈표 III-4-3〉 전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학 경험 없음	전학 경험 있음	계(수)
전체	95.24	4.76	100.00(1,282)
아동 성별			
남	95.59	4.41	100.00(657)
여	94.88	5.12	100.00(625)
$\chi^2(df)$	0.35(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5.42	4.58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96.17	3.83	100.00(339)
550 초과~750만원	96.42	3.58	100.00(335)
750만원 초과	93.71	6.29	100.00(477)
$\chi^2(df)$	4.14(3)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학교 특성

패널아동은 대부분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98.28%), 대안학교 (0.62%), 국제중학교(0.47%), 체육중학교(0.16%) 등에 다니는 사례도 있었다.

〈표 III-4-4〉 학교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중	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대안학교	기타	계(수)
전체	98.28	0.08	0.16	0.47	0.62	0.39	100.00(1,281)
아동 성별							
남	98.32	-	0.15	0.76	0.15	0.61	100.00(656)
여	98.24	0.16	0.16	0.16	1.12	0.16	100.00(625)
$\chi^2(df)$	9.99(5)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9.24	-	0.76	-	-	-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99.12	-	-	-	0.59	0.29	100.00(339)
550 초과~750만원	99.40	-	-	-	0.30	0.30	100.00(335)
750만원 초과	96.64	0.21	0.21	1.26	1.05	0.63	100.00(476)
$\chi^2(df)$	20.43(15) ^(a)						

구분	일반중	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대안학교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98.29	0.11	-	0.57	0.68	0.34	100.00(878)
중소도시	99.59	-	-	0.41	-	-	100.00(243)
읍면	96.25	-	1.25	-	1.25	1.25	100.00(160)
$\chi^2(df)$			22.14(10)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남녀공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89%는 남녀공학이었고, 남학교 9.13%, 여학교 7.98%로 나타났다.

〈표 III-4-5〉 남녀공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계(수)
전체	82.89	7.98	9.13	100.00(526)
지역규모				
대도시	88.39	4.76	6.85	100.00(336)
중소도시	74.11	14.29	11.61	100.00(112)
읍면	71.05	13.16	15.79	100.00(76)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추가적으로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가 시범학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시범학교가 아닌 일반중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83.4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16.54%는 시범학교에 해당되는데, 혁신학교 9.13%, 연구학교 5.13% 등이 이에 속했다.

〈표 III-4-6〉 시범학교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기타	계(수)
전체	83.46	5.13	0.76	9.13	1.52	100.00(526)
지역규모						
대도시	6.25	0.89	10.42	1.79	80.65	100.00(336)
중소도시	5.36	0.89	8.04	1.79	83.93	100.00(112)
읍면	-	-	5.26	-	94.74	100.00(76)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기타에는 미래학교(4사례), AI 중점학교(1사례), AI교육 선도학교(1사례), 교육복지선도학교(1사례), 자치학교(다문화)(1사례) 등이 포함됨.

다음은 15차년도부터 신규로 조사한 학교 풍토에 대한 결과이다. 학교 풍토는 패널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풍토, 학생 풍토, 학부모 풍토 총 3가지 차원에서 조사한다.

먼저 교사 풍토는 4개 문항으로 이뤄져있는데, 패널아동이 속한 학교의 교사들은 4개 문항에 대해 3.21점에서 3.65점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4점 척도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3.65점의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였으며,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는 3.21점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4-7〉 학교 풍토: 교사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교사 간 신뢰와 협력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5	0.49	3.56	0.56	3.21	0.75	3.62	0.52	(526)
지역규모									
대도시	3.66	0.49	3.57	0.56	3.22	0.77	3.61	0.53	(336)
중소도시	3.67	0.47	3.58	0.56	3.12	0.78	3.68	0.51	(112)
읍면	3.59	0.52	3.47	0.58	3.30	0.63	3.59	0.52	(76)
F		0.73		1.08		1.46		0.9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다-4.매우 높다).

다음으로 패널아동이 다니는 중학교의 학생 풍토에 대한 결과이다. 학생 풍토는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풍토와 동일하게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학생 풍토 전체 5개 문항에 대해 2.86점에서 3.28점의 분포를 보였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가 3.2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이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 풍토와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4-8〉 학교 풍토: 학생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2	0.69	3.28	0.68	3.21	0.69	3.11	0.80	2.86	0.79	(526)
지역규모											
대도시	3.02	0.68	3.28	0.66	3.20	0.69	3.13	0.78	2.87	0.77	(336)
중소도시	3.04	0.70	3.27	0.72	3.22	0.68	3.13	0.80	2.76	0.85	(112)
읍면	3.03	0.73	3.32	0.72	3.25	0.68	2.99	0.89	2.96	0.79	(76)
<i>F</i>	0.06		0.13		0.19		1.03		1.5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마지막 학교 풍토로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학부모들의 분위기를 조사하였다. 학부모 풍토는 3개 문항, 4점 척도로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해 2.94점에서 3.10점 수준으로 비슷하였는데,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수준 문항이 3.10점으로 그 중 가장 높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문항은 2.94점으로 3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표 III-4-9〉 학교 풍토: 학부모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6	0.72	3.10	0.72	2.94	0.74	(526)
지역규모							
대도시	3.05	0.73	3.13	0.73	2.91	0.75	(336)
중소도시	3.13	0.73	3.13	0.65	2.98	0.67	(112)
읍면	2.99	0.70	2.99	0.79	3.01	0.79	(76)
<i>F</i>	0.98		1.22		0.76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학생비행 척도 역시 학교 풍토와 마찬가지로 15차년도에 새로 조사하기 시작한 문항인데, 패널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비행 수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2.54점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보통 중간 정도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항은 2.9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

〈표 III-4-10〉 학생비행

단위: 점, (명)

구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4	0.99	2.99	1.11	(526)
지역규모					
대도시	2.53	0.97	3.00	1.09	(336)
중소도시	2.70	1.03	3.06	1.13	(112)
읍면	2.38	0.97	2.86	1.17	(76)
F	2.41		0.82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물리적 특성

다음으로는 패널아동이 재학 중이 학교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물리적 특성은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아동이 소속된 학년의 전체 학급수는 평균 7.65개였고, 학생수는 각 반당 평균 26.64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학급 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는 1:0.94명으로 여학생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 특별히 읍면지역의 해당학년 전체 학급수 및 학생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적었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III-4-11〉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수		학생수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65	3.04	26.64	4.40	(526)	0.94	0.37	(417)
지역규모								
대도시	8.04 ^b	2.78	26.85 ^b	4.04	(336)	0.94	0.36	(279)
중소도시	7.78 ^b	3.20	27.64 ^b	3.63	(112)	0.92	0.40	(83)
읍면	5.79 ^a	3.27	24.25 ^a	5.94	(76)	0.93	0.33	(53)
F	18.12***		15.26***			0.09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학생 1명당 여학생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 담임교사가 인식한 학교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학교 주변환경, 학생들의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네 가지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5점 척도에서 3.57점에서 3.77점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보통에서 좋은 편인 수준 사이로 나타났다. 통학조건에서 읍면지역의 학교는 대도시지역 학교보다 교통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12〉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7	0.93	3.64	0.91	3.77	0.86	3.71	1.05	(526)
지역규모									
대도시	3.58	0.95	3.67	0.94	3.81	0.86	3.79 ^b	1.04	(336)
중소도시	3.54	0.91	3.55	0.86	3.76	0.87	3.69 ^{ab}	0.99	(112)
읍면	3.58	0.87	3.67	0.84	3.63	0.83	3.37 ^a	1.12	(76)
F	0.10		0.75		1.29		5.06**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 $p < .01$.

4) 교사 특성

교사의 특성으로 담임교사가 담당한 교과목, 성별 및 연령, 경력 및 1일 평균 근로시간, 최종학력 등 사회적 변인과 업무 스트레스, 교사효능감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담임교사 담당교과목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는데, 그 중 국어가 15.78%, 과학 14.45%, 수학 13.31%, 영어 12.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3〉 교사 담당과목

단위: %, (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한문	제2 외국어	기타	계(수)
15.78	12.93	13.31	11.98	14.45	1.52	11.98	3.61	3.42	7.79	-	-	1.14	2.09	-	100(526)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담임교사의 성별은 여성인 경우가 72.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39.17세였다. 지역규모별로 패널아동의 담임교사 성별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가 클수록 여성이 담임교사인 경우가 많았다.

〈표 III-4-14〉 교사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교사 성별		계(수)	교사 연령		(수)
	여	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2.81	27.19	100.00(526)	39.17	8.98	(526)
지역규모						
대도시	77.38	22.62	100.00(336)	39.43	8.72	(336)
중소도시	64.29	35.71	100.00(112)	39.61	9.71	(112)
읍면	64.47	35.53	100.00(76)	37.37	8.96	(76)
$\chi^2(df)/F$	10.30(2)**			1.81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1$.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평균 교육경력은 12.19년이었고, 본 결과에는 육아휴직, 군경력은 제외한 경력만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47시간으로 약 8시간 28분 정도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사의 근로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된다.

〈표 III-4-15〉 교사 경력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년, 시간, (명)

구분	교사 경력		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19	8.96	8.47	0.98	(526)

구분	교사 경력		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2.47	8.80	8.51	1.00	(336)
중소도시	12.60	9.72	8.42	0.81	(112)
읍면	10.38	8.52	8.39	1.10	(76)
<i>F</i>	1.83		0.68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16차년도부터는 교사의 최종학력은 이전 조사(초대졸/대졸/석사과정/석사/박사과정/박사)와 다르게 문항을 3개(대졸 이하/석사 졸업/박사 졸업)로 개편하여 질문하였다.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66.92%, 석사 졸업 32.13%, 박사 졸업 0.9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16〉 교사 최종학력

단위: %, (명)

	대졸 이하	석사 졸업	박사 졸업	계(수)
전체	66.92	32.13	0.95	100.00(526)
지역규모				
대도시	66.07	32.74	1.19	100.00(336)
중소도시	71.43	28.57	-	100.00(112)
읍면	63.16	35.53	1.32	100.00(76)
$\chi^2(df)$	2.65(4) ^(a)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다음은 교사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으로 교사 업무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을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 업무 스트레스는 총 4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개 문항 중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보고된 수업지도는 평균 2.78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업무와 생활지도는 평균 3.39점으로 4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도 다소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 정도로 해석된다. 특별히 지역규모는 학부모와 관계에 있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규모 이상의 지역 담임교사가 읍면지역 담임교사보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다. 덧붙여 교사 경력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차이는 없었다.

〈표 III-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8	1.13	3.39	1.13	2.78	0.99	3.39	1.08	(526)
교사 연령									
20대	2.65	1.21	3.46	1.17	2.64	0.98	3.12	1.14	(94)
30대	2.92	1.10	3.39	1.12	2.81	1.00	3.47	1.07	(184)
40대	2.96	1.16	3.37	1.17	2.82	1.00	3.41	1.04	(170)
50대 이상	2.92	1.03	3.36	1.08	2.81	0.94	3.47	1.08	(78)
F	1.70		0.15		0.83		2.51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2.82	1.13	3.43	1.13	2.75	0.98	3.35	1.09	(288)
11~20년	2.92	1.18	3.24	1.16	2.79	1.04	3.41	1.05	(140)
21~30년	3.03	1.09	3.47	1.11	2.85	0.91	3.55	1.08	(75)
31년차 이상	2.96	0.88	3.65	1.03	2.96	0.93	3.17	1.03	(23)
F	0.76		1.49		0.47		1.01		
지역규모									
대도시	2.96 ^b	1.16	3.42	1.09	2.79	0.97	3.40	1.08	(336)
중소도시	2.93 ^b	1.00	3.46	1.18	2.71	0.99	3.29	1.05	(112)
읍면	2.49 ^a	1.10	3.18	1.26	2.83	1.08	3.43	1.15	(76)
F	5.66**		1.58		0.37		0.5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5.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p < .01$.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다’, ‘교과 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등의 9개 문항, 5점 척도로 교사가 직접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패널아동 중학교 3학년 시기 담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평균 4.11점으로 교사효능감이 있는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18〉 교사효능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1	0.47	(526)
교사 연령			
20대	4.02	0.47	(94)
30대	4.07	0.49	(184)
40대	4.15	0.47	(170)
50대 이상	4.18	0.43	(78)
F	2.5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4.04 ^a	0.48	(288)
11~20년	4.20 ^a	0.45	(140)
21~30년	4.15 ^a	0.46	(75)
31년차 이상	4.18 ^a	0.40	(23)
<i>F</i>		3.98**	
지역규모			
대도시	4.12	0.47	(336)
중소도시	4.11	0.46	(112)
읍면	4.04	0.49	(76)
<i>F</i>		0.84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5) 학급 운영

패널아동과 담임교사의 관계는 ‘나는 00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00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등의 총 1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친밀과 갈등으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친밀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73점으로 교사는 패널아동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고, 갈등 항목은 평균 1.36점으로 대체적으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 항목은 교사 연령과 경력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교사는 50대 이상 교사 보다 갈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 경력 30년 이하인 집단은 30년 이상인 교사들보다 갈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4-19〉 아동과 교사관계

단위: 점, (명)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3	0.62	1.36	0.55	(526)
교사 연령					
20대	3.82	0.64	1.26 ^a	0.42	(94)
30대	3.68	0.65	1.35 ^{ab}	0.53	(184)
40대	3.74	0.61	1.36 ^{ab}	0.55	(170)
50대 이상	3.73	0.58	1.50 ^b	0.71	(78)
<i>F</i>		0.98		2.66*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70	0.65	1.34 ^a	0.51	(288)
11~20년	3.83	0.60	1.32 ^a	0.49	(140)
21~30년	3.67	0.61	1.34 ^a	0.56	(75)
31년차 이상	3.75	0.52	1.88 ^b	1.04	(23)
<i>F</i>	1.64		7.4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a $p < .05$, ^{***} $p < .001$.

6) 가정협력

부모가 패널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부모가 참여 가능한 학교생활에서 부모들은 자녀 관련 상담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학교생활의 참여수준은 다소 낮았다. 자녀 관련 상담은 응답 부모 중 55.38%는 상반기에 1~2회 정도 참여한 반면 40.56%는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학설명회 참여비율이 상반기에 1~2회가 26.60%로 많았고, 전혀 없다는 비율도 71.84%였다. 이외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타 학교방문 등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에 대한 비율은 대부분 25% 미만 수준으로 다소 낮았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자녀 관련 상담, 진학설명회, 타 부모와의 정보교류 모임 등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 등 관련 학교생활 참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상반기 1~2회	상반기 3~4회	상반기 5회 이상	계(수)
자녀 관련 상담	40.56	55.38	3.04	1.01	100.00(1,282)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87.68	9.67	1.72	0.94	100.00(1,282)
학교 내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87.05	10.22	1.95	0.78	100.00(1,282)
부모교육 프로그램	83.15	15.13	1.40	0.31	100.00(1,282)
타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	77.85	15.91	3.98	2.26	100.00(1,282)

구분	전혀 없음	상반기 1~2회	상반기 3~4회	상반기 5회 이상	계(수)
진학설명회	71.84	26.60	1.01	0.55	100.00(1,282)
기타 학교방문	82.06	15.44	1.25	1.25	100.00(1,28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담임교사 조사결과, 참여정도 평균은 2.75점이었고 참여비율은 보통 34.22%, 참여하지 않는 편 25.48%, 대체로 참여함 19.20%, 전혀 참여하지 않음 15.21%, 항상 참여함 5.89% 순으로 참여정도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인식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4-21〉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21	25.48	34.22	19.20	5.89	100.00(526)	2.75	1.1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4.04	35.09	17.54	24.56	8.77	100.00(57)	2.79	1.22
350 초과-550만원	14.86	23.65	40.54	16.22	4.73	100.00(148)	2.72	1.06
550 초과-750만원	15.75	23.29	35.62	21.92	3.42	100.00(146)	2.74	1.08
750만원 초과	15.03	25.43	33.53	17.92	8.09	100.00(173)	2.79	1.15
$\chi^2(df)/F$		15.37(12)					0.11	
지역규모								
대도시	13.99	26.49	37.20	16.07	6.25	100.00(336)	2.74	1.08
중소도시	16.07	24.11	29.46	25.89	4.46	100.00(112)	2.79	1.13
읍면	18.42	22.37	28.95	23.68	6.58	100.00(76)	2.78	1.20
$\chi^2(df)/F$		9.25(8)					0.0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참여하지 않음-5.항상 참여함).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담임교사 조사결과,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참여함 34.98%, 보통 31.94%, 참여하지 않는 편 14.45%, 항상 참여함 11.98%, 전혀 참여하지 않음 6.6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는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인식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4-22〉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교사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65	14.45	31.94	34.98	11.98	100.00(526)	3.31	1.0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26	14.04	36.84	24.56	19.30	100.00(57)	3.39	1.11
350 초과-550만원	5.41	16.89	33.11	33.78	10.81	100.00(148)	3.28	1.04
550 초과-750만원	8.22	10.27	36.30	37.67	7.53	100.00(146)	3.26	1.02
750만원 초과	6.94	15.61	25.43	37.57	14.45	100.00(173)	3.37	1.12
$\chi^2(df)/F$		15.72(12)					0.42	
지역규모								
대도시	5.36	14.29	31.85	35.12	13.39	100.00(336)	3.37	1.05
중소도시	8.04	14.29	32.14	36.61	8.93	100.00(112)	3.24	1.07
읍면	10.53	14.47	31.58	32.89	10.53	100.00(76)	3.18	1.14
$\chi^2(df)/F$		4.61(8)					1.26	

주: 1) 답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참여하지 않음-5.항상 참여함).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점도에 대해 답임교사가 응답한 결과, 평균점수는 3.93점으로 교사들은 부모들의 관심 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관심보임이 47.72%로 가장 많았고, 매우 관심 많음 25.29%, 보통 22.24%, 가끔 관심보임 3.99%, 전혀 관심없음 0.76%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는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인식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4-23〉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교사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76	3.99	22.24	47.72	25.29	100.00(526)	3.93	0.8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1.75	24.56	45.61	28.07	100.00(57)	4.00	0.78
350 초과-550만원	1.35	5.41	22.30	53.38	17.57	100.00(148)	3.80	0.84
550 초과-750만원	0.68	4.79	21.92	50.00	22.60	100.00(146)	3.89	0.83
750만원 초과	0.58	2.89	21.39	41.62	33.53	100.00(173)	4.05	0.85
$\chi^2(df)/F$			14.85(12) ^(a)				2.49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0.30	2.98	24.40	46.73	25.60	100.00(336)	3.94	0.80
중소도시	0.89	6.25	16.07	53.57	23.21	100.00(112)	3.92	0.85
읍면	2.63	5.26	21.05	43.42	27.63	100.00(76)	3.88	0.97
$\chi^2(df)/F$			11.27(8) ^(a)					0.1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관심없음~5.매우 관심많음).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아동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진로진학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패널아동에게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고는 70.03%, 특성화고(직업) 8.82%, 자율형 사립고 2.78%, 예술고 2.54%, 외국어고 1.35% 순이었고, 아직 잘 모르겠음도 8.11%로 나타났다. 성별로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특성화고(직업),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자율형 사립고 진학계획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일반고, 예술고, 외국어고 진학계획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패널아동은 특성화고(직업)와 체육고 진학희망 비율이 높거나 아직 잘 모르겠음 비율도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고 진학희망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패널아동은 특성화고(직업) 진학희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계획이 없거나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II-4-24〉 고등학교 진학 유형: 아동 응답

단위: %, (명)

	일반 고	특성화 고 (직업)	특성화 고 (대안)	과학 고	영재 학교	예술 고	외국 어고	체육 고	국제 고	산업 수요 맞춤 형고				진학 계획 없음	잘 모르 겠음	계(수)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해외 유학	해외 유학			
전체	70.03	8.82	0.95	1.03	0.16	2.54	1.35	1.11	0.56	1.11	0.72	2.78	0.40	0.32	8.11	100(1,258)
아동 성별																
남	68.95	9.83	1.09	1.40	0.31	1.25	0.62	1.56	0.47	1.72	0.62	3.28	0.16	0.31	8.42	100(641)
여	71.24	7.68	0.82	0.65	-	3.92	2.12	0.65	0.65	0.49	0.82	2.29	0.65	0.33	7.68	100(612)
$\chi^2(df)$																29.82(14)**(a)

	일반고	특성화고(직업)	특성화고(대안)	과학고	영재학교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국제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해외유학	진학계획없음	잘모르겠음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8.46	18.46	0.77	-	-	2.31	-	3.08	0.77	1.54	0.77	1.54	-	-	12.31	100(130)
350 초과-550만원	72.64	8.81	1.22	1.22	-	2.43	0.61	1.22	0.30	1.52	0.91	0.30	0.30	0.91	7.60	100(329)
550 초과-750만원	70.73	7.62	0.30	0.91	0.30	3.66	1.22	1.52	0.61	0.61	0.30	4.57	0.30	-	7.32	100(328)
750만원 초과	71.03	6.87	1.29	1.29	0.21	1.93	2.36	0.21	0.64	1.07	0.86	3.65	0.64	0.21	7.73	100(466)
$\chi^2(df)$	67.81(42)**(a)															
지역규모																
대도시	69.95	8.22	0.94	1.17	0.12	2.82	1.76	0.70	0.59	1.06	0.59	3.52	0.47	0.35	7.75	100(852)
중소도시	70.12	6.64	1.24	1.24	0.41	2.49	0.83	1.66	0.83	1.66	1.66	0.83	0.41	-	9.96	100(241)
읍면	70.63	15.00	0.63	-	-	1.25	-	2.50	-	0.63	-	1.88	-	0.63	6.88	100(160)
$\chi^2(df)$	37.39(28) ^(a)															

주: 1) 아동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지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고는 79.04%, 특성화고(직업) 7.61%, 자율형 사립고 2.72%, 예술고 1.94%, 외국어고 1.55% 순이었고, 아직 잘 모르겠음은 1.55%(패널아동은 8.11%)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성별에 따라 보호자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는 특성화고(직업), 과학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자율형 사립고 진학계획 비율이 높았고,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에는 일반고, 예술고, 외국어고 진학계획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패널아동은 특성화고(직업) 진학희망 비율이 높고, 일반고 진학희망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패널아동은 특성화고(직업) 진학희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일반고 진학희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았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공립고 진학희망 보호자는 없었다.

〈표 III-4-25〉 고등학교 진학 유형: 보호자 응답

단위: %, (명)

	일반 고	특성화 고 (직업)	특성화 고 (대안)	과학 고	영재 학교	예술 고	외국 어고	체육 고	국제 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해외 유학	진학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79.04	7.61	0.62	1.16	0.23	1.94	1.55	0.93	0.62	0.78	0.62	2.72	0.54	0.08	1.55	100(1,288)
아동 성별																
남	75.91	9.55	0.45	1.82	0.45	1.21	0.61	1.67	0.76	1.21	0.76	3.03	0.61	-	1.97	100(660)
여	82.32	5.57	0.80	0.48	-	2.71	2.55	0.16	0.48	0.32	0.48	2.39	0.48	0.16	1.11	100(628)
$\chi^2(df)$	43.41(14)***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3.28	16.79	0.76	-	-	1.53	-	1.53	-	0.76	0.76	2.29	-	-	2.29	100(131)
350 초과-550만원	81.58	7.89	0.58	1.75	-	2.05	0.58	1.46	0.29	0.58	0.58	0.58	-	-	1.46	100(342)
550 초과-750만원	80.71	6.53	0.30	0.89	0.30	1.78	2.08	0.89	0.59	-	0.59	3.56	0.30	-	1.48	100(337)
750만원 초과	77.62	5.65	0.84	1.26	0.42	2.09	2.30	0.42	1.05	1.46	0.63	3.77	0.84	0.21	1.46	100(478)
$\chi^2(df)$	54.99(42) ^(a)															
지역규모																
대도시	79.28	7.02	0.45	1.25	0.23	2.15	1.93	0.68	0.57	0.79	0.45	3.17	0.57	0.11	1.36	100(883)
중소도시	79.51	7.38	0.82	1.64	0.41	2.05	1.23	0.82	1.23	0.41	1.64	0.82	0.41	-	1.64	100(244)
읍면	77.02	11.18	1.24	-	-	0.62	-	2.48	-	1.24	-	3.11	0.62	-	2.48	100(161)
$\chi^2(df)$	32.32(28)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01$.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 시설환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등 9개이다. 9개 항목의 만족도 평균은 5점 중 3.6점 내외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집단에 따라 만족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만족도 평균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이외 항목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초능력 향상 만족도 평균점수는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학교급식, 안전관리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는 읍면지역 보호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6〉 학교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0	0.63	3.60	0.68	3.67	0.68	3.62	0.82	3.69	0.66	(1,282)
아동 성별											
남	3.60	0.63	3.60	0.69	3.71	0.68	3.66	0.82	3.70	0.66	(657)
여	3.60	0.62	3.60	0.67	3.63	0.68	3.58	0.82	3.69	0.66	(625)
<i>t</i>	-0.06		-0.13		2.11*		1.77		0.2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48 ^a	0.66	3.49	0.71	3.63	0.69	3.71	0.78	3.71	0.70	(131)
350 초과-550만원	3.60 ^{ab}	0.65	3.62	0.71	3.68	0.70	3.66	0.81	3.70	0.69	(339)
550 초과-750만원	3.57 ^{ab}	0.61	3.57	0.70	3.65	0.70	3.56	0.84	3.68	0.68	(336)
750만원 초과	3.66 ^b	0.60	3.63	0.64	3.70	0.65	3.60	0.83	3.69	0.61	(476)
<i>F</i>	3.54*		1.75		0.57		1.43		0.09		
지역규모											
대도시	3.58 ^a	0.63	3.59	0.67	3.65	0.68	3.56 ^a	0.83	3.66 ^a	0.66	(879)
중소도시	3.59 ^{ab}	0.61	3.58	0.70	3.71	0.67	3.65 ^a	0.79	3.71 ^{ab}	0.64	(243)
읍면	3.72 ^b	0.61	3.68	0.71	3.76	0.72	3.87 ^b	0.79	3.84 ^b	0.69	(160)
<i>F</i>	3.19*		1.18		2.35		9.68***		5.01**		

구분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 시설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9	0.70	3.64	0.67	3.64	0.71	3.59	0.71	(1,282)
아동 성별									
남	3.58	0.71	3.64	0.69	3.66	0.70	3.58	0.71	(657)
여	3.59	0.69	3.64	0.66	3.62	0.72	3.59	0.71	(625)
<i>t</i>	-0.35		-0.15		0.89		-0.2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1	0.69	3.65	0.67	3.63	0.64	3.54	0.76	(131)
350 초과-550만원	3.64	0.73	3.66	0.68	3.64	0.73	3.61	0.74	(339)
550 초과-750만원	3.53	0.73	3.63	0.67	3.59	0.76	3.55	0.68	(336)
750만원 초과	3.58	0.67	3.63	0.67	3.68	0.67	3.61	0.69	(476)
<i>F</i>	1.46		0.14		1.30		0.65		
지역규모									
대도시	3.55 ^a	0.70	3.62 ^a	0.68	3.62	0.71	3.55 ^a	0.71	(879)
중소도시	3.61 ^{ab}	0.69	3.62 ^a	0.64	3.63	0.70	3.61 ^{ab}	0.69	(243)
읍면	3.74 ^b	0.76	3.79 ^b	0.69	3.75	0.73	3.74 ^b	0.71	(160)
<i>F</i>	4.83**		4.30*		2.22		4.9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사교육 특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년 패널아동이 학교 수업 이외에 받는 교육 및 사교육과 관련하여 이용 여부, 유형, 이용시간, 만족도, 비용, 부담 정도, 사교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효과, 이용 이유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에는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수련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수강하는 수업 등 학교 정규수업 외 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반면 사교육은 이 중에서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를 제외한 항목을 사교육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조미라 외, 2023: 194).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종류

조사대상 중 87.81%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교내 방과후학교나 EBS 교육방송 이외 사교육 이용비율은 86.41%였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용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이용비율이 약 91%로 높고, 월평균 350만원 초과 550만원인 경우 85.96%,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75.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90.16%, 대도시 89.01%, 읍면 77.64%로 나타나 읍면지역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 이용의 경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와 동일하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 패널아동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4-27〉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단위: %,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87.81	12.19	100.00(1,288)	86.41	13.59	100.00(1,288)
아동 성별						
남	85.76	14.24	100.00(660)	84.09	15.91	100.00(660)
여	89.97	10.03	100.00(628)	88.85	11.15	100.00(628)
$\chi^2(df)$	5.33(1)*			6.22(1)*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5.57	24.43	100.00(131)	70.23	29.77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85.96	14.04	100.00(342)	83.92	16.08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90.50	9.50	100.00(337)	89.02	10.98	100.00(337)
750만원 초과	90.59	9.41	100.00(478)	90.79	9.21	100.00(478)
$\chi^2(df)$	25.14(3)***			40.81(3)***		
지역규모						
대도시	89.01	10.99	100.00(883)	88.22	11.78	100.00(883)
중소도시	90.16	9.84	100.00(244)	88.52	11.48	100.00(244)
읍면	77.64	22.36	100.00(161)	73.29	26.71	100.00(161)
$\chi^2(df)$	18.02(2)***			27.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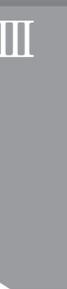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을 세분화하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원, 개인/그룹 지도(과외), 인터넷/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EBS 교육방송 강의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수학이 1,015명으로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어 964명, 국어 397명, 과학 359명, 체육 148명, 논술 98명, 음악 64명, 미술 47명, 컴퓨터, 코딩 등 21명 순이었으며, 기타는 56명이었다.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매체로는 대체로 학원 이용비율이 높았고, 특히 미술, 수학, 영어, 체육 등 전문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인 경우는 논술이 29.5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화상 강의는 과학이 35.65%, 국어가 28.21%로 높고, 음악, 체육,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의 이용률은 낮았다. 교내 방과후 교실의 경우 컴퓨터, 코딩 등이 28.57%로 가장 높았고, EBS 교육방송 강의는 과학이 8.91%, 국어가 7.56%로 높았다.



〈표 III-4-28〉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수)
국어	50.63	9.82	3.78	28.21	2.27	7.56	1.26	(397)
논술	39.80	29.59	2.04	19.39	2.04	4.08	4.08	(98)
영어	78.11	11.93	1.24	8.51	1.04	1.35	0.62	(964)
수학	79.90	11.43	1.48	6.80	1.48	1.18	0.59	(1,015)
과학	46.52	5.57	1.95	35.65	2.51	8.91	0.84	(359)
음악	54.69	28.13	-	3.13	12.50	1.56	3.13	(64)
미술	80.85	6.38	2.13	4.26	6.38	-	-	(47)
체육	74.32	4.73	-	0.68	18.24	0.68	2.70	(148)
컴퓨터, 코딩 등	42.86	4.76	-	14.29	28.57	-	9.52	(21)
기타	51.79	14.29	5.36	28.57	3.57	-	1.79	(56)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사교육 이용 특성

학교 외 교육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학원이 11.5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지(방문교사)는 11.44시간, 인터넷/화상 강의는 6.56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는 5.32시간,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공공기관 이용은 5.0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1.00	38.00	11.51	6.08	(98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1.00	25.00	5.32	4.08	(229)
학습지(방문교사)	1.00	32.00	11.44	6.58	(34)
인터넷/화상 강의	0.50	32.00	6.56	5.69	(187)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0.50	25.00	5.03	4.80	(116)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매체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가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원이 3.86점,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공공기관이 3.84점, 학습지(방문교사)가 3.76점, 인터넷/화상 강의가 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86	0.56	(98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97	0.65	(229)
학습지(방문교사)	3.76	0.78	(34)
인터넷/화상 강의	3.64	0.76	(187)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3.84	0.83	(11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패널아동이 이용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이용매체별로 월평균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학원은 월평균 60.66만원(이전조사 53.61만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는 45.85만원(이전조사 38.19만원), 인터넷/화상 강의는 14.39만원(이전조사 13.41만원), 학습지(방문교사)는 9.71만원(이전조사 11.74만원),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공공기관은 5.47만원(이전조사 4.5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조사(2022년 15차년도 조사, 조미라 외 2023: 197)에 비해 학원과 개인/그룹지도(과외) 월평균 비용이 다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1〉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0.00	270.00	60.66	33.30	(98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2.00	600.00	45.85	49.31	(229)
학습지(방문교사)	0.00	30.00	9.71	6.06	(34)
인터넷/화상 강의	0.00	205.00	14.39	20.57	(187)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0.00	134.00	5.47	15.33	(116)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매체별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평균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가 3.16점, 학습지(방문교사)가 2.73점, 인터넷/화상 강의가 2.33점,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공공기관이 1.6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2〉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29	0.89	(98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16	0.98	(229)
학습지(방문교사)	2.73	1.03	(34)
인터넷/화상 강의	2.33	1.01	(187)
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69	0.99	(11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됨).

3) 아동의 사교육 이용 인식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개수가 적당한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패널아동 중 78.48%가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8.52%는 ‘적은 편’, 3.00%는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패널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78.71%가 ‘적당한 편’, 17.07%가 ‘적은 편’, 4.22%가 ‘많은 편’인 반면, 여학생은 78.16%가 ‘적당한 편’으로 남학생과 비슷하였으나, 20.04%가 ‘적은 편’, 1.80%가 ‘많은 편’으로 남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이외 패널아동의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3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단위: %, (명)

구분	적은 편	적당한 편	많은 편	계(수)
전체	18.52	78.48	3.00	100.00(999)
아동 성별				
남	17.07	78.71	4.22	100.00(498)
여	20.04	78.16	1.80	100.00(499)
$\chi^2(df)$		6.02(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9.23	80.77	-	100.00(78)
350 초과~550만원	20.08	77.51	2.41	100.00(249)
550 초과~750만원	19.22	77.22	3.56	100.00(281)
750만원 초과	16.97	79.43	3.60	100.00(389)
$\chi^2(df)$		4.49(6)		

구분	적은 편	적당한 편	많은 편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18.23	78.00	3.76	100.00(691)
중소도시	20.00	79.50	0.50	100.00(200)
읍면	17.92	79.25	2.83	100.00(106)
$\chi^2(df)$		5.84(4)		

주: 아동 응답임.

* $p < .05$.

패널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26점으로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가 26.23%,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가 28.13%, '보통이다'가 39.54%, '부담스러운 편이다'가 5.81%, '매우 부담스럽다'가 0.30%의 비율을 보였다.

〈표 III-4-3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 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23	28.13	39.54	5.81	0.30	100.00(999)	2.26	0.92
아동 성별								
남	26.71	25.50	40.36	7.03	0.40	100.00(498)	2.29	0.95
여	25.85	30.66	38.68	4.61	0.20	100.00(499)	2.23	0.89
$\chi^2(df)/t$			5.45(4) ^(a)				1.0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05	25.64	38.46	3.85	-	100.00(78)	2.14	0.92
350 초과-550만원	27.71	28.92	37.35	5.62	0.40	100.00(249)	2.22	0.93
550 초과-750만원	22.06	28.83	42.70	6.05	0.36	100.00(281)	2.34	0.90
750만원 초과	27.25	27.51	38.82	6.17	0.26	100.00(389)	2.25	0.93
$\chi^2(df)/F$			5.66(12) ^(a)				1.28	
지역규모								
대도시	25.18	27.93	40.52	6.08	0.29	100.00(691)	2.28	0.92
중소도시	25.00	31.00	39.00	4.50	0.50	100.00(200)	2.25	0.90
읍면	35.85	23.58	33.96	6.60	-	100.00(106)	2.11	0.98
$\chi^2(df)/F$			7.90(8) ^(a)				1.59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이유를 조사하였다. 1순위를 살펴보면, 학원/과외에서 내주는 과제(숙제)가 너무 많아서가 31.15%로 가장 높았고,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가 29.51%,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가 13.11%,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가 9.84%, 학원/과외비가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까봐가 4.92%,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거리가 멀어서)가 3.28%로 나타났다.

〈표 III-4-35〉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학원/과외 숙제가 많아서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원/과외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기타	계(수)
전체	29.51	13.11	31.15	3.28	4.92	9.84	8.20	100.00(61)
아동 성별								
남	18.92	16.22	35.14	2.70	5.41	10.81	10.81	100.00(37)
여	45.83	8.33	25.00	4.17	4.17	8.33	4.17	100.00(24)
$\chi^2(df)$				5.76(6)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6.67	33.33	-	-	-	-	-	100.00(3)
350 초과-550만원	13.33	26.67	33.33	-	-	13.33	13.33	100.00(15)
550 초과-750만원	22.22	-	33.33	5.56	11.11	16.67	11.11	100.00(18)
750만원 초과	40.00	12.00	32.00	4.00	4.00	4.00	4.00	100.00(25)
$\chi^2(df)$				17.30(18) ^(a)				
지역규모								
대도시	34.09	6.82	34.09	2.27	4.55	9.09	9.09	100.00(44)
중소도시	20.00	40.00	20.00	10.00	10.00	-	-	100.00(10)
읍면	14.29	14.29	28.57	-	-	28.57	14.29	100.00(7)
$\chi^2(df)$				15.87(12) ^(a)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아동에게 사교육이 자신의 실력(성적, 능력, 솜씨, 기술 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교육 효과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2점으로 패널아동 스스로는 사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효과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그렇다’가 56.36%, ‘매우 그렇다’는 24.42%로 긍정적 효과

로 인식하는 비율이 80.78%였고, ‘그렇지 않다’는 1.30%, ‘전혀 그렇지 않다’는 0.80%로 사교육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10%로 나타났다.

〈표 III-4-36〉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80	1.30	17.12	56.36	24.42	100.00(999)	4.02	0.73
아동 성별								
남	1.41	1.81	16.27	55.42	25.10	100.00(498)	4.01	0.78
여	0.20	0.80	18.04	57.31	23.65	100.00(499)	4.03	0.68
$\chi^2(df)/t$			7.28(4) ^(a)					-0.5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3.85	21.79	48.72	25.64	100.00(78)	3.96	0.80
350 초과~550만원	0.40	0.80	19.68	57.03	22.09	100.00(249)	4.00	0.70
550 초과~750만원	1.78	0.71	15.30	58.36	23.84	100.00(281)	4.02	0.76
750만원 초과	0.51	1.54	15.94	56.04	25.96	100.00(389)	4.05	0.72
$\chi^2(df)/F$			15.00(12) ^(a)					0.53
지역규모								
대도시	0.87	1.45	16.93	56.73	24.02	100.00(691)	4.02	0.74
중소도시	1.00	1.00	15.50	57.50	25.00	100.00(200)	4.05	0.73
읍면	-	0.94	21.70	51.89	25.47	100.00(106)	4.02	0.72
$\chi^2(df)/F$			3.51(8) ^(a)					0.12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아동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1순위를 살펴보면,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가 31.61%(이전조사 23.97%)로 가장 높았고,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28.75%(이전조사 34.14%),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이 26.43%(이전조사 26.38%),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 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7.23%, 취미·교양·재능개발 4.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인 이전년도(2022년도 15차년도 조사, 조미라 외, 2023: 201)에 사교육 이용 이유로 1순위는 학교 수업 보충 목적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이 된 16차년도 데이터에서는 진학준비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7〉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31.61	7.23	26.43	28.75	0.89	4.46	0.63	100.00(1,120)
아동 성별								
남	28.93	7.14	26.79	28.75	1.07	6.43	0.89	100.00(560)
여	34.29	7.32	26.07	28.75	0.71	2.50	0.36	100.00(560)
$\chi^2(df)$	13.97(6) ^{*(a)}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26	6.45	15.05	39.78	-	5.38	1.08	100.00(93)
350 초과~550만원	30.45	5.54	21.80	33.22	2.77	4.84	1.38	100.00(289)
550 초과~750만원	30.79	9.60	29.47	25.83	-	4.30	-	100.00(302)
750만원 초과	32.80	6.88	29.82	25.46	0.46	4.13	0.46	100.00(436)
$\chi^2(df)$	43.65(18) ^{****(a)}							
지역규모								
대도시	30.31	8.57	28.90	26.60	1.02	4.09	0.51	100.00(782)
중소도시	36.41	3.23	22.58	33.18	0.46	3.69	0.46	100.00(217)
읍면	31.40	5.79	17.36	34.71	0.83	8.26	1.65	100.00(121)
$\chi^2(df)$	27.48(12)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사교육 이용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로 살펴보면,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비율이 59.11%로 가장 높았고,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50.27%,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가 46.07%,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는 26.70%, 취미·교양·재능개발 10.8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38〉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46.07	26.70	59.11	50.27	3.66	10.89	3.30	(1,120)
아동 성별								
남	43.04	28.39	57.32	48.39	4.64	13.04	5.18	(560)
여	49.11	25.00	60.89	52.14	2.68	8.75	1.43	(56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4.09	22.58	48.39	62.37	2.15	12.90	7.53	(93)
350 초과~550만원	46.71	28.03	47.06	55.36	5.88	12.80	4.15	(289)
550 초과~750만원	47.02	30.79	64.90	45.03	2.32	8.61	1.32	(302)
750만원 초과	45.41	23.85	65.37	47.94	3.44	10.78	3.21	(436)
지역규모								
대도시	42.58	29.03	61.00	50.13	3.96	10.36	2.94	(782)
중소도시	56.68	20.74	54.38	52.53	3.23	10.14	2.30	(217)
읍면	49.59	22.31	55.37	47.11	2.48	15.70	7.44	(12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사교육 및 개인학습을 위한 문제집을 포함한 월평균 사교육 교재비는 월평균 6.1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교재비는 최소 0원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경우에서, 최대 월평균 116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패널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4-39〉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00	116.00	6.17	10.62	(1,119)
아동 성별					
남	0.00	116.00	6.16	11.33	(559)
여	0.00	100.00	6.18	9.87	(560)
<i>t</i>			-0.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0	65.00	7.30	12.37	(93)
350 초과~550만원	0.00	100.00	5.08	8.57	(288)
550 초과~750만원	0.00	116.00	6.82	12.76	(302)
750만원 초과	0.00	100.00	6.20	9.76	(436)
<i>F</i>			1.75		
지역규모					
대도시	0.00	116.00	6.33	10.82	(781)
중소도시	0.00	60.00	5.67	8.39	(217)
읍면	0.00	100.00	6.02	12.73	(121)
<i>F</i>			0.3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및 이사 관련 사항, 교육·복지·의료·문화·여가 시설과 관련된 양육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특성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수급 여부와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관련해 아래에서는 지역사회 특성과 정책특성을 구분해 기술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표 III-5-1〉 16차년도 지역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규모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이사 횟수, 최근 이사 사유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여가공간·체육·문화·의료·교육·지역사회복지시설 접근의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교육정책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가. 지역사회 특성

패널아동 출생 이후 현재까지 패널가구의 평균 이사 횟수는 1.26회로 나타났다. 최초 조사때부터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이사 횟수 0회)가 36.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회 이사 27.64%, 2회 이사 19.57%, 3회 이사 10.02%, 4회 이사 4.19% 등의 순이었다.

〈표 III-5-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36.34	27.64	19.57	10.02	4.19	1.55	0.54	0.16	100.00(1,288)	1.26	1.32

주: 보호자의 응답임.

이전 조사 당시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 사유를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주택,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44.14%로 가장 높았고,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 어서'가 21.38%, '집값 부담 때문에'가 9.66%,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6.21%,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3.45%로 나타났다.

〈표 III-5-3〉 최근 이사 사유

단위: %, (명)

구분	주거환경 (주택, 교통)	교육환경	주변환경 (의료, 문화)	안전환경	집값부담	기타	계(수)
전체	44.14	21.38	6.21	3.45	9.66	15.17	100.00(14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6.32	26.32	-	5.26	15.79	26.32	100.00(19)
350 초과-550만원	42.86	17.14	2.86	2.86	11.43	22.86	100.00(35)
550 초과-750만원	53.85	17.95	10.26	2.56	7.69	7.69	100.00(39)
750만원 초과	44.23	25.00	7.69	3.85	7.69	11.54	100.00(52)
$\chi^2(df)$			12.64(15) ^(a)				
지역규모							
대도시	41.11	21.11	5.56	2.22	12.22	17.78	100.00(90)
중소도시	51.35	18.92	10.81	-	8.11	10.81	100.00(37)
읍면	44.44	27.78	-	16.67	-	11.11	100.00(18)
$\chi^2(df)$			17.81(10)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지역의 거주비율이 68.6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18.90%, 읍면지역이 12.44%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 지역규모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전체	68.66	18.90	12.44	100.00(1,286)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2.31	15.38	22.31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62.28	21.05	16.67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69.73	20.18	10.09	100.00(337)
750만원 초과	74.21	17.40	8.39	100.00(477)
$\chi^2(df)$		30.42(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가구의 거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살펴보면, 경인권 거주비율이 31.34%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권 17.81%, 대전/충청/강원권 13.76%, 광주/전라권/제주 13.53%, 서울권 12.91%, 대구/경북권 10.6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별로 거주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권 및 경인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산/울산/경남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 6개 권역 구분

단위: %,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 /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전라권 /제주	계(수)
전체	12.91	31.34	13.76	10.65	17.81	13.53	100.00(1,2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92	26.15	15.38	12.31	23.08	16.15	100.00(130)
350 초과~550만원	9.94	26.61	13.16	15.20	21.64	13.45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13.95	30.27	12.17	10.98	18.99	13.65	100.00(337)
750만원 초과	15.93	36.90	14.88	6.71	12.79	12.79	100.00(477)
$\chi^2(df)$			46.09(15)***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가구 지역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의 접근 편의성은 평균 3.67점. 보건소, 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 편의성은 3.65점,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은 3.33점으로 거리상 접근성을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접근 편의성 평균에 차이가 있었는데

데,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모두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접근 편의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교육·의료·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시설	전체	2.10	7.45	27.02	48.14	15.30	100.00(1,288)	3.67	0.90
	지역규모								
	대도시	0.91	7.36	24.24	50.06	17.44	100.00(883)	3.76 ^b	0.86
	중소도시	2.05	4.51	29.92	51.23	12.30	100.00(244)	3.67 ^b	0.83
	읍면	8.70	12.42	37.89	32.92	8.07	100.00(161)	3.19 ^a	1.05
	$\chi^2(df)/F$			76.42(8)***				28.25***	
의료 시설	전체	2.48	7.84	25.70	49.92	14.05	100.00(1288)	3.65	0.90
	지역규모								
	대도시	1.36	5.66	24.01	53.11	15.86	100.00(883)	3.76 ^b	0.83
	중소도시	1.64	6.97	27.46	52.05	11.89	100.00(244)	3.66 ^b	0.84
	읍면	9.94	21.12	32.30	29.19	7.45	100.00(161)	3.03 ^a	1.10
	$\chi^2(df)/F$			110.71(8)***				48.27***	
공공 복지 시설	전체	3.18	12.89	39.05	37.81	7.07	100.00(1,288)	3.33	0.90
	지역규모								
	대도시	1.93	12.23	38.28	40.32	7.25	100.00(883)	3.39 ^b	0.86
	중소도시	4.10	10.66	42.21	34.84	8.20	100.00(244)	3.32 ^b	0.92
	읍면	8.70	19.88	38.51	28.57	4.35	100.00(161)	3.00 ^a	1.01
	$\chi^2(df)/F$			36.35(8)***				12.8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3)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의료시설: 보건소, 병원 등
 공공복지시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 $p < .001$.

이어 패널가구 지역의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여가 공간시설의 접근 편의성은 평균 3.84점.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접근 편의성은 3.48점,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3.33점으로 거리상 접근성을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접근 편의성 평균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두 모두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일수록 접근 편의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여가 공간 시설	전체	1.32	5.28	19.49	56.37	17.55	100.00(1,288)	3.84	0.82
	지역규모								
	대도시	0.57	4.30	17.89	59.00	18.23	100.00(883)	3.90 ^b	0.76
	중소도시	0.41	4.92	20.49	56.15	18.03	100.00(244)	3.86 ^b	0.78
	읍면	6.83	11.18	26.71	42.24	13.04	100.00(161)	3.43 ^a	1.07
	$\chi^2(df)/F$	69.18(8) ^{***}						22.85 ^{***}	
체육 시설	전체	3.49	10.25	32.53	41.85	11.88	100.00(1,288)	3.48	0.95
	지역규모								
	대도시	2.83	8.15	33.18	43.15	12.68	100.00(883)	3.55 ^b	0.91
	중소도시	2.05	12.30	31.56	43.44	10.66	100.00(244)	3.48 ^b	0.91
	읍면	9.32	18.63	30.43	32.30	9.32	100.00(161)	3.14 ^a	1.12
	$\chi^2(df)/F$	40.11(8) ^{***}						12.94 ^{***}	
문화 시설	전체	4.19	14.13	34.47	38.51	8.70	100.00(1,288)	3.33	0.96
	지역규모								
	대도시	2.15	12.23	34.43	41.68	9.51	100.00(883)	3.44 ^b	0.90
	중소도시	5.33	15.16	33.20	40.57	5.74	100.00(244)	3.26 ^b	0.97
	읍면	13.66	22.98	36.65	18.01	8.70	100.00(161)	2.85 ^a	1.14
	$\chi^2(df)/F$	78.94(8) ^{***}						27.43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3) 여가공간시설: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문화시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관 등

*** $p < .001$.

다음은 패널가구 지역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육시설은 평균 3.57점, 의료시설은 평균 3.57점, 공공복지시설은 평균 3.31점으로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지역규모별 만족도 평균은 의료시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지역 패널가구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읍면지역 패널가구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5-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7	0.85	3.57	0.83	3.31	0.86	(1,288)
지역규모							
대도시	3.64	0.84	3.67 ^b	0.78	3.37	0.84	(883)
중소도시	3.51	0.86	3.47 ^a	0.81	3.25	0.85	(244)
읍면	3.27	0.87	3.13 ^a	0.98	3.01	0.95	(161)
<i>F</i>	2.90		9.20***		2.1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 $p < .001$.

패널가구 지역의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가 공간시설은 평균 3.72점, 체육시설은 평균 3.44점, 문화시설은 평균 3.39점으로 이용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지역 규모별로 만족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가 공간시설과 문화시설의 경우 대도시 패널가구가 읍면지역 패널가구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9〉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2	0.76	3.44	0.91	3.39	0.92	(1,288)
지역규모							
대도시	3.76 ^{ab}	0.73	3.47	0.88	3.47 ^a	0.88	(883)
중소도시	3.72 ^a	0.76	3.46	0.88	3.32 ^{ab}	0.93	(244)
읍면	3.52 ^b	0.87	3.19	1.09	2.99 ^b	1.07	(161)
<i>F</i>	4.72**		2.88		3.2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패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양육환경 안전성과 관련하여 8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객 및 싸움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동의 정도는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동의는

평균 3.89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동의는 평균 3.74점,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 구비에 대한 동의는 평균 3.71점,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비 구비에 대한 동의는 평균 3.66점, 경찰 등의 정기 순찰에 대한 동의는 평균 3.58점, 협조 분위기는 평균 3.33점,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네 주민의 행동 바로 잡아주기는 평균 3.0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0〉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32.92	51.01	11.65	3.42	0.85	0.16	100.00(1,288)	4.12	0.80
	지역규모									
	대도시	31.14	52.66	11.89	3.28	0.91	0.11	100.00(883)	4.10	0.80
	중소도시	34.02	50.00	11.07	4.51	-	0.41	100.00(244)	4.14	0.79
	읍면	40.99	43.48	11.18	2.48	1.86	-	100.00(161)	4.19	0.87
	$\chi^2(df)/F$			13.29(10) ^(a)					0.96	
범죄로 부터 안전	전체	4.89	8.85	17.39	44.88	23.68	0.31	100.00(1288)	3.74	1.07
	지역규모									
	대도시	4.76	10.08	16.99	44.05	23.78	0.34	100.00(883)	3.72	1.08
	중소도시	3.28	4.92	18.44	54.10	19.26	-	100.00(244)	3.81	0.91
	읍면	8.07	8.07	18.01	35.40	29.81	0.62	100.00(161)	3.71	1.21
	$\chi^2(df)/F$			24.65(10)**					0.40	
유해 시설로 부터의 안전	전체	4.19	7.07	15.99	40.76	31.75	0.23	100.00(1288)	3.89	1.06
	지역규모									
	대도시	4.08	6.91	18.23	41.00	29.56	0.23	100.00(883)	3.85	1.05
	중소도시	3.69	8.61	8.61	45.49	33.20	0.41	100.00(244)	3.96	1.05
	읍면	5.59	5.59	14.91	32.30	41.61	-	100.00(161)	3.99	1.14
	$\chi^2(df)/F$			24.80(10)**					1.72	
정기순찰	전체	2.87	6.99	32.92	38.04	15.37	3.80	100.00(1,288)	3.58	0.94
	지역규모									
	대도시	2.60	6.34	32.05	39.64	15.97	3.40	100.00(883)	3.62	0.93
	중소도시	1.64	9.43	38.52	34.84	11.07	4.51	100.00(244)	3.46	0.89
	읍면	6.21	6.83	29.19	34.16	18.63	4.97	100.00(161)	3.55	1.09
	$\chi^2(df)/F$			21.00(10)*					0.46	
협조 분위기	전체	2.41	11.57	43.32	29.04	9.70	3.96	100.00(1288)	3.33	0.90
	지역규모									
	대도시	2.04	12.00	44.05	28.54	8.72	4.64	100.00(883)	3.31	0.88
	중소도시	4.10	11.07	45.08	29.92	7.38	2.46	100.00(244)	3.26	0.91
	읍면	1.86	9.94	36.65	30.43	18.63	2.48	100.00(161)	3.55	0.98
	$\chi^2(df)/F$			25.14(10)**					2.27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96	20.11	44.33	18.79	6.99	5.82	100.00(1,288)	3.05	0.94
	지역규모									
	대도시	4.08	20.72	43.83	18.12	6.12	7.13	100.00(883)	3.02 ^a	0.93
	중소도시	5.33	19.26	50.41	16.80	4.92	3.28	100.00(244)	2.97 ^a	0.89
	읍면	1.24	18.01	37.89	25.47	14.91	2.48	100.00(161)	3.36 ^a	0.99
	$\chi^2(df)/F$			38.24(10) ^{***}					3.03 [*]	
시설물 설치	전체	1.48	4.81	30.20	45.50	16.23	1.79	100.00(1,288)	3.71	0.85
	지역규모									
	대도시	1.36	4.76	29.11	46.32	16.65	1.81	100.00(883)	3.73	0.85
	중소도시	0.82	4.92	31.15	47.13	13.11	2.87	100.00(244)	3.69	0.80
	읍면	3.11	4.97	34.78	38.51	18.63	-	100.00(161)	3.65	0.94
	$\chi^2(df)/F$			13.87(10) ^(a)					2.05	
안전설비 구비	전체	1.40	5.51	31.37	45.96	13.20	2.56	100.00(1,288)	3.66	0.83
	지역규모									
	대도시	1.59	5.32	31.60	45.75	13.02	2.72	100.00(883)	3.65	0.84
	중소도시	0.82	4.51	29.92	50.00	11.48	3.28	100.00(244)	3.69	0.77
	읍면	1.24	8.07	32.30	40.99	16.77	0.62	100.00(161)	3.64	0.90
	$\chi^2(df)/F$			10.28(10)					1.2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4)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5)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6)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패널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¹⁴⁾에 따른 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한 패널가구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23. 11. 17.][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78%, 차상위계층 2.02%, 해당없음이 94.18%, 잘 모름/무응답이 3.03%로 조사되었다.

〈표 III-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잘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0.78	2.02	94.18	3.03	100.00(1,2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16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수급 경험을 조사하였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로 지급)를 지급하는 것으로,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시도별 상이하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 우수학생에게 월 25~45만원의 장학금(학교급, 유형별 차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계좌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이에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패널아동 중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0.95%,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2%였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1.18%,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5.8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77%,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7.97%,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54%,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8.35%로 나타났다.

〈표 III-5-12〉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원경험 있음	지원경험 없음	잘 모름	무응답	계(수)
교육급여	10.95	86.72	1.86	0.47	100.00(1,288)
교육비 지원사업	11.18	85.87	2.41	0.54	100.00(1,28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8.77	87.97	2.72	0.54	100.00(1,28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8.54	88.35	2.48	0.62	100.00(1,2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교육정책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학벌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 20.81%로 가장 높았고, 대입 선발 방식 개선이 20.65%, 진로교육 강화 16.30%, 수업방식의 다양화 13.43%,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9.78%,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8.46%, 교원 전문성 제고 6.29%,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3.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학벌 위주 사회 체제 개선	대입 선발 방식 개선	교원 전문성 제고	학습자 기초 학력 보장	교육 내용 선택권 확대	진로 교육 강화	수업 방식 다양화	교육 여건 개선	기타	계(수)
전체	20.81	20.65	6.29	9.78	8.46	16.30	13.43	3.80	0.47	100.00(1,28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9.85	16.03	5.34	16.79	9.92	16.79	11.45	3.05	0.76	100.00(131)
350 초과~550만원	19.59	12.57	4.97	12.28	9.36	21.05	15.20	4.09	0.88	100.00(342)
550 초과~750만원	20.77	23.44	6.53	6.53	6.53	17.21	15.13	3.56	0.30	100.00(337)
750만원 초과	21.97	25.73	7.32	8.37	8.79	12.13	11.51	3.97	0.21	100.00(478)
$\chi^2(df)$				18.03(12)						
지역규모										
대도시	21.52	23.22	5.78	8.38	8.61	16.42	12.12	3.62	0.34	100.00(883)
중소도시	21.31	16.80	9.02	11.07	7.38	16.39	13.93	3.69	0.41	100.00(244)
읍면	16.15	12.42	4.97	15.53	9.32	15.53	19.88	4.97	1.24	100.00(161)
$\chi^2(df)$				32.87(1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비율이 52.80%,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 비율이 27.49%,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 비율이 19.72%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3.06점이었고, 가구소득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패널가정은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가정보다 한국교육의 질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 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한국교육 질이 보다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II-5-14〉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짐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56	17.16	52.80	26.40	1.09	100.00(1,288)	3.06	0.7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29	20.61	58.78	18.32	-	100.00(131)	2.93 ^a	0.69
350 초과-550만원	2.92	11.99	53.80	30.41	0.88	100.00(342)	3.14 ^b	0.75
550 초과-750만원	1.78	17.80	52.23	26.71	1.48	100.00(337)	3.08 ^{ab}	0.76
750만원 초과	2.93	19.46	50.84	25.52	1.26	100.00(478)	3.03 ^{ab}	0.79
$\chi^2(df)/t$	18.03(12) ^(a)						3.03*	
지역규모								
대도시	2.83	19.03	52.10	25.25	0.79	100.00(883)	3.02 ^a	0.77
중소도시	2.87	16.80	53.28	25.82	1.23	100.00(244)	3.06 ^a	0.77
읍면	0.62	7.45	55.90	33.54	2.48	100.00(161)	3.30 ^b	0.67
$\chi^2(df)/t$	20.97(8) ^{** (a)}						9.14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부정적~5.매우 긍정적).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비율은 42.70%,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 비율은 37.89%,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 비율은 19.41%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3.18점이었다. 이는 앞선 과거 5년 대비 현재

교육의 질 문항 전체 평균 3.06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향후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래 기대 문항에서도 지역규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한국교육 질이 앞으로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5〉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5년 후에는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95	16.46	42.70	35.33	2.56	100.00(1,288)	3.18	0.8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05	19.08	43.51	33.59	0.76	100.00(131)	3.10	0.82
350 초과~550만원	2.34	12.87	44.44	36.55	3.80	100.00(342)	3.27	0.82
550 초과~750만원	2.67	18.69	43.92	32.05	2.67	100.00(337)	3.13	0.84
750만원 초과	3.56	16.74	40.38	37.24	2.09	100.00(478)	3.18	0.86
$\chi^2(df)/t$			12.29(12)				1.95	
지역규모								
대도시	3.28	18.91	43.04	32.05	2.72	100.00(883)	3.12 ^a	0.86
중소도시	2.87	12.70	42.62	39.34	2.46	100.00(244)	3.26 ^{ab}	0.82
읍면	1.24	8.70	40.99	47.20	1.86	100.00(161)	3.40 ^b	0.73
$\chi^2(df)/t$			23.91(8)**				8.8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부정적~5.매우 긍정적).

** $p < .01$, *** $p < .001$.

IV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 01 자료 활용 현황
- 02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 03 가중치 산출 및 적용

IV.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1. 자료 활용 현황

한국아동패널은 그동안 대중에게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매년 국내·외 연구보고서, 세미나, 학술논문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3년 기준의 데이터 활용 논문 현황을 살펴보았다. 공개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논문 현황과 형태뿐만 아니라 발간된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 차수, 분석방법, 변인, 종단 및 횡단연구 여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관련 논문 발간된 후 관련 내용을 패널연구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아동패널', 'PSKC'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작년 한 해(2023년) 동안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발간된 논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IV1-1-1〉 참조), 2024년 4월 기준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연구보고서, 세미나, 논문 등은 총 1,418편이며, 그 중 학술논문이 1,018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연도인 2023년도에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학술논문은 161편으로 데이터 공개 이후 학술논문 부분에서 가장 많은 편수가 발간되었으며, 학위논문 13편, 학술대회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V-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69	172	157	175	190	1,418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	-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	-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18	19	6	13	115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11	29	19	23	16	261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161	1,018

주: 1) 데이터 활용사실을 보고하거나 포털에서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음.
2) 2024년 4월 기준으로 재보완하였으므로, 이전 연구보고서의 논문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공개 이후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발간된 학술논문은 총 1,018편으로 그 중 횡단연구는 633편, 종단연구는 385편이었다(〈표 IV-1-2〉 참조). 2023년도에 발간된 161편의 논문 중에서는 횡단연구가 110편, 종단연구가 51편이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였다. 전반적으로 횡단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되지만, 매년 데이터가 축적되고 다양한 연구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3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161	1,018
횡단	17	24	23	36	48	61	40	44	17	69	69	75	110	633
종단	0	1	4	8	24	44	19	32	25	56	50	71	51	385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의 데이터 차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IV-1-3〉 참조), 지금까지 7차 데이터가 294회로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5차 214회, 8차 204회 순으로 활용 빈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인 8차(초등학교 1학년)부터 13차(초등학교 6학년)의 자료가 종단분석 활용 빈도가 높았으며, 횡단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가장 최근 공개된 13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3년

단위: 회, 편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논문 수
2011	횡단	16	1	-	-	-	-	-	-	-	-	-	-	-	17
	종단	17	7	-	-	-	-	-	-	-	-	-	-	-	24
2012	횡단	1	1	-	-	-	-	-	-	-	-	-	-	-	1
	종단	3	9	11	-	-	-	-	-	-	-	-	-	-	23
2013	횡단	4	4	3	-	-	-	-	-	-	-	-	-	-	4
	종단	2	6	9	19	-	-	-	-	-	-	-	-	-	36
2014	횡단	7	8	6	3	-	-	-	-	-	-	-	-	-	8
	종단	1	3	7	15	22	-	-	-	-	-	-	-	-	48
2015	횡단	12	17	21	17	9	-	-	-	-	-	-	-	-	24
	종단	-	2	1	6	29	22	1	-	-	-	-	-	-	61
2016	횡단	24	27	31	31	22	10	-	-	-	-	-	-	-	44
	종단	-	-	2	-	7	14	16	1	-	-	-	-	-	40
2017	횡단	9	8	10	12	16	14	9	-	-	-	-	-	-	19
	종단	-	-	1	1	2	4	23	13	-	-	-	-	-	44
2018	횡단	11	11	9	9	16	19	21	13	-	-	-	-	-	32
	종단	-	-	-	-	1	-	10	3	1	2	-	-	-	17
2019	횡단	5	2	4	3	11	15	20	16	4	2	-	-	-	25
	종단	-	-	1	1	4	1	27	19	2	15	-	-	-	70
2020	횡단	9	10	11	14	23	21	31	36	20	19	1	-	-	56
	종단	-	1	-	-	2	1	22	8	4	12	19	-	-	69
2021	횡단	7	6	6	9	17	22	32	33	19	21	9	-	-	50
	종단	1	-	1	1	2	-	16	6	2	7	25	17	-	78
2022	횡단	7	7	9	11	16	22	33	32	30	31	24	11	-	71
	종단	-	-	5	-	-	2	18	3	1	6	11	23	43	112
2023	횡단	5	4	5	9	15	12	15	21	22	19	28	20	14	51
	종단	5	4	5	9	15	12	15	21	22	19	28	20	14	51
합계		141	134	153	161	214	179	294	204	105	134	117	71	57	-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종단연구의 경우 중복 기입

다음 2023년도에 발간된 학술논문에서 활용된 분석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IV-1-4〉 참조), 부모 특성 변수가 538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아동 특성 변수가 503회로 부모 특성 변수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부모 특성뿐 아니라 아동 특성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부 특성 변수들의 활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작년(2022년)에 비해 인지·언어 발달 변수와 자아·정서 발달 변수가 줄어든 반면 사회성 발달 변수의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

〈표 IV-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2, 2023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¹⁾	일상생활 ²⁾	신체건강 ³⁾	인지언어학습 ⁴⁾	자아정서발달 ⁵⁾	사회성발달 ⁶⁾	인구학적 특성 ⁷⁾	신체건강 ⁸⁾	심리특성 ⁹⁾	부부특성 ¹⁰⁾	양육특성 ¹¹⁾	직업특성 ¹²⁾	
2023	전체	157	70	15	51	101	109	317	8	58	31	86	38
2022	전체	53	42	9	103	120	81	65	4	42	20	109	18
구분	가구 특성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학령기) 학교/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				
	인구학적 특성 ¹³⁾	물리적/경제적 특성 ¹⁴⁾	가정환경 ¹⁵⁾	보육교육기관 ¹⁶⁾	기타 ¹⁷⁾	돌봄서비스 ¹⁸⁾	학교 특성 ¹⁹⁾	일반적 특성 ²⁰⁾	양육환경 ²¹⁾				
2023	전체	10	59	6	32	10	-	46	38	9			
2022	전체	5	41	31	13	6	2	12	3	3			

주: 각 영역별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음.

-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월령, 연령, 출생순위
- 2) 일상생활: 수면시간, 놀이시간/영역, 식습관,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중독, 실내/외 활동 등
- 3) 신체건강: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등
- 4) 인지언어학습: 언어 발달(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다요인지능, 학습준비도, 학습태도, 학업능력, 학습스트레스 등
- 5) 자아정서 발달: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그릇, 행복감 등
- 6)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감, 학교적응 등
- 7) 인구학적 특성: 학력, 연령
- 8) 신체건강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 9) 심리적 특성: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일-가정(육아)양립 등
- 10) 부부 특성: 부부 갈등, 결혼만족도
- 11) 양육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등
- 12) 직업 특성: 취업 여부, 취업 특성 등
- 13) 인구학적 특성: 가구형태, 자녀수
- 14) 물리적/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 용돈 등
- 15)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정환경 등
- 16) 보육교육기관: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효능감, 교실환경 등
- 17) 기타: 영아기 보육(양육) 유형, 기관 외 특별활동 등
- 18) 돌봄서비스: 방과후 이용 서비스 등
- 19) 학교 특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사-아동관계, 교사 특성, 창의적 학교 환경 등
- 20)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지역규모)
- 21) 양육환경 특성: 지역사회 안전성, 시설접근성, 기관이용 만족도

2.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가. 제1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설명회

2024년도에는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아동패널 설명회에 대한 유저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 패널아동들의 성장발달에 따라 주요 변인 교체, 응답대상 변경 등 다년간의 변화가 많아 자료설명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학술대회에 앞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데이터설명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신규 패널인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하여 2024년 4월 12일(금)에 육아정책연구소의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아 유저들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설명회는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소개, 2)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소개, 3) 특별강연: 패널 데이터 활용의 실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아동패널자료에 대한 소개로는 시기별 조사영역, 심층조사/수행검사 데이터 안내와 변인지도와 도구프로파일 이용, QnA 활용 등 아동패널 자료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었으며, 특별강연은 패널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과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방법과 예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IV-2-1〉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일시	○ 2024. 4. 12.(금) 14:00~16:30
장소 및 진행방식	○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내용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소개 - 1부: 사업개괄, 시기별 조사영역 및 심층조사/수행검사 안내 - 2부: 데이터 탐색 및 FAQ를 중심으로 2.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소개 3. 특별강연: 패널 데이터 활용의 실제 - 패널자료 이용시 고려사항 -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접근: 연구방법 및 실제 연구의 예

[그림 IV-2-1]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설명회 포스터 및 영상자료



나.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한국아동 성장·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9월 6일(금)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추진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2-2〉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시작	2024. 3. 21.(목)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4. 4. 29.(월)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결과 발표	2024. 5. 3.(금)
최종 원고 마감	2024. 7. 22.(월)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4. 8. 7.(수)
학술대회 개최	2024. 9. 6.(금)

2024년 제15회 학술대회에서는 청소년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 2022년도에 수

집된 15차년도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제공되어 15차년도까지의 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들을 모집 공모하였다. 이번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포스터 발표 부분도 신설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 결과 일반부분 21편, 학생부분 21편, 포스터 발표 3편으로 총 45편의 계획서가 접수되었다. 이중 최종원고 마감일까지 제출된 논문 25편(일반부분 15편, 학생부분 10편)에 대해 외부 심사자와 아동패널 연구진의 심사를 거쳐 27편의 논문을 한국아동패널의 발표논문으로 선정하여 발표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제15회 학술대회는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보육코칭협회와 공동주최하여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회원들의 연구결과들도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제15회 학술대회는 공모에 응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의 8개 주제별 세션이 마련되고 공동주최 학회들의 3개 세션도 구성되어 총 11개 세션을 통해 27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즉, 공모된 논문으로 학업, 진로, 신체발달, 부모양육, 집행기능, 미디어, 우울, 일-가정양립의 주제별 세션이 진행되고 공동학회 세션으로 한국부모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한국보육코칭협회 세션, 한국교육학회 세션, 한국교육행정학회의 3개의 학회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외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생들의 연구논문을 공모·심사한 결과로 최우수상 1개팀, 우수상 1개팀, 장려상 2개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패널아동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공모전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패널 유저들을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숍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개최하였다.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보육코칭협회의 5개 학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이외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의 9개 학회가 협력학회로 참여하였다.

〈표 IV-2-3〉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1부. 개회식 및 논문발표 I	
9:30 ~ 10:00	등록
10:00 ~ 10:20	개회사 및 축사
10:20 ~ 10:30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시상 /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 결과보고
10:30 ~ 10:40	한국아동패널 소개
10:40 ~ 10:50	휴식
10:50 ~ 11:50 (60분)	[논문발표 I] 논문발표 1 학업 논문발표 2 진로 논문발표 3 신체발달 논문발표 4 부모양육
11:5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2부. 통계 워크숍 및 논문발표 II	
13:00 ~ 14:30 (90분)	통계워크숍-‘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14:30 ~ 14:40	휴식
14:40 ~ 16:10 (90분)	[공동주최 학회 세션] 세션1-한국부모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사)한국보육코칭협회 세션2-한국교육학회 세션3-한국교육행정학회
16:10 ~ 16:20	휴식
16:20 ~ 17:50 (90분)	[논문발표 II] 논문발표 5 집행기능 논문발표 6 미디어 논문발표 7 우울 논문발표 8 일-가정 양립
17:50 ~ 18:00	폐회

[그림 IV-2-2] 제1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안내

공모 대상
연구계획서 1-1차년도(2009~2022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 및 포스터
* 연구공모 대상은 2024년 1차년도

공모 분야 및 참가자격
○ 한국아동패널
-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93차,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101차, 102차, 103차, 104차, 105차, 106차, 107차, 108차, 109차, 110차, 111차, 112차, 113차, 114차, 115차, 116차, 117차, 118차, 119차, 120차, 121차, 122차, 123차, 124차, 125차, 126차, 127차, 128차, 129차, 130차, 131차, 132차, 133차, 134차, 135차, 136차, 137차, 138차, 139차, 140차, 141차, 142차, 143차, 144차, 145차, 146차, 147차, 148차, 149차, 150차, 151차, 152차, 153차, 154차, 155차, 156차, 157차, 158차, 159차, 160차, 161차, 162차, 163차, 164차, 165차, 166차, 167차, 168차, 169차, 170차, 171차, 172차, 173차, 174차, 175차, 176차, 177차, 178차, 179차, 180차, 181차, 182차, 183차, 184차, 185차, 186차, 187차, 188차, 189차, 190차, 191차, 192차, 193차, 194차, 195차, 196차, 197차, 198차, 199차, 200차, 201차, 202차, 203차, 204차, 205차, 206차, 207차, 208차, 209차, 210차, 211차, 212차, 213차, 214차, 215차, 216차, 217차, 218차, 219차, 220차, 221차, 222차, 223차, 224차, 225차, 226차, 227차, 228차, 229차, 230차, 231차, 232차, 233차, 234차, 235차, 236차, 237차, 238차, 239차, 240차, 241차, 242차, 243차, 244차, 245차, 246차, 247차, 248차, 249차, 250차, 251차, 252차, 253차, 254차, 255차, 256차, 257차, 258차, 259차, 260차, 261차, 262차, 263차, 264차, 265차, 266차, 267차, 268차, 269차, 270차, 271차, 272차, 273차, 274차, 275차, 276차, 277차, 278차, 279차, 280차, 281차, 282차, 283차, 284차, 285차, 286차, 287차, 288차, 289차, 290차, 291차, 292차, 293차, 294차, 295차, 296차, 297차, 298차, 299차, 300차, 301차, 302차, 303차, 304차, 305차, 306차, 307차, 308차, 309차, 310차, 311차, 312차, 313차, 314차, 315차, 316차, 317차, 318차, 319차, 320차, 321차, 322차, 323차, 324차, 325차, 326차, 327차, 328차, 329차, 330차, 331차, 332차, 333차, 334차, 335차, 336차, 337차, 338차, 339차, 340차, 341차, 342차, 343차, 344차, 345차, 346차, 347차, 348차, 349차, 350차, 351차, 352차, 353차, 354차, 355차, 356차, 357차, 358차, 359차, 360차, 361차, 362차, 363차, 364차, 365차, 366차, 367차, 368차, 369차, 370차, 371차, 372차, 373차, 374차, 375차, 376차, 377차, 378차, 379차, 380차, 381차, 382차, 383차, 384차, 385차, 386차, 387차, 388차, 389차, 390차, 391차, 392차, 393차, 394차, 395차, 396차, 397차, 398차, 399차, 400차, 401차, 402차, 403차, 404차, 405차, 406차, 407차, 408차, 409차, 410차, 411차, 412차, 413차, 414차, 415차, 416차, 417차, 418차, 419차, 420차, 421차, 422차, 423차, 424차, 425차, 426차, 427차, 428차, 429차, 430차, 431차, 432차, 433차, 434차, 435차, 436차, 437차, 438차, 439차, 440차, 441차, 442차, 443차, 444차, 445차, 446차, 447차, 448차, 449차, 450차, 451차, 452차, 453차, 454차, 455차, 456차, 457차, 458차, 459차, 460차, 461차, 462차, 463차, 464차, 465차, 466차, 467차, 468차, 469차, 470차, 471차, 472차, 473차, 474차, 475차, 476차, 477차, 478차, 479차, 480차, 481차, 482차, 483차, 484차, 485차, 486차, 487차, 488차, 489차, 490차, 491차, 492차, 493차, 494차, 495차, 496차, 497차, 498차, 499차, 500차, 501차, 502차, 503차, 504차, 505차, 506차, 507차, 508차, 509차, 510차, 511차, 512차, 513차, 514차, 515차, 516차, 517차, 518차, 519차, 520차, 521차, 522차, 523차, 524차, 525차, 526차, 527차, 528차, 529차, 530차, 531차, 532차, 533차, 534차, 535차, 536차, 537차, 538차, 539차, 540차, 541차, 542차, 543차, 544차, 545차, 546차, 547차, 548차, 549차, 550차, 551차, 552차, 553차, 554차, 555차, 556차, 557차, 558차, 559차, 560차, 561차, 562차, 563차, 564차, 565차, 566차, 567차, 568차, 569차, 570차, 571차, 572차, 573차, 574차, 575차, 576차, 577차, 578차, 579차, 580차, 581차, 582차, 583차, 584차, 585차, 586차, 587차, 588차, 589차, 590차, 591차, 592차, 593차, 594차, 595차, 596차, 597차, 598차, 599차, 600차, 601차, 602차, 603차, 604차, 605차, 606차, 607차, 608차, 609차, 610차, 611차, 612차, 613차, 614차, 615차, 616차, 617차, 618차, 619차, 620차, 621차, 622차, 623차, 624차, 625차, 626차, 627차, 628차, 629차, 630차, 631차, 632차, 633차, 634차, 635차, 636차, 637차, 638차, 639차, 640차, 641차, 642차, 643차, 644차, 645차, 646차, 647차, 648차, 649차, 650차, 651차, 652차, 653차, 654차, 655차, 656차, 657차, 658차, 659차, 660차, 661차, 662차, 663차, 664차, 665차, 666차, 667차, 668차, 669차, 670차, 671차, 672차, 673차, 674차, 675차, 676차, 677차, 678차, 679차, 680차, 681차, 682차, 683차, 684차, 685차, 686차, 687차, 688차, 689차, 690차, 691차, 692차, 693차, 694차, 695차, 696차, 697차, 698차, 699차, 700차, 701차, 702차, 703차, 704차, 705차, 706차, 707차, 708차, 709차, 710차, 711차, 712차, 713차, 714차, 715차, 716차, 717차, 718차, 719차, 720차, 721차, 722차, 723차, 724차, 725차, 726차, 727차, 728차, 729차, 730차, 731차, 732차, 733차, 734차, 735차, 736차, 737차, 738차, 739차, 740차, 741차, 742차, 743차, 744차, 745차, 746차, 747차, 748차, 749차, 750차, 751차, 752차, 753차, 754차, 755차, 756차, 757차, 758차, 759차, 760차, 761차, 762차, 763차, 764차, 765차, 766차, 767차, 768차, 769차, 770차, 771차, 772차, 773차, 774차, 775차, 776차, 777차, 778차, 779차, 780차, 781차, 782차, 783차, 784차, 785차, 786차, 787차, 788차, 789차, 790차, 791차, 792차, 793차, 794차, 795차, 796차, 797차, 798차, 799차, 800차, 801차, 802차, 803차, 804차, 805차, 806차, 807차, 808차, 809차, 810차, 811차, 812차, 813차, 814차, 815차, 816차, 817차, 818차, 819차, 820차, 821차, 822차, 823차, 824차, 825차, 826차, 827차, 828차, 829차, 830차, 831차, 832차, 833차, 834차, 835차, 836차, 837차, 838차, 839차, 840차, 841차, 842차, 843차, 844차, 845차, 846차, 847차, 848차, 849차, 850차, 851차, 852차, 853차, 854차, 855차, 856차, 857차, 858차, 859차, 860차, 861차, 862차, 863차, 864차, 865차, 866차, 867차, 868차, 869차, 870차, 871차, 872차, 873차, 874차, 875차, 876차, 877차, 878차, 879차, 880차, 881차, 882차, 883차, 884차, 885차, 886차, 887차, 888차, 889차, 890차, 891차, 892차, 893차, 894차, 895차, 896차, 897차, 898차, 899차, 900차, 901차, 902차, 903차, 904차, 905차, 906차, 907차, 908차, 909차, 910차, 911차, 912차, 913차, 914차, 915차, 916차, 917차, 918차, 919차, 920차, 921차, 922차, 923차, 924차, 925차, 926차, 927차, 928차, 929차, 930차, 931차, 932차, 933차, 934차, 935차, 936차, 937차, 938차, 939차, 940차, 941차, 942차, 943차, 944차, 945차, 946차, 947차, 948차, 949차, 950차, 951차, 952차, 953차, 954차, 955차, 956차, 957차, 958차, 959차, 960차, 961차, 962차, 963차, 964차, 965차, 966차, 967차, 968차, 969차, 970차, 971차, 972차, 973차, 974차, 975차, 976차, 977차, 978차, 979차, 980차, 981차, 982차, 983차, 984차, 985차, 986차, 987차, 988차, 989차, 990차, 991차, 992차, 993차, 994차, 995차, 996차, 997차, 998차, 999차, 1000차

제15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4. 9. 6. 9:30~18:00
대강당공회실A, B, 소회의실 2-4

1부 9:30~13:00	2부 13:00~18:00
개회식 및 논문발표 I	통계 워크숍 및 논문발표 II
09:30 - 10:00 개회식	13:00 - 14:30 통계 워크숍
10:00 - 10:30 제1차 논문발표	14:30 - 16:00 통계 워크숍 발표
10:30 - 11:00 제2차 논문발표	16:00 - 17:50 논문발표 II
11:00 - 11:30 제3차 논문발표	17:50 - 18:00 제회

[그림 IV-2-3]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주: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개회사, 축사, 통계워크숍, 세션 7 발표 및 토론 모습

〈표 IV-2-4〉 제1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구분	내용
세션1. 학업	1. 중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과 학습 및 언어 요인의 관련성 연구 2. 코로나 19 전후 학업수행능력 변화 양상의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및 자기조절학습 차이 검증
세션2. 진로	1.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진로성숙도 전반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초기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예측요인 검증
세션3. 신체발달	1.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개인요인 및 정서요인과의 관련성 검증 2. 잠재전이분석과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전환기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유형과 영향요인 탐색
세션4. 부모양육	1.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Obesity: When Child Care Matters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특성이 청소년 사회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공동주최세션] 한국부모교육학회	1. 유아기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 부모의 학습참여가 아동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공동주최세션] 한국교육학회	1.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 미래기대 잠재 유형에 따른 학령기 부모의 학업 및 교육적 지원과 아동이 인식한 성취 압력의 차이 2. 유아기 부정적 도래 놀이행동과 초등기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아기 학교준비도의 조절효과 3. 유아기 수면시간 및 수면문제의 예측 요인 탐색
[공동주최세션] 한국교육행정학회	1. 누가 사교육을 받는가? 사교육 선택의 영향요인과 촉진요인 2. 미디어 노출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3. 중등 학부모의 교육정책 선호 양상 탐색
세션5. 집행기능	1. 아동 청소년기 집행기능 곤란의 변화와 예측 변수 분석 및 교육과정의 시사점 2.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변화궤적과 집행기능 곤란의 동시 및 지연효과 분석 3. 중학생의 집행기능 곤란, 그릿,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분석
세션6. 미디어	1.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변화 유형화와 유형별 문제행동의 차이 2.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곤란 잠재전이분석과 미디어중독 및 학업 스트레스 예측요인 탐색 3. 초-중 학교급 전환에 따른 학생의 미디어 기기 중독 변화 양상 및 영향요인 탐색
세션7. 우울	1. 청소년의 우울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 도래 및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2.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세션8. 일-가정양립	1.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의사소통의 이중매개효과 2. The Asymmetric Effects of Maternal Work-Family Conflict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3. 가중치 산출 및 적용

가. 가중치 부여방법

패널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과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위한 횡·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의 경우, 표본설계와 조사차수별 응답실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조사차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 이민,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발생하여 표본 구성에서 조사차수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모집단인 2008년 전국 출생아의 수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설계 시 의료기관과 신생아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결합하여 계산한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표본 마모 등의 무응답 발생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계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한 보정수승를 종합한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개발하여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¹⁵⁾.

한국아동패널 산출된 가중치는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전체의 분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평균(또는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¹⁶⁾을 사용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 \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15) 16차년도 횡종단면 가중치는 한국갤럽 상근 자문위원인 이계오 박사에 의해 산출되었다.

16)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quad : \text{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6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1,288 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1~16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911가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반드시 함께 제공된 1~1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16차년도 가중치 보정

가중치 보정을 위해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고,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패널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6차년도 패널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횡·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16차년도 조사참여 분포는 <표 IV-3-1>과 같다. 우선 원패널¹⁷⁾ 가구 중에서 16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가구는 911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유지율은 42.4%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다. 2~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표본¹⁸⁾ 패널가구 수 대비 표본유지율은 43.6% (938/2,150)였다. 16차년도 조사에서 단조 결측패턴¹⁹⁾에 해당하지 않는 무응답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 대비 응답률은 59.9%로, 15차년도 응답률인 60.1%에 비해 0.2%p 낮아졌다.

17)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한다

18) 전체표본 패널가구: 한국아동패널은 예비 표본의 합류를 3차년도까지 허용하여,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52가구), 3차년도(20가구)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표본 패널가구로 정의한다.

19) 단조 결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의 일부는 단조 결측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단면 가중치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1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023년 조사에 참여한 1,288가구, 종단면 가중치는 2008년부터 2023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911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IV-3-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 분포

구분	참여 여부																가구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원 패널	전체 조사 성공	○	○	○	○	○	○	○	○	○	○	○	○	○	○	○	○	911	42.4
	16차년도 탈락	○	○	○	○	○	○	○	○	○	○	○	○	○	○	○	X	17	0.8
	15차년도 탈락	○	○	○	○	○	○	○	○	○	○	○	○	○	○	X	X	34	1.6
	14차년도 탈락	○	○	○	○	○	○	○	○	○	○	○	○	X	X	X		35	1.8
	13차년도 탈락	○	○	○	○	○	○	○	○	○	○	X	X	X	X	X		20	0.9
	12차년도 탈락	○	○	○	○	○	○	○	○	○	X	X	X	X	X	X		22	1.0
	11차년도 탈락	○	○	○	○	○	○	○	○	○	X	X	X	X	X	X		23	1.1
	10차년도 탈락	○	○	○	○	○	○	○	○	X	X	X	X	X	X	X		40	1.9
	9차년도 탈락	○	○	○	○	○	○	○	X	X	X	X	X	X	X	X		28	1.3
	8차년도 탈락	○	○	○	○	○	○	X	X	X	X	X	X	X	X	X		22	1.0
	7차년도 탈락	○	○	○	○	○	X	X	X	X	X	X	X	X	X	X		23	1.1
	6차년도 탈락	○	○	○	○	X	X	X	X	X	X	X	X	X	X	X		44	2.1
	5차년도 탈락	○	○	○	X	X	X	X	X	X	X	X	X	X	X	X		37	1.7
	4차년도 탈락	○	○	X	X	X	X	X	X	X	X	X	X	X	X	X		36	1.7
	3차년도 탈락	○	○	X	X	X	X	X	X	X	X	X	X	X	X	X		75	3.5
	2차년도 탈락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89	4.1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	○	○	○	○	○	○	○		19	0.9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	○	○	○	○	○	○	○		8	0.4	
기타: 16차년도 성공	※	※	※	※	※	※	※	※	※	※	※	※	※	※	X	O	350	16.3	
기타: 16차년도 탈락	※	※	※	※	※	※	※	※	※	※	※	※	※	※	X	X	317	14.7	
전체																	2,150	100.0	

주: 1) 15차년도 조사 성공 사례수는 1,304가구임.

2) '○'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패턴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가중치 산출은 무응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보정하는 승수와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변수에 대한 보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 감소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불참 패널에 대한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 가중치 산출에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참여 여부를 종속변수, 가구별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를 설명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응답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종단면 데이터의 무응답패턴에서 3개 설명변수들인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 여부와 거주지역(6개 권역) 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면데이터의 무응답패턴에서도 3개 설명변수(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 여부와 거주지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보정 과정에는 패널가구의 거주권역,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등을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거주권역 6개 범주(서울, 경인, 대전·충청·강원·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출생순위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2개 범주(취·학업, 미취·학업)을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IV-3-2> 16차년도 횡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16차년도 횡단면 자료			1~16차년도 종단면 자료		
	df	Wald-χ ²	p-value	df	Wald-χ ²	p-value
출생순위	1	0.0029	0.9571	1	0.0737	0.7860
모 취업 여부	1	1.0735	0.3001	1	2.0335	0.1539
지역(권역)	5	6.4225	0.2673	5	2.1744	0.8245

둘째,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패널 마모에 따른 모수추정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7개 시도별²⁰⁾ 만 15세 남·여 아동(주민등록인구 기준)수와 한국 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 층화 보정²¹⁾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중치중에서 이상치(Outlier)는 절

20) 세종시는 충청남도,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하였다.

사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분포관련 기술통계량은 <표 IV-3-3>과 같다.

<표 IV-3-3> 16차년도 최종 황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16차 횡단면 가중치	363.95	298.18	204.88	1,288	42.14	1,031.07
1~16차 종단면 가중치	514.57	428.52	312.13	911	56.67	1,487.95

- 21) 사후층화 과정에서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기준으로 $Q_3 + 3IQR$ 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로 간주하고 절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값이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을 적용해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V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 01 분석 개요
- 02 분석 내용
- 03 소결

V.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1. 분석 개요

2023년에 조사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료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 장에서는 초등기 자료까지 묶어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이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중학생이 되는 14차년도부터 16차년도까지 조사된 변인들 중 아동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서 일상생활, 학업 및 진로, 정서·사회성, 부모님, 신체발달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르게 선정하였다.

신체발달의 체중과 신장과 같은 1차부터 조사된 기본변인은 1~16차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초등시기부터 조사된 변인은 초등시기부터 중등시기의 8~16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중등시기부터 새로이 투입되어 조사된 변인은 14~16차년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개별 변인마다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한 초·중등기에 조사된 모든 시기를 포괄하고자 했다. 연도별 응답자에 대해 분석하여 결합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동일한 변인이나 응답대상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표나 그림의 주에 기술하였다. 추이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영역별로 아래와 같다.

〈표 V-1-1〉 추이분석에 활용된 영역별 변인

구분	변수
일상생활	-생활시간(평일, 주말)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기기 중독 -독서량, 운동량
학업 및 진로	-학업 스트레스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이용 여부, 시간, 비용) -진로성숙도
정서·사회성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공감
부모님	-부모의 취·학업상태, 일-가정 양립/일-양육 양립의 이점과 갈등 -부모 감독,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구분	변수
신체발달	-체중, 신장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경험

2. 분석 내용

가. 아동의 일상생활

1) 아동의 생활시간

아동의 초·중등시기 하루 생활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때 초등시기는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나 중등시기는 아동 직접 응답으로 변경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일 시간을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줄어들고 학습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초등 1학년 때 9.62시간이었으나 초등 5학년부터 9시간 미만으로 줄고 중등 1학년 때부터는 7시간대로 더 낮아져 중등 3학년 시기의 수면시간은 7.20시간이다. 학습 시간은 초등시기에는 8시간대였으나 중등시기부터는 9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책 읽는 시간과 놀이, 활동 시간은 다소 줄어든 반면 TV시청 시간은 증가하였다. 책 읽는 시간은 초등 1학년 시기에는 0.69시간이었으나 중등시기부터는 0.5시간 미만으로 줄었으며, 놀이, 활동시간은 초등 1학년 때에는 3시간이었으나 이후부터는 2시간대로 줄어 중등 3학년 때에는 2.80시간으로 분석되었다. TV시청 시간은 초등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시간 안팎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20분(0.3시간) 가량 늘어 중등 3학년 때에는 1.33시간으로 분석되었다.

〈표 V-2-1〉 일일 생활시간- 평일(8차~16차)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읽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8차)	9.62	0.63	1.32	0.50	8.08	1.32	0.69	0.49	1.01	0.79	3.02	1.22	0.26	0.54	1,598
초등2(9차)	9.46	0.64	1.29	0.48	8.45	1.27	0.69	0.46	1.06	0.79	2.81	1.18	0.25	0.51	1,525
초등3(10차)	9.28	0.66	1.45	0.65	8.74	1.33	0.63	0.43	0.96	0.71	2.07	1.19	0.87	0.69	1,484
초등4(11차)	9.13	0.67	1.43	0.64	8.90	1.37	0.60	0.46	1.02	0.72	2.10	1.20	0.82	0.70	1,434
초등5(12차)	8.94	0.67	1.32	0.59	9.18	1.35	0.54	0.43	1.04	0.70	2.22	1.18	0.76	0.62	1,412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임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6(13차)	8.77	0.79	1.47	0.68	8.60	1.55	0.52	0.48	1.23	0.81	2.52	1.40	0.89	0.82	1,397
중등1(14차)	7.81	1.16	1.26	0.58	9.69	1.83	0.29	0.43	1.23	0.92	2.79	1.57	0.94	0.88	1,328
중등2(15차)	7.47	1.29	1.31	0.63	10.07	1.87	0.20	0.38	1.29	0.95	2.69	1.64	0.97	0.69	1,294
중등3(16차)	7.20	1.26	1.24	0.62	10.28	1.99	0.17	0.36	1.33	0.99	2.80	1.65	0.98	0.72	1,258

주: 1)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2)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6차의 경우 아동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2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주말의 생활시간은 평일 시간에 비해 학습 시간은 적고 수면시간, TV시청과 놀이, 활동시간의 비중은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활동 시간들의 증감의 경향은 평일시간과 비슷하다. 중등시기 주말 수면시간은 중등 1학년까지는 9시간 이상이었는데 비해 중등 2, 3학년에는 9시간 미만으로 낮아진다. 주말의 학습 시간은 초등 1학년 때에는 1.03시간이었으나 초등 5학년 때부터는 2시간가량으로 길어져 중등 3학년 때에는 3.07시간까지 늘었다. 반면 주말 책임기 시간은 초등시기 1시간 가량에서 중등시기부터는 30분 이하로 줄어들고 놀이, 활동시간도 초등 1학년 8시간에서 중등시기에는 6시간대로 줄었다.

〈표 V-2-2〉 일일 생활시간- 주말(8차~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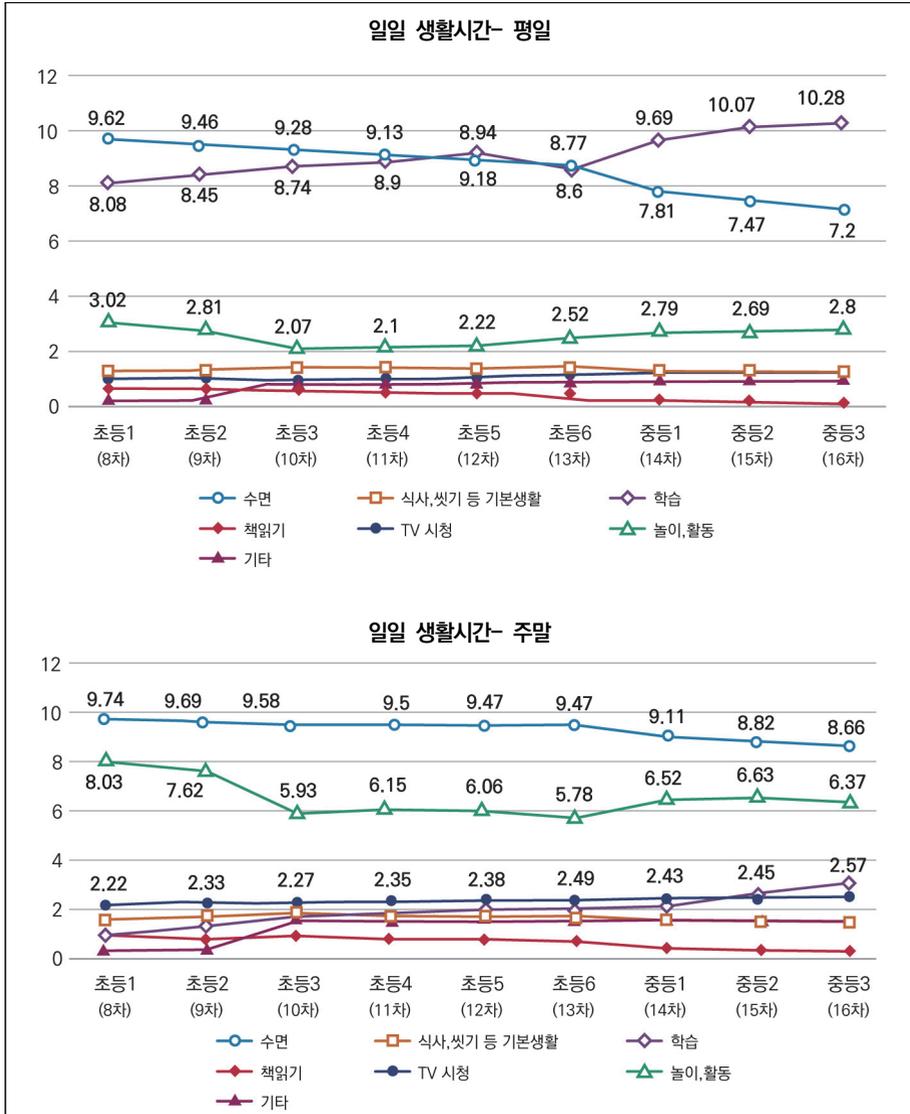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임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8차)	9.74	0.78	1.61	0.63	1.03	1.38	0.91	0.72	2.22	1.21	8.03	2.09	0.45	0.78	1,598
초등2(9차)	9.69	0.82	1.63	0.66	1.34	1.58	0.94	0.74	2.33	1.19	7.62	2.18	0.46	0.75	1,525
초등3(10차)	9.58	0.89	1.85	0.80	1.73	1.65	0.99	0.75	2.27	1.33	5.93	2.08	1.66	1.41	1,484
초등4(11차)	9.50	0.89	1.78	0.76	1.74	1.55	0.90	0.77	2.35	1.30	6.15	2.09	1.57	1.30	1,434
초등5(12차)	9.47	0.90	1.73	0.74	1.97	1.80	0.86	0.72	2.38	1.23	6.06	2.04	1.53	1.30	1,412
초등6(13차)	9.47	0.95	1.85	0.79	2.02	1.72	0.76	0.70	2.49	1.32	5.78	2.09	1.63	1.43	1,397
중등1(14차)	9.11	1.37	1.57	0.70	2.20	2.14	0.48	0.69	2.43	1.54	6.52	2.56	1.69	1.70	1,328
중등2(15차)	8.82	1.41	1.58	0.79	2.67	2.42	0.35	0.59	2.45	1.55	6.63	2.75	1.50	1.44	1,294
중등3(16차)	8.66	1.41	1.51	0.72	3.07	2.68	0.33	0.58	2.57	1.50	6.37	2.71	1.48	1.45	1,258

주: 1)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2)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6차의 경우 아동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3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

단위: 시간



주: 1)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2)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6차의 경우 아동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262-263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의 미디어 이용

이하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해 정보검색, 게임, SNS 뿐 아니라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초등시기는 보호자가 응답하고 중등시기에는 아동이 응답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초등시기와 중등시기의 값이 매우 달리 나타났다. 초등시기 아동의 미디어 시간은 1~3시간 정도인데 비해 중등시기에는 6시간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는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미디어 실제 이용의 증가와 조사대상 변경에 따른 영향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시기별로 패턴의 특성도 드러난다. 즉, 초등시기를 보면 초등 2학년 0.85시간에서 초등 6학년 2.80시간으로 증가경향을 보이는 한편, 중등시기는 중등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은 다소 미디어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9차~16차)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2(9차)	0.85	0.72	(1,525)
초등3(10차)	1.19	0.82	(1,484)
초등4(11차)	1.51	0.97	(1,409)
초등5(12차)	1.80	1.03	(1,391)
초등6(13차)	2.80	1.55	(1,377)
초등시기 전체	1.61	1.24	-
중등1(14차)	6.48	3.48	(1,328)
중등2(15차)	5.93	3.12	(1,294)
중등3(16차)	6.26	3.42	(1,258)
중등시기 전체	6.22	3.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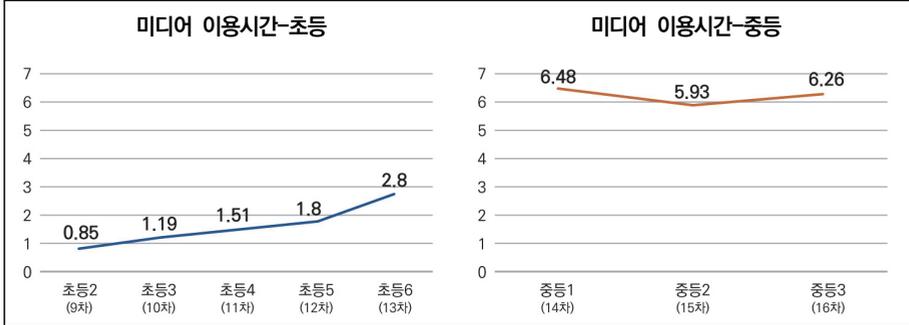
주: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값, 14~16차의 경우 아동 응답값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8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 미디어 이용시간

단위: 시간



주: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6차의 경우 아동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8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은 부모가 진단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초등 3학년부터 중등시기까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초등시기와 중등시기에 다른 패턴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초등시기까지는 일반 사용자군이 줄어들고 고위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중등시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감소하고 일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비중을 보면 초등시기 고위험 사용자군은 초등 3학년 때 18.5%였다가 중등 1학년까지 44.6%까지 상승하였으나 중등 2학년때는 0.3%p 증가로 상승정도가 적고 중등 3학년 때는 오히려 41.9%까지 낮아진다. 반면, 일반 사용자군은 75.5%에서 중등 1학년 때 45.3%로 낮아지다가 중등 3학년 때는 50% 이상으로 증가한다.

〈표 V-2-4〉 아동의 인터넷 중독(10차~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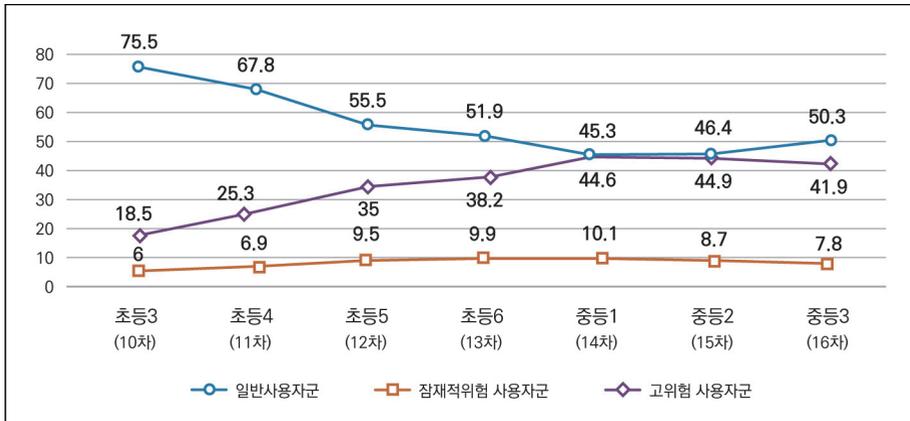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계(수)
초등3(10차)	75.5	6.0	18.5	100.0 (1,389)
초등4(11차)	67.8	6.9	25.3	100.0 (1,401)
초등5(12차)	55.5	9.5	35.0	100.0 (1,308)
초등6(13차)	51.9	9.9	38.2	100.0 (1,393)
중등1(14차)	45.3	10.1	44.6	100.0 (1,348)
중등2(15차)	46.4	8.7	44.9	100.0 (1,304)
중등3(16차)	50.3	7.8	41.9	100.0 (1,288)

- 주: 1) 일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총점 27점 이하,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총점 28-29점,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총점 30점 이상,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2) 보호자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9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3] 인터넷 중독 분류(10차~16차)

단위: %



-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9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의 독서 및 운동

다음으로는 아동의 독서량과 운동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서량은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는지 조사하였고 운동량은 지난 7일간 실내외에서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날을 조사하였다. 독서량은 평균 권수를 산출했으며, 운동량의 점수는 1점은 운동한 날이 없는 경우, 2점은 1일, 3점은 2일, 4점은 3일, 5점은 4일, 6점은 5일 이상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독서량과 운동량 역시 응답자 변경이 있었다. 독서량의 경우 9~11차는 보호자 응답값이며 12차~16차에는 아동이 응답하였고 운동량의 경우 9~13차 보호자, 14~16차는 아동이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주평균 독서량은 초등시기 뚜렷하게 감소하며 중등시기에는 줄어든 독서량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초등 2학년 때 주 8.64권의 책을 읽었으나 점차 감소해 초등 6학년 때 2.81권을 읽었으며 중등시기에는 1~2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량의 경우는 초등 중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변화가 크진 않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초등 6학년 때에는 운동량 점수가 확연히 낮았다.

〈표 V-2-5〉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9차~16차)

단위: 권, (명), 일

구분	독서량			운동량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2(9차)	8.64	9.59	(1,525)	-	-	-
초등3(10차)	6.90	8.59	(1,471)	-	-	-
초등4(11차)	5.44	7.40	(1,418)	3.26	1.46	(1,434)
초등5(12차)	4.42	6.54	(1,398)	3.31	1.45	(1,412)
초등6(13차)	2.81	5.92	(1,359)	2.64	1.46	(1,397)
중등1(14차)	1.19	2.30	(1,328)	3.47	1.69	(1,328)
중등2(15차)	1.61	2.90	(648)	3.71	1.72	(1,294)
중등3(16차)	1.33	1.85	(562)	3.53	1.73	(1,258)

주: 1) 독서량의 경우 9~11차 보호자 응답, 12차~16차 아동 응답 / 운동량의 경우 9~13차 보호자 응답, 14~16차 아동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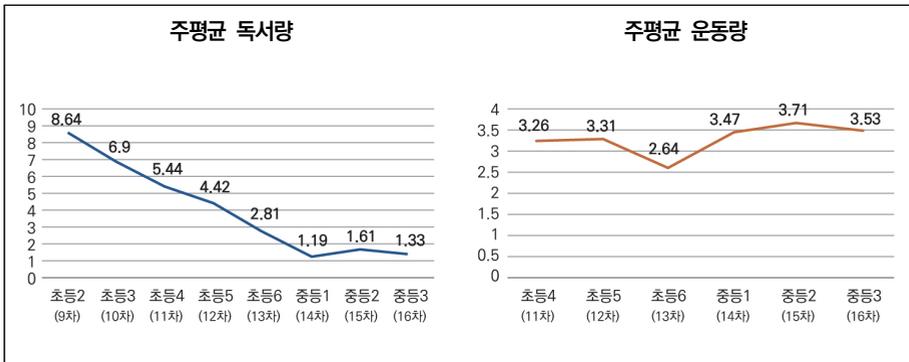
2) 운동량은 지난 7일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을 기준을 함.
(1점: 없음, 2점: 1일, 3점: 2일, 4점: 3일, 5점: 4일, 6점: 5일 이상을 의미함)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70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4]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9차~16차)

단위: 권, 점



주: 1) 독서량의 경우 9~11차 보호자 응답, 12차~16차 아동 응답 / 운동량의 경우 9~13차 보호자 응답, 14~16차 아동 응답임.

2) 운동량은 지난 7일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을 기준을 함.
(1점: 없음, 2점: 1일, 3점: 2일, 4점: 3일, 5점: 4일, 6점: 5일 이상을 의미함)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70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아동의 학업 및 진로

1)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관해 초등 4학년부터 중등시기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아동연령이 증가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초등 4학년 시기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는 2.04점인데 이는 점차 높아져 중학교 3학년 때는 2.69점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스트레스 점수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학교성적, 숙제/시험, 공부, 대입/취업 스트레스의 각 점수가 연령에 따라 대부분 높아졌으며, 중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숙제/시험 스트레스로 2.92점이다.

〈표 V-2-6〉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전체	(수)
초등4(11차)	1.79	2.19	2.15	-	2.04	(1,428)
초등5(12차)	1.79	2.32	2.28	-	2.13	(1,398)
초등6(13차)	1.91	2.49	2.45	-	2.28	(1,357)
중등1(14차)	2.06	2.64	2.56	2.04	2.33	(1,328)
중등2(15차)	2.48	2.97	2.80	2.45	2.67	(1,294)
중등3(16차)	2.40	2.92	2.80	2.65	2.69	(1,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1) 1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초등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중등시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등시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등시기에 들어서면 대도시의 아동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V-2-7〉 성별,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지역규모			(수)
		남학생	여학생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초등4(11차)	2.04	2.08	2.01	2.08	2.02	1.99	(1,428)
초등5(12차)	2.13	2.09	2.17	2.15	2.20	2.11	(1,398)
초등6(13차)	2.28	2.24	2.32	2.31	2.26	2.26	(1,357)
중등1(14차)	2.33	2.22	2.44	2.35	2.21	2.36	(1,326)
중등2(15차)	2.67	2.58	2.77	2.72	2.56	2.59	(1,293)
중등3(16차)	2.69	2.61	2.78	2.74	2.52	2.64	(1,253)

주: 1) 아동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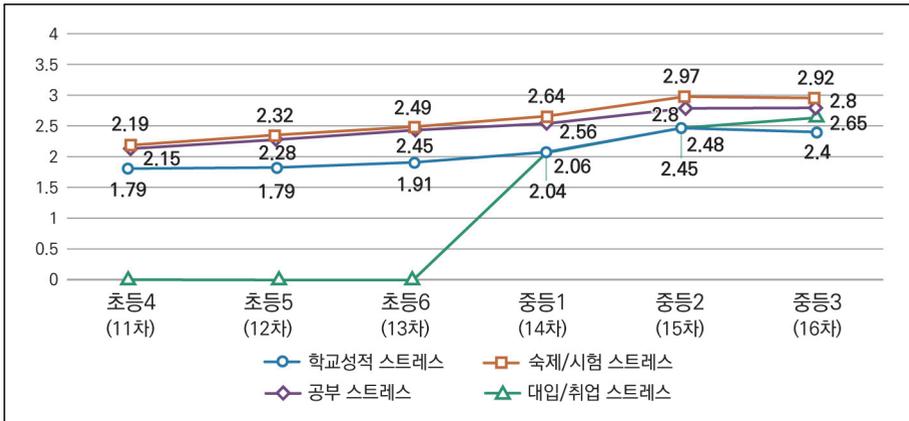
2) 5점 척도임(1.그런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1) 1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5]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단위: 점(5점 척도)



주: 1) 아동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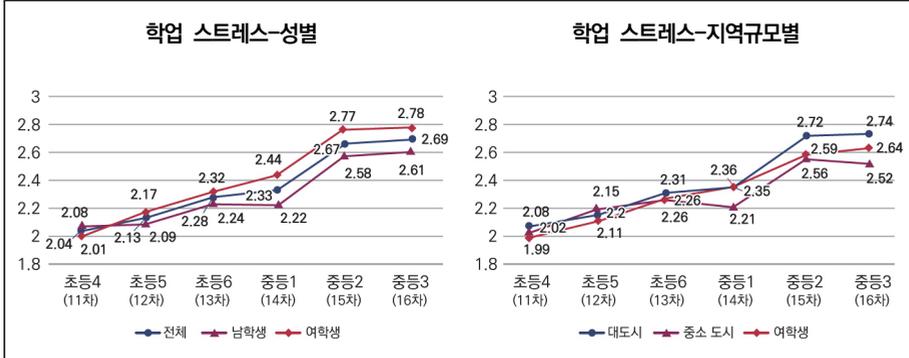
2) 5점 척도임(1.그런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1) 1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6]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6차)

단위: 점(5점 척도)



- 주: 1) 아동의 응답임.
- 2) 5점 척도임(1.그런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1) 1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의 사교육 경험

이하에서는 초등과 중등시기 아동의 학교 수업 이외 교육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는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학원, 가정 내 개인, 그룹지도, 학습지(방문교사)를 비롯해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을 포함한다. 다만 중등 1학년인 14차 조사부터는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되어, 조사범주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의 비중은 초등 1학년부터 초등 5학년까지 줄곧 96~97% 가량으로 나타났으나 초등 6학년 이후부터는 낮아져 90% 내외의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표 V-2-8]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8차~16차)

단위: %, (명)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계(수)
	이용안함	이용함	
초등1(8차)	3.94	96.06	100.0 (1,598)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계(수)
	이용안함	이용함	
초등2(9차)	2.23	97.77	100.0 (1,525)
초등3(10차)	2.29	97.71	100.0 (1,484)
초등4(11차)	2.79	97.21	100.0 (1,434)
초등5(12차)	3.68	96.32	100.0 (1,412)
초등6(13차)	8.73	91.27	100.0 (1,397)
중등1(14차)	9.20	90.80	100.0 (1,348)
중등2(15차)	9.20	90.80	100.0 (1,304)
중등3(16차)	12.19	87.81	100.0 (1,288)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자료: 1)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286-287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어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매체별로 구분해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초, 중등시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초등 1학년 때에는 주당 8.98시간이었으나 초등 4, 5학년에는 약 11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등 2학년 이후부터 1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 6학년 시기의 이용시간은 9.87시간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사시점이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로 시기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 매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학원의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초등 1학년 7시간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중등시기부터는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원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지도와 인터넷 화상강의의 이용시간이 높았다. 특히 중등시기부터는 인터넷 화상강의의 비중이 크게 늘어 중등 2학년부부터는 주 6시간 이상 인터넷 화상강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시기부터 조사한 기타의 EBS 교육방송 이용시간도 중등시기 내내 주 5시간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간에 이어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매체별로 구분해 월평균 이용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용비용 역시 초등시기부터 중등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 1학년 때는 월평

균 28.41만원이었는데 초등 4학년 시기 이후 4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중등시기부터는 50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중등 3학년 때에는 64.8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기관, 매체별로 구분해보면 학원의 이용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초등저학년 시기에는 학원의 이용비용이 월 20만원 대였는데 초등 3학년 이후부터는 30만원대로 높아졌으며 중등 1학년부터는 50만원 가량으로 높아져 중등 3학년 시기에는 60만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학원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지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 초등시기는 20만원 안팎으로 지출하고 중등시기에는 더 높아져 중등 3학년 때에는 4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이용아동(8차~16차)

단위: 시간, 명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기타 전체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EBS 교육방송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초등1(8차)	8.98 (4.75)	1,533	7.00 (3.83)	1,236	3.12 (2.63)	245	1.38 (0.98)	630	2.83 (1.42)	18	3.70 (2.84)	858	3.72 (2.71)	761	3.42 (3.51)	110	3.29 (3.22)	70	-	-
초등2(9차)	11.06 (5.77)	1,491	7.99 (4.38)	1,231	3.57 (3.25)	327	1.34 (1.68)	642	2.51 (2.00)	67	4.02 (3.16)	996	4.08 (2.85)	898	2.73 (2.32)	135	4.33 (5.50)	99	-	-
초등3(10차)	10.63 (5.85)	1,450	7.98 (4.56)	1,198	3.61 (3.21)	357	1.64 (2.47)	537	3.10 (2.50)	142	3.74 (2.98)	760	3.77 (2.74)	650	3.09 (3.18)	140	3.64 (4.41)	101	-	-
초등4(11차)	10.84 (5.67)	1,394	8.41 (4.70)	1,159	3.55 (3.15)	325	1.48 (1.66)	463	2.95 (2.06)	140	3.67 (3.04)	747	3.68 (2.93)	632	3.15 (2.52)	116	4.03 (4.66)	102	-	-
초등5(12차)	10.62 (5.89)	1,360	8.49 (4.73)	1,133	3.90 (3.42)	340	1.50 (2.07)	382	3.28 (2.71)	153	3.50 (3.05)	617	3.33 (2.64)	516	3.44 (3.48)	115	4.98 (5.60)	63	-	-
초등6(13차)	9.87 (5.54)	1,275	8.71 (4.82)	1,057	4.10 (3.32)	305	1.38 (1.40)	302	4.45 (3.61)	176	3.97 (4.12)	214	3.49 (3.60)	129	3.96 (4.14)	67	5.53 (5.17)	37	-	-
중등1(14차)	11.81 (5.86)	1,223	10.44 (5.07)	1,037	4.83 (3.51)	275	2.68 (3.62)	145	5.69 (5.22)	189	4.77 (4.62)	174	4.95 (5.11)	87	-	-	6.23 (6.06)	39	4.60 (3.85)	67
중등2(15차)	12.12 (6.18)	1,184	10.74 (5.55)	1,024	4.84 (3.73)	273	2.90 (3.89)	68	6.15 (5.31)	191	4.73 (4.49)	140	3.91 (3.41)	62	-	-	6.42 (6.60)	24	4.99 (4.22)	58
중등3(16차)	12.66 (6.62)	1,142	11.51 (6.08)	988	5.32 (4.08)	229	1.74 (1.68)	34	6.56 (5.69)	187	5.03 (4.80)	116	4.55 (3.74)	61	-	-	7.20 (5.92)	15	5.64 (5.50)	51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288-289 /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2-10〉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 이용아동(8차~16차)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학원		가정내 개인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기타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기타 전체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EBS 교육방송					
초등1(8차)	28.41 (18.22)	1,516	21.67 (14.73)	1,237	15.71 (12.22)	245	9.55 (5.80)	633	8.54 (4.36)	18	7.10 (4.73)	797	7.10 (4.73)	706	8.86 (8.10)	103	4.97 (4.91)	59	-	-
초등2(9차)	34.52 (21.87)	1,486	25.23 (17.21)	1,230	16.83 (13.40)	326	10.06 (6.39)	642	7.77 (5.68)	67	7.92 (6.38)	985	7.25 (5.49)	889	7.38 (7.34)	134	4.00 (3.59)	93	-	-
초등3(10차)	38.89 (26.53)	1,430	30.68 (24.24)	1,195	18.04 (13.50)	337	10.83 (6.78)	537	8.94 (4.71)	125	8.68 (10.03)	684	7.27 (5.22)	587	9.55 (18.46)	126	5.66 (8.50)	82	-	-
초등4(11차)	40.74 (25.52)	1,371	33.07 (21.90)	1,157	19.48 (18.16)	300	11.14 (7.35)	461	9.38 (5.72)	129	8.12 (10.66)	665	6.71 (5.24)	565	11.37 (21.82)	103	6.25 (9.26)	70	-	-
초등5(12차)	43.68 (27.90)	1,334	36.83 (25.10)	1,128	21.52 (17.26)	319	11.00 (7.25)	379	9.60 (5.23)	133	8.32 (8.81)	531	6.91 (5.73)	445	11.10 (14.40)	96	7.53 (12.09)	37	-	-
초등6(13차)	44.39 (27.02)	1,252	39.34 (24.61)	1,054	26.59 (19.49)	284	10.41 (6.85)	302	11.30 (6.71)	151	10.24 (14.10)	158	6.20 (4.16)	97	17.53 (21.67)	53	4.83 (4.51)	18	-	-
중등1(14차)	55.30 (30.67)	1,192	49.68 (26.61)	1,036	35.98 (27.58)	266	11.63 (10.00)	142	13.89 (13.35)	170	12.67 (20.44)	69	13.31 (22.45)	39	-	-	12.95 (20.65)	22	7.13 (4.27)	16
중등2(15차)	58.55 (35.61)	1,184	53.61 (29.80)	1,024	38.19 (29.43)	273	11.74 (10.89)	68	13.41 (12.64)	191	4.57 (7.80)	140	5.02 (8.02)	62	-	-	6.42 (8.07)	24	3.95 (7.94)	58
중등3(16차)	64.87 (44.76)	1,142	60.66 (33.30)	988	45.85 (49.31)	229	9.71 (6.06)	34	14.39 (20.57)	187	5.47 (15.33)	116	4.23 (7.19)	61	-	-	2.80 (3.71)	15	8.12 (21.89)	51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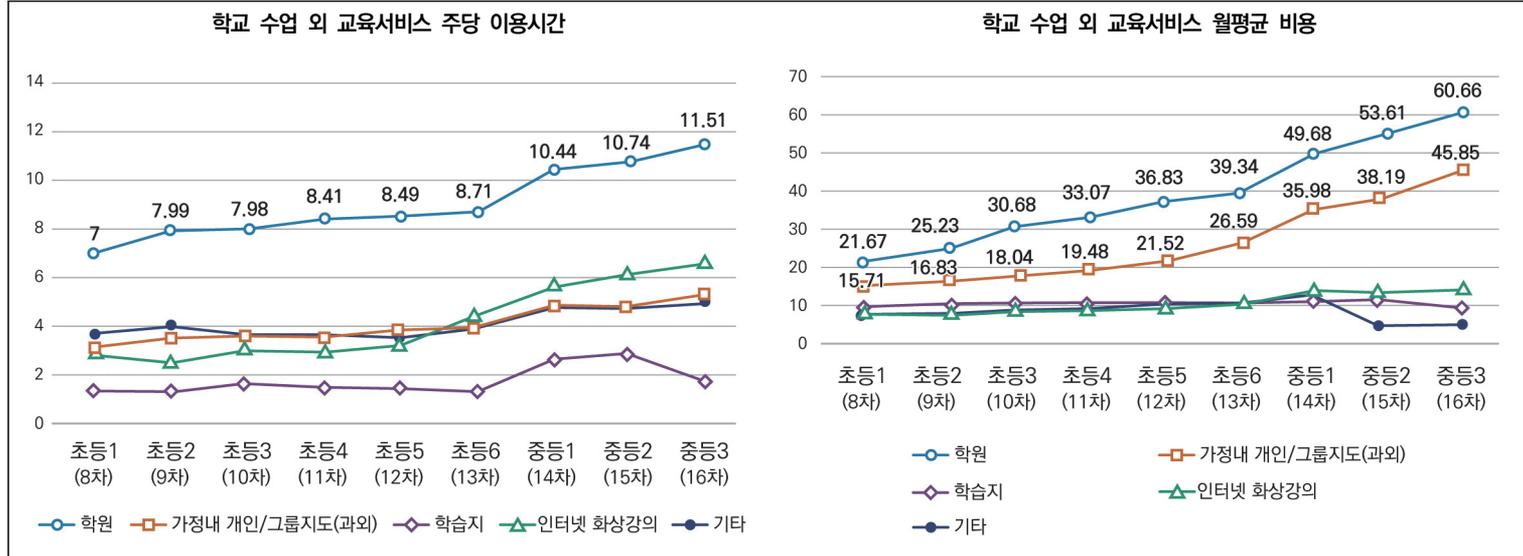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91 /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V.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그림 V-2-7]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이용아동(8차~16차)

단위: 시간, 만원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288-289, 291 /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의 진로

이어 아동의 진로와 진로성숙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초등 6학년 때부터 아동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초등 6학년 때 2.02점에서 점차 증가해 중등 3학년 때 2.12점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6학년부터 중등시기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 6학년부터 중등시기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사춘기라는 시기적 특성의 영향 또는 아동의 학년수가 높아질수록 진로탐색 및 결정에 대한 현실감과 압박감이 커져 부정적 답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해서는 고등시기까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해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아동패널조사의 진로성숙도 문항은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등 진로의 구체성, 부모님과의 의견조율 정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11〉 진로성숙도(13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진로성숙도		수
	평균	표준편차	
초등6(13차)	2.02	0.54	(1,359)
중등1(14차)	2.06	0.54	(1,328)
중등2(15차)	2.08	0.51	(1,294)
중등3(16차)	2.12	0.55	(1,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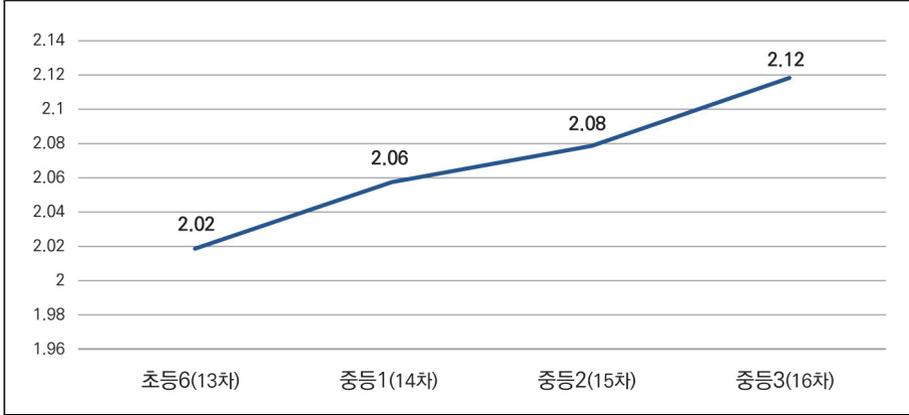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8] 진로성숙도

단위: 점



- 주: 1) 아동의 응답임.
-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3)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1) 아동의 자아존중감·행복감·삶의 만족도

아동의 정서와 관련해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4학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 중등시기 동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등 5학년부터 중등 2학년 까지 조사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 1학년 3.44점, 초등 4학년 3.49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초등 6학년 때에는 3.32점, 중등 3학년 때에는 3.17점까지 낮아졌다. 전반적 행복감 역시 초등 1학년 때와 초등 4학년 시기는 3.25점으로 동일하나 초등 6학년 때에는 3점 미만으로 떨어져 중등 3학년 때에는 2.82점까지 낮아졌다. 삶의 만족도는 초등 4학년 3.52점에서 조금씩 낮아져 중등 2학년 때에는 2.96점으로 3점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표 V-2-12〉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8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8차)	3.44	0.50	3.25	0.48	-	-	(1,560)
초등2(9차)	3.46	0.44	3.33	0.44	-	-	(1,496)
초등3(10차)	3.47	0.44	3.32	0.45	-	-	(1,480)
초등4(11차)	3.49	0.46	3.31	0.46	3.52	0.49	(1,428)
초등5(12차)	-	-	3.25	0.44	3.33	0.52	(1,398)
초등6(13차)	3.32	0.56	2.96	0.48	3.13	0.54	(1,359)
중등1(14차)	3.19	0.53	2.93	0.45	3.00	0.54	(1,328)
중등2(15차)	3.13	0.54	2.84	0.48	2.96	0.41	(1,294)
중등3(16차)	3.17	0.56	2.82	0.45	-	-	(1,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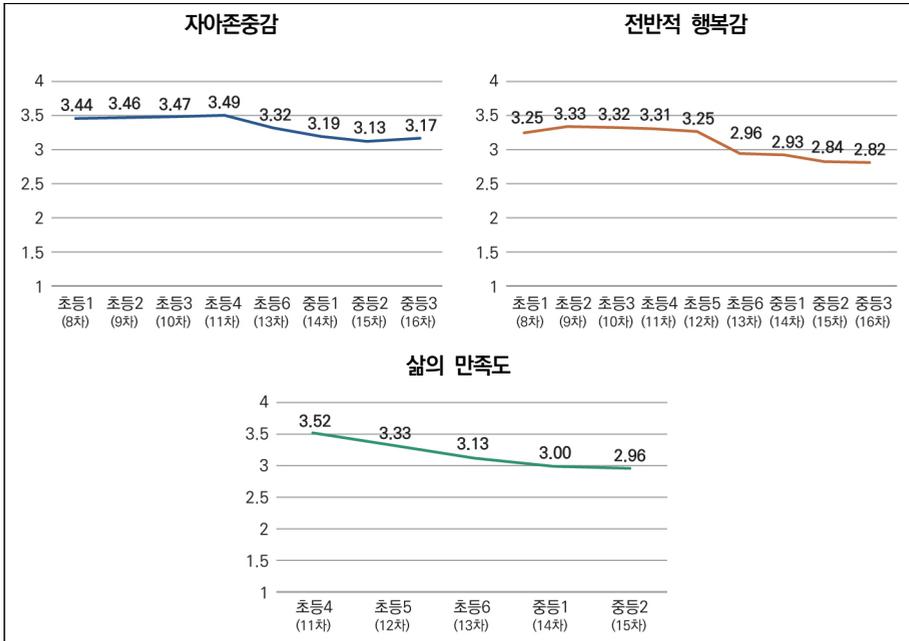
4) 삶의 만족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72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9〉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8차~16차)

단위: 점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4) 삶의 만족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72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의 사회성

아동의 학교적응은 중학교 시기 척도를 교체해 조사하였다. 변경된 척도로 분석된 중등시기의 학교적응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영역별 점수 차이와 경향의 차이가 발견된다.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 점수는 증가한다. 한편, 학교친구와 학교생활의 점수는 다소 낮아지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교교사와 학교공부의 증감패턴은 반대로 나타나서 중등 1학년 시기에는 학교공부의 적응점수가 학교교사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중등 3학년 시기에는 학교공부의 적응점수가 학교교사에 대한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 영역별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학교친구 점수이며, 이어 학교생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공부와 학교교사의 점수는 학교친구와 생활 점수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았다.

〈표 V-2-13〉 학교적응-중등(14차-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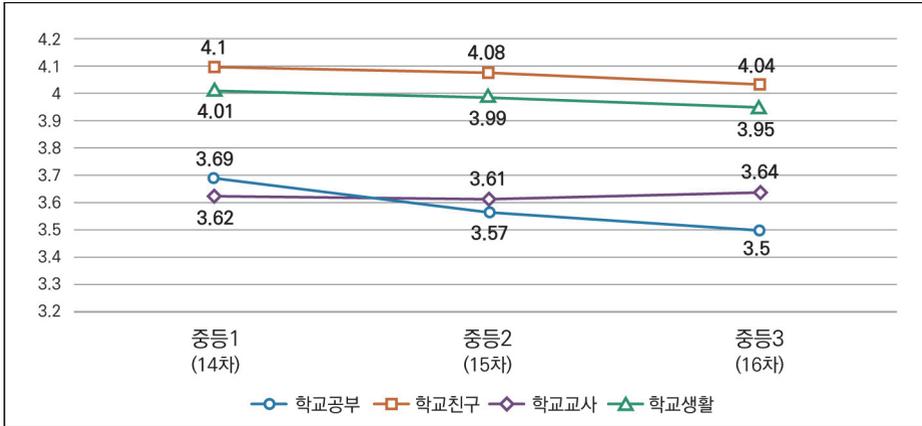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등1(14차)	3.69	0.64	4.10	0.61	3.62	0.73	4.01	0.59	(1,328)
중등2(15차)	3.57	0.66	4.08	0.64	3.61	0.74	3.99	0.59	(1,294)
중등3(16차)	3.50	0.67	4.04	0.64	3.64	0.72	3.95	0.62	(1,258)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0] 아동의 학교적응-중등(14차~16차)

단위: 점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자료: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아동의 공감은 중등 1학년부턴 조사된 것으로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해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공감 점수는 중등시기 동안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 점수는 중등 1학년 때부터 중등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인지적 공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에는 높아졌다가 3학년 때에는 다시 낮아져 중학교 1학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역별 점수를 보면 인지적 공감 점수에 비해 표현적, 정서적 공감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표 V-2-14> 아동의 공감(14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등1(14차)	4.20	0.92	4.32	0.92	4.17	0.99	(1,328)
중등2(15차)	4.10	0.91	4.44	0.96	4.17	1.05	(1,294)
중등3(16차)	3.96	0.88	4.29	0.92	4.00	1.00	(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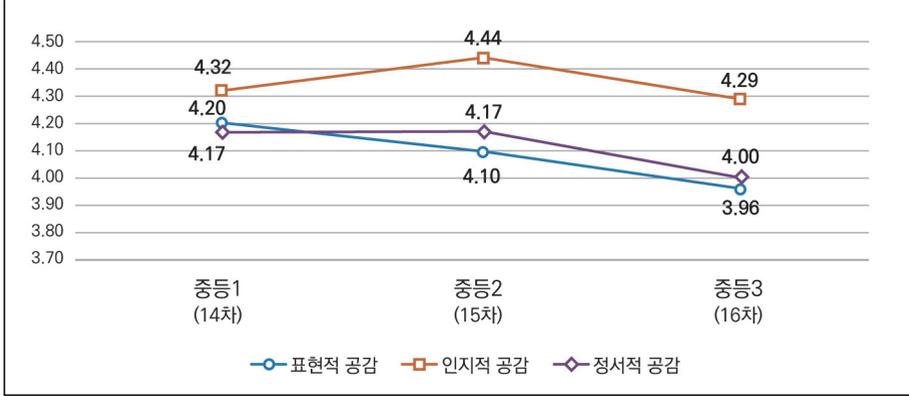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6. 항상 그렇다).

자료: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1] 아동의 공감(14차~16차)

단위: 점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6. 항상 그렇다).
 자료: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라. 부모님

1) 부모님의 경제활동

패널아동 부모님의 취/학업 상태를 아동연령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살펴본다. 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95% 이상 취/학업 상태로 큰 변화가 없으나 모의 경우는 아동연령 증가에 따라 취/학업 상태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아동연령 0세시기 모의 취/학업 상태는 30.1%였으나 아동연령 15세에는 71.2%로 두 배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모의 취/학업상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때에만 전해에 비해 낮아진 것도 목격된다.

<표 V-2-15> 부모의 취/학업 상태(1차~16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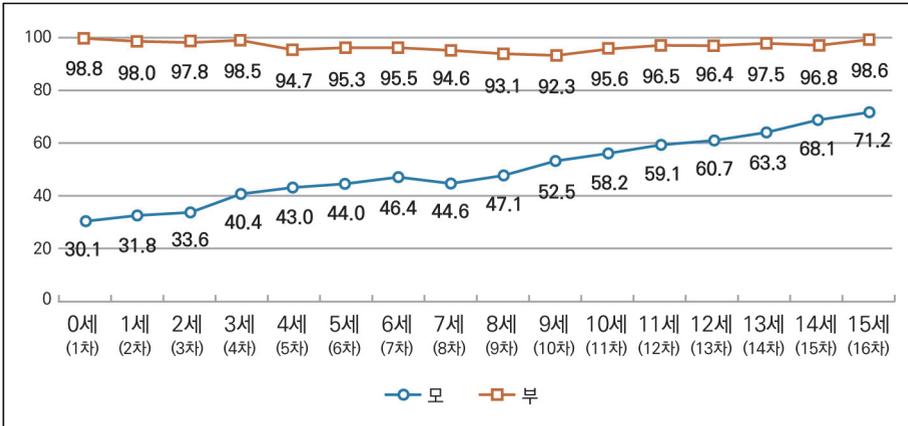
구분	부			모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수
0세(1차)	98.8	1.2	(2,010)	30.1	69.9	(2,078)
1세(2차)	98.0	1.7	(1,892)	31.8	68.2	(1,887)
2세(3차)	97.8	2.2	(1,788)	33.6	66.4	(1,801)
3세(4차)	98.5	1.5	(1,740)	40.4	59.6	(1,741)
4세(5차)	94.7	5.3	(1,616)	43.0	57.0	(1,683)
5세(6차)	95.3	4.7	(1,540)	44.0	56.0	(1,638)

구분	부			모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수
6세(7차)	95.5	4.5	(1,483)	46.4	53.6	(1,587)
7세(8차)	94.6	5.4	(1,469)	44.6	55.4	(1,568)
8세(9차)	93.1	6.9	(1,371)	47.1	52.9	(1,492)
9세(10차)	92.3	7.7	(1,304)	52.5	47.5	(1,442)
10세(11차)	95.6	4.4	(1,333)	58.2	41.8	(1,391)
11세(12차)	96.5	3.5	(1,244)	59.1	40.9	(1,365)
12세(13차)	96.4	3.6	(1,232)	60.7	39.3	(1,365)
13세(14차)	97.5	2.5	(1,164)	63.3	36.7	(1,320)
14세(15차)	96.8	3.2	(1,167)	68.1	31.9	(1,279)
15세(16차)	98.6	1.4	(1,106)	71.2	28.8	(1,198)

자료: 1) 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5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2] 부모의 취업상태(1차~16차)

단위: %



자료: 1) 1-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55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러한 아동 부모 각각의 일-가정 양립 인식에 대해 아동의 초·중·고 시기와 중등 시기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일-가정 양립 인식은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일-가정 갈등, 일-양육 갈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점은 증가하고 갈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우선 일-가정 양립의 이점에서 모 응답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낮다가 초등 고학년 때 높아지고 중등시기에는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초등 저학년 시기 모가 부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 시기부터는

비슷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일-양육 양립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점수와 달리 부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일-양육 양립의 이점은 부가 모에 비해 높고, 갈등 점수는 부가 모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양립하는 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양육 양립 인식에 있어 부, 모의 점수 차이는 명확히 나타나지만 부, 모 점수의 변화 경향은 비슷한 것도 발견된다. 즉,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일-양육 양립의 이점은 증가하고 갈등은 감소한다. 이외에도 일-양육 양립 이점은 초등 저학년과 중등 1학년 시기에 낮고 일-양육 양립의 갈등도 중등 1학년 시기 다소 낮은 것(모)도 발견된다.

〈표 V-2-1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수
	부		모		부		모		
	이점	갈등	이점	갈등	이점	갈등	이점	갈등	
초등1(8차)	3.76	2.48	3.71	2.73	3.75	2.27	3.48	2.82	(1,389)
초등2(9차)	3.78	2.48	3.72	2.61	3.83	2.18	3.49	2.71	(1,364)
초등3(10차)	3.73	2.37	3.77	2.44	3.90	2.17	3.59	2.60	(1,300)
초등4(11차)	3.80	2.34	3.79	2.36	3.89	2.15	3.65	2.52	(1,333)
초등5(12차)	3.90	2.24	3.81	2.28	3.96	2.07	3.62	2.41	(1,244)
초등6(13차)	3.81	2.21	3.80	2.24	3.89	2.03	3.62	2.40	(1,232)
중등1(14차)	3.75	2.28	3.76	2.20	3.84	2.10	3.59	2.32	(1,137)
중등2(15차)	3.89	2.15	3.79	2.17	3.95	1.98	3.65	2.20	(1,130)
중등3(16차)	3.90	2.13	3.75	2.15	3.89	1.95	3.64	2.15	(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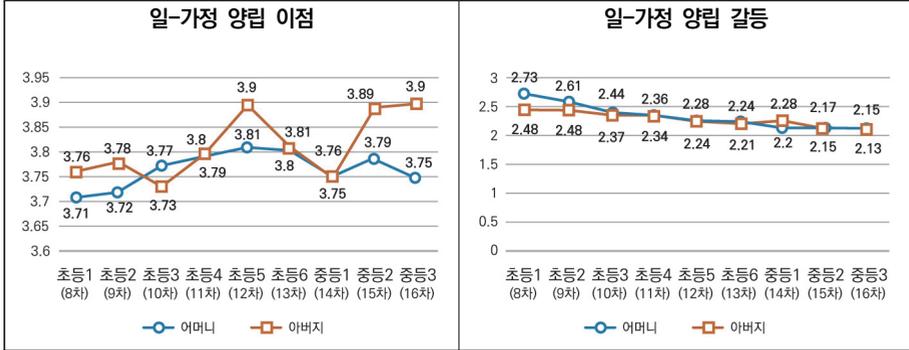
주: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0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3] 부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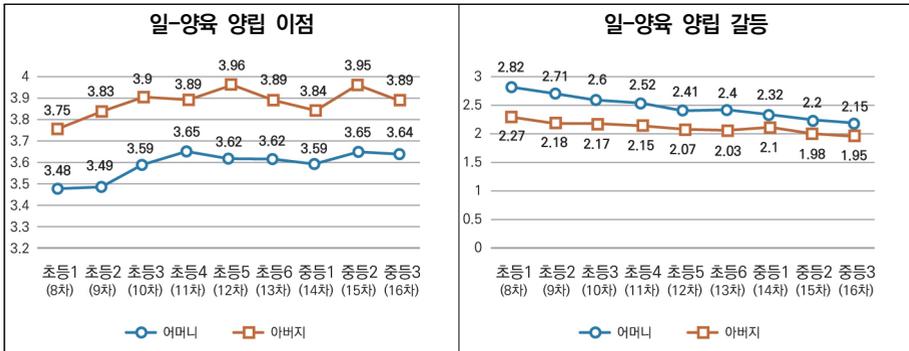
단위: 점



주: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0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4] 부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8차~16차)

단위: 점



주: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80
 2) 14-16차: 한국아동패널 14-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부모님의 양육 특성

부모님의 양육 특성에 관해 부모 감독과 성취압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 감독은 보호자가 응답하는 문항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어른 부재 시 무엇을 하며, 연락을 취하는지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다. 부모 감독의 점수는 초·중등시기 전반에 걸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등 3학년의 부모 감독 점수는 3.51점으로 그 전 시기 4점을 크게 상회한 것에 비해 명확하게 낮아

졌다.

성취압력은 아동이 응답하는 문항으로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조사한다. 성취압력은 초등 4학년 때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분석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은 초등 4학년 시기에 비해 초등 5, 6학년 때에는 낮아지다가 중등시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7〉 부모 감독 및 성취압력(8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부모 감독			성취압력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8차)	4.86	0.32	(1,413)	-	-	-
초등2(9차)	4.83	0.36	(1,439)	-	-	-
초등3(10차)	4.77	0.62	(1,484)	-	-	-
초등4(11차)	4.66	0.45	(1,434)	2.41	0.69	(1,428)
초등5(12차)	4.66	0.55	(1,412)	2.31	0.66	(1,398)
초등6(13차)	4.62	0.51	(1,397)	2.31	0.77	(1,359)
중등1(14차)	4.55	0.78	(1,348)	2.35	0.81	(1,328)
중등2(15차)	4.48	0.65	(1,304)	2.37	0.84	(1,294)
중등3(16차)	3.51	0.45	(1,288)	2.40	0.83	(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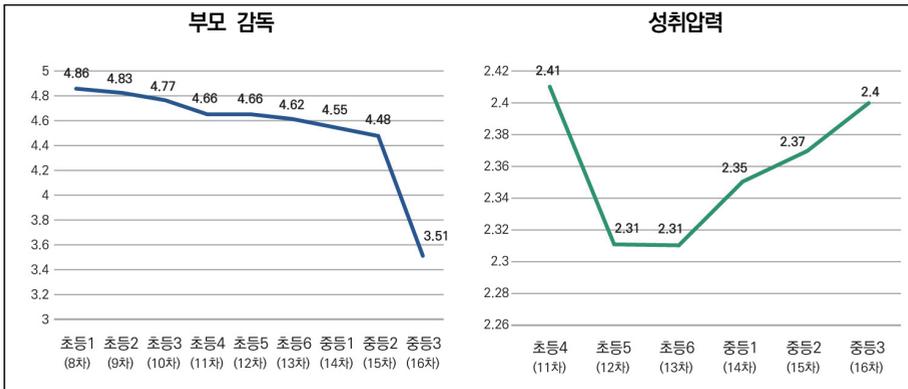
주: 1) 부모 감독: 5점 척도, 보호자응답임.

2) 성취압력: 5점 척도, 아동응답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6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5〉 부모 감독 및 부모 성취압력(8차~16차)

단위: 점



주: 1) 부모 감독: 5점 척도, 보호자응답

2) 성취압력: 5점 척도, 아동응답

자료: 한국아동패널 8-16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마. 아동의 신체발달

1) 아동의 체중·신장

한국아동패널은 신체측정을 통해 패널아동의 체중과 신장을 조사한다. 여기서는 0세부터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이 0세 때의 몸무게는 남녀 각각 3.31kg, 3.20kg이었으나 6세부터 20kg이상이 되었으며 9세 부터는 30kg이상이 되었다. 10대부터는 남녀의 차이가 커져 12세 때의 몸무게는 남학생은 52.22kg, 여학생은 47.72kg으로 5kg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에는 남학생은 65.39kg, 여학생은 54.12kg으로 남학생이 10kg 가량 여학생에 비해 체중이 컸다.

아동의 신장은 0세 때 남녀 각각 50.59cm, 49.79cm이었으며 4세부터 100cm 이상으로 커졌다. 초등 3학년 때인 9세부터 130cm이상이 되었으며 초등 6학년 시기인 12세에는 155cm가량까지 커졌다. 중등시기부터는 남녀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중등 1학년 시기인 13세 때 남학생은 164.15cm, 여학생은 158.99cm로 측정되었으며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 때에는 남학생이 172.55cm, 여학생은 162.15cm로 측정되었다.

〈표 V-2-18〉 아동의 체중·신장(1차~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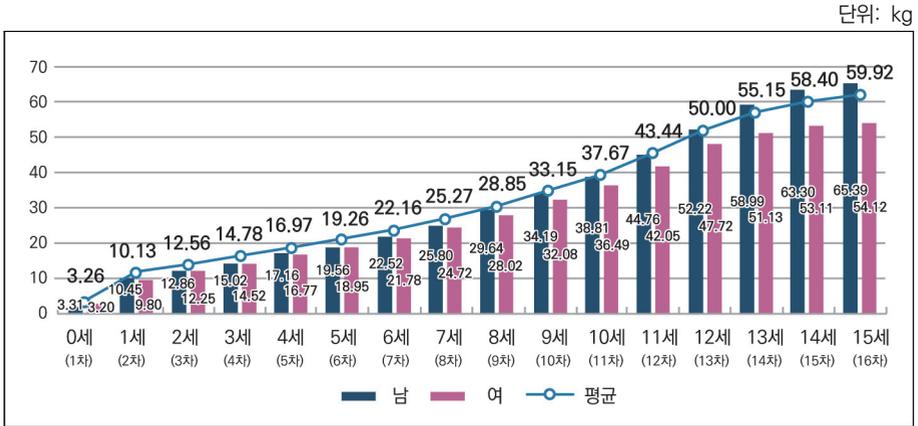
단위: kg, cm, (명)

구분	체중				신장				(수)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3.31	0.41	3.20	0.40	50.59	2.35	49.79	2.74	(1,018)
1세(2차)	10.45	1.09	9.80	1.03	77.91	4.09	76.71	3.98	(851)
2세(3차)	12.86	1.44	12.25	1.37	89.31	4.11	88.06	3.89	(854)
3세(4차)	15.02	1.67	14.52	1.66	97.43	3.82	96.27	3.56	(852)
4세(5차)	17.16	2.09	16.77	2.14	104.20	4.19	103.37	3.93	(833)
5세(6차)	19.56	2.67	18.95	2.63	110.68	4.55	109.66	4.31	(802)
6세(7차)	22.52	3.65	21.78	3.49	117.53	4.70	116.70	4.62	(756)
7세(8차)	25.80	4.64	24.72	4.34	124.08	5.02	122.81	4.98	(759)
8세(9차)	29.64	5.88	28.02	5.36	129.93	5.27	128.62	5.19	(726)
9세(10차)	34.19	7.38	32.08	6.64	135.87	5.58	134.75	5.68	(724)
10세(11차)	38.81	8.68	36.49	8.01	141.18	6.24	140.99	6.44	(696)

구분	체중				신장				(수)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세(12차)	44.76	10.05	42.05	8.55	148.10	6.70	148.67	6.43	(666)
12세(13차)	52.22	11.34	47.72	8.87	155.93	7.36	154.89	5.88	(653)
13세(14차)	58.99	12.90	51.13	9.15	164.15	7.16	158.99	5.37	(638)
14세(15차)	63.20	13.57	53.11	9.23	169.39	6.41	161.14	5.22	(608)
15세(16차)	65.39	12.96	54.12	8.96	172.55	5.99	162.15	5.06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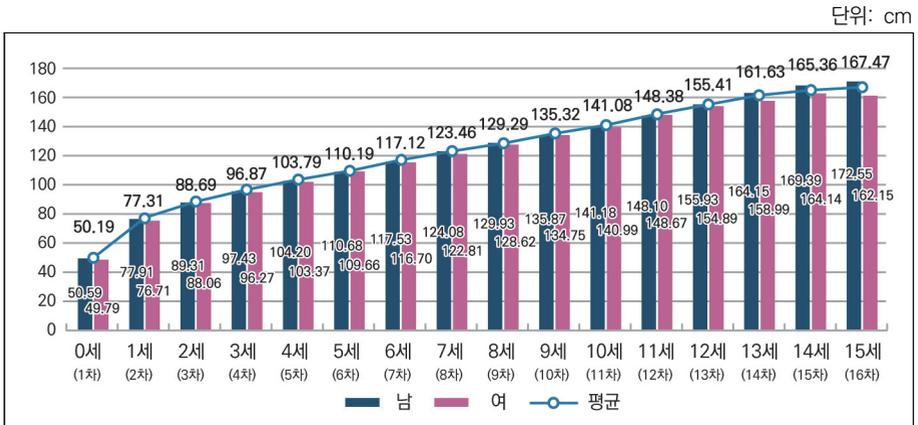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패널 1-16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6] 아동의 체중(1차~16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6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7] 아동의 신장(1차~16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6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이제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4점 척도로 조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결과 조사가 시작된 초등 5학년 이후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초등 5학년 때에는 3.08점이나 중등 3학년 때는 2.64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시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신체적 자아상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19〉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5(12차)	3.08	0.54	3.12	0.52	3.03	0.55	(1,398)
초등6(13차)	2.86	0.55	2.96	0.54	2.75	0.55	(1,359)
중등1(14차)	2.76	0.52	2.87	0.50	2.65	0.52	(1,328)
중등2(15차)	2.68	0.52	2.79	0.50	2.57	0.51	(1,294)
중등3(16차)	2.64	0.54	2.73	0.51	2.55	0.55	(1,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신체적 자아상: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짐.
자료: 12-16차: 한국아동패널 12-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은 아동에게 본인의 체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5점 척도 ‘1.매우 마른 편, 2.약간 마른 편, 3.보통, 4.약간 비만, 5.매우 비만’으로 응답하며 초등 6학년 시기부터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은 높아졌으나 남학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여학생은 중등 1학년 3.16점에서 중등 3학년 3.24점으로 높아졌으나 남학생은 초등 6학년 3.17점에서 중등 3학년이 되면 2.98점으로 낮아졌다.

〈표 V-2-20〉 아동의 체형에 대한 인식(13차~16차)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6(13차)	3.17	0.91	3.17	0.97	3.17	0.85	(1,359)
중등1(14차)	3.13	0.89	3.10	0.98	3.16	0.79	(1,328)
중등2(15차)	3.10	0.94	3.00	1.06	3.21	0.78	(1,294)
중등3(16차)	3.11	0.90	2.98	1.02	3.24	0.74	(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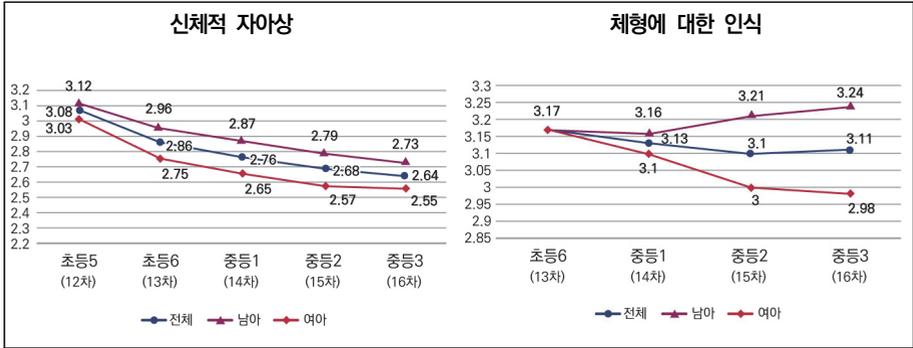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체형에 대한 인식: 5점 척도임(1.매우 마른 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8〉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및 체형에 대한 인식(12차~16차)

단위: 점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신체적 자아상: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체형에 대한 인식: 5점 척도임(1.매우 마른 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어 최근 1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른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초등 6학년 때부터 중등시기에 걸쳐 조사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체중감량 경험 비중이 높았으며 여학생의 체중감량의 경험 비중은 6학년 시기부터 중등시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체중증량 경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21〉 아동의 체중조절 경험(13차~16차)

단위: %, (명)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초등6(13차)	남	26.42	23.08	16.69	33.82	(689)
	여	38.77	27.40	6.14	27.69	(668)

V.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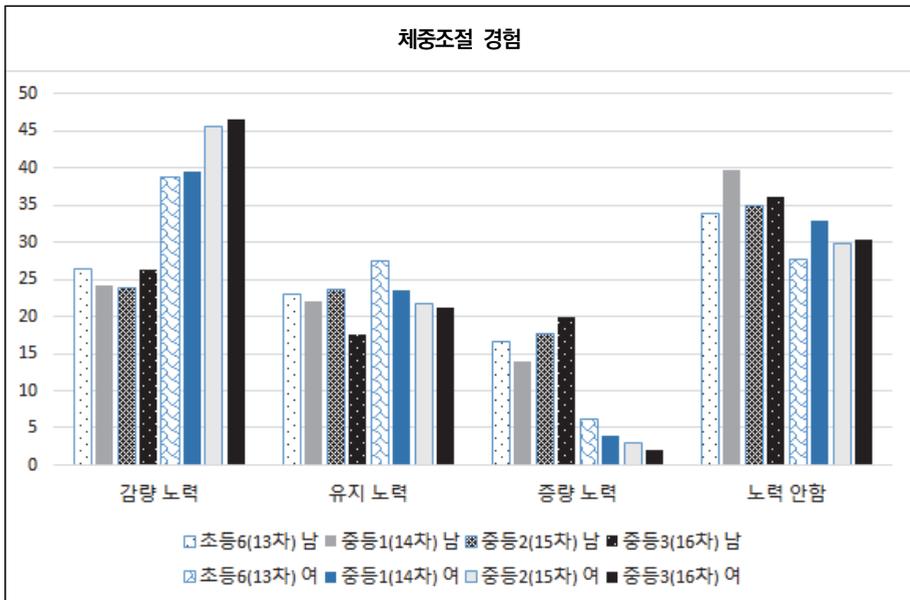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중등1(14차)	남	24.22	22.01	14.03	39.73	(677)
	여	39.60	23.57	3.85	32.97	(649)
중등2(15차)	남	23.80	23.64	17.62	34.94	(664)
	여	45.47	21.62	3.02	29.89	(629)
중등3(16차)	남	26.37	17.63	19.97	36.04	(641)
	여	46.57	21.08	1.96	30.39	(612)

주: 아동의 응답임.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9] 아동의 체중조절 경험(13차~16차)

단위: %



주: 아동의 응답임.

자료: 13-16차: 한국아동패널 13-1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소결

2023년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료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 장에서는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을 주제로 일상생활, 학업 및 진로, 정서·사회성, 부모님, 신체발달의 5개 영역별로 주요 변인을 선정하여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의 소결로서 영역별로 분석된 변인과 주요결과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생활시간과 미디어 이용, 독서량, 운동량의 변인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생활시간 분석결과 수면시간은 줄고 학습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책 읽는 시간과 놀이, 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TV시청 시간은 증가하였다. 초등시기는 보호자가 응답하고 중등시기에는 아동이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분석결과, 초등시기 아동의 미디어 시간은 1~3시간 정도인데 비해 중등시기에는 6시간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진단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초등 3학년부터 중등시기까지 분석한 결과, 초등시기까지는 일반 사용자군이 줄어들고 고위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중등시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감소하고 일반 사용자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초·중등시기의 패턴이 달리 나타났다. 주평균 독서량은 초등시기 뚜렷하게 감소하며 중등시기에는 줄어든 독서량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운동량은 초등 중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변화가 크진 않다. 단, 팬데믹이던 2020년 초6시기에는 운동량 점수가 확연히 낮게 분석되었다.

둘째, 학업진로와 관련해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 진로성숙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초등 4학년부터 중등시기의 학업 스트레스 분석결과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중등 이후부터는 집단별 차이도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도시의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초등 1학년 주당 8.98시간에서 초등 4, 5학년에는 약 11시간, 중등 2학년 이후에는 1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학원의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등시기부터는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지도와 인터넷 화상강의의 이용시간이 높았다. 특히 중등 이후에는 인터넷 화상강의가 주 6시간 이상, EBS 교육방송도 주 5시간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비용은 초등 1학년 월평균 28.41만원, 초등 4학년 시기 이후 40만원 이상, 중등시기부터는 50만원을 상회해 중등 3학년 때에는 64.87만원으로 초등시기부터 중등시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 6학년 때부터 아동이 응답한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춘기라는 시기적 특성의 영향, 진로탐색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답변이 높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아동의 정서, 사회성과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공감 변인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4학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이후부터 중등시기 동안은 낮아졌으며, 초등 5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조사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졌다. 중등시기 학교적응과 관련해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학교공부 적응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학교교사 적응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친구와 학교생활의 점수는 다소 낮아지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적응의 영역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학교친구였으며, 이어 학교생활로 나타났다. 학교공부와 학교교사의 점수는 큰 폭으로 낮았다. 공감 점수는 중등시기 동안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영역별로는 인지적 공감 점수에 비해 표현적, 정서적 공감의 점수가 낮았다.

넷째, 아동의 부모님과 관련하여 부모의 취/학업상태, 일-가정 양립/일-양육 양립의 이점과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특성으로 부모 감독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모님의 취/학업 상태를 신생아시기부터 중3시기까지 분석한 결과, 부는 지속적으로 95% 이상 취/학업 상태의 비중을 보였으나 모는 아동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아동연령 0세 때 모의 취/학업 상태는 30.1%였으나 아동연령 15세에는 두 배 이상(71.2%)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모의 취/학업상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나 아동의 초1 입학시기에는 전해에 비해 낮아지는 특성도 목격되었다. 패널아동 부모 각각의 일-가정 및 일-육아 양립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점은 증가하고 갈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일-양육 양립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점수와 달리 부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일-양육

양립의 이점은 부가 모에 비해 높고 갈등은 부가 모에 비해 낮아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양립에 있어 모가 부에 비해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어 부모의 양육 특성으로 부모 감독과 성취압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 감독의 점수는 초·중등시기 전반에 걸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중학년 시기이후는 그 전 시기에 비해 낮아졌다.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은 초등 4학년 시기에 비해 초등 5, 6학년 때에는 낮아지다가 중등시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신체발달과 관련해 조사 초기부터의 체중과 신장 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중등시기부터 아동 대상으로 조사한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의 0세 때의 몸무게는 남녀 각각 3.31kg, 3.20kg이었으나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에는 남학생은 65.39kg, 여학생은 54.12kg으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신장은 0세 때 남녀 각각 50.59cm, 49.59cm에서 중등 3학년 시기인 15세 때에는 남녀 각각 172.55cm, 162.15cm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분석결과 초등 5학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1.매우 마른편~5.매우 비만), 여학생의 점수는 높아지고 남학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체중조절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여학생의 체중감량 경험 비중은 초등 6학년부터 중등시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체중증량 경험 비중이 높았다.



참고문헌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Elder Jr, G. H. (1998a).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Elder, G. H., Jr. (1998b).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 Kroenke K, Spitzer RL, & Williams J. B.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 권선중·엄나래(2016).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개편 최종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편), 2016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pp. 253-281). 한국정보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김이선·최윤정·정연주·장희영·이명진·양계민(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배운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운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도남희·배운진·김혜진·강규돈·장현진(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란·최인희·주재선·정가원·김소영·배호중·박미진·권도연·최진희·이지성(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양정선·장미(2020). 2020년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 출처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정책 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n=704893 (인출일: 2024.6.11.).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 보도·설명·반박, 보도자료, 사교육 경감대책,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undefined> (인출일: 2024.12.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정보장수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377725 (인출일: 2024.11.28)



2024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Mira Cho · Hyo Mi Choi · Dong Hoon Kim · Hyejin Kim · Min-gwon Kang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the first long-term longitudinal study in Korea that began with newborns.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08 for children born in 2008, and the survey is planned to continue until 2027, when the children enter adulthood. In 2024, the 17th year of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surve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families, care and childcare (infancy), and school and private education (childhood) that affec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The survey targets children, primary caregivers, children's parents, teachers at childcare support centers (infancy), and homeroom teachers at schools (childhood), and has accumulated multi-layered survey data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children and the systems surrounding them.

As of April 2024, a total of 1,418 research reports, seminars, and theses have been published using the data from the PSKC, of which 1,018 are academic theses, making up the largest proportion. Looking at the use of academic papers, there are 633 cross-sectional studies and 385 longitudinal studies.

In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four parts.

First, the 17th PSKC was conducted. In 2024, the panel children and their households who will be entering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were surveyed, as well as the children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nd the

parents were surveyed, and the children's homeroom teachers were surveyed. In addition, 2024 is the year in which the fifth in-depth survey is planned. We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n the theme of “youth's family and multicultural awareness.”

Second, we conducted an analysis using the 16th PSKC data and conducted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st to the 16th survey. In other words,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basic analysis focusing on the major variables in the areas of children, parents,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policies using the 16th survey data, and conducted a longitudinal analysis of basic and interest variables using data from the 1st to the 16th survey.

Third, the 15th PSKC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to release the 15th survey data. The 15th survey data, which was conducted in 2022, wa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of the academic conference first and then released to the public after the conference. In particular, in 2024, a data briefing session was held prior to the academic conference to improve data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Fourth, we managed data from the 1st to 15th waves and worked on user convenience. In other words, we updated and continuously checked and managed data from the 1st to 15th waves, questionnaires, profiles, variable maps, and user manuals.

Keyword: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부록

부록 1. 17차년도(2024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83 Email. kicceirb@kicce.re.kr

심 의 일 자	2024. 06. 24.
과 제 번 호	220996-240624-HR-006
연 구 제 목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중단 연구 2024(한국아동패널II)
연 구 책 임 자	조 미 라
연 구 승 인 일	2024. 07. 12.
연 구 승 인 기 간	2024. 07. 12. ~ 2024. 12. 31.
연 구 승 인 번 호	KICCEIRB-2024-제08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장



부록 2.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동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3 (아동용)

Gallup
2023-211-019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평소의 생활과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생활 진단_식품]

J01-1) 최근 1주일 동안 아래의 음식 또는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문 항 내 용	최근 1주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1)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채소(생채소, 나물류 등) *단, 김치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과일(과일주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과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푸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생활 진단_음료]

J01-2) 최근 1주일 동안 아래의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문 항 내 용	최근 1주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1) 콜라, 사이다 등을 포함한 탄산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커피와 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과일주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유나 유제품(요거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물(탄산수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생활 진단_기타]

J01-3)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1)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①	②	③
2)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3)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음주경험 여부]

J01-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 ① 술을 마셔본 적 없다 → J01-5)로
- ② 있다 → J01-4-1)로

[음주시작 시기]

J01-4-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입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학교급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초등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중학교	⑦ 1학년	⑧ 2학년	⑨ 3학년			

[음주 횟수]

J01-4-2)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J01-5)로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J01-4-3)으로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J01-4-3)으로
- ④ 한 달에 2-4번 → J01-4-3)으로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J01-4-3)으로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 J01-4-3)으로

a. J01-4-1=9일 경우, '①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선택 불가

[담배 입수 경로]

J01-5-3) 최근 한 달 동안, 본인이 피운 담배는 주로 어떻게 구했습니까?

- ① 집, 친구 집에서 있는 담배를 피웠다
- ②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웠다
- ③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서 피웠다
- ④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피웠다
- ⑤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서 피웠다

[담배 구입 경험]

J01-5-4)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 ①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 ②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 ③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④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J01-6) 현재 휴대폰(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

- ① 있음(스마트폰)
- ② 있음(2G폰, 피쳐폰)
- ③ 없음

[미디어 이용시간]

J01-7)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지난 일주일간 1일 평균 몇 시간 몇 분 사용합니까? (3시간일 경우 3시간 00분으로 기입, (분)은 10분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구 분	전혀 안함	시간
1) 학습(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①	()시간 ()분
2) 정보 검색(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①	()시간 ()분
3) 게임	①	()시간 ()분
4)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단, 게임과 SNS 제외 주의	①	()시간 ()분
5)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①	()시간 ()분

총계 1일 평균 ()시간 ()분

→ 합계가 0이거나 8 이상일 경우 경고 팝업

- a. 시간범위 0~12, 단 총계가 24를 넘을 수 없음
- b. 분은 10 단위로 입력(0~50)
- c. '전혀 안함' 선택 시 0시 0분 자동입력

[스마트폰 중독_자가진단]

J01-8)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 a. J01-6=1(스마트폰 있음) 응답자만 진행

**다음부터는 학기 중의 해당요일에 대해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방학 중 응답하는 경우 '종업식 전 주'의 해당요일을 화상하며 응답해 주세요.**

[기상/취침 시각_주중(생선변수:수면시간), 기상/취침 시각_주말(생선변수:수면시간)]

J01-9)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저녁9시 → 21시, 밤12시 → 0시)
-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00분, 30분만 입력 가능)

1) 주중 [자동구현] 요일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남	▶ 주중, 1일 수면시간 () 시간
2) 주말 [자동구현] 요일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남	▶ 주말, 1일 수면시간 () 시간

- a. 잠드는 시간 범위: 19~23, 0~4
- b. 깨는 시간 범위: 4~12
- c. 분은 0, 30만 입력 가능
- d. 산출된 1일 수면시간도 화면에 구현

[학교 재학 여부]

J01-10)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학교에 다니고 있음 *대안학교 포함
- ② 아니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일과 활동 시간_주중]

■ 주중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1-11)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기입해 주세요.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안 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
	12-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시간
	12-2)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교제	()시간
	13) 애완동물(반려)동물 돌보기	()시간
14) 종교 활동	()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시간
	17) 기타 시간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24시간

- a. 수면시간은 J02-10 주중 수면시간 산출값 자동입력
 b. 0 입력 불가 항목: 1), 2), 3), 16). 단, J02-11=2일 경우 16)은 0 입력 가능
 c. 합계 자동 구현, 합계가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 진행

[독서량]

J01-13)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 e-book, 학습 만화 포함
- '2주에 1권을 읽는 경우 '0.5'로 입력해 주세요'

- ① 안 읽음
- ② 1주일에 평균()권을 읽음

a. 범위 0.5~70

[실외 신체활동, 실내 신체활동]

J01-14) 지난 7일 동안 실내외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	---

-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취미 여부]

J01-15) 현재 취미가 있습니까?

- 악기, 운동도 포함하지만, 전공/선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취미가 아닙니다.
- 킬링타임용(미디어 이용 등) 행동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 ① 있다 → J01-15-1)로
- ② 없다 → J01-16)으로

[취미 종류]

J01-15-1)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노래, 악기 연주
- ② 운동/스포츠, 댄스
- ③ 웹툰 포함한 그림그리기
- ④ 영상제작 (YouTube 영상 포함)
- ⑤ 독서 (e-book 포함)
- ⑥ 관람 및 감상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가사 참여]

J01-16) 다음은 가사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①	②	③	④
2)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①	②	③	④
3)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①	②	③	④
4)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①	②	③	④

[비속어 사용]

J01-17)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예) 존나, 새끼, 개XX, 브딱이, 현피뜨다, 씹기능 등의 비속어

-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가끔 사용한다
- ③ 자주 사용한다
- ④ 매일 사용한다

a.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학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 성취도]

J02-1)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은 어떠합니까?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과목	A	B	C	D	E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과목	A	B	C
음악	①	②	③
미술	①	②	③
체육	①	②	③

a. J01-10=1(학교 다님) 응답자만 진행

[과목 선호도]

J02-2)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 ① 국어 | ② 영어 | ③ 수학 |
| ④ 사회(역사 포함) | ⑤ 과학 | ⑥ 도덕 |
| ⑦ 기술, 가정 | ⑧ 음악 | ⑨ 미술 |
| ⑩ 체육 | ⑪ 정보 | ⑫ 진로 |
| ⑬ 한문 | ⑭ 제2외국어 | ⑮ 기타 () |

[학업 스트레스]

J02-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학습]

J02-4)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나 시간에 공부하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번갈아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사교육 참여 여부]

J02-5)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습니까?

(방과후 학교, 또는 지역 아동센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J02-6)으로
- ② 아니오 → J03-1)으로 갈 것

[사교육 참여 개수]

J02-6)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까? 종합반의 경우, 과목 개수로 넣어주세요.

()개

a. 범위 1~30

[사교육 참여 정도 적절성]

J02-7)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적은 편
- ② 적당한 편
- ③ 많은 편

[사교육 부담 정도]

J02-8)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J02-9)로
- ②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 J02-9)로
- ③ 보통이다 → J02-9)로
-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 J02-8-1)로
- ⑤ 매우 부담스럽다 → J02-8-1)로

[사교육 부담 이유]

J02-8-1) 학원/과외에 대해 어떤 점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점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
- ②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 ③ 학원/과외에서 내주는 과제(숙제)가 너무 많아서
- ④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거리가 멀어서)
- ⑤ 학원/과외비가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까봐
- ⑥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 ⑦ 기타 ()

[사교육의 효과 인식]

J02-9) 사교육이 나의 실력(성적, 능력, 솜씨, 기술 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다음은 정서 및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자아존중감_초등~]

J03-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서 좋은 면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자아탄력성]

J03-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1)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관찮아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자율성]

J03-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압박감에 시달린다	①	②	③
2)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 나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4)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답게 살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5)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전반적 행복감]

J03-4)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 하다
1) 나는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a. 5)의 경우, J01-10=1(학교 다님) 응답자만 진행

[우울]

J03-5)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② 가끔 있었다'는 1일 초과~2일 이하입니다.

문 항 내 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2)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3)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5) 즐겁게 지냈다	①	②	③	④
6)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9)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이성관계]

J03-6)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 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또래애착]

J3-7)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7)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학교적응_중고등학교]

J03-8)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감]

J3-9)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놀자고 먼저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고통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누군가 곤란에 처해있을 때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시무룩해있는 친구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폭력 피해(온/오프)]

J03-10)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다른 학생(친구)이 나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온라인 상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학교 밖의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폭력 가해(온/오프)]

J03-1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친구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친구를 의도적으로 혼자 남겨두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두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 목적으로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같은 것을 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돈이나 다른 물건들을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친구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그 친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누군지 모르게 하여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학교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 밖의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사이버 비행 인식]

J03-12)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문제되는 편이다	매우 문제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①	②	③	④	⑤
3)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5) 불건전한 정보(폭력적, 성적인 내용, 자살 등)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6)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진로진학 및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학 유형]

J04-1)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 | | | |
|-------------------|------------|------------|
| ① 일반고 | ② 특성화고(직업) | ③ 특성화고(대안) |
| ④ 과학고 | ⑤ 영재학교 | ⑥ 예술고 |
| ⑦ 외국어고 | ⑧ 체육고 | ⑨ 국제고 |
| 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 ⑪ 자율형 공립고 | ⑫ 자율형 사립고 |
| ⑬ 해외 유학 | ⑭ 진학계획 없음 | ⑮ 잘 모르겠음 |

[진로성숙도]

J04-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5)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진로진학활동]

J04-3) 자신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험 여부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등)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 조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상급학교 방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상급학교 입시 설명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대중매체(TV, 신문 등)를 통한 정보 습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a. J04-3-1=1인 항목만 J04-3-2 진행

[미래희망직업]

J04-4) 어떤 직업을 가장 원합니까? 가장 원하는 직업과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을 적어주세요. (2순위 필수 입력)

원하는 직업 **1순위** , 원하는 직업 **2순위**

-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응답 예시 : 교사, 요리사, 성악가, 작곡가, 은행원, 생물학자, 경찰관, 운동선수,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직업선택조건]

J04-5) 어떤 직업을 갖기 희망합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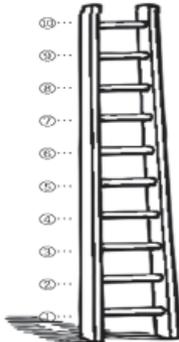
1순위

2순위

- ① 사회 및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
- ② 미래에 유망하다고 알려진 직업
- ③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
- ④ 나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 ⑤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
- ⑥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 ⑦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 ⑧ 안정적인 직업
- 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
- ⑩ 취미/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업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아동)]

J04-6) 귀 가정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1 : 매우 못 산다, 10 : 매우 잘 산다)



[가구의 경제적 걱정 빈도]

J04-7) 가족들이 돈 문제로 걱정을 자주 합니까?

-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 ② 가끔 걱정함
- ③ 자주 걱정함
- ④ 항상 걱정함

[용돈 지급 여부]

J04-8) 용돈을 받습니까?

- ① 받지 않음 → J04-9)로
- ② 필요할 때마다 받음 → J04-8-1)로 갈 것
- ③ 정기적으로 받음 → J04-8-1)로 갈 것

[용돈 지급액]

J04-8-1)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11,400원은 11,000원, 11,500원은 12,000원입니다.

‘ 일주일에 ()원

a. 범위 1,000~150,000

[용돈 사용처]

J04-8-2)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2개를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저축
- ③ 간식 및 군것질하기(식사포함) ④ 교통비
- ⑤ 음악, 게임, 팬덤활동 등 문화생활 ⑥ 의류 및 화장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결혼관]

J04-9) 미래에 결혼할 생각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자녀관]

J04-10)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성취압력]

J05-1)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애착]

J05-2) 먼저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시나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종단값(종단6)이 5)사별, 6)이혼, 7)별거일 경우 "9. 해당없음" 보기 추가

[부모애착]

J05-3)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시나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어머니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종단값(종단7)이 5)사별, 6)이혼, 7)별거일 경우 "9. 해당없음" 보기 추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J05-4)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 감독]

J05-5)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합리적 설명]

J05-6)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아동학대]

J05-7)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 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 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아동학대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앱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
전화·문자 상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콜 112'
·아동학대 전화·문자 상담: 182

다음은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체적 자아상]

J06-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J06-2)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J06-3)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 J06-3-1로
-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J06-3-1로
-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 J06-4로
-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 J06-4로

[체중조절 방법]

J06-3-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운동
- ②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식단조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섭취량을 줄임)
- ③ 결식 (식사를 거름)

- ④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
- ⑤ 원푸드 다이어트 (포도, 우유, 감자, 고구마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
- ⑥ 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 (한약 포함)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차 성징]

J06-4)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 ① 예 → J06-4-1)로
- ② 아니오 → J06-5)로

a. 구현값 확인 후 skip(중단4)

[2차 성징]

J06-4-1)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시작 년도 ()년
- ② 작년 응답과 동일함

a. 구현값 확인 후 skip(중단5)
a. 범위 2015~2023

[체중]

J06-5) 나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2022년 측정 몸무게 : ()kg

- ① 몸무게 미계측
- ② 계측 몸무게()kg

a. 종단값 제시(중단1)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50~150
d. 22년도 체중 < 21년도 체중 → J06-5-1)로

J06-5-1)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 ② 다이어트
- ③ 기타(적을 것 :)
- ④ 전년도 오류(전년도 몸무게 : kg)
- ⑤ 전년도 오류. 몸무게 알 수 없음
- ⑥ 올해 몸무게를 잘못 입력함 → J06-5)로

a. 재입력한 전년도 몸무게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J06-8) 신체계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택해 주세요.

	조사원이 직접 계측	아동이 스스로 직접 계측 후 입력	아동이 과거에 계측한 수치 입력	미계측
체중	①	②	③	④
신장	①	②	③	④
허리둘레	①	②	③	④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16차년도(2023년 조사) 보호자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3 (보호자용)

Gallup
2023-211-019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D01-1) 조사 날짜는?

()월 ()일

D01-2) 아동 이름이 맞습니까?

아동 이름 : _____

① 맞음 → D01-3-1)으로

② 틀림 → (실제 이름 : _____) → 기입 후, → D01-3)으로

a. 구현값 제시(종단1)

D01-3)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 응답 후, → D01-3-1)으로

- ① 개명
-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 ④ 기타(적을 것: _____)

D01-3-1) “아동” 성별이 _____ 가 맞습니까?

- ① 맞음
- ② 틀림

a. 구현값 제시(종단2)

D01-3-2) “아동” 출생월일이 _____ 월 _____ 일이 맞습니까?

- ① 맞음
- ② 틀림 → (실제 출생월일 : _____ 월 _____ 일) → 기입 후, → D01-4)으로

a. 구현값 제시(종단3)

D01-4)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할머니
- ④ 할아버지
- ⑤ 기타 친인척 (직접 입력 : _____)

D01-5)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1) 응답자 성명:(_____)

① 맞음 → 2)~4) 응답 후 → D01-6)으로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하고, → 2)~4) 응답 후 → D01-5-5)로

2) 집 전화:(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집 전화 없음

3) 어머니 휴대폰:(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4) 아버지 휴대폰:(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a. 구현값 제시(종단4-8)
b. D01-4=1이면 D01-5-1에 종단4(어머니 이름) 제시
D01-4=2면 D01-5-1에 종단5(아버지 이름) 제시
D01-4)2면 D01-5-1 응답자 이름 직접입력

D01-5-5)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a. D01-4=1, 2 AND D01-5-1=2일 경우만 진행
b. D01-4)2일 경우 D01-5-5 skip

D01-6) 귀댁의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a. 구현값 제시(중단10)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D01-7) 귀택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 OO(이)가 태어난 이후가 아닌, 아래 지난 주소지 이후의 이사 횟수를 의미합니다.

▶ 2022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총 이사 횟수 (_____) 회 → D01-8)로

② 이사하지 않음 → D01-9)로

a. 구현값 제시(중단11)
b. 이사 횟수 범위 1-5

[이사 사유]

D01-8) 귀택이 이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환경(주택,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②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③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④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⑤ 집값 부담 때문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패널아동의 조부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 수(생성변수: 가구원 수), 출생순위]

D01-9) 귀택의 가구 구성원 수 및 OO(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등은 가구 구성원에 포함함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가구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음)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도우미 등)

구분	▶ 총 가구원 수 (_____)명
1) 총 자녀수	(_____)남 (_____)녀 ⇒ 총 (_____)명
2) ○○(이)의 출생순위	(_____)
3) ○○(이)의 부모	① 어머니 ② 아버지
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① 친할아버지 ② 친할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_____)명
6) 기타(적을 것 : _____)	(_____)명

a. 구현값 제시 - 구현값 수정 불가
 b. 2) 출생순위 수정 시 - D01-9-1)로
 c. 3), 4)는 복수선택
 d. 부모 및 조부모의 선택한 개수를 숫자로 환산하여 총 가구원 수 구현(1)-6) 합산)

D01-9-1) ○○(이)의 출생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수 및 출생순위 잘못 응답 - D01-9)로
- ② 순위형제 사망
- ③ 순위형제 입양
- ④ 재혼으로 인한 형제순위 변동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성별]

D01-10)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첫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두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세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네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a. 구현값 확인 후 skip(중단13)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1990~2008
 c. 출생년도 동일자가 있을 경우 경고 팝업: "출생년도가 동일한 자녀가 있습니다. 응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패널아동의 동생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동생 성별]

D01-11)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동생 1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2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3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4	(_____)년도	① 남 ② 여

a. 구현값 확인 후 skip(중단14)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2008~2023
 c. 출생년도 동일자가 있을 경우 경고 팝업: "출생년도가 동일한 자녀가 있습니다. 응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01-12) ○○(이)는 다둥이입니까?

- ① 예 → D01-12-1)로 ② 아니오 → D01-13)으로

D01-12-1) ○○(이)의 다둥이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쌍둥이 ② 세쌍둥이 ④ 네쌍둥이 이상

[동거 여부]

D01-13)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a. D01-4=1, 2일 경우만 진행
 b. [D01-13]에 ①로 응답 시 → D01-14)로
 c. ②선택 시, 해당 분류만 → D01-13-1)로

[비동거 이유]

D01-13-1)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의무)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

[반려동물 여부]

D01-14) 귀 댁에서는 애완동물(반려동물)을 키웁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키우지 않음
- ② 개
- ③ 고양이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a. ① 응답 시 타 보기 선택 불가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D01-15)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 ② 아니요, 개인 방이 없음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5)

※ 다음은 ○○(이)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a. D01-4)2일 경우, D01-16 ~ D01-20 skip

[결혼상태]

D01-16) ○○(이)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어머니	① 결혼한 적 없음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2) 아버지	① 결혼한 적 없음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a. D01-9-3에서 선택한 사람만 제시(어머니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제시)
 b. D01-9-3에서 1개만 선택했을 경우, ①결혼한 적 없음,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만 제시
 c. D01-9-3에서 2개 선택했을 경우, ②유배우-초혼, ③유배우-재혼, ④동거(사실혼 포함)만 제시
 d. ①결혼한 적 없음, ④동거,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1-18로 이동

[결혼일(생성변수: 결혼상태 유지기간)]

D01-17)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기념일은 언제 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생년월일(생성변수: 연령)]

D01-18) ○○(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 어머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2) 아버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a. 구현값 확인 후 skip(중단20)
 b.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최종학력]

D01-19)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1) 어머니	① 무학 ③ 중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
2) 아버지	① 무학 ③ 중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

- a. 기존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1)
 b.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c. 최종학력이 낮아졌을 경우, → 팝업 "지난 조사보다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애 유무]

D01-20)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1) 어머니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a.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다음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소득]

D02-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 소득: 근로, 사업, 금융,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 소득 (_____) 만원

- a. 한글 금액 구현
- b. 범위: 0-9,000
- c. 가구 소득 = 0, → 팝업 "귀댁은 지난 1년 동안 가구 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d. 23년 실수령 가구 소득 < (22년 실수령 가구 소득*3) or 23년 실수령 가구 소득 < (22년 실수령 가구 소득*1/3), → 팝업 "귀댁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취시를 누르고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구의 소비성 지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패넬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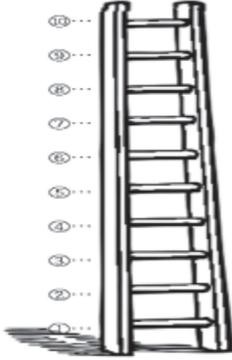
D02-2)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비소비성 지출: 세금(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소득세+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은 제외됨), 과태료, 연금, 적금, 보험료, 대출이자, 다른 가구(부모, 친척 등)에 지출하는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2)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소비성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오락·문화, 외식·숙박, 이비용 비용 등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 가구 총 지출 비용	(_____) 만원 (자동계산)

- a. 23년 비소비성 지출 < (22년 비소비성 지출*3) or 23년 비소비성 지출 < (22년 비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비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b. 23년 소비성 지출 < (22년 소비성 지출*3) or 23년 소비성 지출 < (22년 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c. 실수령 가구 소득(D02-1) < 가구 총 지출 비용, → 팝업 "귀댁의 총 지출 비용이 실수령 가구 소득보다 많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보호자)]

D03-3-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보호자)]

D03-3-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다음은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_보호자 인식]

D03-1)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 ③ 보통임
- ④ 건강한 편임
- ⑤ 매우 건강함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이유]

D03-2)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_____)
- ② 치료 경험 없음

[입원 치료 여부, 입원 치료 이유]

D03-3) ○○(이)는 지난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입원한 적 있음(이유: _____)
- ② 입원한 적 없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D03-4) ○○(이)는 현재 아래의 장애유형 중에 판정받은 장애가 있습니까?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여부 및 정도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여부 및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없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없음
1) 지체장애	①	②	③	9) 간장애	①	②	③
2) 뇌병변장애	①	②	③	10) 호흡기장애	①	②	③
3) 시각장애	①	②	③	11) 장루, 요루장애	①	②	③
4) 청각장애	①	②	③	12) 간질장애	①	②	③
5) 언어장애	①	②	③	13) 지적장애	①	②	③
6) 안면장애	①	②	③	14) 정신장애	①	②	③
7) 신장장애	①	②	③	15) 자폐성장애	①	②	③
8) 심장장애	①	②	③	16) 기타 (적을 것: _____)	①	②	③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4)

[만성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만성 질환별 병원치료 여부]

D03-5) 다음 중 ○○(이)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최초 진단일과 지난 1년간의 병원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환 유형	1) 현재 질환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 여부
1) 선천성 심장질환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2) 간질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3) 당뇨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5) 만성 중이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6) 만성 요로감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7) 천식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8) 만성 비염(알레르기성 포함)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9) 아토피 피부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0) 식품알레르기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1) 알레르기 결막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2) 기타 질환(적을 것:)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3
 - 월: 1~12

[심리사회적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심리사회적 질환별 병원치료(또는 상담) 여부]

D03-6) 다음 중 ○○(이)에게 현재 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의 최초 진단일과 지난 1년간의 병원치료 또는 상담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 유형	1) 현재 장애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또는 상담) 여부
1) 의사소통 장애(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4) 특정 학습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6)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7) 배설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8) 급식 및 섭식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9) 불안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공포증)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0) 기타 장애(적을 것:)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3
 - 월: 1-12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D03-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예, 안경 착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_____ 세)
- ② 예, 시력교정도구(일반 렌즈, 드림 렌즈 등)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_____세)
-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a. 선택 범위 적용: 0~14
 b.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7)
 - 구현값 수정 가능
 c. ①, ②항목은 중복응답 가능

[가족과의 식사 횟수]

D03-8)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 ① 거의 안함
- ② 주 1~2회
- ③ 주 3~5회
- ④ 주 6~7회
- ⑤ 주 8회 이상

[활동별 참여 빈도]

D03-9)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달은 4주 기준임
-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구분	① 참여안함	② 1년에	③ 한 달에	④ 일주일에
1) 장보기 및 쇼핑	_____	()회	()회	()회
2) 친인척 방문	_____	()회	()회	()회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_____	()회	()회	()회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_____	()회	()회	()회
5) 해외 여행 및 연수	_____	()회	()회	()회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_____	()회	()회	()회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_____	()회	()회	()회
8) 봉사활동	_____	()회	()회	()회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카우트 등)	_____	()회	()회	()회
10) 친구와의 사교활동(친구집 방문, 놀기 등)	_____	()회	()회	()회

a. 입력 가능 범위 - ②1년에 : 1~365 - ③한달에 : 1~30 - ④일주일에 : 1~7
 b. 각 행의 ②~④ 항목간에는 중복 불가

[미디어 기기 중독_부모진단]

D03-10) 다음의 문장을 읽고 ○○(이)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귀하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 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①	②	③	④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부모 감독]

D03-1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OO(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OO(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OO(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OO(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안다	①	②	③	④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D03-12) 다음은 OO(이)에 대한 귀하의 학업적/교육적 지원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공부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성적관리에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다음은 OO(이)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재학 여부]

D04-1) OO(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 *대안학교 포함 → D04-4)로
- ② 아니요, 다니고 있지 않음 → D04-2)로

[학교 행사 참여 여부 (부모)]

D04-10)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귀하는 올해 상반기 중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구 분	전혀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1) 자녀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총)회 등)	①	②	③	④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①	②	③	④
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①	②	③	④
6) 진학설명회	①	②	③	④
7) 기타 학교방문	①	②	③	④

[학교 서비스 만족도]

D04-11)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기초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급식	①	②	③	④	⑤
5) 안전관리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①	②	③	④	⑤
7) 인성지도	①	②	③	④	⑤
8)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①	②	③	④	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학업성취도_보호자]

D04-12) ○○(이)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은 어떠합니까?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과목	A	B	C	D	E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과목	A	B	C
음악	①	②	③
미술	①	②	③
체육	①	②	③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중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외 교육관련 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서비스 이용 종류,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

D05-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학원〉

- 학원(단과반,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종합반(연합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은 전체 비용이 아닌 과목별로 나눈 것을 적어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학원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과외〉

- 과외(개인/그룹 과외)의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두 가지 이상 과외(개인/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습지〉, 〈인터넷/화상강의〉

- 학습지 과외의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 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 그룹 지도 (과외)	학습지 (방문 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논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컴퓨터, 코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기타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기타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기타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 같은 행에서 ①은 다른 응답과 중복 불가
 b. ②~⑧에 한가지라도 선택된 항목만, D05-2~D05-6 구현
 c. 1)~12)에 모두 ①로 응답된 경우, Go D06-1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 다음은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05-2) 학원

D05-3)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D05-4) 학습지(방문교사)

D05-5) 인터넷/화상강의

D05-6) 기타(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 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 입력범위
 - 시간: 0.5-20
 - 비용: 0-500
 b. D09-1 응답값에 따라 해당하는 과목/서비스 반복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D05-7) OO(이)가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교육서비스 교재비]

D05-8) OO(이)가 구매하는 교재비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사교육 및 개인학습을 위한 문제집 포함)

월 평균 교재비()만원

a. 입력범위 0~200

다음은 지역사회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환경 안전성]

D06-1)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를 의미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해시설(유형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D06-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⑥ 이용 안함	① 전혀 만족 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 하지 않음	③ 보통 임	④ 대체 로 만족 함	⑤ 매우 만족 함
1) 공간시설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 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 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4) 의료시설 (보건소,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복지 시설 (가족센터(구 건강기정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D06-3) 현재 귀 닻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해당없음
- ④ 잘 모름
- ⑤ 무응답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함.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됨.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D06-4) OO(이)는 지난 1년간 아래 제도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류	지원경험 있음	지원경험 없음	잘 모름	무응답
1)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2) 교육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①	②	③	④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로 지급)를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시도별 상이하나, 통상 중위소득 50-80%이하 초중고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인터넷 등을 지원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중1~고3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 우수학생 등에게 월25~45만원의 장학금(학교급, 유형별 차등) 지급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이 계좌에 일정금액 적립시 국가가 이에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하는 사업. 기 가입자 중 탈시설, 탈수급한 일반가구의 아동에게도 계속 지원함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

D06-5) 우리나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 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 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 ④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 ⑤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 ⑥ 진로교육 강화
- ⑦ 수업방식의 다양화
- ⑧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D06-6)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5년 후에는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16차년도(2023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3 (어머니용)

Gallup
2023-211-019

--	--	--	--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 월 _____ 일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조사종료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삶의 만족도]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 ③ 보통임
- ④ 만족하는 편임
-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 ② 별로 받지 않음
- ③ 약간 받음
- ④ 많이 받음

[우울]

문4)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에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결혼만족도]

문5)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6)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스트레스(13차~)]

문7)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취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4)로 갈 것**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21)로 갈 것**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4)로 갈 것**
- ④ 미취업/미학업 → **조사종료**

[재직 상태]

문14) 현재 귀하는 휴직 중이십니까?

- ① 아니오
- ② 예(휴직 중)

다음은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종]

문15)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업예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차·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문16)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근로시간]

문17)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최근 일주일의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휴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그 전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시간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21)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5.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3 (아버지용)

Gallup
2023-211-019

--	--	--	--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문2) 귀하의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 ③ 보통임
- ④ 만족하는 편임
-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 ② 별로 받지 않음
- ③ 약간 받음
- ④ 많이 받음

[우울]

문4)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에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결혼만족도]

문5)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항내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6)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양육 스트레스(13차~)]

문7)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문8)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 ③ 보통임
- ④ 건강한 편임
- ⑤ 매우 건강함

다음은 귀하의 취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4)로 갈 것**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21)로 갈 것**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4)로 갈 것**
- ④ 미취업/미학업 → **조사종료**

[재직 상태]

문14) 현재 귀하는 휴직 중이십니까?

- ① 아니오
- ② 예(휴직 중)

다음은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종]

문15)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업예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마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문16)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근로시간]

문17)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최근 일주일의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휴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그 전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시간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21)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학교 풍토_교사]

L01-5)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교사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2) 교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	①	②	③	④
3) 학교 제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①	②	③	④
4)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학교 풍토_학생]

L01-6)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학교에 대한 자부심	①	②	③	④
2)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①	②	③	④
3)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4) 학업성취를 높이하고자 하는 의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①	②	③	④

[학교 풍토_학부모]

L01-7)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부모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①	②	③	④
2)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①	②	③	④
3) 학교 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①	②	③	④

[학생 비행]

L01-8) 다음 각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 환경]

L01-9)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 성별]

L02-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 ② 남

[교사 연령]

L02-2)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____)세

[교사 최종학력]

L02-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졸 이하 ② 석사 졸업 ③ 박사 졸업

[교사 경력]

L02-4)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교사 근무 시간/근무 일]

L02-5)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주중 1일 평균 ()시간 ()분 근무

[교사 담당과목]

L02-6)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국어 | ② 영어 | ③ 수학 |
| ④ 사회(역사 포함) | ⑤ 과학 | ⑥ 도덕 |
| ⑦ 기술,가정 | ⑧ 음악 | ⑨ 미술 |
| ⑩ 체육 | ⑪ 정보 | ⑫ 진로 |
| ⑬ 한문 | ⑭ 제2외국어 | ⑮ 기타() |

[업무 스트레스]

L02-7)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교사효능감]

L02-8) 다음은 교사로서의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생활지도를 할 때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과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아동 관계]

L03-1)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나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칭찬을 하면, ○○(이)는 부끄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OO(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OO(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OO(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 대한 OO(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OO(이)는 나를 영악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OO(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OO(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L04-1) OO(이)의 보호자는 학교 행사(참관수업, 학부모 총회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의 학교 상담 참여 정도]

L04-2) OO(이)의 보호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기 상담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의 학교 생활 관심 정도]

L04-3) OO(이)의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다음은 ○○(이)의 체력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력검사 결과(PAPS)]

L05-1) 지금부터 나이스(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응답받고자합니다. 현재 나이스(NEI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의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의 PAPS 기록 없음 → 조사종료
- ② ○○(이)의 PAPS 점수 및 등급을 모두 볼 수 있음 → L05-2-1)로 이동
- ③ ○○(이)의 PAPS 점수만 볼 수 있음 → L05-2-1)로 이동
- ④ ○○(이)의 PAPS 등급만 볼 수 있음 → L05-2-2)로 이동

[체력검사 결과(PAPS)]

L05-2-1)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점수	()점

[체력검사 결과(PAPS)]

L05-2-2)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등급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⑤ ○○(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⑥ (○○(이)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아파서
- ⑦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조사참여가 꺼려져서
- ⑧ 가정불화 등으로 조사참여가 어려워서
- ⑨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서
- ⑩ 기타 (입력 : _____)

[아동의 재학여부]

4) ○○(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대안학교 포함

- ① 예 --> 4-1)로 이동
-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4-1) ○○(이)의 소속 학교와 학년은 어떠합니까?

() 학교 () 학년

회고조사 - 보호자용

[마지막 조사참여 연도]

1) 귀하가 마지막으로 조사에 참여한 연도는 **0000년**입니다.

[조사참여 중단 이유]

2)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호자, 부모가) 너무 바빠 시간이 안 나서
- ② 조사내용, 소요시간, 조사기간 등으로 조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 ③ ○○(이)가 학업으로 바빠서
- ④ ○○(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⑤ ○○(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⑥ (○○(이)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아파서
- ⑦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조사참여가 꺼려져서
- ⑧ 가정불화 등으로 조사참여가 어려워서
- ⑨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서
- ⑩ 이사,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⑪ 기타(적을 것 : _____)

[패널아동의 학교재학]

3) 2015년 초등입학 시기 이후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계속 학교에 다녔다(대안학교 포함) --> 조사 종료
- ② 학교에 다니지 않은 적이 있었다 --> 4)로 이동

4)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시기별로 그 이유 및 학교 대신 이용한 기관을 응답해주시시오.

4-1) 학교에 다니지 않은 시기	4-2)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유	4-3) 학교 대신 이용한 기관
()년 ()월 ~ ()년 ()월	① 학교부적응(학업 부진, 대인관계, 교칙 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이용한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 (적을 것 : _____)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